

농산어촌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방안

2006. 11.



농림자료실



0002020

강원대학교 · 농림부

농산어촌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방안

2006. 11.

2006-202

농 립 자 료 실
등록번호: 2020
등록일: 2007년 10월 17일

강원대학교 · 농림부

제 출 문

본 유인물을 “농산어촌지역 커뮤니티센터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1.

연구책임자

강원대학교 교수 김종섭

공동연구원

전주대학교 교수 송광인

충북개발연구원 박사 원광희

연구보조원

강원대학교 김하나

증양대학교 박상원

전주대학교 김재선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3
2.1 연구내용	3
2.2 연구방법	6
3. 선행연구 동향	8
II.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역할 및 과제	13
1. 지식사회의 도래와 평생학습의 필요성	13
2. 고령화 사회와 평생학습의 필요성	14
2.1 고령화 사회의 평생교육	14
2.2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20
2.3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정책	21
III. 평생교육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27
1. 평생교육훈련 관련제도 및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27
1.1 평생교육의 제도적 장치	27
1.2 평생교육기관의 분류방법 및 기준	29
2. 한국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현황	31
2.1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31
2.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38
2.3 학원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역할과 현황	45
2.4 학교의 평생교육 현황과 문제	52
2.5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현황과 발전방향	60
IV.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실태	79
1. 평생학습도시의 배경	79
2. 한국의 평생학습도시의 추진 현황과 과제	81
2.1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추진배경	81
2.2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	83

3. 외국의 학습도시 조성 사례	116
3.1 OECD의 학습도시 사례	117
3.2 영국의 학습도시 사례	124
3.3 호주의 학습도시 사례	131
3.4 독일의 학습도시 사례	136
3.5 일본의 학습도시 사례	138
V.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 기능시설의 실태 및 문제점	153
1. 사회 및 행정환경의 변화와 커뮤니티센터의 필요성 대두	153
2.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현황과 과제	155
2.1 주민자치센터의 조성목적	155
2.2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현황	158
2.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형	166
3. 커뮤니티센터 기능시설의 운영 및 문제점 : 사례지역 중심	169
4. 농산어촌주민 교육 현실과 문제점 : 사례지역 중심	182
5. 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199
6. 해외 커뮤니티센터 사례	204
VI.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 개발	211
1.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개념과 기능	211
1.1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개념과 체계	211
1.2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기능과 역할	212
2. 농산어촌 교육사업과 농업인력 육성정책	215
2.1 농업인 인력육성 정책 경과	215
2.2 농업인 교육훈련의 추진 현황	217
2.3 농산어촌 교육사업 현황 분석	220
3. 커뮤니티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 개발의 전제	243
3.1 커뮤니티 센터 관련시설들의 종류와 구조	243
3.2 계층별 활동프로그램	245
3.3 기존 기능별 활동프로그램 현황	246
4. 모델개발을 위한 대안 분석	247
4.1 주민자치 프로그램	247

4.2 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	253
4.3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 체험프로그램 사례	257
5. 지역 특성별 커뮤니티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 개발	272
5.1 기본방향	272
5.2 농산어촌지역 프로그램 개발방향	273
5.3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형성	277
5.4 지역 특성별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 개발	279
VII. 요약 및 결론	329
참 고 문 헌	33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동향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국내 농산어촌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와 함께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산활동을 위한 서비스는 물론 편의와 복지에 대한 보다 높은 차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 농산어촌지역의 현실임.

■ 따라서 농산어촌지역의 인구유출과 저소득으로 인하여 농산어촌의 공동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리의 농산어촌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상황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별 농가인구비율(2003년)의 경우 19세 이하는 16% 정도에 불과한 반면 60세 이상 인구비율은 39%로 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도시지역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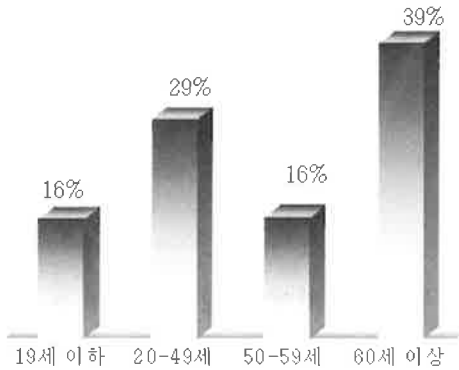
■ 한편 농가소득도 도시민 소득에 비하여 1990년의 97.4%에서 2003년에는 75.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미래는 더욱 격차가 커질 것으로 추정되며,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의 비중도 일본의 61.2%, 대만의 79.5%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 그러므로 농산어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계속하여 현재의 거주지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들 지역의 어려움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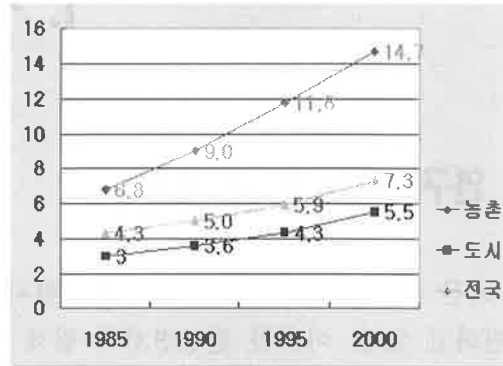
■ 이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면 행자부의 오지개발사업·도서종합개발사업,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사업,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사업,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전원마을조성사업 그리고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농산어촌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2 농산어촌지역 커뮤니티센터의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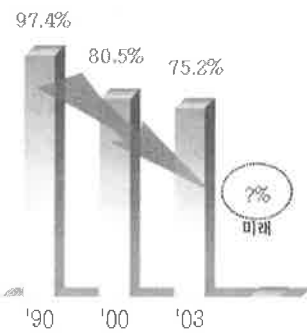
연령별 농가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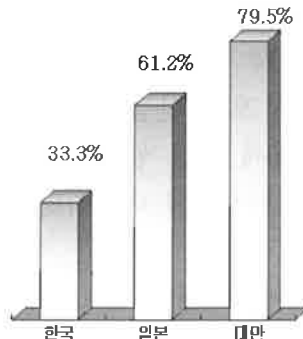
농촌과 도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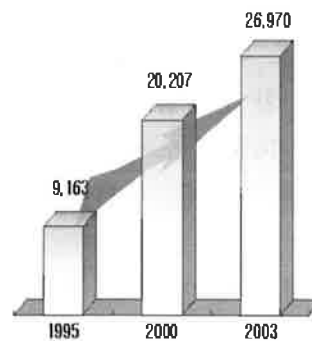
도시민 소득 대비 농가소득 추이



각국 농외소득 비교 (2002년)



농가 부채 추이(천원)



■ 이들 사업이 과거의 하드웨어적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도입되면서 농산어촌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한 곳에 집중시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단계까지는 접근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의 농산어촌지역의 일반적 경향임.

■ 따라서 농산어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령화 부녀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들 지역에 생산활동의 농촌문화 및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특화된 농산어촌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또한 농산어촌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 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농산어촌지역의 주민 편익 제고를 위해서 시급한 실정임.

■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맞는 연구가 수행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역할을 간략히 설명하고, 3장에서는 한국의 평생교육기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평생학습도시의 구성과 그 실태를 5장에서는 읍·면·동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6장에서는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지역특성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 순으로 연구내용을 구성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1) 농산어촌지역 사회의 평생교육 상황·환경, 지역주민 요구 분석

■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최근 수년간 진행되어 온 다양한 농산어촌지역 사회의 평생교육 상황·환경 사례를 수집하고 그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며 평생교육의 유형을 구분함.

■ 농산어촌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시스템을 보면 도시지역과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우선 교육의 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경우 도시지역 보다 농산어촌지역이 교육 대상자간 편차가 크고 대상의 수를 적정수준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음.

■ 특히 농산어촌지역은 농번기 때는 교육이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 도시지역과는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교육시간도 야간위주의 교육으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 농산어촌지역의 평

4 농산어촌지역 커뮤니티센터의 운영방안

평생교육내용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이뤄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기존의 평생교육시스템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농산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의 방향과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제시하도록 함.

■ 농산어촌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나 현지 관찰, 인터뷰 등을 병행하여 보다 질 높은 자료를 확보할 예정임.

2) 국내·외 농산어촌지역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 농산어촌지역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및 해외 사례들을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사례를 발굴하고 벤치마킹하여 연구에 활용할 것임.

■ 농산어촌지역 평생교육센터 운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정책적 배려와 농산어촌지역 평생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 구조를 분석할 것임.

■ 미국의 경우 커뮤니티 센터는 규모나 명칭 등에서 다양하고 소규모 지역단위로 배치되고 있으며 수(數)도 상당히 많음. 센터의 기본적인 서비스의 골격은 유사하나 세부내용과 진행방식은 지역마다 소득계층, 가족생활주기, 지역사회 규모, 주민의 수요 특성 등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

- 운영 주체는 정부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 조직인 민간기관이 정부와 서비스 구매 계약을 맺어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게 됨. 이는 정부와 민간 비영리조직간 파트너십 체제로 정부조직의 직접 운영에서 오는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빠르게 반응 할 수 있게 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함.

- 정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센터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수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커뮤니티 센터 자체 내에서 전체 수입의 50~60%는 다양한 사적인 기부금이나 이용료/회비,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미국의 커뮤니티 센터의 규모는 크고 높이는 낮은 편이나 대도시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시설은 그 규모가 작은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불편한 경우도 많음.

■ 해외의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센터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함.

3)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운영모델 제시

■ 기존의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과 역할을 파악하고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모델을 제시함.

■ 또한 기존의 커뮤니티 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점을 찾아서 향후 커뮤니티 센터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할 예정임.

4) 농산어촌지역 특성별 커뮤니티 센터의 평생교육프로그램 모델개발

■ 지역의 특성을 살린 커뮤니티 센터의 평생 교육적 프로그램 모델개발을 위해 공공부문의 제도적 기반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개선 사항 등을 제시하며

■ 커뮤니티 센터의 평생교육프로그램 모델개발의 구조와 특징을 탐색하고, 이것을 토대로 지역 특성별로 모델 유형을 제시할 예정임.

■ 평생교육은 세계적으로 1960년대 이후 지역단위의 학습활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미국과 영국의 지역사회학교 활동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새마을학교 혹은 지역사회학교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음.

■ 1970년대 후반부터는 자치단체 단위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 일본의 가께가와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음.

■ 1990년대부터는 국가 및 국제기구 단위에서 평생학습도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

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함. 1992년 고텐버그(Gothenburg)에서 개최된 OECD 회의가 도화선이 되어 175개 도시가 국제학습도시연합회를 결성하게 되었음.

■ 한국에서는 1994년 창원시에서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는 광명시가 한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정부는 평생교육의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여 2000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였으며,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정책으로 지역의 경제적 발전·사회적 통합·도시경영 합리화·학습공동체 형성 등이 기대되고 있음.

■ 정부가 지금까지 조성한 평생학습 도시 현황과 평생학습도시의 유형을 보면 크게 4개 정도로 구분됨. 이들 유형의 거의 대부분의 학습도시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도시지역의 유형도 농산어촌지역과는 거리가 먼 유형들로 형성되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평생학습체계가 도시지역 위주로 위치하고 있어 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편이며, 그 동안 농림어업 정부정책이 물리적 시설 위주로 투자가 시행되어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소외당해왔던 것도 이런 격차를 발생시킨 한 요인이 되었음.

■ 따라서 농산어촌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질 높은 평생교육체제의 혜택을 받고 농산어촌지역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평생교육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2.2 연구방법

1) 연구진행 방법

■ 농산어촌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수집 및 관련문헌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하며

■ 농산어촌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대표성 있는

활동사례들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며

■ 현재 커뮤니티 센터 성격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그리고 운영자의 수요를 파악함.

① 조사대상 선정

- 지역적 특수성이 연구에 포함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을 다음과 같이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첫째 유형은 전형적인 농촌, 어촌, 산촌지역의 특성이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가능하면 권역별로 1-2개 시설을 선택하며.

- 둘째 유형은 첫째 유형 중에서 관광성이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시설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함.

- 선정된 대상 시설 중에서 자연적 조건, 도시와의 접근성, 지역자원 보유량, 영농 유형, 인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센터의 지역주민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② 조사방법

- 농촌, 어촌, 산촌 등을 고려하여 각 유형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③ 분석방법

- 농산어촌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실태 분석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빈도분석, χ^2 분석, T-검증, ANOVA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할 것임. 통계분석 패키지로는 통계분석 전용 프로그램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SAS 및 SPSS를 활용할 것임.

- 커뮤니티 센터의 평생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위하여 커뮤니티 센터의 구조적 속성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활용도를 고려하여 중심성(centrality),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balance), 변이성(transitivity) 등을 분석하고 각각의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비교분석하기 위해 다차원 축척(multidimensional scaling) 분석을 하도록 함.

④ 조사내용

-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농산어촌지역 사회의 평생교육 상황, 환경, 지역주민 요구
- ▶ 국내·외 농산어촌지역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 ▶ 농산어촌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성과 분석
- ▶ 농산어촌지역에 맞는 맞춤형 평생교육 비전 및 활성화 방안 도출

2) 연구진 구성 및 조직체계

■ 농산어촌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 관한 연구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 현대적인 커뮤니티 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연구진을 구성하였음.

■ 연구책임자는 강원도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전주대학교 송광인 교수는 전북과 전남 등 호남지역의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원광희 박사는 충북, 충남 그리고 경기지역을 조사하여 이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연구 시스템으로 연구조직체계를 갖추었음.

3. 선행연구 동향

■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도농교육격차 해소 방안이나 정규 학교 교육 수준에서의 학생문제를 다루고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 특화형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도출이나 구체적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방안 등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애학습 차원에서의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이나 이를 위한 맞춤형 농산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는 시도된 바 없음.

■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연구보고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도입방안 연구”에서 시작되어 최근 학계,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실정임. 즉 주민자치센터 관련 연구를 주로 규범론적 접근을 통한 도입의 당위성, 운영의 활성화 등을 주장하는 규범적 연구와 사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는 실증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전자의 연구로는 김상영, 김진홍, 방홍순, 차성수, 권순복, 심익섭 등이 있으며, 후자의 연구로는 열린사회민연합, 정순관·조선일, 정일섭, 최근열, 강은숙, 조석주·박기관, 김필두 등이 있음.

■ 지역사례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연구(최근열, 2002; 정일섭, 2001; 박홍순, 2001; 김필두, 1998)와 운영과 관련된 활성화 연구(김환철, 2002; 심익섭, 2002; 조선일의, 2001; 장현일, 2001)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1999년 도시지역(도농복합시를 제외한 일반시 및 자치구)의 278개 동사무소에서 동 기능 전환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데 이어, 도시지역 전 동 사무소에 확대 적용하고 있음. 이러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열린시민사회연합이 주축이 되어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한 이론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열어 그 열기를 확산시켜가고 있음.

■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각 시·도별로 용역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개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도입과 관련한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열린시민사회연합, 1998)에 이어 지역사례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활성화 연구(최근열, 2002; 정일섭, 2001)와 운영과 관련된 활성화 연구(김환철, 2002; 심익섭, 2002; 조선일의, 2001; 장현일, 2001)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열(2003)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를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즉 주민자치센터기능의 재정, 사무 및 인력재조정을 통한 동행정의 대응성과 적실성 확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권한강화, 자원봉사자관리의 효율과 센터운영의 홍보활성화, 운영재원의 지속적 지원, 평가시스템과 환류체제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정일섭도 센터운영과 관련한 종합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홍보강화, 자치위원구성방법개선, 운영개선, 프로그램과 시설개선,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해소 등 종합적인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심익섭은 주민자치센터의 제도화과정을 제시하면서 기능전환 등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활성화방안으로 합리적 설치원칙을 제시하고 프로그램개선방향, 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민주적 구성, 재정건전화 및 적극적 홍보, 협력체계의 구축,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으로 육성하자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참여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연구자	조사 목적	조사 대상	조사방법	비고
최돈민 외 (1999)	-성인학습자의 요구와 기관운영의 합치여부	-20대 - 60대 성인 -일반인 2,141명 -학습자 1,569명	-조사기간: 명시되지 않음 -우편조사 및 방문조사	-기관운영자조사대상(384명)
정지선 외 (1999)	-성인교육기관 유형과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율 및 비용 분석	-25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총 344명	-조사기간: 1999.11.15 - 12.9	-지역적 특성 반영하여 표집
권두승 (1999)	-평생교육기관 실태파악 및 성인학습자들의 참여,비참여 관련 요인 분석	-18세 이상 성인 (초,중,고,대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총 760명	-조사기간: 1999.2.22 - 3.19 -학부모 조사	
양병찬 외 (2004)	-충남지역 평생교육 의식조사 및 실태파악	-충남지역 20세 이상 성인 거주자 -총 2,976명	-조사기간: 명시되지 않음 -1차 학부모조사 후 부족한 구분, 변인별 추가 설문조사	-지역조사
최돈민 외 (2004)	-국민의 평생학습 실천 현황과 평생학습여건 파악	-만 25세 - 64세 이하 일반 성인 남,녀 -총 3,000명	-조사기간: 2004.12.21 - 12.28 -1:1개발 면접조사	-전국조사 -시·도별,성별,연령별 구성비례

■ 그 외의 연구도 주로 제도적 측면에 대한 문제를 설문조사나 사례조사를 통해 실태 조사하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Ⅱ.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역할 및 과제

1. 지식사회의 도래와 평생학습의 필요성
2. 고령화 사회와 평생학습의 필요성

II.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역할 및 과제

1. 지식사회의 도래와 평생학습의 필요성

■ 오늘날 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문명사적 대전환을 통해 개인의 삶의 양식과 전 세계의 산업 및 고용 구조가 새롭게 변화되는 패러다임으로 흘러가고 있음.

■ 인류 문명은 물질과 토지가 가치의 중시되던 농경사회에서 벗어나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식과 정보가 권력과 부로 평가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새로운 상품이 출현하면 수 초만에 그 정보가 전세계로 전파되는 정보화가 토대가 된 지식기반사회는 이러한 지식들이 인간의 경험, 가치관, 다른 지식들과 결합되어 순식간에 더 창의적이고 더 가치 있는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되는 시대를 의미함.

■ 따라서 지식과 창의력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며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이를 리더 할 인적 자원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 지식기반사회는 인간과 교육이 중심이 되며 평생학습이 보편화되는 사회를 의미함.

■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의 보고서(Delors : 1997)에서 “평생학습”이 21세기의 핵심 개념으로 부각될 정도로 평생학습은 전세계적 관심 주제가 되고 있음. 1996년 OECD의 장관급 교육협의회 회장인 Simon Crean(호주 교육부 장관)은 “개인 삶의 풍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유지를 위해 평생학습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행할 전략과 보다 효율적인 기회제공의 방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 EU도 1996년을 “평생학습의 EU의 해”로 지정하여 비즈니스 유럽의 창조를 위해 평생학습을 주요 키워드로 삼고 있고, G7국가들 또한 평생학습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처럼 선진국들은 21세기의 경쟁력과 문화력을 통합적 운영 차원에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으며, 교육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에 대비하여 준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개혁의 세계적 방향은 평생학습체제 속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능력의 개발과 창의력의 신장 및 수요자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러한 세계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근 한국은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음.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1995.5.31)’에서 큰 틀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체제의 비전을 학습자(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 건설에 두고, 교육분야의 개혁과제를 의욕적으로 제시하였음.

■ 그 내용을 보면 열린 교육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도입,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시간제 학생 등록 실시,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욕구 수용, 원격교육 지원체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음(교육개혁위원회, 1995). 이러한 열린 평생교육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1999년 정부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전문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으로 공포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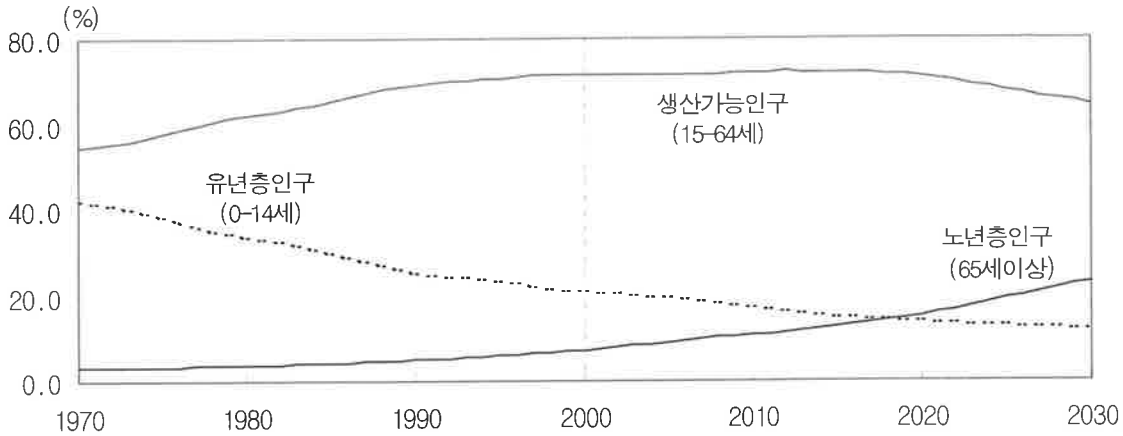
2. 고령화 사회와 평생학습의 필요성

2.1 고령화 사회의 평생교육

가. 한국의 고령화 실태

(1) 인구구조로 고령화

■ 2005년 현재 총인구 중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1%로 2004년 8.7%에 비해 0.4%p 증가하였고, 10년전인 1995년 5.9%에 비해서는 3.2%p 증가하였음, 한국은 지난 2000년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2.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표 2.2.1>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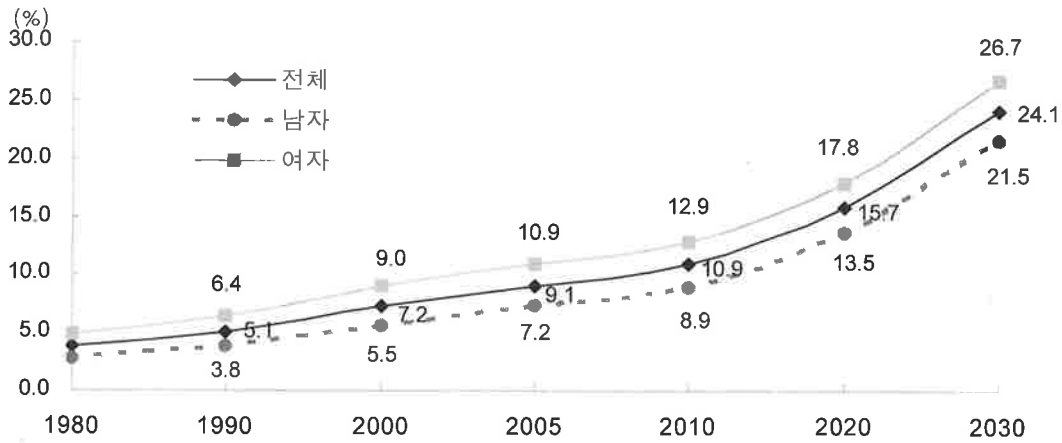
구 분	1980	1995	2000	2004	2005	2010	2018	2026
총인구	38,124	45,093	47,008	48,082	48,294	49,220	49,934	49,771
0~14세	12,951	10,537	9,911	9,417	9,240	8,013	6,495	5,796
15~64세	23,717	31,900	33,702	34,483	34,671	35,852	36,276	33,618
65세이상	1,456	2,657	3,395	4,182	4,383	5,354	7,162	10,35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34.0	23.4	21.1	19.6	19.1	16.3	13.0	11.6
15~64세	62.2	70.7	71.7	71.7	71.8	72.8	72.6	67.5
65세이상	3.8	5.9	7.2	8.7	9.1	10.9	14.3	20.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2) 성별 고령인구

■ 2005년 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자 7.2%, 여자는 10.9%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65세이상 인구의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인구)는 2005년 67.1로, 10년전인 1995년 59.1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남자 고령자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16 농산어촌지역 커뮤니티센터의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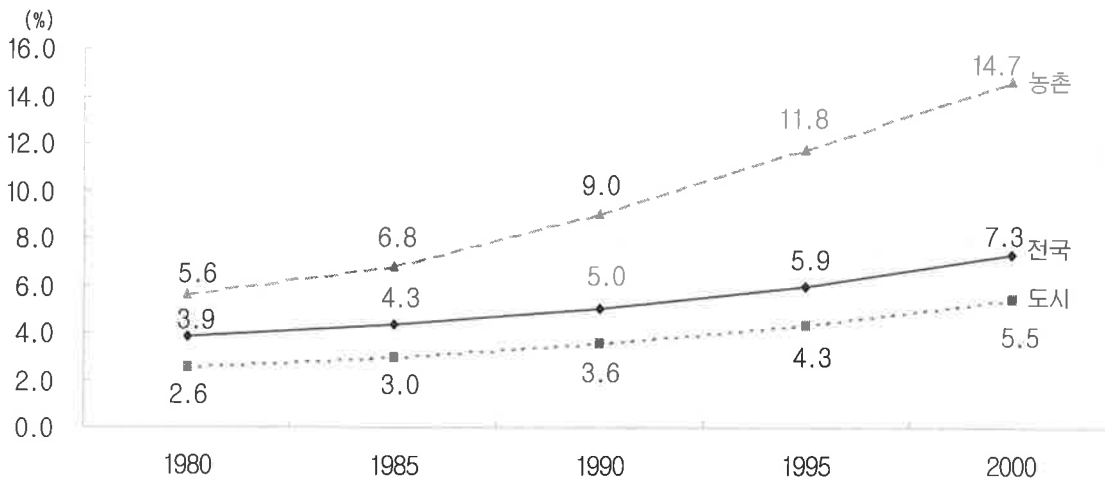


[그림 2.2.2] 성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3) 도시·농촌의 고령화 실태

■ 고령화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읍·면부지역)에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1990년에 65세이상 인구비율이 9.0%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 2000년에는 14.7%로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도시지역 65세이상 인구비율은 1990년에 3.6%, 2000년에는 5.5%이었음.

■ 또한, 전체인구 중 농촌지역 거주인구 비율이 20.3%인 것에 비해, 65세이상 고령인구의 경우에는 40.6%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2.3] 도시·농촌의 65세이상 인구비율

〈표 2.2.2〉도시·농촌의 65세이상 인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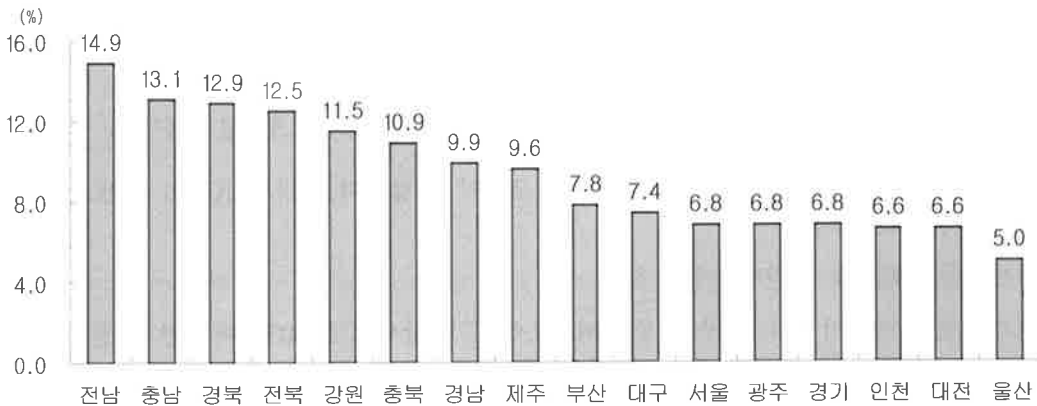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전국	도시(동부)	농촌(읍면부)	농촌거주인구(%)
1990	전체인구(A)	43,390,374	32,290,055	11,100,319	25.6
	65세이상인구(B)	2,162,239	1,158,570	1,003,669	46.4
	비율(B/A)	5.0	3.6	9.0	
2000	전체인구	45,985,289	36,642,448	9,342,841	20.3
	65세이상인구	3,371,806	2,001,341	1,370,465	40.6
	비율(B/A)	7.3	5.5	14.7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4) 시·도 고령화 실태

■ 2004년 시·도별 65세이상 인구비율은 전라남도 1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충청남도 13.1%, 경상북도 12.9%, 전라북도 12.5% 순이며, 2004년 시·군·구별 65세이상 인구비율은 경남 남해군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남 의령군(25.7%), 경북 의성군(25.2%), 경북 군위군(25.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총 35개의 시·군·구가 이미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2.4] 시·도별 65세이상 인구비율(2004)

나. 고령화 사회의 평생교육의 필요성

■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경우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첫째,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은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소재 각급학교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¹⁾. 특히 대학의 경우 대학간 통폐합 등 다양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20세 이하의 학령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과 2030년 사이에 28%에서 18%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둘째,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농산어촌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현재 취업자 중 45살 이상 비중은 2000년 36%, 2010년 46%, 2017년 52%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²⁾.

셋째, 노령인구³⁾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65세 노령인구가 2004년과 2030년 사이에 8.7%에서 23.1%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⁴⁾.

■ 한국이 앞으로도 경제발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되어야 할 것임. 고등교육의 경우 대학에 뒤늦게 진학을 원하는 성인학습자들에게 문호를 다양한 형태로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성인들의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계속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핀란드,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정규 대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50%대가 성인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학습자의 비율이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음.

■ 대학이 성인학습자들에게 계속교육기관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경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들을 예상할 수 있음. 첫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둘째, 노령화된 생산활동인구의 재교육을 통해 그들이 오랫동안 일자리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상시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을 겪을 뿐

1) 교육개발원(2004), 학습국가로의 도약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제4차 KEDI 평생교육포럼 자료집, p.12 표2 참조.

2) 한겨레신문 2002. 9. 16일자, 기사 참고.

3) 노령인구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뜻하며, 노인은 통상적으로 60세 이상인 자를 의미함. 반면 중·고령층은 45세이상 55세 미만의 중년층과 55세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층을 합한 개념이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를 말함(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 2조 1호).

4) 교육개발원(2004), 학습국가로의 도약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제4차 KEDI 평생교육포럼 자료집, p.12 표2 참조.

만 아니라, 기업 내부 경력개발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우므로, 경력개발 기회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청됨. 셋째, 불필요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 수를 줄여 그들 간의 과도한 입학경쟁을 완화할 수 있음.

■ 또한,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은 노인복지와 활기찬 사회생활 그리고 경제활동 유지라는 3가지 측면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즉, 노인들이 길어진 수명을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삶의 경륜과 전문성을 살려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임. 특히 고령인구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와 봉사의 기회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사회적 신뢰가 높은 NGO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의 경우 5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는 젊은층의 교육년수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들이 초등 수준의 학습기회 밖에 갖지 못한 이유는 주로 어린시절의 경제적 형편이나 부모의 사고방식 등에 기인함. 따라서 이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고용가 13) 통계청(2000)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졸이하의 경우 교육기회 미충족의 이유가 주로 경제적 형편(57.1%), 부모의 사고방식(26.8%), 집안돌봄(5.7%)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교육연수는 평생학습 참여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초졸 이하와 대졸이상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10배의 격차가 나고 있음. 따라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의 격차 확대는 평생학습 정책이 해결해야 할 핵심적 과제임. 선진국들의 평생학습 정책의 초점이 경쟁력 강화와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학력이 낮거나 자격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다양한 학습기회를 통해 일정 단계 이상의 학력이나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는 데 맞추어져 있는 것도 이 때문임.

■ 중·고령층이 원하는 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있어야 할 것임. 이들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책은 단기, 중장기 두 단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학력 수준이 특히 낮은 50대이상을 대상으로 보상적 차원에서 본인들이 원할 경우 학력 및 학위 또는 자격 취득을 위한 제2의 학습기회를 그들 수준에 맞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는 그들의 삶을 통한 경험학습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통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중·등 학력이나 이에 해당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엇보다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학습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면, 평생학습에 적극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 중·장기적으로는 평균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학력을 가진 현재의 30, 40대가 중·고령층이 되기 때문에, 직업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고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을 확대해 주는 것이 요청됨. 또한 직장연수가 평생학습 참여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직장연수 및 훈련의 질을 높이고, 이를 경험학습으로 인증해 줄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교육훈련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전반적으로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저조하여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참여 기회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소외계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학습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평생학습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사회적 갈등과 소외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통합 증진의 차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도부터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게 자활기회 부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평생교육센터와 함께 저소득자, 저학력자, 고령자, 장애자 등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 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과 중복을 배제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성 및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선정·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의 직업 경쟁력 또는 사회적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문해교육, 장애인 직업적응교육 등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수익성 문제로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고 있음.

■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01년도에 20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각각 1천만원씩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2~2004년도에는 25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2004년도 프로그램 공모결과 총 62개 기관 63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접수

되어 엄정한 심사와 지역 및 학습대상자를 고려하여 25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고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 4백만원~1천만원씩을 지원하였음.

〈표 2.2.3〉 학습대상별 선정현황

구 분	노인	비문해	여성	장애인	저소득·저학력	기타 (군부대, 청소년)	계
선정프로그램수	8	9	4	1	2	1	25

■ 선정된 프로그램을 기관 유형별로 보면 대학 및 부설평생교육원과 사회교육기관이 5개로 가장 많았고, 학습대상자별로는 문해교육프로그램이 9개, 노인교육프로그램이 8개로 가장 많음. 문해교육 및 노인교육 등 소외계층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 과소 공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해와 노인교육 중심으로 지원을 했으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했음. 지역별로는 서울이 5개, 경기도가 4개, 광주가 3개로 선정되었음.

2.3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정책

■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폭발은 지식의 활용주기를 기하급수적으로 감소시켜서 학교교육만으로는 평생의 직업을 보장받거나 성인기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임. 성인들도 노동시장과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의 양적·질적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계속 받아야 함.

■ 더구나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인력에 대한 활용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은퇴 후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교육수요가 증대하고 있어서 생애에 걸친 평생능력개발 차원에서 노인교육의 중요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가. 노인평생교육 수요의 증가

■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특히 경제력이 있는 고학력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음. 현재 30~40대의 상당수가 공·사적 연금 등을 통하여 노후준비를 하는 등 미래 노인인구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에 노인들의 교육수준도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표 2.2.4〉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선정 현황

기관명	시·도	프로그램명	대상분류
전북평생교육정보센터	전북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합계획
충남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충남	사회통합을 위한 충남 참여공동체 대학	종합계획
부천시지역사회교육협의회	경기	가족간의 세대갈등예방을 위한 노인교육 프로그램	노인
안동과학대학	경북	안동유교문화 민간홍보대사 양성과정	노인
대전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대전	생활안전관리사 교육과정	노인
노인생활과학연구소	부산	노년기 생활 재설계 프로그램	노인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인천	사랑방학교 만학배움터	노인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주	어르신 환경지킴이 과정	노인
창원YWCA	창원	실버 행복나눔이 양성교육	노인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춘천	효자노인학교	노인
안양사회교육센터 시민대학	경기	비문해자를 위한 성인기초교육과 정보화교육 및 민주시민교육과정	문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	무학,저학력 여성을 위한 초등교육과정	문해
꿈을꾸는 사람들	광주	소외계층문해교육	문해
대구아름다운학교	대구	저소득, 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육	문해
마포평생학습관	서울	비문해자를 위한 초등교육, 기초영어교육 및 고령자를 위한 기초컴퓨터과정	문해
서부여성발전센터	서울	저학력층 대상자들을 위한 한글교육 프로그램	문해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서울	저소득 여성을 위한 문해 교육	문해
서울어머니학교	서울	무학, 저학력 소외계층의 기초문해교육	문해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주	베이비시터 영, 유아교육	여성
부산여성회	부산	자기의사표현 능력 향상과정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사회성증진교육과정	여성
남부교육센터	서울	이주여성과 비문해여성이 함께하는 공동체교육	여성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청주	소외가정 모두가 행복한 가정, 사회만들기	여성
인천광역시 화도진도서관	인천	한마음 음악교실과 민들레 독서회	장애인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경기도	전문간병인 양성과정	저소득자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경기도	토털도우미 양성 프로그램	저소득자

■ 현재 청년층의 고등교육참여율은 OECD국가들의 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고학력자일수록 평생교육의 참여율이 높은 일반적인 현상을 고려해 볼 때, 국민의 전반적 학력수준의 상승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의 증가가 예측됨. 지식기반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세대간 지식의 격차, 디지털 격차 현상 발생으로 현 세대의 노인들은 정보·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어서 연령·학력·소득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노인교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임.

■ 게다가 고령화의 진전과 지속적인 저출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사회의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할 것이므로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급속한 고령화에 수반되는 노인문제를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대안으로 노인교육과 취업에 중점을 두는 정책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Ⅲ. 평생교육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1. 평생교육훈련 관련제도 및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2. 한국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현황

Ⅲ. 평생교육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1. 평생교육훈련 관련 제도 및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1.1 평생교육의 제도적 장치

■ 2004년도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에 완성한 ‘평생학습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있음. 첫째, 범국민 평생학습운동을 통한 학습참여를 높이기 위해 평생학습도시의 지정을 확대하고, 둘째, 성인들을 위한 대안적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대학 기능 강화와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의 지속적 발전 추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한 일반 성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셋째,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문해교육 지원, 성인 저학력자를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평생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마련된 평생교육법은 총 5장 32조로 구성된 평생교육법은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예컨대, 평생교육의 종합연수·연구 및 정보센터의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교육·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중앙 단위의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시·도 단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시·군 구·읍·면·동 단위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임. 또한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중심 보다는 학습자에게 공공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더욱이 평생교육법에서는 현행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 제도를 [평생교육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역할과 기능도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 및 평가 업무 전담과 교수 역할을 추가하여 전문성과 능력 있는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하여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음. 평생교육은 온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 전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 국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담당자의 자질을 개발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교육 성과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표 3.1.1〉 한국의 평생교육훈련 관련법령 및 제도

구분	관련법령	관련 제도 및 시설	주관부처	비고
학습·진로·고용지원체제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보 의무 제공 규정 직업안정기관[국립(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일일취업센터),공립(지자체취업정보센터,일일취업안내소),민간(유무료 직업소개소,국외유료소개소)]	노동부 노동부	총3,868개
	산업교육진흥법 평생교육법	산업교육기관에서의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진료지도규정 지역평생교육센터(기능 일부 수행)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16개 시·도 별 1개
	정보망	Worknet Job-training Careernet Edunet ITFIND Kedunet 여성사회교육정보등	노동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평생교육훈련운영체제	평생교육법	각종 평생교육시설(사내대학형태,원격형태,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학교부설,언론기관부설,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근로법 학원설립운영 및 과의교수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촉 진법	전문대학 및 대학의 공개강좌,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산업교육기관의 특별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시설,여성능력개발센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기술계 학원 등 각종 학원 산업교육기관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인정체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독학학위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개별법령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자격관련 기본사항 규정, 민간자격공인제도 국가기술자격제도 기술의 국가자격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노동부 개별부처청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 진법 고용정책기본법 인적자원개발회 의규정	평생교육센터(중앙) 및 평생교육협의회(지방)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중앙),직업교육훈련협의회(지방) 고용정책심의회,지방고용심의회,고등촉진훈련조정협의회 인적자원개발회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감소속 지방자치단 체장소속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서 개인, 집단 그리고 사회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지도 및 원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평생교육사는 사회 상황의 진전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및 학습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능력은 물론,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지니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1.2 평생교육기관의 분류방법 및 기준

■ 평생교육기관은 설립 및 운영의 주체, 소관부처,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등에 의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첫째, 운영 주체에 따라서는 국가주도형, 학교주도형, 민간단체주도형, 종교 및 문화기관주도형, 기업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국가주도형 평생교육기관은 공무원 교육기관, 공공직업교육기관, 농민교육기관, 공공여성교육기관, 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분류되며 학교주도형 기관은 산업체 부설 학교, 대학 부설,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등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있으며, 민간단체주도형은 일반자원단체, 민간 새마을교육기관, 학원 등으로 분류됨. 종교 및 문화기관 주도형은 종교기관과 박물관, 문화원, 도서관 등으로 기업주도형은 기업체연수원 및 기업체훈련원 등이 있음.

둘째로, 평생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는 ① 생활기초교육과 교양교육 ② 직업·기술 및 전문교육 ③ 건강 및 보건교육 ④ 가족생활교육 ⑤ 지역사회교육과 새마을교육 ⑥ 여가교육 ⑦ 국제이해교육 ⑧ 국민독서교육 ⑨ 전통문화이해교육 ⑩ 기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교육대상을 중심으로 해서는 공무원교육, 농민교육, 여성교육, 농민교육, 근로자교육, 청소년교육, 노인교육 등으로 분류되기도 함.

셋째로, 절충형으로 이는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 분류 방식임. ① 공무원 연수원 및 공공 교육훈련기관 ② 직업훈련기관(공공·사업내·인정직업훈련원) ③ 산업교육연수기관(산업체·금융계 연수원 등) ④ 학원과 일반 평생교육기관 ⑤ 학교중심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원·지역사회학교 등) ⑥ 학교형태 평생교육기관(각종 학교, 기술학교, 방송통신대) ⑦ 청소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수련시설, 자연학습원, 학생교육원 등) ⑧ 여성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여성회관, 부녀복지관 등) ⑨ 노인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노인회, 노인대학, 경로당 등) ⑩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단체(여성, 노인, 보육시설, 복지관 등) ⑪ 문화시설 중심 평생교육기관(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구민회관 등) ⑫ 상담기관 ⑬ 학술 및 연구기관(연구소 및 학회) 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분류되고 있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시설의 분류기준을 보면, ①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②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③ 원격 평생교육시설 ④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⑥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⑦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⑧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8대 평생교육시설

이 있음.

〈표 3.1.2〉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구분	관계법	시설구분	유형	설치요건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 · 등록 · 신고 된 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	학교형태 평생교육 시설 중 학력인정시설 (교육감 지정)	각종 학교, 기술학교 등	교육감에 등록
	평생교육법 제21조	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 시설	사내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 제22조	원격 형태 평생교육 시설	원격대학 형태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 제22조 동시행령 제46조		원격대학 형태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23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 시설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24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 시설	법인, 주무관청 등 특, 회원 300인 이상 시민단체를 지칭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25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	대학/전문대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등	관할청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26조 동시행령 제44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 시설	신문, 방송 등의 언론기관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27조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 시설	산업교육기관, 학교 실습기관	교육감에 신고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등	학원, 직업 훈련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 평생교육시설		
기타	평생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2. 한국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현황

2.1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가. 대학평생교육의 개념과 발전과정

■ 대학은 다양한 평생교육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종합적인 교육기관이므로 대학이 정규 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들에게도 적절한 교육방식을 통하여 교내외에서 학점 및 비학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제공하여 성인들의 교육요구 충족은 물론 교육기회를 확대시켜주는 것은 시대적·사회적 요청임.

■ 그동안 평생교육이 각기 다른 사회적·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고등교육체제와 연계되면서 대학평생교육은 대학확장, 대학개방, 대학성인교육, 대학사회교육, 성인고등교육 등의 다양한 개념들로 표현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고등교육체제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재편되면서 대학에서 일반 성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대학평생교육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대학평생교육에는 공식적인 학위 및 학점취득과정뿐만 아니라 비학위·비학점과정, 교양교육, 직업준비교육, 전문직 계속교육 등이 모두 포함됨.

■ 한국 대학평생교육의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① 지역사회봉사 및 개발 활동기, ② 지역사회교육 활동기, ③ 평생교육 도입 및 확대기, ④ 평생교육 정착 및 발전기 등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나. 대학평생교육의 운영 현황

■ 각 대학에서 일반 성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평생교육은 크게 2가지 운영체제로 구분됨. 첫째, 대학에서 독립적으로 설치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 둘째, 기존 대학체제 내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이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대학자원활용 평생교육임. 독립적인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평생교육원, 전자계산원, 보육교사교육원, 언어교육원 등이 있으며, 기존 대학체제에서는 정규학부나 학과, 대학원, 연구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평생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대학의 총·학장 책임 아래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독립적인 평생교육전담기구를 부설·운영하고 있

음. 명칭은 대학에 따라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산업교육원, 어학원, 국제평생교육원, 사회문화교육원, 여성사회교육원, 정보사회교육원, 기독교사회교육원, 미술디자인교육원 등 매우 다양함. 이러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대학평생교육의 운영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2004년 6월 현재 4년제 대학 186개교, 대학원대학교 16개교, 전문대학 131개교, 기능대학 및 각종학교 20개교 등 전체 대학(교)의 85.2%에 해당하는 353개교에서 363개의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있으며, 6,756개 과정에 333,335명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3.2.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설치 현황
(2004. 6월 기준, 단위: 개/명)

구분	대상설치 학교수(A)	평생교육원 설치 현황				
		설치학교수	평생교육원 수(B) (B/A)	설치과정수	교육인원	
대 학 교	일반대학교	169	158	168(98.8)	4,375	238,861
	산업대학교	19	16	16(84.2)	136	4,595
	교육대학교	11	10	10(90.9)	98	3,475
	대학원대학교	25	16	16(64.0)	72	2,060
	방송통신대학교	1	1	1(100.)	7	6,000
	원격대학(4년제)	15	1	1(6.7)	12	360
소계	240	202	212(88.3)	4,700	255,351	
전문대학	158	131	131(82.9)	1,779	70,113	
기타(기능, 각종)	28	20	20(71.4)	277	7,871	
합계	426	353	363(85.2)	6,756	333,33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 내부자료(2004. 6. 14)

■ 2000년부터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제가 보고제로 전환되면서, 대학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몇 가지 사항을 권장한 바 있음. 즉, 평생교육원 정원 운영은 당해 대학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정규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학습비는 주로 비정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실소요 경비를 반영하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학점단위로 징수하도록 하고, 교·강사는 대학실정에 따라 소속대학의 교수

를 활용하되 평생교육원 강의시수를 책임시수에 산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2001년 11월에는 각 대학 평생교육원에 연차적으로 전임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각 대학 측에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시간제 등록생 모집, 학점관리 등 대학 내 성인 계속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평생교육원이 일원화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한 바 있음.

■ 그러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운영 현황을 보면, 교·강사는 본 대학의 전임교수가 참여하거나, 분야에 따라 외래교수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을 채용한 평생교육원은 드문. 또한 교직원과 일반 행정사무직원의 확보율도 매우 낮은 실정임.

■ 교육시설의 경우 본교의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독립적인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적은 편이며, 대학간의 차이가 큼. 교육비는 국가부담의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 직업교육과정, 소외계층지원 교육과정 혹은 노인교육전문가 양성과정과 같은 국가지원 프로그램, 고용주부담의 산업체와 공공기관의 위탁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여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 학기 15~16주를 단위로 하여 내용에 따라 한 학기과정에서 2년 과정까지 융통성있게 교육기간을 운영하고 있음. 강좌 시간은 주당 1회 실시하는 과정이 가장 많고, 1회에 2~3시간 정도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특수전문과정이나 학점은행제 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등은 상당시간을 요하고 있음. 교육시간대는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일반인을 위해 주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과정은 직장인을 위해 야간 및 주말과정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특성은 교육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가정주부와 일반인이 가장 많으며, 직장인 그리고 소수이긴 하지만 어린이 혹은 노인들도 참여하고 있음. 입학기준은 학위과정이나 전문자격증의 획득과 관련한 강좌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하지 않고 있음. 간혹 강좌의 특성상 여성이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음. 참여자의 선발방법은 선행학습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정별 정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외에도 타 교육기관에 비해 풍부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학은 다양한 학부

나 학과, 대학원, 리더십개발센터, 경력개발센터, 문화교육센터, 스포츠센터, 연구소, 박물관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일반인을 위한 특별과정, 전문가과정, 지도자과정, 경영자과정, 자격취득과정, 인증교육과정, 사이버강좌, 문화강좌, 위탁교육강좌 등의 다양한 평생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다.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각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식은 크게 7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첫째, 대학교수나 특정분야 전문가의 추천에 의해 개발 유형 둘째, 이미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차용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의 유형 셋째, 자체적으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유형 넷째, 대학 내 다른 기관에서 실시되어 온 것을 평생교육원에서 그대로 흡수하는 유형 다섯째,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제도에 포함된 교과목을 그대로 반영하는 유형 여섯째, 외부 기업체나 단체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는 유형 일곱째, 학습자들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는 유형이 있음.

〈표 3.2.2〉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

구분	프로그램
일반 교양 및 문화·취미 과정	교양 및 문화 과정(역사, 문화, 사상, 종교, 일반 상식 등)
	가정생활 과정(자녀교육, 가족관계, 인테리어, 요리 등)
	건강관리 과정(건강관리, 보건, 건강상식, 각종 스포츠활동 등)
	어학관련 과정(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취미 및 여가선용 과정(예체능 관련 과정)
직업 및 자격관련 전문교육 과정	직업준비 및 전문교육과정
	국가 및 민간자격취득 과정
	산업체 및 공공기관 위탁 취업지원과정
학위 및 학점취득 과정	독학사 학위 과정
	학점은행제 과정
	시간제 등록제 과정
지역사회 및 해외봉사 과정	지역사회개발 및 해외봉사 과정

■ 이러한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6,756개 과정 이외에도 단과대학, 대학원, 박물관, 연구소 등에서 개설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감안한다면 7,000개 과정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1)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

■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목적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① 일반교양 및 문화·취미 과정, ② 직업 및 자격관련 전문교육과정, ③ 학위 및 학점취득 과정, ④ 지역사회봉사 과정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2) 일반교양 및 문화·취미과정

■ 1970~80년대 평생교육을 도입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주로 일반 성인을 위해 일반교양 및 문화, 취미 및 여가선용 관련 강좌들을 개설·운영해왔으며, 점차 가정생활, 건강관리, 어학, 컴퓨터 관련 강좌들이 증가하면서 대학 내 성인학습자의 양적 확대에 기여해왔음.

■ 최근 대학 밖의 평생교육기관이 확산되면서 이 영역의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학평생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 영역을 교양 및 문화과정, 가정생활과정, 건강관리과정, 어학관련과정, 취미 및 여가선용과정, 컴퓨터관련과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3) 직업 및 자격관련 전문교육과정

■ 1990년대 전후로 대학 밖의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양, 취미, 문화강좌들을 제공하면서, 각 대학은 평생교육의 전문화와 특성화에 주력하게 되었고, 특히 성인학습자들의 전문직업교육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게 되었음.

〈표 3.2.3〉 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주관 민간자격과정

구분	자격과정	과정수
건강 관련자격	간병사, 기공처방관리사, 발진강관리지도사, 비만관리사, 생활건강지도사, 심천사혈요법지도사, 아로마테라피스트, 운동처방사, 피부관리지도사, 호스피스전문가, 봉독요법치료사, 자침교육사, 인체기유통지도사, 표준자세교육지도사, 한약제품관리사, 건강보험관리사, आयुर्वेददाणेनेजेरु 등	17
공예·사진 관련자격	닥종이인형지도사, 생활도자공예지도사, 스텐실포크아트, 알공예, 종이접기지도사, 천연염색기능사, 켈트지도사, 한지(전통)공예지도사, 비즈공예지도사, 종이공예지도사, 조각천침선공예사, 사진영상지도사, 사진교육(실기)지도사, 영상예술사, 컴퓨터사진기능사, 선물포장지도사 등	16
관광·문화관 련 자격	문화유산해설사, 인류문화유산해설사, 향토문화관광가이드, 호텔종사원, 전문관광가이드, 자연환경해설사, 국내여행가이드 등	7

36 농산어촌지역 커뮤니티센터의 운영방안

꽃예술크 관련자격	꽃예술크(경영 및)지도사, 압화지도사, 원예지도사, 플라워디자인고위지도사, 플라워디자인지도사, 토피어리관리사, 플라워샵을 위한 코디네이터, 플라워 및 포장디자이너, 플로리스트 등	9
다도·요리관련자격	다도지도사, 생선회전문가, 전통음식지도사, 제빵지도사, 폐백지도사, 한식조리지도사, 전통혼례음식지도사, 전통병과지도사, 다석화(찾자리꽃)지도사, 유제품가공사, 다경강독(차문화)지도사, 출장요리사, 전통차예절지도사, 푸드서비스매니저, 푸드스타일리스트 등	15
독서·논술관련자격	글짓기지도사, 논리논술지도사, 논술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독서(교육)지도사, 문예창작지도사, 수와 논리지도사, 영어독서지도사, 속독·독서지도사 등	9
법·경제관련자격	경매분석사, 공동주택전문관리자, 기업경영진단사, 네트워크경영관리사, 법무관리사, 법원경매권리분석사, 보호관찰전문상담원, 부동산경매상담사, 부동산상담사(컨설턴트), 생활경제재테크사, 외식사업경영상담사, 외식산업최고경영자, 유통관리사, 재테크상담사, 채권관리사, 판매사, 부동산공·경매사, 부동산전문상담사 등	18
상담관련 자격	심리상담사, 미래상담지도사, 생활상담사, 생활역리상담사,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자녀상담지도사, 자원상담요원, 준상담사, 청소년심리상담사, 개인상담사, 복지심리상담사 등	11
미용·의상관련자격	메이크업아티스트, 미용아트연구지도사, 신부화장전문가, 피부미용관리사, 패션디자이너, 한국전통복식지도사, 한복디자이너지도사, 감물염색여성복제작, 패션코디네이터 등	9
체육·무용관련자격	검도실기지도사, 경주마관리 및 승마지도사, 골프지도사, 댄스스포츠지도사, 레크리에이션지도사, 에어로빅지도사, 요가지도사, 재즈댄스지도사, 해맞이우리춤체조지도사, 승마교육지도사, 스퀘시지도사, 헬스지도사, 필라티즈지도사, 프로캐디, 한국무용지도사, 초·중·고 무용지도사 등	16
서예·한문관련자격	경서강독지도사, 서예교육지도사(1급), 서예지도사, 한문국역지도사, 한문(한자교육)지도사 등	5
언어·화술관련자격	성서회람어지도사, 프랑스어지도사, 한국어강사, 국어지도사, 파워스피치지도사, 기독교지도자스피치, 스피치전문지도사 등	7
음악관련자격	교회음악지도사, 음악이론지도사, 피아노지도사, 어린이국악지도사, 풍물놀이지도사, 어린이음악실시지도사, CCM지도사, 전문피아노반주자, 재즈피아노지도사, 가요전문지도사, 찬양지도사, 국악실시지도사 등	12
교육·복지관련자격	21세기 여성지도사, 노인교육지도사, 미술실기교육지도사, 부모교육지도사, 서양화실기지도사, 한국화실기지도사, 수목화지도사, 생활미술실기지도사, 아동(교육)지도사, 열린교육보조교사, 자녀교육지도사, 청소년교육지도사, 특기적성교육사, 학급경영설계사, 교정복지사, 사회복지관리보조사, 교회복지지도사, 예절교육지도사, 효교육지도사, 예절강사 등	20
유아교육관련자격	유아교육지도사, 유아국악지도사, 유아놀이지도사, 유아 및 아동교육지도사, 유아영어독서지도사, 유아영어지도사, 유아음악지도사, 유아영재교육지도사, 가베(창의력)지도사, 유아체육지도사, 음악조기교육지도사, 프리벨은물교육지도사 등	13

구분	자격 과정	과정수
어린이 교육 관련자격	EQ향상지도사, NIE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몬테소리교육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어린이영어(교육)지도사, 아동미술지도사, 어린이독서지도사, 어린이안전지도사, 어린이작문독서지도사, 어린이종이공예지도사, 영어(동화)독서지도사, 영재미술지도사, 영재아동지도사, (아동)웅변지도사, 초등영어(회화)지도사, 어린이컴퓨터지도사, 어린이중국어지도사 등	18
특수아 교육 관련자격	미술치료사, 아동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준2급언어치료사, 특수아교육치료사, 아동미술심리치료사, 아동심리치료사, 행동치료사, 놀이치료사, 독서치료사, 원예치료사, 특수아동지도사 등	12
컴퓨터 관련자격	PC활용지도사, Web-Designer, Web-Master, (인터넷)정보검색사, 인터넷마케팅관리사(전자상거래관리사), 컴퓨터교육지도사, PC정비사, 인터넷비즈니스매니저, 인터넷관리사, 컴퓨터미디어음악기능사, 3D CAD(CATIA) 운영사, 웹컨설턴트, 웹관리사, 네트워크관리사, 무선인터넷관리사 등	15
풍수지리 관련자격	풍수(동양)지리평가사, 풍수(지리)사, 동양지리평가사, 양택풍수사 등	4
기타 관련자격	N.G.O(전문)지도사, 보석감정전문가, 수화통역사, 전기경영진단사, 장례사, 탁아사, 친환경농산물유통관리사, 친환경농업컨설턴트, 국제(생활)작명지도사, 애견미용관리사,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매니저), 생각그물지도사, 무대기획관리사, 행정전문가, 기기분석사, 교통사고평가사 등	16

이러한 직업 및 자격관련 전문교육과정은 크게 직업준비 및 재교육 전문교육과정, 국가 및 민간자격증과정, 산업체 및 공공기관 위탁지원과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4) 학위 및 학점 취득과정

■ 수많은 교육기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로부터 학점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대학이, 평생교육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대학교육을 개방하고, 특히 학점은행제, 독학사학위제, 시간제 등록학생제 등을 통해 학점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정임.

5) 지역사회봉사 과정

■ 대학사회봉사 기능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대학평생교육은 대학이 갖고 있는 유휴 시설이나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일반 대중을 위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타적인 책무를 요구하는 것임. 국내외에서 초기의 대학 개방과 평생교육 운동은 바로 대학의 지역사회봉사 기능을 하나의 사명 또는 당위성으로 전제하고 출발하였음.

■ 최근 지역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사례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세대공동체교육, 대학명예학생제도 등이 있으며, 일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노인대학강좌, 경로당지원프로그램 등이 있음.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나 지방공공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과 각 지역별로 저소득·저학력층을 위한 문해교육과 취업준비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음.

라. 대학평생교육의 과제

■ 그동안 한국의 대학평생교육은 양적·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매우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대학평생교육이 단순한 사회봉사나 시설개방 차원이 아닌 새로운 대학 본연의 기능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

첫째,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대학내외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둘째, 대학 내 다양한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전문적인 평생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학 내 평생교육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며, 셋째,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본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반영하여 보다 전문화와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넷째,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절차를 보다 전문화·체계화함으로써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섯째, 대학의 평생교육 결과인정체제를 다양화하고, 그 결과가 사회적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여섯째, 탄력적인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함.

2.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법적 근거

■ 현행 평생교육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시설의 학력인정을 평생교육의 주요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령에 의하면,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지식·인적자원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등과 같

은 8가지로 분류되어 있음.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학력인정 여부에 따라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사내대학, 그리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됨. 이 가운데 사내대학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대학학력, 즉 고등교육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이며,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고등학교 수준 이하의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바로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지칭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조항에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동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학력인정 평생교육학교는 고등학교 이하의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 그리고 제3항에서는 ‘학력인정시설학교의 지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평생교육시설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교사의 가르칠 의무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학력이 인정되는 만큼 수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 이외에도 최소

한의 교육환경 확보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학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를테면,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수, 교육과정,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입학자격, 교원자격·정원, 수료 및 졸업, 시설 및 설비, 교과서·교재에 대하여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과 동등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3.2.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p>① 법 제2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각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과 동등이상이 되는 것으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수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정원 6. 수료·졸업 7. 시설·설비 8. 교과서·교재 <p>② 제1항 제1호의 학기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p> <p>③ 제1항 제5호의 교원 중 교감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p> <p>④ 제1항 제7호의 시설·설비중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p> <p>⑤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설비기준은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운영기준에 의하되, 체육장·관리실·특별교실·교구 및 도서 등을 병용할 수 있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교장은 1인이 겸임할 수 있으며, 교사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가 중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의의

■ 평생교육법 체제하의 법정신하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궁극적으로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학습기회를 보장하며, 그 학습결과를 인정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존재 의의가 있음.

첫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다양한 이유로 정규학교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일반 국민들에게 정규학교 형태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둘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된 것으로서 고도 경쟁사회 속에서의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표 3.2.5> 전체 인구 중 고교수준 이하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성인비율

구 분		인구수
전체인구		42,168,811
초등학교 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A)	초등 미취득자	2,649,352
	초등 중퇴자	257,761
	계(A)	2,907,113(6.88%)
중학교 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B)	중등 미취득자	4,023,228
	중등 미취득자	225,636
	계(B)	4,248,864(10.08%)
고등학교 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C)	고등 미취득자	3,693,314
	고등 미취득자	290,062
	계(C)	3,983,376(9.44%)
합계	전체 인구	11,139,353(26.4%)

자료: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자료(www.nsp.or.kr/cgi-bin 참조)
한국교육개발원(2002). 성인중등교육 잠재수요자 통계.P.3.에서 인용

셋째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성인문해 및 기초교육시설로서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한 교육적 소외계층에 상실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기회의 균등한 배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성인문해 및 기초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교육의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개방형 평생교육체제의 핵심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표 3.2.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역사적 변천

구 분	국가정책의 방향	평생교육시설의 발현형태	평생교육관련운동	평생교육목표
1950	새로운 국가건설	국민학교 고등국민학교	문맹퇴치운동	국가건설을위한 국민적자질함양
1960	경제개발	재건학교 향토학교	재건국민운동 향토학교운동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1970	고도경제성장	노동야학	새마을운동 농민·노동자 운동	인력양성 및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1980	고도경제성장과 복지사회추진	사회교육시설	민주화운동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1990	선진사회건설 경쟁력강화 개인권 중시	사회교육시설	복지사회건설운동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자아실현
2000	지식기반사회 고도경쟁사회 복지사회 구현	평생교육시설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자아실현 창의력 및 문제해결능력향상

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현황

1) 학교 운영현황

■ 2004년 11월 1일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총 43개가 있으며, 이들 가운데 14개 학교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병설로 운영하고 있고, 모두 700개 학급이 개설되어 있음. 이들 평생교육시설에는 1,154명의 교원이 소속되어 있고, 중학교과정의 6,800명과 고교과정의 22,875명 총 29,67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음(6,151명).

2) 학생 현황

■ 2002년 10월 1일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학교 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학생 총수는 가운데 남자는 전체의 32.2%, 여자는 전체의 6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학생의 구성비도 성인(주부, 청장년)이 대부분이며 중도탈락자, 근로청소년, 출소자, 소년소녀 가장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리고 이들 학교의 졸업생의 진로를 보면, 학력인정 이후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위해 상급학교인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비율도 전체의 16.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2.7〉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학교의 현황

(2004.11)

지역	학교수 (병설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중학과정	고교과정	계
서울	12(4)	214	309	3,122	7,089	10,211
부산	7(2)	153	231	1,018	5,141	6,159
대구	2	46	82	293	1,779	2,072
인천	3(2)	100	134	846	3,425	4,271
광주	1	4	13	120		120
대전	1(1)	15	19	222	307	529
경기	6(1)	67	108	229	2,151	2,380
강원	3(1)	15	48	85	165	250
충남						
전북	5(2)	42	126	330	1,100	1,430
전남	1(1)	25	38	535	764	1,299
경남	2	19	46		954	954
계	43(14)	700	1,154	6,800	22,875	29,675

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문제점

■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 반면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먼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학교 교사의 상당수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열악한 학교시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사의 사기저하와 열악한 학교시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아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서 열악한 학교시설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박태준 외, 1999).

〈표 3.2.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 및 졸업생 현황

(2002. 10. 1 기준)

학교 총수	학생 총수	남	여	중도 탈락자 (자퇴자 등)	출소자 (소년원, 구치소, 교도소)	근로 청소년 (가정 빈곤등)	소년 소녀 가장	성인 (주부, 청장년)	기타 학생
43개	26,151	8,436	17,715	3,880	325	1,738	243	9,785	10,180
졸업생 총명수 (비학력졸업생포함)		학력인정 이후 대학진학현황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방통대학	계				
192,075		6,059	21,333	4,483	31,875				

둘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존속 근거는 평생교육법이지만, 정규학교와 같이 학력인정을 받으며, 정규학교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초·중고등학교법상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그렇지만, 초·중고등교육법상의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은 초·중고등학교상의 정규학교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적용되는 법체계의 이원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성격이 비슷한 대안학교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 부문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임.

셋째, 학교운영 재원의 대부분이 학습자의 학습비로부터 조성되고 있다는 점임. 이는 대부분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사인(私人)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실로부터,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비한 상황으로부터 기인되고 있는 현상임. 넷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조가 지역에 따라 차등적이라는 점임. 이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가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청이 지방재정에서 추가로 덧붙여서 제공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표 3.2.9〉 학력인정 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 내용

구 분	각종학교	대안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학력인정평생 교육시설학교
입학대상	정규학교 학생과 동일	정규학교 부적응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적령기에 정규(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적령기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설립주체	개인, 학교법인	학교법인	개인, 학교법인	개인, 법인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현황	22교	21교	20교	43교

다섯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교원들의 신분보장 문제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사립학교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 학교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교원들도 사립학교 교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여섯째, 학교재정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실습 기자재 및 장비가 부족한 형편임.

■ 이밖에 교육을 담당할 교사인력이 부족하고, 학습자들의 학업성취수준이 대체적으로 낮으며, 타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연계체제가 미비하며, 설치되어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점 등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처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2.3 학원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역할과 현황

가. 학원의 사회·평생교육적 역할

■ 사회·평생교육의 역할을 설명하는 관점은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음. 심킨스(T.Simkins)는 사회·평생교육의 역할을 보완학습(Complementary Schooling), 보충학습(Supplementary Schooling)과 대안학습(Alternatives to Schooling)으로서의 역할로 구분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김용현이 제시하고 있는(사회·평생교육방법론, 2004) 세 가지 역할, 즉 대안학습과정(An Alternative Learning Process), 체제유지수단(A Way to maintain Status Quo) 및 사회변화생성수단(A Way to make Social Change)를 활용하여 학원교육의 역할을 제시함.

1) 대안학습과정의 역할

■ 이는 학원교육을 학교교육에 대한 대안체제로 보는 것으로 이는 다시 학교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역할과 학교교육을 수료하였거나 중단한 자에 대한 보충교육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

(1) 보완교육

■ 이런 형태의 사회·평생교육은 대체로 학교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보완하거나 완성하는 데 있음.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초·중·고교 및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임. 보완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원교육으로는 ①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보완해주고 있는 보습학원, ② 초·중·고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외국어학

원, ③ 초·중·고교 및 대학생에게 각종 국가기술자격 또는 민간자격취득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계학원, 컴퓨터학원, 회계·경리학원, ④ 각급 학교학생들에게 논리적 사고력과 발표력을 증진시키는 웅변학원 그리고 ⑤ 각급 학교학생들에게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 분야의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예능계학원이 이에 해당됨.

(2) 보충교육

■ 이런 형태의 사회·평생교육은 어느 정도이전 학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과 단체에 의해서 계속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보충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원교육으로는 ① 대학진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시학원, ② 대학편입학 또는 공무원·교원 등의 각종 고시준비교육을 수행하는 성인고시학원, ③ 취업준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어학원과 기술계학원 등이 이에 해당됨.

2) 체제유지수단의 역할

■ 사회·평생교육의 역할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은 사회·평생교육이 부자나 가난한자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데 있음. 모든 개인의 궁극적인 욕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성취하는데 있음. 마슬로우(A.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임.

■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평생교육프로그램은 학교교육을 대체 또는 대신하는 것들임. 어떠한 이유로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중단한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계학제 교육기관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사회·평생교육기관임. 인간이 자아실현을 위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그 국가 또는 사회가 이에 필요한 교육체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불만족세력이 증대되어 체제유지가 위협받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게 됨.

■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교육은 ① 중학교입학 또는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검정고시학원, ② 재수생 또는 일반성인에게 대학입학준비 교육을 하고있는 입시계학원, ③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점은 행제운영학원 등이 이에 해당됨.

3) 사회변화 생성수단의 역할

■ 사회·평생교육의 역할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이유는 사회·평생교육을 정치적·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변형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인식하는데 있기 때문임. 이는 사회·평생교육이 본질적으로 참여식방법을 통한 의식향상으로 개혁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학원교육은 본질적으로 사회적규범으로 반강제적으로 시행되는 학교 교육과는 달리 학습자 스스로가 필요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하는 자발적인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 경험하는 지식·기술·태도의 변화는 학교교육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임.

■ 각종 실용외국어교육, 기술교육, 입시·보습교육, 예능교육 등 학원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의식향상이 제고되고, 이는 개혁잠재력을 동원시켜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나. 학원의 설립·운영과 개인교습제도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최초의 공문서는 일제하에서 강습회나 야학에서 이루어졌던 민중교육 또는 민족교육을 통제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부령 제3호로 1913년에 공포되었던 「시설학술강습회에 관한 건」이었음.

■ 해방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해오다 1961년 9월 18일 「시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법률 제719호)」이 대한민국 최초의 학원관계법으로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아홉 차례의 부분 또는 전문개정을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음.

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1) 학원현황

■ 그동안 학원은 대학입학시험제도 변경 등 교육제도의 변화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기인하여 1960년 532개에 불과하던 전국의 학원수가 IMF직전인 1997년까지 대폭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음. 1998년 1년 동안은 속셈·주산·타자등의 경영실무계 학원수가 대폭 감소하는 대신에 일반교과·행정·경영·어학 등 문과계 학원과 예능계 학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음. 1999년부터는 학원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도까지 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통계청의 발표(2004. 12. 4)에 의하면 학원교육은 지난 2003년부터 지속된 내수침체와 정부의 각종 사교육경감대책에 의하여 2004년도만 해도 지속적으로 위축되고(-1.9(1/4분기), -9.2(2/4분기), -12.5(3.4분기)) 있으며, 그 위축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므로 2004년도 하반기 이후 학원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임. 다시 말하면 2004년도 이후의 학원관련 통계분석결과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관련지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표 3.2.10〉 연도별, 계열별 학원수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감율	
직업기술	6,938	6,824	6,221	5,480	5,112	△6.7%	
문 리	국 제 화	2,773	4,010	4,884	5,174	5,138	△0.3%
	인문사회	393	411	470	562	579	
	입시보습	11,882	14,135	17,226	19,398	20,474	
경영실무	8,864	6,630	4,461	3,610	3,353	△7.1%	
예 능	26,301	26,353	26,310	26,005	25,641	△1.4%	
총 합	2,028	2,839	3,260	3,300	3,671	11.2%	
독 서 실	3,905	3,668	3,582	3,596	3,633	1.0%	
계	63,084	64,870	66,414	67,125	67,601	0.7%	

주 : 증감율 : '03년 말 대비 증감비율임 ※ 종합 : 2개 이상의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4. 6.

2) 교습소 현황

■ 교습소의 경우 전통적으로 피아노교습 등 예능교습소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숫자는 매년 상당수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에 입시·보습교습소의 경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과외사교육비의 증대와 무관치 않음을 읽을 수 있겠음. 2000년도 이후 전체적으로 볼 때, 교습소의 수가 연차적으로 감소되어 2000년 39,387개소가 2004년 6월 30일 현재 31,344개소로 나타나고 있음.

3)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현황

■ 2001. 7. 8일자로 시행된 개인과외교습자 일괄신고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개인과외교습 신고자수의 경우 2001년 15,220명에서 2004년 49,291명으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수강인원 또한 2001년 108,871명에서 2004년에는 463,882명으로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라. 학원의 새로운 평생학습프로그램

■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신교육체제의 비전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 건설을 제시하였음.

〈표 3.2.11〉 교습소 현황

구 분	'00	'01	'02	'03	'04	증감율	
직업기술	465	438	410	395	407	3.0%	
문 리	국 제 화	164	148	155	146	188	28.4%
	인문사회	38	49	71	83	106	
	입시보습	16	62	178	365	990	171%
경영실무	2,255	1,980	1,803	1,664	1,580	△4.6%	
예 능	36,449	33,919	31,343	28,631	28,066	△2.0%	
계	39,387	36,596	33,960	31,284	31,344	0.2%	

주) 증감율 : '03년 말 대비 증감비율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4. 6.

■ 이를 위해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1997. 1. 13)과 동법시행령(1997. 9. 11), 동법시행규칙(1998. 2. 28)」이 제정·공포되어 우리사회에 학점은행제(Credit Bank System)가 도입되었음.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는 「사회교육법」을 전문개정하여 새로운 「평생교육법(1999. 8. 31), 동법시행령(2000. 3. 13), 동법시행규칙(2000. 3. 31)」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 법령에 의거 원격교육, 문하생학력인정제도 등이 평생학습체제에 새롭게 출현하게 되었음.

■ 따라서 학원은 종래의 전통적인 학원교육에 더하여 학점은행제, 온라인(On-line)교육으로 대표되는 원격교육에 새롭게 참여하고 있으며, 문하생학력인정제도에도 참여가 요청되고 있음.

1) 학원의 학점은행제 운영

■ 교육인적자원부는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객관적으로 평가인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면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은행제를 1998년도에 새로운 평생학습제도로써 도입하였음.

■ 이는 그동안 전문대학과 대학에서 학위취득교육을 독점해 온 전통적인 고등교육제도에 일대혁신을 가하여 학위취득원을 더욱 다양하게 개방한 조치인 것임. 학점은행제

에 의하여 학위취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평가인정대상기관은 다음과 같음.

- 대학교·전문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 학원(기술계·어학계·사회계·예·체능계)
- 전공심화과정·특별과정을 둔 전문대학
- 학력인정이 되지 않은 대학교·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중요무형문화재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원은 학점은행제 시행초년도인 1998년부터 24개 학원이 91개 과목을 인정받아 참여하면서 2000년도에 141개 학원으로 확대되었다가 2004년 현재는 86개 학원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음. 학원의 참여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사내대학, 원격대학등 새로운 고등교육제도가 도입되어 학위취득기회가 다양해진 이유도 있으나, 아직도 학원보다는 전문대나 대학등 정규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선호하는 학습자들의 편향된 교육관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학원은 더욱더 실용성과 현장적응성이 높은 학습을 제공하여 재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학원에서의 원격교육

■ 첨단정보화 기술혁명은 교사의 역할, 공부하는 장소로서 교실의 개념, 교육방법, 교육과정 등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체제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임. 새로운 멀티미디어 첨단통신기술은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임.

■ 또한 원격교육을 통한 재택학습등 다양한 학습기회확대는 열린학습체제 구축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그 첫째가 방송, 케이블TV, 인공위성, 정보통신매체센터 등을 통한 방송통신교육의 민간부문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방송통신대학을 설립, 원격교육기회를 확대하게 되며, 이를 산·학·연·관 협동학습체제와 연계하여 직장내 학습과 재택학습기회를 확대함. 둘째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대학, 사이버연수원, 사이버학원 등을 통한 21세기형의 다양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의 개설·운영이 더욱 일반화 내지 생활화될 전망이다.

■ 1999년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대체한 평생교육법은 바로 이러한 21세기의 변화를 예

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원격교육제도의 출범임.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격교육의 유형을 다음 <표 3.2.12>와 같음.

<표 3.2.12>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교육유형

근거법령	운영유형	학점·학위인정여부	비고
평생교육법	1.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학점·학위 인정	- 평생교육법 제22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설치·운영
	2.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대상)	학점·학위 미인정	-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해 시·도교육감에 신고
	3.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비신고대상)	학점·학위 미인정	- 신고없이 운영가능

자료 : 교육부, 평생교육법령해설자료, 2000

■ 온라인(On-line)을 활용하는 교육산업은 원격대학으로부터 입시준비훈련산업(학원, 학습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화, 발전되고 있음. 학원의 경우, 신고대상 또는 비신고 대상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격교육은 학점과 학위가 인정되지 않음.

3) 학원의 정부지원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회·평생교육의 주요한 특성으로서 학습자들의 요구에 기초한 실용적 지식·기술의 습득과 이를 통한 취업과의 연계를 들 수 있음. 학원교육은 이러한 측면에서 국고 또는 공공부문 예산 지원하에 각종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즉, 교육부가 대학 비진학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994년부터 시작한 일반계 고교생에 대한 기술계학원 위탁교육프로그램, 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컴퓨터학원에서 시행한 주부인터넷교실·자영업자 인터넷교육·e-비즈니스교육·e-코리아교육 등이 있으며, 노동부의 지원으로 외국어학원에서는 직장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실용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1997년의 IMF 사태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량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는 실직자 재취업교육훈련에 전국의 기술계학원

이 참여하고 있는 등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음.

마. 학원교육의 평생학습 과제

■ 학원교육의 현실은 한국의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교육비 증대의 대표주자로 각인되어 억압과 사회적 비난의 주체로 전락되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음.

■ 이러한 현상을 정부나 학원, 자기자녀만을 위한 편향된 교육열, 학벌위주사회 등의 요인에 탓을 돌리기에는 학원교육의 현실이 너무나 절박한 입장임. 따라서 학원교육이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요약하면 첫째,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개념 재정립(평생학습비 개념의 도입, 학원규제의 완화 및 자율통제의 강화 등) 둘째, 학원교육산업과 공교육 산업간의 협력체제 강화임.

2.4 학교의 평생교육 현황과 문제

가. 학교 평생교육의 개념

1) 학교 평생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 학교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방과 후 활동과 청소년 수련활동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위하여 학교를 개방하거나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

■ 학교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이든 지역의 중심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대부분의 학교들이 방과 후에 유휴시설로 남아 있었기 때문임.

■ 학교는 이와 같은 자원을 활용하여 헌법상에서 교육권을 가진 국민의 학습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기관임. 평생교육법 제25조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 평생교육은 학교가 학생들과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장의 터전을 제공하여 평생학습사회체제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함.

■ 현대사회의 급속한 과학 및 기술의 발달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사회 변동에 효과적

으로 적응하기 어렵게 되었음. 핵가족화 현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는 여가시간을 증대시켰으며, 자아실현 욕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이 일생을 통하여 보람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평생교육 사회를 초래하였으며, 민주화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세계화 시대의 도래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음.

■ 이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여 지역주민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시켜,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교 평생교육은 필요함.

나. 학교 평생교육의 영역

1) 청소년 수련활동

■ 일반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활동은 특별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활동은 학교 자체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 밖의 다양한 청소년 관계 단체들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즉, 세계적으로 활동망을 구축하고 있는 스카우트 활동, 자랑스런 한국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아람단(초등학교), 누리단(중학교), 한별단(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양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시킴과 아울러 해양훈련에 의한 해양청소년단, 과학적 탐구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주소년단 등 다양한 청소년 단체들이 학교와 연계되어 조직되어 있음.

2) 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활동

■ 학교에서의 평생교육 시행 실태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에 의해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의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평생교육연구학교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둘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강연과 실습·실험 등의 방법이 주가 되며 교육장소는 대부분 학교의 교실, 시설을 활용하고 있음. 학습시간은 아동 교육시간을 피하여 방과후나 방학 등의 시간을 이용하며, 이 활동에 주로 여성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를 통한 여성의 의식·능력계발과 아울러 여가 시간 활용에의 공헌 등 그

사회 교육적 의의는 크다고 하겠음.

셋째, 학교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크게 다르지 않게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음.

3) 방과후 활동

▣ 평생교육이 개인의 소질·적성·능력에 따라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이라면, 방과후 활동 역시 평생교육력을 기르기 위한 학교교육의 준비과정으로 받아들여짐. 방과후 활동은 정규 교육활동이나 원칙적으로 교사나 학생들이 정해진 교과와 틀을 따라야 하는 구속이 없어진 시간이라는 점에서, '방과후'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말함.

〈표 3.2.13〉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과	프 로 그 램	
교육 사업	성인	효과적인 부모역할훈련, 부모예절교실, 청소년부모교실, 신입생 학부모강좌,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위한 토론회, 월례교양강좌, 주부대학, 교육과정강좌, 어학강좌, 신문공부방, 한글 기초반, 아버지교실, 속독교실
	노인	노인이 가르치는 전통교실(장 담그기, 매듭단추 달기, 동정 달기, 강정·약과·약식 만들기, 골무 만들기, 한복 만들기, 제사상 차리기 등), 노인이 배우는 교실(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노년기 건강 관리, 배우자 죽음에 대처하는 법, 정년 퇴임 후의 생활 등)
취미 활동	성인	사진반, 악기반(기타, 크로마하프, 클래식 피아노 등), 컴퓨터, 바둑, 그림그리기, 노래부르기, 공예, 서예, 사군자, 꽃꽂이, 원예, 분재, 수예, 매듭, 뜨개질, 양재, 홈패션, 염색, 등산, 에어로빅, 수영, 바둑, 소설 읽기, 시 낭송반, 이·미용법, 선물 포장법, 스포츠댄스, 재즈댄스, 포크댄스, 영화 감상반, 골프, 유적답사반
	노인	건강체조, 마당축제, 노래부르기, 줄넘기 교실
자격증 취득 강좌	한식조리 기능사, 일식조리 기능사, 양식조리 기능사, 복어조리 기능사, 제과·제빵 기능사, 조주 기능사, 정보검색사, 독서지도사, 아동보호사, 컴퓨터 수리사	
취업 강좌	손님초대 요리반, 출장요리사반, 요리 강사반, 창업반	
봉사 활동	도서실 운영 봉사, 소년소녀가장 돕기, 일일교사제, 이발 봉사, 신체검사 돕기, 꽃길 가꾸기, 노인건강 진단교실, 시설 방문(양로원, 고아원 등)	
특별 위원회	교육환경 개 선	교육환경개선 토론회, 좋은 학교 만들기, 토론회, 학교시설 돕기, 화장실 청소, 비교육적 환경개선 캠페인, 교사 학부모 간담회, '님'자 붙이기 운동, 사랑의 편지 쓰기
	환경개선	환경보호 캠페인, 쓰레기 분리수거, 화학세제 적게 쓰기, 자연비누 만들어 쓰기 등

■ 실제로 학교 교육활동의 한 부분으로 방과후 활동을 도입한 본래의 취지도 이러한 비구속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여긴데 있음. 정해진 교과 내용의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진로를 걸어야 하는 구속에서 벗어나, 교과 수업만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전인교육의 성과를 추구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려 한 것임.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내적인 흥미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학년이나 학급의 경계를 잊고 동호의 연대감 속에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만나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 외의 다른 잠재력을 확인하고 계발하는 계기가 됨.

■ 이러한 방과 후 활동을 학교에서 강화해야 되는 의미는 첫째, 방과 후 교육활동은 학교수업의 정상화 차원에서 부족된 학습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취미, 흥미, 창의성을 계속 개발하자는 것이며 둘째, 평생학습 체제에 있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연계할 열린교육의 체제로서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센터로서 학교역할을 제고해 나가자는 데 있으며 셋째, 기존의 획일적 자율·보충학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활동 시간의 확대를 의미하며 교육개혁이 교육수요자, 인성교육, 진로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넷째, 초·중등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통하여 사교육비의 절감 효과 및 수요자 중심의 진로교육, 인성교육을 위한 잠재력 개발 등 교육정상화에 그 의미가 있음.

4) 학교시설 개방

■ 학교 평생교육에 있어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학교시설의 개방임.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된 법규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11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의 제①항에서는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음.

■ 평생교육법 제②항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의 실시자가 당해 학교의 도서관, 박물관 기타 시설을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평생교육을 개설하면 여기에 대한 학교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조(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학교 평생교육의 영역 중에서 학교 시설 개방은 1997년도 교육부의 평생교육 백서에 의하면 한국 전체 학교 중에서 98.8%가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학교가 개방할 수 있는 교실, 운동장 및 수영장, 강당 등의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도서관, 박물관, 예절실, 교실 중에서 주로 운동장 개방을 의미하고 있음.

다. 학교 평생교육의 운영 성과

■ 이희수 외(2002)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 1,200명의 학교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학습자 및 담당교사의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이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설된 프로그램이 관심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29.3%로 나타났음.

■ 그 외에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가 13.9%로 나타나 학교가 지니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접근의 용이성과 함께 프로그램이 좋다면 학교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학교 시설의 개방 정도에 대하여 ‘더 많이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를 개방해야 한다고 나타났음. 학교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담당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수강료의 정부 지원’이었으며, 평생교육을 운영하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점으로 수강생 부족과 잡무의 증가를 들었음.

■ 수강생 모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극적인 홍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통신문에만 의존하다 보니 결국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수강생 부족을 가져오고 있음.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우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교육청의 강요에 의해’하는 경우가 19.9%로 나타나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데 강제성 때문에 억지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렇게 수동적인 평생교육 운영은 소극적인 홍보로 이어지고, 결국 수강생 부족으로

형식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됨.

■ 평생교육을 운영하면서 학교가 얻은 혜택으로는 지역주민과 학교 간의 이해 증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등으로 학교 평생교육이 교육의 신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담당교사들의 평생교육 업무의 만족 정도는 타의적으로 업무를 배정받았거나 업무의 가중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

■ 이를 바탕으로 학교 평생교육의 운영 성과를 요약하면 첫째, 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 둘째, 지역주민에게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 셋째, 자격증 취득 및 취업 기회의 부여 넷째,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 효과 다섯째, 학습동아리 결성 여섯째,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일곱째, 자녀와의 이해 증진 그리고 성공적인 사례의 일반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라. 학교 평생교육의 한계

■ 이러한 학교 평생교육의 운영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한계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해결되어야 학교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1) 평생교육 개설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 학교에서의 평생교육 운영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다른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내용이나 시설, 수강료 면에서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시설의 보완과 함께 예산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평생교육 연구학교 운용시에는 교육청에서 경비를 제공하지만, 일반 학교에는 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 지속적으로 학교 평생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강생들의 수강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은 학교 평생교육 사업비를 책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평생교육에 지급하는 비용의 일부를 학교로 분배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야 함.

2) 대상의 한계

■ 현재 학교 평생교육의 이용 대상은 주로 30~40대의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두어 가사 생활에서 독립된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평생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선행되어야 함. 첫째,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놀이방과 같은 시설이 병행 운영되어 수강생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임하도록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둘째는, 오전에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녁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셋째는 한국도 노인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설을 통한 노인계층의 흡수도 필요함 넷째는 맞벌이 주부를 위한 사이버 강좌가 개발되어야 함 다섯째는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주말 시간 등을 이용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

3)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학교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취미나 교양 위주의 프로그램에 편중되는 이유는 인적·물적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학습 요구를 충분히 조사하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시급함.

■ 또한 다른 평생교육 기관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함. 이를 위해서는 학교 담당자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이나 평생교육 전문가들에 의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급해야 함.

4) 평생교육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의 활성화

■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임. 그래서 평생교육 연구학교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학교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는 손쉽게 가정통신문을 이용하고 이는 수강생 부족으로 연결됨. 그러므로 지역교육청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지방자치 단체와 합동으로 공공기관에 홍보를 해주거나 지역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만 매번 들어가는 홍보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5) 담당 교사들의 참여의식의 향상

■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담당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함. 보상방법에는 포상 기회의 부여, 승진시 부가점수 부여, 평생교육 연구대회 같은

방법이 있음. 그리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사에 대한 연수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6) 평생교육 전문가 배치

■ 평생교육의 복잡성을 안다면 교사들에 의하여 전적으로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부실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같음.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관리할 수 있는 보조 교사나 전문요원을 학교에 배치하여 운영의 실효를 거둬야 함. 미국의 프린트시나 일본의 고베(神戸)시처럼 지역사회학교가 잘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개방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이들을 배치하여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해가고 있음. 더욱이 이와 같은 업무만을 위해 전문요원으로 평생교육사가 양성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또 지금과 같이 체육과 위주의 형식적인 평생교육 체육과보다는 평생교육 운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도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의 배치, 재정 지원 등 현실적 대책이 필요함. 그리고 전담 부서에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안내서와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제공하여 보급하여야 함.

7) 지역네트워크 구축

■ 평생교육 기관들의 증가로 인한 수강생 모집 경쟁은 날로 심해가고 있음. 이러한 경쟁 속에서 학교 평생교육뿐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교육 단체와 연계활동이 이루어져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같은 프로그램의 개설을 지양하고 상호보완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함.

■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평생교육 시설들은 인적·물적·공간·정보 등도 함께 공유하여야 함. 예를 들면, 학교 인근의 공원이나 도서관, 청소년센터, 문화원, 학생회관 그 외의 각종 사회 시설이나 자연 환경, 문화유산, 기업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이러한 시설이나 지역 자원과의 유기적인 제휴에 의하여 개방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임.

8) 학습동아리 지원

■ 학교는 예산이나 담당교사의 지원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학습동아리 활동을 조직적으로 해나가기가 어려움. 지원평생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속적인 학습 동아리와

각종 모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나 지역교육청의 시설에 대한 개방과 경비를 지원책이 필요함.

2.5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현황과 발전방향

가. 평생교육 전담기관으로서 평생학습관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 체제 기반으로 평생교육 거점 시설을 오래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시민대학(Volkshochschule: DVH)”이나 덴마크의 “민중대학(Folk High School), 일본의 “공민관(公民館)”, 대만의 “사회교육관(社會教育館)”, 호주의 “성인지역사회교육센터(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Center)”, 영국의 계속교육센터(Further Education Center)”, 프랑스의 “문화의 집,” 이탈리아의 “인민의 집” 등임.

■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 사업은 대부분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적 평생교육 추진 구조를 가지고 있음. 단위 지역에서 주민교육 사업을 하나의 종합적 평생교육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간 사업을 지역의 전담 체제가 상호 협조적 관계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 한국도 1999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평생교육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센터와 시·도 차원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시·군·구 차원의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또한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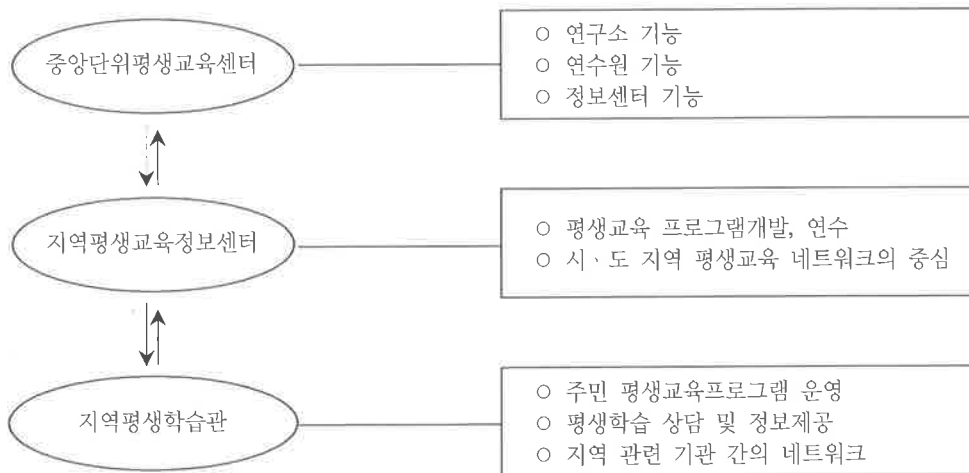
그리고 지역 평생교육의 거점으로서 평생학습관의 설치를 통해 평생교육의 정보 제공 기능, 평생학습의 상담 기능, 지역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운영 기능을 수행하도록 평생교육 전담기관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

나. 평생학습관의 설립과정 및 기능

■ 주민들은 실제로 일상생활의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을 하게 됨. 따라서 평생학습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로 보는 통합적 시각이 요구됨. 평생교육의 기반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정책의 주안

점을 지역사회에 두어야 하는 것임.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 전담조직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연수, 연계 거점, 학습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제공 기능을 하는 전담기구를 말함.

■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가 수준에는 평생교육센터를, 시·도 수준에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시·군·구 수준에는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현재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00년 3월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중앙 단위의 평생교육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그해 7월 13일 16개 시·도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설치되었음. 또한 지역별로 평생학습관 설치에 계속 진행되고 있음. 지역 평생교육 전담기관이 지속적으로 설치되면서 국가의 평생교육 지원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하였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2001). p.28

[그림 3.2.1] 평생교육 전담기구의 역할

■ 지역 평생교육 체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각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음.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수직적으로는 평생교육센터·평생학습관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수평적으로는 지역 내 모든 평생교육기관들을 연계하는 구심체가 되도록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한편, 평생교육법 제13조 3항에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있음.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로 도서관, 시·군·구민회관, 문화원 등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거나 신설하여 지역 단위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평생학습센터로서 기존의 역할과 아울러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평생학습관의 기능으로는

- ①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 ②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 ③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 ④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 ⑤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음.

나. 평생학습관 유형 및 설치 현황

1) 평생학습관의 유형

■ 평생학습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과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을 위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법정 기구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평생교육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을 포함한)에 의해 시·군·구나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평생학습관은 지역단위의 평생학습관으로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아울러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연수 및 정보제공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그러나 전국 각 지역에 설치 혹은 지정된 평생학습관은 해당 지역의 실정이나 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른 사업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유형을 분류하면, 우선 설립이나 지정이나에 따라 분류하면, 평생교육 전담 독립기관이나 아니면 타 기

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한 유형이나로 나뉘며, 설립 주체에 의해서 분류하면, 교육감의 주도로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는 유형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도로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는 유형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2) 평생학습관 설치 유형별 현황

(1) 교육감 소속의 독립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준칙을 참조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기타 평생학습사회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독립 평생학습관이 현재 시·군 수준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음.

■ 초기 평생학습관 지정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독립기관으로 독립부서와 전문 인력의 배치를 통해서 전문적 독립 기관으로 시·군·구 지역 차원의 평생교육 조정·협력·네트워크 사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신설하는 경우와 기존의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기능 전환하는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충남지역과 전남지역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이며, 서울지역이나 강원지역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함.

(2) 교육청의 소속 기관 및 타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 평생교육법에 대한 소극적 해석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앞의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준칙안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을 지정하고 있음. 교육청 차원에서는 새로운 재정적 부담 없이 빠른 속도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자 소속기관인 도서관 등에 지정하고 있으나 전문 부서의 설치나 전문 인력의 배치에 한계를 가지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충실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래서 앞에서 지적한 독립 평생학습관 설치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한편, 타 소속 기관에 평생학습관을 지정하는 것도 적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평생학습관이 지역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3)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 발의로 별도의 조례제정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평생교육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하여 1995년 창원시를 필두로 1999년 광명시

평생학습도시 선언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있음.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임무를 근거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형편임. 특히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이 확산되면서 더 많은 지자체에서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평생교육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270개의 평생학습관들 중에서 독립 평생학습관은 마포평생학습관 등 서울에 5개의 학습관을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등 전국에 총 16개가 설치되어 있음. 이는 평생학습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적은 수의 유형임.

〈표 3.2.14〉 지역·유형별 평생학습관 현황

(2005년 2월 현재)

구 분	독립 평생학습관	교육청 산하 기관	교육청 외 기관	계
서울특별시	5			5
부산광역시		10		10
대구광역시		4	4	8
인천광역시		8	8	16
광주광역시		4	11	15
대전광역시	1	1	19	21
울산광역시		4		4
경기도		12	28	40
강원도	5	17		22
충청북도		15	1	16
충청남도	2	16		18
전라북도	1	14	2	17
전라남도	1	23		24
경상북도		23	1	24
경상남도	1	21		22
제주도		5	3	8
계	16 (5.9)	177 (65.6)	77 (28.5)	270 (100.0)

그리고 교육청 산하 기관은 전체 학습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전국에

총 177개가 있음. 이는 전체 평생학습관 유형의 65.6%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교육청 외 기관은 총 77개가 있음. 이 유형은 전체 평생학습관의 28.5%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평생학습관은 지역 특성에 따라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로 평생학습관을 신설하거나 도서관, 시·군·구민회관, 문화원 등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리고 그 중 도서관에 지정된 경우가 57.4%로 가장 많으며 17개의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정보관 등 독립 평생학습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밖에는 대학,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초·중등학교, 학생회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다. 평생학습관 운영현황

〈표 3.2.15〉 유형별·지역별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독립 평생 학습관	교육청 산하 기관	교육청 외 기관
서울특별시	747,318		
부산광역시		10,902 ~ 196,075	
대구광역시		16,700 ~ 30,090	5,000
인천광역시		42,928 ~ 89,592	8,000
광주광역시		27,270 ~ 209,472	3,000
대전광역시	886,778	24,288	5,000
울산광역시		21,770 ~ 86,000	
경 기 도		3,852 ~ 992,590	5,000
강 원 도	503,285	1,500 ~ 13,620	
충청북도		5,000 ~ 342,156	5,000
충청남도	904,467	5,000 ~ 80,144	
전라북도	96,500	6,720 ~ 796,850	0
전라남도	283,577	1,027 ~ 53,950	
경상북도		1,404 ~ 444,690	0
경상남도	88,889	5,000 ~ 88,889	
제 주 도		16,161 ~ 82,460	2,500

주) 본 내용은 교육청 평생교육 담당자들이 보내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표시한 곳은 해당 유형에 속한 기관이 없음을 나타냄

■ 전국 270개 평생학습관의 운영 실태를 기관 유형별로 예산 지원 현황, 기관 총 예산 중 평생교육 예산 비율, 재정적 지원체제 등의 예산 현황과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참여자 수 현황 중심으로 운영 상태를 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유형별·지역별 예산현황은 독립평생학습관의 경우 기관 전체 예산의 평균을 계산한 것임. 그리고 교육청 산하 기관은 지원 예산의 최저와 최고를 계산한 것이며, 교육청 외 기관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지원받는 예산을 살펴본 것임.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국 270개 평생학습관의 기관별 총 예산 중 평생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관 담당자의 응답을 기초로 살펴보면, '5% 미만'인 기관이 34.1%로 가장 많고, '5~10% 미만'인 기관도 25.6%임.

즉, 기관 총 예산 중 평생교육 예산이 10% 미만인 기관이 전체의 약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또, 50%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 미만인 기관은 전체의 92.0%로 거의 대부분이고, 50% 이상인 기관은 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중 기관 총예산이 모두 평생교육 예산으로 사용된다고 응답한 곳은 1.1%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예산 비율에 근거해봤을 때, 현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들이 평생학습관 업무 자체를 부수적으로 봄으로써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2.16〉 평생교육 예산 비율

구분	5% 미만	5~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50%미만	50~60%미만	60~70%미만	70~80%미만	100%	합계
빈도 (%)	92 (34.1)	69 (25.6)	51 (18.9)	14 (5.2)	11 (4.1)	11 (4.1)	7 (2.6)	7 (2.6)	5 (1.9)	3 (1.1)	270 (100.0)

■ 평생학습관의 재정적 지원체제를 국고(교육청), 후원금, 교육수강료, 기타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균값을 전반적으로 보면, '국고(교육청)' 지원이 76.1%로 가장 많고, 다음은 '교육수강료' 7.6%, '기타' 6.7%, '후원금' 1.5% 순임.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독립평생학습관과 교육청 산하 기관은 '국고(교육청)' 지원이 각각 82.0%, 87.9%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교육청 외 기관은 '국고(교육청)' 지원 47.2%로 절반 정도임. 대신에 교육청 외 기관은 '교육수강료'가 25.4%로 교육수강료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17〉 유형별 평생학습관 재정적 지원체제

(단위 : %)

구 분	국고(교육청)	후원금	교육수강료	기타
독립 평생학습관	82.0			
교육청 산하 기관	87.9		0.7	3.6
교육청 외 기관	47.2	5.2	25.4	15.2
계	76.1	1.5	7.6	6.7

■ 전국 270개 평생학습관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총 3,455,985명으로 평균 12,800명임.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독립 평생학습관과 교육청 외 기관의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평균 28,988명, 21,946명으로 2만 명 이상인 것에 반해, 교육청 산하 기관은 평균 7,440명으로 독립 평생학습관과 교육청 외 기관 참여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18〉 유형별 평생학습관 참여자 수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개 소	참여자 수	
		합 계	평 균
독립 평생학습관	16	463,807	28,988
교육청 산하 기관	177	1,324,278	7,440
교육청 외 기관	77	1,667,900	21,946
계	270	3,455,985	12,800

■ 전국 270개 평생학습관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교육프로그램 수는 총 7,676개이고 이는 평균 28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육청 외 기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이 평균 48개로 가장 많고, 독립 평생학습관도 평균 4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교육청 산하기관은 평균 19개로 기관 전체 평균(28개)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2.19〉 유형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 현황

(단위 : 개)

구 분	개 소	교육프로그램 수	
		합 계	평 균
독립 평생학습관	16	731	46
교육청 산하 기관	177	3,311	19
교육청 외 기관	77	3,634	48
계	270	7,676	28

■ 충남 지역의 18개 평생학습관들이 개설·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의 교육프로그램도 충남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20〉 충남 지역 평생학습관별 프로그램 현황

기관별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남부(논산) ⁵⁾ * 평생학습관	인문교양교육	엄마와 함께하는 동화구연, 청소년 논술, 한문교실, 한글기초, 내 고장 문화유적 답사, 엄마와 함께하는 창의력 미술 교실, 찻흙놀이, 소묘, 놀이독서교실, 영어동화교실
	문화예술·취미교육	기초소묘, 스포츠 댄스, 테마영화, 서예교실, 차명 디스코, 수채화, 사군자, 풍물 교실, 리본아트, 비즈공예, 파워 노래교실
	시민교육	자녀의 정신건강(부모역할), 좋은 부모, 자녀들과 대화하기, 우리아이 공부법
서부(서산) 평생학습관	인문교양교육	독서교실, 원어민 영어회화, 파워스피치, 글쓰기교실, 원어민중국어교실, 한글교실, 초등논술기초, 어린이 한자교실, 자녀독서지도, 연극교실, 문해교육(한글교실)
	문화예술·취미교육	스포츠 댄스, 칼라믹스, 태생, 포크기타, 단소교실, 서예, 창의력 레고닥터, 웰빙요가, ITQ엑셀, 한국화, 수채화, 다도, 풍선아티스트, 토피어리디자이너
	시민교육	자녀학습관리
충남학생회관	직업교육훈련	NIE지도자과정, 동화 구연, 스피치
	인문교양교육	자녀독서지도법, 실용중국어회화, 문화유적답사회, 주말역사교실, 엄마와 함께하는 수학공작, 부모교육, 초등독서회, 중등독서회, 청소년문학캠프, 여름독서교실, 겨울독서교실, 초록회, 동화 읽는 어른모임
	문화예술·취미교육	수묵화, 서예, 소묘, 서양화, 동양화, 댄스스포츠반, 어머니합창단, 노래교실

기관별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공주도서관	직업교육훈련	컴퓨터 교실
	인문교양교육	시창작 교실, 한문교실, 영어회화반, 청소년 논술교실, 어린이 독서교실, 이야기 잔치
	문화예술·취미교육	문화예술, 취미교실, 서예교실, 알·비즈공예교실, 풍선아트교실
유구도서관	직업교육훈련	홈페이지 만들기
	인문교양교육	자녀독서회, 동화구연, 여름독서교실, 문학특강
	문화예술·취미교육	사진반, 서예교실
	성인기초교육	성인기초교육
아산도서관	직업교육훈련	컴퓨터 활용, 한글 2002
	인문교양교육	자녀독서지도, 동화 구연(일반), 어린이 동화 구연, 독서지도 특강, 어린이 독서교실, 여름 독서교실, 영어회화, 영어강독, 일본어회화, 명심보감, 어린이 한자서당
	문화예술·취미교육	서예, 서양화, 가족 인형극, 생활도자기
	성인기초교육	문해교육
	시민교육	부모교육
해미도서관	직업교육훈련	컴퓨터, 사서도우미 교육
	인문교양교육	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주부독서회, 사설독서교실, 독서 및 동화작법
	문화예술·취미교육	서예, 꽃꽂이, 풍선아트, 도서지도, 문예창작, 한시연구회, 어린이 서예교실, 어린이컴퓨터교실, 지점토공예, 종이공예, 쉼트 공예
금산도서관	직업교육훈련	정보화교육, 인터넷피아
	인문교양교육	영어회화, 일본어(초급·중급), 한문교실, 어머니 독서회, 일반 독서회, 동화 읽는 어른들의 모임
	문화예술·취미교육	사진특강, 수지침 교실, 약초를 알자, 생활 풍수, 독서지도 및 문예창작, 영화감상 및 감상토론, 글짓기 교실, 애니메이션나라 체험
	건강·스포츠 교육	건강관리-발관리

5) 충남 지역은 남부평생학습관과 서부평생학습관 등 2개의 독립 평생학습관이 있으며, 나머지는 교육청 산하기관(도서관 지정)임. 그리고 2005년에 독립 평생학습관인 '충남평생교육회관'이 완공될 예정임.

70 농산어촌지역 커뮤니티센터의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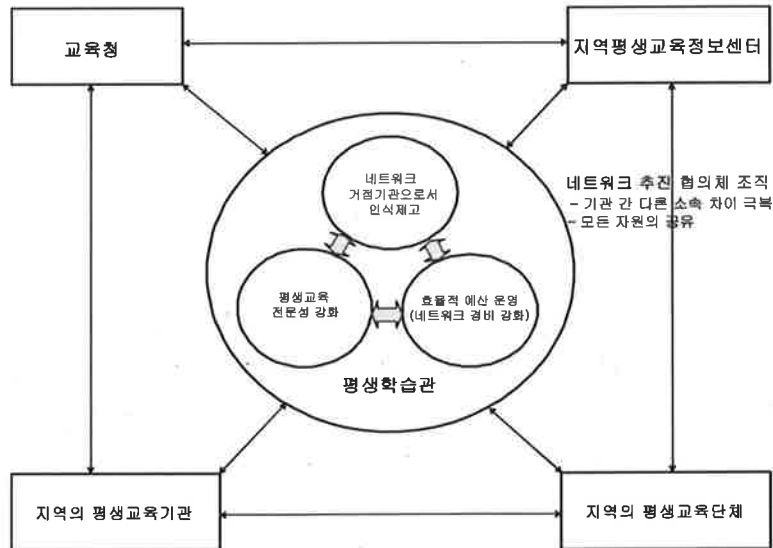
기관별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연기도서관	직업교육훈련	컴퓨터 기초, 한글2002, 홈페이지 기초, 엑셀, 파워포인트 활용
	인문교양교육	어린이독서회, 청소년독서회, 여름독서교실, 여름독서캠프, 어머니독서회, 동화구연교실, 중국어회화, 영어회화
	문화예술·취미교육	어린이한자교실, 한문·서예교실, 풍선아트, 문화유적탐방, 전통옹기 체험교실, 소묘 및 수채화
부여도서관	직업교육훈련	컴퓨터, 홈페이지 제작, 파워포인트, 명예사서도우미 연수
	인문교양교육	고란독서회, 한자, 영어동화, 수학교실, 작가와의 만남
	문화예술·취미교육	전통문화체험 '나만의 도자기 굽기, 서예, 리본 자수, 도자기 빚기, 풍물
서천도서관	직업교육훈련	컴퓨터 교실, 홈페이지 과정, 정보검색사 과정,
	인문교양교육	주부독서회, 한글교실, 청소년논술교실, 어린이 한자교실, 어린이 컴퓨터교실, 어린이 독서지도
	문화예술·취미교육	서예교실, 한지공예 교실, 게이트볼 교실, 어린이 서예교실
	건강·스포츠교육	피부관리, 발관리
성환도서관	직업교육훈련	한글2002, 엑셀
	인문교양교육	한자교실, 한글교실, 산수교실, 재미있는 책읽기, 신나는 책 세상, 독서교실, 글내음독서회, 동화사랑모임, 자녀독서지도
	문화예술·취미교육	어르신 컴퓨터, 미술교실
청양도서관	인문교양교육	독서교실, 동화 읽는 어른 모임, 동화 구연, 읽기쓰기 특강, 생활일본어
	문화예술·취미교육	서예교실, 가족신문 만들기, 리본자수
	시민교육	자녀교육
홍성도서관	인문교양교육	한문교실, 원어민일본어강좌, 동화 읽는 어른 모임
	문화예술·취미교육	사군자교실, 문예창작교실, 서예교실
당진도서관	직업교육훈련	학교도서관 도우미
	인문교양교육	주부독서회, 초등독서회, 여름독서교실, 찾아가는 독서교실, 한글교실, 외국인 한글교실, 초등 논술교실, 어린이 한자교실, 중국어회화(중급)
	문화예술·취미교육	탁구교실

라. 평생학습관의 발전 방향

1) 지역 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기관간의 역할 분담

■ 지역의 모든 평생교육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평생교육 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종합적인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함.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는 지역의 모든 평생교육 기관·단체의 협력과 역할 분담에 의해서 충족될 것임. 물론 평생교육전담기관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지역평생학습관의 기능이 중요하지만, 각 주체별로 역할분담을 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 먼저 각 지역교육청은 지나치게 학교 중심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여 평생교육 현실을 고려한 장기 발전계획 등의 기획과 객관적인 평가,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아낌없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또한 지역 평생교육의 전문화를 위해서 지역의 평생교육 전담기관에 전문 인력으로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함.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지역기관들을 안내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실천가들에게 요청되는 자료개발 등 지역평생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여 실천에 필요한 매뉴얼, 핸드북, 워크북, 사례집 등을 개발하고,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획, 최상의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그리고 지역평생학습관은 지역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단위 협의체를 구축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마지막으로 지역 평생교육기관·단체는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에 적극 동참하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그림 3.2.2]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역할 분담

■ 지역에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많은 주체들이 있음. 이들 간의 연계·협력을 위해서

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체간의 강한 네트워크가 요청되며, 각 주체들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따라서 평생학습관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음. 현재 평생학습관의 역할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이제 지역의 유기적인 협동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공동의 협력적 사업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지역 평생교육 중심 기관으로서 특유의 평생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함께 지역의 기관·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동을 통해 프로그램 및 사업의 개발이 시급함. 그러므로 평생학습관들은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단체들과 협력하여 공동 연수 및 홍보, 프로그램개발, 연구개발, 지역 요구 조사 등의 종합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표 3.2.17〉 주체별 역할분담

주 체	역할 분담
교육청	1)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략 수립 2) 평생교육 네트워크 지원 예산 확충 3) 지역평생교육협의회 활성화 4) 평생교육진담기관에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배치 5)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추진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	1) 지역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 계획 수립 2) 자료개발 등 전문화지원: 매뉴얼, 핸드북, 워크북, 사례집 등 3) 지역평생교육 연구 및 연수
지역평생학습관	1) 지역 기관간의 평생교육프로그램 교류 조정 2) 네트워크 사업의 개발: 지역 공동 홍보, 학습도시 사업 등 3)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협의체 구성 운영 4) 지역학·시민대학 등 지역 특화프로그램 개발 제공 5) 지역 평생학습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시스템 구축
지역 평생교육 기관·단체	1) 기관·단체의 독자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2) 협의체 참여 3) 지역학·시민대학 등 지역 특화프로그램 운영

2) 평생학습관의 지역 밀착/지역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모든 평생교육 기관·단체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 바로 주민의 학습요구임. 더욱이 최근 지역 주민의 학습요구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학습요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시급하게 요청됨. 그리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학습요구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또한 그 욕구에 맞는 학습정보와 학습자원에 관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됨.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는 지역의 평생교육 제공 기관·단체가 주민의 학습 요구를 분석하고 충실하게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임.

■ 50여 년 전부터 공적 사회교육시설로 성장해 온 일본의 공민관은 지역의 기초생활권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래서 공민관의 프로그램은 지역에 밀착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즉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화, 환경, 역사, 예술, 전통, 생활 등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고유한 지역학(地域學)을 성장시키고 있음. 그러므로 일본 공민관은 지역의 과제를 학습과제로 전환시키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임. 현재 우리의 공적 평생교육기관인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교양·취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띠고 있음. 그리고 공민관이나 생애학습센터에서는 사회적 요구가 강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있음.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공적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인 것임.

■ 2003년도에 충남교육청은 평생교육 기초조사를 통해 지역 전체 주민의 평생학습 요구를 조사하였음(양병찬 외, 2004). 이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최근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는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음. 한쪽은 젊은층의 고학력화와 함께 진전되고 있는 고도의 학습욕구를 가지고 있는 층이며, 다른 한쪽은 여전히 자기학습력이 낮은 층임. 이처럼 전혀 다른 학습요구를 가진 두 층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체제를 강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는 바로 이러한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요구들을 하나의 지역 단위로 협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데 그 필요성이 있음.

3) 평생학습관 건물을 기능적 복합화

■ 지역에 평생학습관과 여성회관, 도서관 등의 개별 시설을 각각 설치함으로써 설치경비의 부담이 크며 공간적 거리로 인하여 서로 공동 사업을 전개하기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 일본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 이에 최근 일본의 평생교육기관의 하나의 추세가 생겼는데 공공시설의 기능적 복합화가 바로 그것임. 생애학습센터와 여성센터, 공민관과 도서관 등을 복합화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프로그램의 협력을 통한 상호 상승효과를 얻고 있음.

■ 이는 우리 한국 평생교육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음. 현재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체제 개편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연계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 일본은 새로운 평생교육시설을 설계할 때, 지하철에서 가까운 곳을 설정하여 접근성을 확보한 후에 도서관과 공민관을 하나로 묶는 생애학습센터를 설계함. 이는 각각의 건물을 독립적으로 혹은 한 건물로 만드는 데 양쪽 모두 통합적 설계를 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조직에 있어서는 더욱 특이한데, 도서관

은 도서관 나름의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위한 관장을 독립적으로 두며, 공민관의 관장도 독립적으로 배치하여 두 기관을 총괄하게 함. 이는 업무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기능적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어느 한쪽 기관장을 종합시설의 기관장으로 삼는 방식임.

■ 한국에서는 개별 평생교육기관들이 중앙 부처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복지부 등으로 나뉘어 설립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시설의 기능적 연계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임. 실제적으로 개별 시민의 입장에서는 평생교육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 되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도 가지려 하지 않음. 그러나 평생학습관, 도서관, 여성관련시설, 노인관련시설, 청소년관련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각각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시설들이 각각 분절되어 설치됨으로써 상호 유기적 협력 관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평생교육 관련 기관들의 기능적 복합화가 요청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에서도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시설의 기능적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평생교육 관련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활성화에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음.

4) 평생학습관 및 실천가의 전문화 노력

■ 지역 평생학습관과 실천가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함. 전문 국가 자격인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자를 배치하고, 평생교육 종사자를 연수함으로써 평생교육 실천가들이 프로그램의 기획·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전문화를 도모함. 더욱이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주도하게 될 평생학습관에는 우수한 평생교육 전문가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 현재 평생학습관 소속직원을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평생교육 업무의 전문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실제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전문성 신장 및 업무의 지속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현장 인터뷰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평생교육 담당자의 신규 충원이 시급한 과제인 것임. 평생교육 전담기관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 전문 연구인력과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함. 일본의 평생교육기관에 고용되는 인력의 전문직화는 우리 평생교육기관에서의 비전문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과제라고 평가할 수 있음. 일본의 사회교육주사, 공민관주사 등으로 공무원의 교육직렬로 구분되어 전문성을 가진 자격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관련 직무에는 관련 자격자만을 배치함으로써 관련 직무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있음. 일본 평생교육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은 전문직 공무원 제도라고 하는데, 아무도 이를 달지 않음. 그러나 한국은 현재 국가 자격인 평생교육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여전히 비전문 직원을 통해 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평가함으로써 초보적 단계의 프로그램 이상을 넘어설 수 없는 상황임.

■ 결론적으로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의 평생교육기관들이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양질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전문화된 자격제도를 통해서 훈련된 전문가들에게 의해 기관이 운영되기 때문임. 한국도 평생학습관에 전문 인력의 채용과 전담 조직의 강화를 통하여 기관의 교육적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5) 평생학습관의 모형을 개발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 시·군·구별로 지역 평생학습관 1개씩 설립을 목적으로 전용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함. 이를 위하여 시설 및 설비 등의 모형을 개발하여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충실하게 담당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 환경과 설비를 제시함으로써 타 평생교육기관의 모델로서의 과급되게 하여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확산시킴. 한편, 현재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으로 설치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가운데 일부를 지역의 전용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마을 단위의 평생학습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여기서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함. 행정자치부는 운영 전반을 맡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다 전문화할 수 있게 될 것임.

IV.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실태

1. 평생학습도시의 배경
2. 한국의 평생학습도시의 추진 현황과 과제
3. 외국의 학습도시 조성 사례

IV.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실태

1. 평생학습도시의 배경

■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대응

-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은 지식의 폭발현상을 가져옴. 현대사회는 더 이상 단순 대량생산만으로는 통해 발전을 추구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으며, 새로운 지식 혹은 기존의 지식을 새로운 연결지어야만 발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이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됨. 즉, 주민들은 꾸준히 학습하지 않으면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은 커녕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주민의 학습부재는 지역의 총체적인 학습역량의 부족을 가져옴으로써 지역의 발전 가능성도 크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음.

- 전통적으로 학습은 지식의 습득 행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개인의 행위로 한정되었으나, 지식기반사회에서 학습 행위는 지식의 창출·유통·습득·활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회적 행위로 인식됨. 따라서 사회 운영의 입장에서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를 통해 발전을 추구하려면 학습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김.

■ 지방화 시대의 요청

- 현대사회는 중앙집중적인 사회로부터 시민중심·지방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 산업발전과 사회민주화를 통해 국민의 복리 증진에 대한 강조되면서 중앙정부가 국민생활의 세세한 영역에까지 직접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통해 국민복리에 관한 세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이관되고 있음. 1989년 부활한 지방자치법에 의거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방화의 추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음.

- 지역 내부의 학습활동·지역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넘어가고 있음. 지역주민들도 더 이상 국가에 모든 것을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전을 추구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

■ 국민의 학습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 전통적으로 교육에 관한 권리는 국가의 것으로 인식되어 옴. 국가가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며,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자아실현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종속되는 것으로 다루어짐. ‘국민교육헌장’이 대표적인 사례임.

- 사회민주화는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리를 교육에 대한 책무로 전환시켰으며, 그 권리를 시민의 것으로 전환시킴. 시민의 권리로서 교육권이 정밀해지면서 시민의 학습권 사상으로 발전함.

- 1980년부터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뒤 이를 위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9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연령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권” 조항을 삽입하여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함.

- 1999년에는 과거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개정하고, 성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임무를 부여함.

■ 평생교육 관련 세계동향에 부응

- 세계적으로 1960년대 이후 평생교육은 지역단위의 학습활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함. 미국과 영국의 지역사회학교 활동이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한국에도 새마을학교 혹은 지역사회학교라는 이름으로 도입됨.

- 1970년대 후반부터는 자치단체 단위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함. 1979년 일본의 가께가와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음.

- 1990년대부터는 국가 및 국제기구 단위에서 평생학습도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함. 1992년 고텐버그(Gothenburg)에서 개최된 OECD회의가 도화선이 되어 175개 도시가 국제학습도시연합회를 결성함.

2. 한국의 평생학습도시의 추진 현황과 과제

2.1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추진배경

■ 한국에서는 1994년 창원시에서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는 광명시가 한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정부는 평생교육의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여 2000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였으며,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정책으로 지역의 경제적 발전·사회적 통합·도시경영 합리화·학습공동체 형성 등이 기대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가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양병찬, 2002). 첫째, 지역사회의 역할 증대와 학습 공동체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정보화의 발달로 국가 발전에 있어 지역 사회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지역 단위의 학습 공동체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사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식이 확산되었음. 둘째, 지역 인적 자원 개발을 촉진하려는 측면과 지방 자치 시대에 있어서 특색 있는 지자체 건설 및 지역적 요구와 도전에 대한 해법으로서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지역인적 자원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인적 자원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임. 셋째,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였음.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 교육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스포츠 시설, 복지 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공동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였음.

■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심사 절차를 보면, 지자체에서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청에 제출하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들을 심사하여2개 도시

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을 하며, 추천을 받은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학습도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통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함.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 방문 심사, 3차 종합 심사로 이루어지며 총점 순위에 의해 결정함.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게 됨. 지원금은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 해당 지자체들의 투자를 유도해 내는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지자체는 총 33개로 그 현황은 다음 <표 4.2.1>과 같음.

■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정된 지자체들에게 매년 다수의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여 평생학습도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3개 도시의 4개 프로그램에 총 9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에는 6개 도시의 12개 프로그램에 총 3억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에는 10개 도시의 19개 프로그램에 총 5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19개 도시의 27개 프로그램에 총 7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음. 2010년까지 총 100개 도시를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4.2.1> 평생학습도시 조성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 광명시 - 진안군 - 유성구	- 제주시 - 부천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순천시 - 서귀포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거창군 - 안동시	- 이천시 - 청주시 - 금산군 - 전주시 - 목포시 - 칠곡군 - 창원시 - 관악구	- 서울 양천구, - 서울 성북구 - 인천 부평구, - 경기 수원시 - 경기 구리시, - 충북 단양군 - 충북 제천시, - 충남 부여군 - 광주 남구, - 전북 익산시 - 대구 동구, - 대구 달서구 - 경남 김해시, - 경남 남해군

■ 정부가 지금까지 조성한 평생학습 도시 현황과 평생학습도시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학습도시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도시지역의 유형도 농산어촌지역과는 거리가 먼 유형들로 형성되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평생학습체계가 도시지역 위주로 위치하고 있어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편이며, 그 동안 농림어업 정부정책이 물리적 시설 위주로 투자가 시행되어 소프트웨어 사업이 소외당해왔던 것도 이런 격차를 발생시킨 한 요인이 되었음.

▣ 따라서 농산어촌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질 높은 평생교육체제의 혜택을 받고 농산어촌지역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평생교육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농산어촌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시스템을 보면 도시지역과 비교해 보면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우선 교육의 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경우 도시지역 보다 농산어촌지역이 교육 대상자간 편차가 크고 대상의 수를 적정수준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음.

▣ 특히 농산어촌지역은 농번기 때는 교육이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 도시지역과는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교육시간도 야간 위주의 교육으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 농산어촌지역의 평생교육내용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이뤄질 수밖에 없음.

〈표 4.2.2〉 평생학습도시의 유형

유형		특징
시민 사회 중심	지역사회 재생형	현대 사회와 같은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역할 또는 정체성 탐색을 목표로 시·군·구 범위에서 종합적이고도 광범위한 재생(regeneration) 전략을 기본 특징으로 함.
	이웃 공동체 형성형	이웃을 위하여 형식적 학습, 비형식적 학습, 성찰적 학습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웃 공동체 관리를 통하여 시민정신의 쇠락을 막고 적극적인 시민정신을 주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웃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형
경제 발전 중심	산업 혁신형	지역을 위하여 주로 기업체가 주도하는 학습지역 운동으로 산업단지 및 산업 복합단지에서 혁신을 증진시키려는 것을 주된 접근으로 함.
	학습 파트너형	교육훈련 제공 및 이용자를 위한 학습 파트너십형은 교육훈련 제공자와 학습자를 위하여 자원, 지역사회 학습 파트너십 체제를 형성하여 협력을 증진하고 학습에의 참여를 심화시킴.

▣ 이하에서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시·군·구의 사업현황, 추진과정 그리고 추진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2.2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⁶⁾

6) 변종임 외의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운영 실태 분석 연구」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백서」에서 요약 정리하였음.

가. 1차년도 선정 학습도시 현황

1) 평생학습도시 조성 여건

■ 2001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경기도 광명시, 대전시 유성구이며, 농촌지역으로 전라북도 진안군이 선정되었음.

■ 광명시는 지역 교육청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학습원을 신축해오던 중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음. 광명시는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없어 고등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기관 설립과 평생교육을 통한 대안적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한 지역인데, 평생교육 여건을 살펴보면 2004년 현재 평생교육기관 수는 총 583개로,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많고, 시민 사회단체와, 복지관 등 시민들의 학습참여 여건이 잘 갖추어진 지역임.

■ 유성구는 대덕연구단지, 대덕지식벨리가 말해주듯 지식기반경제와 학습지역의 이상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성공할 여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임.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기획과 예산 집행은 유성구청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지역교육청의 참여 역할은 미미하였음. 유성구는 인구 약 20만명(2004년) 규모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의 신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4세 이하 비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0대, 15세~29세 순으로, 30대 이하의 인구가 유입되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젊은 도시임.

■ 농촌지역인 진안군은 진안군청보다 지역 교육청 주도로 '전북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평생학습도시 공모에서 성공한 지역으로, 지역의 비문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쳐 지역 주민의 기초 학습력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음. 2003년 기준으로 총 인구 약 3만명 가운데 노인인구가 21%이며, 재정 자립도는 10.2%에 불과하며 농림업 72.4%, 서비스업 25.5%의 전형적인 농촌형 산업구조에 해당하는 지역임.

2) 평생학습도시 사업 현황

■ 1차 년도에 선정된 도시들의 평생학습도시 사업 현황을 보면<표 4.2.3> 다음과 같음. 광명시는 1998년 11월, 「광명시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1999년 3월 9일 학습도시 선언과 함께 '광명시평생학습센터'를 개관, 운영하였음. 그 후 2001년 3월에 '광명시 평생학습도시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9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종합적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1년 10월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완공은 광명시 평생학습도시사업의 전환점 역할을 하였으며, 다음 해 2월, 성공회대학교를 평생학습원의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이후부터는 광명시 평생학습원을 중심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광명시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위하여 2004년 약 104억원의 지자체예산을 투입하였으며, 현재 광명시 평생학습원에 16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음.

〈표 4.2.3〉 1차년도 평생학습도시 사업 현황

구 분	광명시	유성구	진안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주 인구 수 부족 낮은 제정 자립도 교육 기관 수 부족 산업 기반 미흡 시민들의 평생학습 요구 증대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공동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교육의 한계와 평생학습 요구 급증 행정 서비스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재원과 행정 작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 대덕연구단지, 대덕 지식 벨리, 첨단 과학 산업 단지, 엑스포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부족 용담댐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의식 특용 작물 전문 농업인의 학습 욕구 증대 노령 인구의 기초·기본 학습 능력 배양
비전/이념	<p>배움을 생각하는 시민, 배움을 실천하는 시민, 배움을 나누는 시민</p>	<p>VISION있는 건강도시 육성</p>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 지역화 전략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략 평생학습 생활화 전략 사회적 통합 증진 전략 학습자 중심 전략 단계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 추진 기초마련 평생학습 도시 원년 청소년 평생학습문화육성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공동체형성 국제 평생학습도시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지원조례 제정 평생학습 전문 인력 양성배치 지역 평생학습관 지정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지역 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 지역 사회 평생학습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 기회 제공 평생학습 거점 만들기 학습 활동 지원 지원 추진 체제 구축 자연, 역사, 문화, 산업 관련 평생학습 진흥 지역 사랑, 연대감 넘치는 지역 공동체 형성 새로운 지역 문화 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사회 평생학습 조직 재구조화상호인계 체제 구축 주민 특성 발현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 평생학습 여건 개선과 봄 조성으로 위한 지역 문화 창달
예산	104억 1,481만원	6억 6,577만원	6억 2,000만원
지자체조직내 평생교육사 수	2억		

(계속)

구 분	광명시	유성구	진안군
지자체전체 활동하는 강사 수	337명	135명	14명
지자체조직 내 평생교육사업 담당자수 (평생교육센터 근무자)	7명 (16명)	2명	2명
주민자치센터 조직과인력 현황	18개/204명	8개/8명	/
조례	유	무	무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유	유	무
지자체의 정보 인프라 기반 구축	유	유	무
지자체의 정보 인프라 관리 예산	2,000만원		
지자체의 정보 인프라 관리 인원	1명	10명	

■ 유성구는 2002년 1월, 3개동 주민자치센터를 소생활권 단위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고 동별로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음. 평생교육예산은 지자체 예산의 경우 2004년을 기준으로 약 6억 6천만원이고, 평생교육사는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강사 수는 2004년 현재 135명임. 평생학습도시 사업담당인력은 2명임. 주민자치센터의 조직 중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인력은 8명임

■ 진안군의 평생학습도시 사업 현황은 2004년 진안군의 평생교육예산은 약 6억 2천만원으로 별도의 평생학습센터는 없으나, 기존 문화의 집과 종합학생교육원을 평생학습중심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평생교육담당 인력으로 평생교육사는 채용하지 않았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종사하는 강사 수는 2004년 현재 14명이고, 지자체의 평생교육사업 담당 인원 수는 2명임.

3) 평생학습사업 추진과정

■ 1차년도 선정된 평생학습도시들의 사업 추진 과정은 <표 4.2.4>과 같음.

광명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시기를 기반조성기, 발전기, 확산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광명시청의 지원 아래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음.

■ 주요 사업은 광명시 평생교육 현황 조사, 국내외 평생학습도시 연구 등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강사은행제 운영, 평생교육담당자 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

영 및 지원, 학습동아리 지원, 학습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광명시에는 2개의 평생학습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 전역에서 602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평생학습 관련 세미나와 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표 4.2.4〉 1차년도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과정

구 분	광명시	유성구	진안군
추진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지원 아래 광명시 평생 학습원 주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추진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안군 평생학습고을추진위원회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명시 평생교육 현황 조사 · 성인 비문해 조사 연구 · 국내의 평생학습도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강사은행제 · 경기도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 지역 평생교육 실무자 워크숍 · 전문 강사 및 담당 교사 연수 · 평생교육사 실습생 교육 ·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활성화 · 지역 사회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 한글 문해 교육 봉사자 / 강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문해 교육 · 학습 동아리 지원 및 리더 교육 · 학습 동아리 활동 사례집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학습 상담 자원 봉사자 교육 · 학습 상담 자원 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시설 대관 사업 · 소식지 '배움이 좋아요' 발간 · 평생학습도시 정보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수첩 제작 · 교육 통화, 1인 1동아리 갖기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추진기획단 구성 · 평생학습도시 조성 5개년 계획수립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정비 · 평생학습도시 선언문 선포 · 전담 인력 확보 · 관련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협의체 구성 ·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교류 기회 확대 · 민간 국제 교류 단체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전문 인력 양성 · 배치 · 지역 평생학습관 지정 · 평생학습기관 정비 ·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조성 · 평생학습고을 홍보 활동 강화 · 평생학습고을 선포식 · 기관 간 협조 체제 강화 ·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추진 · 학습자 선호 취미 프로그램 운영 · 정보 통신 교육 실시 · 한글 교실(문해교실) 운영 순회 교육 · 평생학습관 입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축제 · 초 · 중학교를 이용한 평생학습 추진 · 도 지정 시범 학교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교 1평생교육 프로그램운동
협의회	2개	1개	1개
네트워크 추진 사업수	45건	1건	2건
연수회수	6회	1회	
세미나수	4회		
축제수	1회		

유성구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위하여 평생교육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과 2005년에 관계자 연수를 각각 1회 실시하였으며, 2004년 현재 총 29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진안군에는 평생학습고를 추진위원회가 있으며, 지역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체제로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 사회 내 기관과의 네트워킹은 미미한 실정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2004년 현재 총 12개가 운영되고 있고, 2003년에 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된 바 있음.

4)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결과

■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결과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경제성장에 기여, 인적 자원 개발에 기여, 사회통합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표 4.2.5>와 같음.

■ 광명시의 경우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가 2001년 414개였던 것이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602개로 늘어났으며, 학습 동아리 수도 2002년 44개에서 2004년에는 495개로 크게 늘어났으며, 축제, 세미나 등 평생교육 관련 이벤트 개최도 증가하였음. 인적 자원 개발 측면을 보여주는 평생학습 자원봉사자 수는 2003년 221명에서 2004년 323명으로 늘어났으며, 사회통합측면에서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수는 2001년 45개에서 2004년 58개로 증가하였으며, 지역학 프로그램으로 광명 지역학 프로그램과 시민제안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결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평생학습자원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음. 동시에 외국의 선진 학습도시와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유성구의 경우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평생교육시설 수는 2001년 216개에서 2004년 현재 265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2001년 279개에서 2004년에는 292개로 증가하였음. 학습 성과 발표회는 2004년 한 해 동안에만 7회가 개최되었음.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2004년 2개가 운영되었으며, 평생학습을 통한 자격 취득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시민성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 4.2.5〉 1차년도 평생학습도시 추진 결과

구 분	광명시	유성구	진안군
평생교육시설 수	583	265	10
프로그램 수	602	292	12
학습 동아리 수	495		4
이벤트 회수	8		
성과 발표회 수	33	7	2
학습 결과물 상품화			
학습프로그램 상품화			
지역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	5		
평생학습 봉사자 수	323	7	2
평생학습 봉사단체 수	6		2
창업 프로그램 수	3	2	
자격 취득자 수		25	
소의 계층 대상 프로그램 수	58	1	4
시민 사회 단체 수	12		6
시민성 고양 프로그램 수	213	1	1
지역 사랑 프로그램 수	27		1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 사회 평생학습 자원 개발과 활용 활성화 · 지역 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 · 지역 사회 평생교육 관계자의 전문성 함양 · 지역 사회 평생교육 추진 체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체육 전용 시설 · 주민자치센터 시설 · 평생 학습관 지정 ·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활성화 · 고령자 정보화 마인드 제공 · ICT활용을 통한 평생 학습 지역 뷰터링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고령자 정보화 마인드 교육 · 범국민적 문해 교육운동 전개 · 평생학습관 정비 ·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조성

▣ 진안군은 평생학습도시 사업 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12개, 학습 동아리 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습 성과발표회가 2004년에 2회 개최되었음.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 인적 자원 개발 측면을 보여주는 평생학습 자원봉사자 육성은 미미한 실정이나,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결과 문해교육과 같은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자 정보화 교육 등 농촌 지역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추진되었음.

나. 2차년도 선정 학습도시 현황

1) 평생학습도시 조성 여건

▣ 2차년도인 2002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도 부천시, 제주도 제주시 그리고 부산시 해운대구 등 3개 도시임.

■ 부천시는 지방의제 21사업을 통해 시민 단체와 관이 협력하여 평생학습도시사업을 추진하였음. 그리고 지역의 평생교육 활동을 담당하던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평생학습센터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음. 지역 내의 다양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과의 원활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음.

■ 또한 소규모 지역 단위의 마을 공동체 형성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인구 약 85만명(2004년)이며, 40대 이하 연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주민자치센터가 많고, 도서관 17개소, 복지관 11개소, 박물관 8개소, 지식인력개발기관 7개소가 있어서 평생교육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임.

■ 제주시의 인구는 약 29만명(2004년)으로, 연령별 인구 현황은 14세 이하의 인구가 가장 많고, 15세 이상 29세 이하, 30대 순으로 대체로 젊은 층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도·소매업 종사자가 21,19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숙박·음식업에 20,548명, 교육서비스업에 7,991명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중심 지역임. 평생교육여건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19개소, 공공체육시설 12개소, 박물관 5개소, 도서관 4개소 등이 있음. 2002년 시승격 기념일인 9월 1일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거행하고, 평생학습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소생활권 단위의 평생학습관을 지정하고 시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해운대구는 지자체 주도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시설로 활성화시키고 있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생태 환경, 민주 시민, 문화 예술 분야의 교육 활동과 평생학습도시 홍보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해운대구는 인구 40만명(2004년)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 인구가 가장 많은 젊은 도시이며, 미술관 1개, 화랑 14개, 복지관 7개, 공연장 13개 등 평생교육시설이 있음.

2) 평생학습도시 사업 현황

■ 2차년도 선정 평생학습도시의 사업 현황은 <표 4.2.6>과 같음. 부천시의 평생교육예산은 2004년을 기준으로 약 13억원이며,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강사는 2003년 130명이 고, 2004년 215명임. 2005년 현재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자 4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2003년에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평생학습도시 통합조례를 제정하였음. 평생학습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정보 인프라를 관리하는 인원이 3명 배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 평생학습

에 대한 정보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4.2.6〉 2차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역 현황

구 분	부천시	제주시	해운대구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요충지 · 9천여개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지역 경제에 동맥 역할 · 문화 산업 기반 형성 · 교육기관 수 부족 · 산업 기반 미흡 · 평생교육의 중심 역할 기관 부재 · 시민들의 평생학습 요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국제자유도시 · 제주시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대한 요구 · 인적 자본의 사회적 자본화에 대한 요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대 · 주민자치센터를 구심체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요구 · 지역의 환경, 문화, 역사, 자원의 학습화를 통한 지역 재생 기대
비전/이념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부천 나눔이 실천되는 도시, 부천	늘 배움 공동체 제주시	푸른 도시 밝은 미래, 늘 배움터 해운대
추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사회 · '시민이 만드는 문화가 있는 부천'의 실현 · 자립 경제 기반을 갖춘 부천 · 학습공동체의 실현 · 세계화와 지방화가 공존하는 학습도시 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도시 · 지역 정보 도시 · 국제 도시 · 복지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생태 환경 학습도시화 ·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 체험 학습도시 건설 · 문화·예술을 즐기는 학습 생활에서 지역 봉사의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지역 문화 조성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기회 확대 · 평생학습 기반 강화 · 소외 계층 평생학습강화 · 문화시민 육성 · 학습 동아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문화 정비 ·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 평생학습을 통한 세계화 	
예산	13억 2,950만원	2억 5,000만원	6억원
지자체 조직 내 평생교육사 수	2	1	2
지자체 전체 활동하는 강사 수	215		
지자체의 평생교육사업 조직과 인원	4	4	2
주민자치센터 조직과 인력 현황	37/37	19/19	17/17
조례	유	유	유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유	유	유
지자체의 정보인프라 기반 구축	유	유	유
지자체 정보 인프라 관리 예산	2,000만원		
지자체정보 인프라 관리 인원	3	1	1

■ 제주시의 평생학습도시 사업 투입현황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예산은 2004년에 약 2

억 5천만원이 투입되었고, 평생교육센터에는 평생교육사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와 정보 인프라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 추진협의회는 2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19개소에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해운대구의 평생학습도시 사업 투입현황을 보면, 평생교육 예산은 2004년 기준으로 6억원이며, 평생교육사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17곳에서 지역특성화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평생교육센터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3) 평생학습도시 추진 과정

■ 2차 년도에 선정된 평생학습도시의 사업 추진 과정은 <표 4.2.7>과 같음. 부천시는 2000년 푸른부천만들기21추진협의회와 교육·문화분과위원회의 의제선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교육 분야 의제로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통해 민주 시민을 기르는 부천이 선정되었음. 그 후 지속적인 민·관 협력 논의 과정을 통해서 2002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2003년 4월, 「부천시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였음. 그리고 같은 해 5월에 부천시 평생학습협의회 발족 회의가 개최되었고, 2003년 7월에 부천시 평생학습센터를 개소하게 되면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평생학습센터는 지역평생교육 관련 파트너십의 평생학습 전문 조정자 역할과 지역 내의 수많은 평생교육 관련 조직들 간의 파트너십 코디네이터(Partnership 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부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협의회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관간 네트워크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제주시에선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해서 평생교육위원회와 평생학습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에 20건의 지역 네트워크 사업이 추진되었고, 12건의 평생교육 세미나가 개최되었음.

■ 평생학습도시 사업내용은 소생활권 단위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평생교육단체와 지역 별 학습 동아리 지원, 외국어 상설교육장 운영과 외국문화 체험활동 지원,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학습벨트 구축, 평생학습수첩 제작·보급,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 등이 추진되었음.

■ 2004년에는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적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음. 해운대구는 푸른 해운대구 평생학습도시 해운대구를 목표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표 4.2.7〉 2차년도 평생학습도시 추진과정

구 분	부천시	제주시	해운대구
추진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천시 평생학습조례 제정 평생학습협의회구성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부천시평생학습센터설립 평생학습전담인력 배치 평생학습도시 건설 5개년 중장기계획 수립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국의평생학습도시연구, 외국방문 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개최(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평생학습지원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운대 평생학습센터 설립(평생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평생학습도시 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운대구 평생학습도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주요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별, 영역별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지원(평생학습 프로그램/소외계층 평생교육진흥/지역특화사업)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현상 공모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소외계층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역특화 및 지역 정체성 함양사업 대상별, 영역별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준비사업 사이버 평생학습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과 문화나누기 5개과정(교육인적자원부 지원 우수 프로그램 지원받음) 평생교육기관·단체 현황 조사 주민 요구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소생활권 평생학습관 지정운영(19개소) 평생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학습벨트 구축 외국 문화 체험 활동지원 제3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 평생학습 지도자 연수 학습 동아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프로그램 운영:자연생태 환경분야, 문화예술분야, 주민자치 지역학 분야 생태학습 공원 조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역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협의회	2	2	1
네트워크 추진 사업수	11	20	7
연수회수	85	1	5
세미나 수	1	12	4
축제 수	1	1	1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생태 환경, 민주 시민, 문화 예술 교육, 보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기관을 특성화하여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또한 지역평생학습축제 지원, 평생교육관계자 연수 등의 사업과 더불어 평생학습도시 홍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4)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결과

■ 2차년도에 선정된 평생학습도시의 사업 추진결과는 <표 4.2.8>과 같음. 부천시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평생교육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확대·운영되고 있음.

<표 4.2.8> 2차년도 평생학습도시 추진결과

구 분	부천시	제주시	해운대구
평생교육시설 수	356	462	714
프로그램 수	382	176	364
학습 동아리 수	67	21	10
이벤트 수	2	1	5
성과 발표회수	3	1	2
학습결과를 상품화			
학습프로그램상품화			
지역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			2
평생 학습봉사자수	700		100
평생 학습봉사단체수	67	34	10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수	4	8	1
시민 사회단체 수	30	28	
시민성 고양 프로그램 수	6	6	3
지역사랑 프로그램 수	2	6	16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평생학습도시종합발전 세부계획 수립 · 지역 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사이버 학습도시 건설 · 평생학습 진흥 및 활성화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과 확대를 위한 홍보 사업 전개 ·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자원봉사자 양성 · 소생활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문화조성 · 평생학습기관, 단체 네트워크 재정비 및 활성화 · 국내외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의 교류 · 평생교육시설 단체 운영 현황 조사 · 지역 문화 진흥 운동 프로그램 운영 · 소생활권 평생학습관 학습 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체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 · 자원 봉사 전문화 ·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 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지원 ·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축제 한마당

2003년 25개에서 2004년 현재 67개의 학습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을 만큼 활성화되었고,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 세미나 등과 같은 평생학습 이벤트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

음. 또한, 지역 평생교육 주체간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67개의 학습관련 봉사단체에서 700여명의 평생교육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권에서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펼쳐가고 있음.

■ 제주시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성과를 보면, 2004년 현재 총 462개의 평생교육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2001년에 74개에서 2004년에는 176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학습 동아리도 21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위한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 내의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국내·외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소생활권 단위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우수한 학습 동아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해운대구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성과를 보면, 평생교육시설 수가 2001년 682개에서 2004년 714개로 증가하였고, 학습관련 이벤트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인해 지역 사회의 평생교육 추진 체제가 정립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기능이 강화되었음. 그리고 주민들의 평생학습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우수한 평생학습 동아리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다. 3차년도 선정 평생학습도시 현황

1) 평생학습도시 조성 여건

■ 2003년(3차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경남 거창군, 제주도 서귀포시,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인천시 연수구 등 5개 도시임.

■ 거창군은 평생교육원을 거창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거창대학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11개 면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제고에 노력하였으며, 방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거창군은 인구 약 6만명의 소규모 도시로, 15세 이상 29세 이하 인구가 13,59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 11,867명으로, 청소년 층과 중·고령층이 많은 지역임. 평생교육시설 여건은 2004년 현재 전체 평생교육시설 수는 총 40개이며, 이 중 가장 많은 시설은 복지관으로 11개이고, 공공체육시설은 9개, 청소년 수련관은 3개, 공연장은 3개, 도서관과 박물관이 각각 1개가 있음.

■ 서귀포시는 시민대학을 설치하여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12개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 거점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강화하고 있음. 약 8만 3천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서귀포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인구가 17,97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평생교육시설로는 주민자치센터가 12개, 도서관이 5개, 미술관이 2개, 공무원연수원, 여성회관 및 문화원이 각각 1개가 있음.

■ 순천시는 초기에 외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바탕으로 10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여 시정 전체를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여 왔음. 평생학습도시 조성 초기에 전담과를 신설하여 추진 체제를 공고히 하였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사 과정을 운영하여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음. 인구는 약 27만명(2004년)으로 14세 이하의 인구가 62,394명으로 가장 많고, 20~40대 인구비중이 높은 비교적 젊은 도시로 할 수 있음. 평생교육 시설 수는 2004년 현재 총 311개소로, 공공체육 시설,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박물관,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관, 문화원, 공연장 등의 시설이 있음.

■ 안동시는 지역의 전통문화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2005년에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였으며, 교육청과 협력하여 평생교육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인구는 약 17만명(2004년)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인구이고, 그 다음은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로 나타나고 있음. 총인구의 약 25%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업자로 분류되고 있음. 평생교육시설 여건을 보면, 2004년 현재 전체 평생교육시설 수는 총 261개로, 주민자치센터가 11개이고, 사업장 부설 시설이 8개, 청소년 수련관이 6개, 도서관이 4개, 박물관이 2개가 있음.

■ 연수구는 지역 내의 다양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평생교육사 3명과 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인구는 약 25만 명으로 중도시 규모에 해당하며, 49세 이하의 청년층과 장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 평생교육시설 현황은 2004년 현재 총 79개로, 가장 많은 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이고, 그 다음이 주민자치센터, 공연장, 복지관 순임. 이 밖에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이 각각 1개가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시설이 2개 있음.

2) 평생학습도시 사업 현황

■ 3차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도시들의 평생학습도시 사업 현황은 <표 4.2.9>과 같음.

<표 4.2.9> 3차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역 현황

구분	거창군	서귀포시	순천시	안동시	연수구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대한 요구 증대 · 평생교육 서비스의 체계적인 공급에 대한 요구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 · 열악한 교육, 문화, 정보, 복지 프로그램 및 교육 문제로 인한 연구 정체 현상 초래 · 기관장의 평생학습에 대한 열정과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에 대한 시대적 요구 · 순천을 교육도시로 기대하는 주민 수 증가 · 지역적 한계 극복에 대한 의지 고양 ·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가는데 대한 인식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문화의 세계적 본고장 · 불교, 민속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 · 많은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한 교육 문화의 도시 · 종합 시스템 미비로 중복 프로그램 운영 낭비로 운영 ·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교육 수준과 학습 의욕 · 정적 문화도시에서 동적 학습 도시로 재구조화 · 지역 사회 잠재적 혁신 역량으로 지역 공동체 건설 · 동북아 중심의 요충지 · 교통 발달과 주거 환경
비전/이념	<p>군민 모두가 배울 수 있는 학습권리 보장, 주민자치의 평생교육 학습도시 조성, 21세기 경쟁력 있는 선진 자치 단체 육성</p>	<p>꿈과 사랑이 공존하는 평생학습도시</p>	<p>배움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p>	<p>안동의 전통 문화와 사상을 연계한 평생 학습도시 조성으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육성</p>	<p>학습의 즐거움 나눔의 기쁨이 있는 도시</p> <p>-개인의 자아실현</p> <p>-사회적 통합증진, 도시 전체 경쟁력제고, 연수구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p>
추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 모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 · 학습자 개인의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는 기회제공 · 군민의 의식 개혁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 기회제공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C꿈이 있는 미래도시 기반 구축 · 더불어 잘 사는 통한 복지사회 조성 ·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 실현 · 교육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자립경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시민 육성 · 생애단계별 맞춤형으로 시민의 삶을 질 향상 · 광양만권의 발전에 따른 지역인적 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H/W)과 정신(S/W)이 조화된 지역 사회 발전 · 경북 북부권 평생 학습도시 확산을 위한 교두보 역할 · 전통 문화와 연계된 특성화 된 학습 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학습프로그램의 다양화 · 신지식 정보화 신도시와 연계한 국제 시민양성 ·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 도시전체를 평생 학습장화
추진 전략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에 의한 범시민적 추진 · 창조로 생산성 도모 · 통합형 개선체제 · 특화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킹 · 평생교육 정책개발 · 프로젝트운영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민의식 함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자원 개발 · 행정의 평생학습화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습 지원 체제 · 자율적인 운영을 중시하는 평생학습 운영 관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구와 동부교육청 주도의 평생 학습 기반 확충 · 건전 여가문화 보급 · 신지식 · 외국어 교육 강화 · 자치센터별 특성화 유도
예산	4억 5,000만원	5억 9,800만원	25억 1,600만원	6억 4천만원	24억

■ 거창군은 2004년에 평생교육사 1명을 채용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자체 내의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강사는 150명이고, 평생교육 담당자 수는 3명임. 또한,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에는 평생교육 조례가 제정되었음.

■ 서귀포시의 경우 2004년도 평생교육예산은 약 6억원이었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강사는 29명이며, 평생교육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12개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계속)

구 분	거창군	서귀포시	순천시	안동시	연수구
지자체 조직내 평생교육사수	1		1	1	3
지자체 전체 활동 강사 수	150	29	264	150	100
지자체의 평생교육사업 담당자수(평생교육센터종사자수)	3(4)	3(7)	70	2	3(3)
주민자치센터 조직과 인력 현황	5/5	12/12	3/3	11/11	9/9
조례	유	유	유	유	유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구축	무	유	유	무	유
지자체의 정보인프라기반 구축	유	무	유	무	유
지자체의 정보인프라관리 예산			3,000만원		1,500만원
지자체의 정보인프라 관리인원	1		1		1

■ 순천시는 2004년 현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위해 약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계에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로 개편하였기에 평생교육업무 담당자가 70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또한, 평생교육센터에 공무원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순천시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였음. 또한, 평생교육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에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와 정

보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안동시의 경우 2004년 현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위해 약 6억 4천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2004년에 평생교육사를 1명 채용하였고, 담당 공무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평생교육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11개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2004년에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5년에 평생교육센터를 개소하였음.

■ 연수구는 지역 내의 다양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평생교육사 3명과 공무원 3명을 배치하여 전문성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청소년과 노인 등 지역 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축제, 음악회 등 다양한 지역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평생교육에 투입된 지자체의 총예산은 2004년의 경우 약 24억이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강사는 약 100여명임. 2004년에 평생학습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3)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과정

■ 3차년도 선정 평생학습도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현황은 <표 4.2.10>과 같음. 거창군은 평생학습추진체제로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거창군 평생교육원을 거창대학이 위탁운영하고 있음. 평생교육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화센터와 국악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04년을 기준으로 평생교육 협의회 1건,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회가 이루어 졌음.

■ 서귀포시는 평생학습도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서귀포시 평생학습도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서귀포시의 주요사업은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칠보공예전문인 양성과정과 같은 전통적 프로그램, 외국인 시민강좌, 칠십리 평생학습 체험장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순천시는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 사업 내용으로는 10대 중점과제 추진, 북스타트 운동, 도서관 문화 창출 운동 등을 추진하였음. 환경생태교육,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2회의 연수가 개최되었음.

■ 안동시는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였고, 사업내용으로는 서원, 향교, 고택 등 유교문화를 활용한 인성교육, 시민교양강좌 운영, 충효교실, 선비교실, 낙동강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음. 1개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네트워크 사업이 추진되었음.

〈표 4.2.10〉 3차년도 평생학습도시 추진과정

구 분	거창군	서귀포시	순천시
추진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군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거창군 평생교육원 운영(거창대학 위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 평생학습도시 프로젝트팀 조직 운영 서귀포시 평생학습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서귀포시 평생교육기관협의회구성 서귀포 평생학습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 학습문화지원센터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원 거창대학 위탁운영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개발, 지원 사업 문화센터 국악아카데미운영 찾아가는 민민 건강 순회 프로그램운영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평생학습 실무자 해외연수 거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지원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시험 평생학습 자원봉사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 시민대학 운영 철보공예 전문인 양성교육 외국어 시민 강좌 운영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칠십리축제 평생학습 체험장 운영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탐라대학교와 시민대학/서비스아카데미/리더십 모델등 협약 국내외 연수 평생교육기관, 단체 프로그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대 중점 과제 선정 운영 북스타트 운동 도서관 문화 창출 시민 맞춤식 교육 환경 생태 교육 여성능력개발:14개 강좌 산,학,관,연,NGO,시민함께 하는 평생학습:6개 영역 시민건강관련 프로그램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요구조사 실시 주민자치센터 육성 해외 평생학습 선진 도시 견학
협의회	1	1	1
네트워크 추진 사업수	20		5
연수 회수	2		12
세미나 수	2		3
축제 수			1
추진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추진위원회 평생학습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평생교육추진 전담 기구 정비 평생학습센터 설치 	

(계속)

구 분	안동시	연수구
주요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향교, 고택 등 유교문화들 활용한 인성교육 · 시민 교양 강좌 · 충효 교실, 선비 문화 체험 운영 지원 · 낙동강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 안동시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 · 우수프로그램 지원 · 학습 동아리지원 · 학교 평생교육 진흥 사업지원:시범학교 운영 및 강좌 개설 · 풍부한 생명 자원을 이용한 농업과 인간 프로그램 개발 · 찾아가는 평생교육(향토문화 알림이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도시 선정 기념 제막식 및 홍보 · 구민 생활교양 강좌 개최 · 평생교육 요구 조사 및 실태 조사 ·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 연수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 다양한 문화가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 행사 · 생활 체육 저변화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 · 노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여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선진 공무원 교육 · 주민자치센터 역량 강화 워크샵, 축제 개최 · 북스타트 운동
협의회	1	1
네트워크 추진 사업수	3	2
연수 회수	1	3
세미나 수	1	3
축제 수	1	1

■ 연수구는 2003년에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하였음. 학습도시 사업내용으로는 구민생활 교양강좌 운영, 평생교육 요구조사 및 실태조사, 연수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1개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네트워크 사업이 추진되었음.

4)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결과

■ 3차년도 선정 평생학습도시의 사업 추진 결과는 <표 4.2.11>과 같음. 거창군의 경우 평생교육시설이 2001년 25개에서 2004년 현재 40개로 증가하였음. 2004년 현재 총 254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13개의 학습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 45명의 평생학습 자원봉사자가 평생학습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평생교육으로 인한 자격 취득자 수가 67명에 이르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음.

■ 서귀포시의 경우 2004년 현재 총 127개소의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생학습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총 179명이며, 평생교육자원봉사단체는 10개가

활동하고 있음. 또한, 지역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 사회 단체가 증가하고 있고, 창업프로그램 4개가 운영되고 있음.

〈표 4.2.11〉 3차년도 평생학습도시 추진결과

구 분	거창군	서귀포시	순천시	안동시	연수구
평생 교육시설 수	40	127	311	261	79
프로그램 수	254	28	898	354	305
학습 동아리 수	13	9	32	25	31
이벤트 회수	4	4	5	3	30
성과 발표회수	4	4	7	1	30
학습결과물 상품화				1	
학습 프로그램 상품화					
지역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	1		3		1
평생학습봉사자 수	45	179	2,494	205	3
평생학습봉사단체 수	3	10	138	10	1
창업 프로그램 수	1	4	5	8	5
자격 취득자 수	67	21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 수	4	9	35	26	28
시민 사회단체 수		4	20		3
시민성 고양 프로그램 수	33	2	13	20	
지역 사랑 프로그램 수	1	16	15	16	2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대상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배움의 기회 확대 ■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능력 배양 ■ 소외 계층 대상의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의 정체성 확립 ■ 지역 지식 인프라 구축 ■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 ■ 서귀포시 이미지 확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 시정을 이끌어갈 중심체로서의 시정 역할 정립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참여 분위기 조성 ■ 평생학습도시 조성 공감대 형성 ■ 평생학습도시 추진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민 평생학습 참여 분위기 조성 ■ 평생교육 추진 체제구축 ■ 평생교육사와 담당 공무원의 협력관계 형성

■ 순천시는 지자체장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행정 통합형 평생학습도시추진 체제를 강화하였음. 시 행정부서에 평생교육 담당자를 배치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였음. 인적 자원 개발 측면과 관련 있는 평생학습 자원봉사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자원봉사자 수는 2003년 2,034명에서 2004년 2,49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수도 2003년 113개에서 2004년 138개로 증가하였음.

■ 안동시의 경우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추진된 결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2003년 277개에서 2004년 354개로 증가하였으며, 평생학습 축제, 세미나, 공연 등의 이벤트가 2004년에 3회 이루어졌음.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학습 결과물의 상품화가 된 경우가 한 건 있었으며, 사회 통합을 위한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이 2004년에 26개가 운영되었음.

■ 연수구의 경우 평생학습도시 사업 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평생교육시설이 2004년 현재 79개소가 있으며, 305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결과 지역의 평생학습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축제, 세미나 등의 이벤트와 학습성과 발표회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28개 운영하였음

라. 4차년도 선정 평생학습도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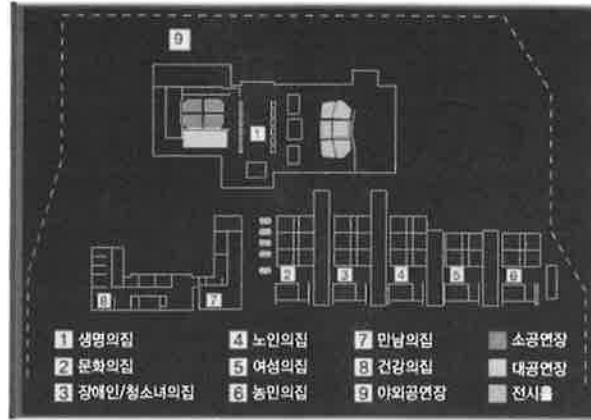
1) 평생학습도시 조성 여건

■ 4차년도인 2004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모두 8개로 관악구, 금산군, 목포시, 이천시, 전주시, 창원시, 청주시, 철곡군임.

■ 관악구는 2004년에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평생교육센터를 신설하여 사업 추진 인프라를 강화하였음. 담당 공무원과 평생교육사 2명을 배치하였으며,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하고 있음. 관악구는 지자체와 지역교육청, 그리고 대학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인구는 약 53만명(2004년)이며, 3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5세에서 29세 순임. 평생교육시설로는 주민자치센터가 27개, 복지관 6개, 원격교육기관 5개, 박물관 4개, 공공체육시설 4개, 문화의 집 4개, 도서관, 미술관, 문화센터, 사업장 부설시설, 언론기관 부설시설, 공연장 등이 각각 1개 있음.

■ 금산군은 민·관·산·학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인구는 약 6만명(2004년)의 농촌형 소도시에 해당함. 15세~29세, 50세~64세, 65세

이상의 순으로 많으며, 청소년 인가와 중·고령 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경제 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농촌형 인구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평생교육시설 중에 가장 많은 시설은 공공체육시설로 17개이고, 그 다음은 시민 사회 단체로 15개, 주민자치센터가 3개,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원, 사업장 부설시설, 공연장 등이 있음.



■ 목포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지역 인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인구는 약 24만명(2004년)으로 중·소도시 규모에 해당함. 15세 이상 29세 이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4세이하, 다음이 30대 순인 젊은 도시임. 평생교육시설 중 가장 많은 시설은 주민자치센터 26개, 그 다음이 사업장 부설 시설 24개, 복지관 8개소, 공공체육시설 6개, 박물관 3개, 도서관 2개, 미술관, 청소년 수련관, 문화원, 인력개발센터, 언론기관부설시설 등임.

■ 이천시는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추진 인력을 강화하였음. 주민자치센터 14개를 평생교육시설화하고 14명의 평생교육사를 추가로 배치하였으며, 지역의 소규모 학습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학습 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인구는 약 19만명(2004년)이며, 15세~29세의 인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금산다락원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금성면 양전리 일원

부지면적 - 36,266㎡(10,970평)

건축면적 - 6,505.15㎡(1,957.80평)

연 면 적 - 17,143㎡(5,186평)

주차대수 - 345대(다락원내 45, 청산회관광장 150, 다락원 2차부지 150)

층...수 - 지하1층, 지상 3층

사.업.비 - 256억원

사업기간 - 2000.12.19 ~ 2004, 5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제공하고 있음. 인구는 약 19만명(2004년)이며, 15세~29세의 인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평생교육시설에는 주민자치센터 14개소 시민 사회 단체 17개소, 복지관이 7개소,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기업체의 인력개발원 등이 있음.

■ 전주시는 지역 교육청의 협력을 받아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인구 62만명(2004년)으로 대도시 규모에

해당함. 15세부터 29세, 14세 이하, 30대 인구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많으며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연령대의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 평생교육시설 중에 가장 많은 시설은 주민자치센터로 40개가 있고, 문화센터와 청소년 수련관이 6개, 도서관이 4개, 박물관이 2개 등이 있음.

■ 창원시는 지역 사회 내 민간단체의 활발한 참여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하여 학습공동체 형성을 이룬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형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약 50만명(2004년)이 거주하고 있으며,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인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30대와 14세 이하의 인구임.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순으로 제조업과 상업, 요식업이 활성화되어 있음. 2004년 현재 평생교육시설에는 주민자치센터 18개, 사회교육센터 25개, 복지관이 7개, 공연장, 도서관, 인력개발기관 등이 있음.

■ 청주시는 지역 교육청의 협력을 받아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인구는 61만명(2004년)으로 대도시 규모에 해당함. 15세~29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4세 이하 순으로 비교적 젊은 도시임. 경제 활동은 제조업과 상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평생교육시설 중에는 주민자치센터가 29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복지관으로 8개, 박물관이 3개, 공공체육시설이 3개, 도서관이 2개, 미술관, 문화센터, 여성회관, 문화원, 사업장 부설시설, 인력개발센터 등이 있음.

■ 칠곡군은 인구는 약 10만명(2004년)으로, 15세 미만의 인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5세 이상 29세, 30대 순임. 유소년 인구와 청년 인구가 많은 특색을 가지고 있음. 교육여건은 2004년 현재 유치원이 36개, 초등학교가 21개, 중학교가 9개, 고등학교가 5개, 대학이 2개가 있음. 평생교육시설 중에 가장 많은 시설은 사업장 부설 시설로 2003년 현재 10개가 설치되어 있음.

2) 평생학습도시 사업 현황

■ 제4차 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들은 사업 출발이 늦은 도시들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평생학습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 아래 평생교육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각 도시들의 평생학습도시 사업 현황은 <표 4.2.12>와 같음.

■ 관악구는 관내 소재한 서울대학교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대학, 관악구청, 지역 교육청 간의 협력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위하여 투입한 예산은 2004년 현재 약 20억원이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종사하는 지자체의 평생교육 강사 수는 총 505명이며, 2004년 현재 관악구 평생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5명임. 2004년에 평생교육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관악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표 4.2.12〉 4차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역 현황

구 분	관악구	금산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학습 활동 미약 · 평생학습 지원 체제 부족 인력 및 공간 부족, 교육 전문 인력 부족등 · 프로그램 차원의 문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민간 의존도 높음, 동별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20대 및 고학력층의 관외 교육 선호, 프로그램 질 관리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문제 대두와 이에 대한 지역적 해결 요구 · 주5일제 근무제에 따른 평생학습 요구 급증 · 종합적인 평생교육 발전 정책 추진 필요
비전/이념	희망의 교육 도시 관악 만들기	학습의 고향 학습의 땅 금산
추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기회 확대 · 평생학습 문화 확산 · 교육 복지 강화 · 학교 교육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계층 간 자유로운 평생학습 접근 환경 구축 · 군민의 평생학습장 이용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 전 공공시설의 평생학습센터화 · 지역 재생을 위한 평생학습 추진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원리 적용 · 지자체-NGO 파트너십 · 특성화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유일의 종합학습센터 확충 · 전국 최다의 평생학습사 인력 육성 ·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민자확보 · 전국 최초로 공무원 2품 인증제 실시 · 20개분야 299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예산	20억 200만원	2억 8,774만원
지자체 조직내 평생교육사수	2	12
지자체 전체 활동하는 강사수	505	
지자체의 평생교육 사업담당자(평생교육센터 종사자)	5(5)	3(14)
주민자치센터 조직과 인력 현황	27/54	3/3
조례	유	유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구축	유	유

■ 금산군의 평생교육예산은 2003년에 약 8억원이었고, 2004년에는 약 2억 8,0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금산군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위하여 "다락원"이라는 평생교육 시설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다락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다락원에는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

(계속)

구 분	목포시	이천시
지자체의 정보 인프라 기반구축	무	무
지자체의 정보 인프라 관리예산		
지자체의 정보 인프라 관리인원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 지역인 전남 서남권의 위기의식 팽배 ▪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의지에 힘입어 지역 발전에 대한 전남 서남권의 공감대 형성 ▪ 전남 서남권 평생학습 지역 지정은 경제적 낙후 지역 발전 전략의 선결과제라는 인식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을 통한 심포니 사회 건설을 이룸
비전/이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삶의 보람이 넘치는 평생학습 도시 이천
추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사회 통합과 인구 정주 기반 구축 ▪ 평생학습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학습 인프라의 효과성 제고 ▪ 찾아가는 평생학습 활성화로 소외 계층의 삶의 의욕 증진 및 자립 기반 조성 ▪ 지역 특화 전문 학습을 강화하여 주민의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있는 도시 ▪ 학습공동체를 통한 참여와 협력의 도시 ▪ 격차가 없는 균형적 발전 도시 ▪ 시대적 변화에 의한 신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추진 체제 구축 ▪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 평생학습도시 특색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정책개발 ▪ 평생교육 전문지도, 조언 ▪ 평생교육 네트워크 ▪ 학습 정보 제공 및 상담 ▪ 프로그램 개발 운영
예산	4억 3,028만 9천원	16억 3,088만 8천원
지자체 조직 내 평생교육사수	0	1
지자체 전체 활동하는 강사수	200	110
지자체의 평생교육 사업담당자수	3	10
주민자치센터 조직과 인력 현황	26/78	6/6
조례	유	유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구축	유	무
지자체 정보 인프라 기반구축	유	유
지자체 정보 인프라 관리예산		

(계속)

구 분	전주시	창원시
지자체의 정보 인프라 관리인원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을 시정 3대 핵심 산업으로 추진 지자체장의 높은 관심과 열정 시민 참여 욕구 전국 최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살아있는 학습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원 운영, 사회교육센터 설치운영등 풍부한 평생학습 교육 인프라로 학습 기반구축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학습 프로그램의 욕구 증대 학교 교육 체제에서 평생학습사회로 전환하는 시대적 요구 증대
비전 / 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증진 경제 활성화 지역 경쟁력 향상 전통 문화 중심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을 통한 미래지향적 복지 구현 평생학습의 지역 공동체 건설 도모로 학습공동체 지향 지역의 교육력 복원과 도시 만들기로 행정 도시 성장 경쟁력 있는 교육 기회 확대로 수준 높은 경제 도시 발전 주민 자치와 지역 공동체 학습 통한 특색있는 지역 만들기
추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지역통합 시스템 구축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 자아실현으로 행복 체감 지수 향상 전통 문화 체험 학습 관광 상품화로 문화관광도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자주적인 학습 활동 촉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습 환경 조성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문화·복지 수준의 향상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 발전, 지역 혁신을 위한 재발전, 지역 공동체의 형성, 지역화추진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추진 체계 확립 및 평생학습 인식 확산 전체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킹 추진 전주 지역학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생활 속의 평생학습문화 정착 운동 전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국제 교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화 전략 시민 참여 전략 파트너십 전략 학습 중심 전략
예산	36억 6,300만원	20억 4,600만원
지자체 조직내 평생교육사수	2	0
지자체에 활동하는 강사수	250	150
지자체의 평생교육 사업담당자수	4	5
주민자치센터 조직과 인력 현황	33/33	15/15
조례	유	유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구축	유	무
지자체 정보 인프라 기반구축	유	무
지자체 정보 인프라 관리예산	2,000만원	2800만원
지자체 정보 인프라 관리인원	1	3

(계속)

구 분	청주시	칠곡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 교육 도시 건설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개발체제 구축 · 성인 평생 학습 지원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도·농 복합 도시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 다양한 취약 계층이 함께 공존 · 다양한 평생학습기관 존재 · 평생학습에 대한 칠곡군민의 기대감 고조 · 지자체장의 확고한 마인드
비전 / 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 교육 문화 도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배우는 열린 학습사회 칠곡군 건설 -도시 계획 : 권역별 평생교육 행정 -통합화를 지향하는 평생교육 행정 -도·농 복합형 평생교육 행정
추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공동체 건설 도모 ·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의 경쟁력 향상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겁게 학습하는 개인 · 학습에 의한 활력있는 지역 사회 ·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도시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배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시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문화 도시 구축 · 개인적으로 삶의 질 향상, 사회적으로는 응집력 강화로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 경제 성장 · 시청, 시의회, 교육청, 지역 평생학습교육관, 시민 사회단체, 기업 및 사업체, 대학, 언론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네트워크 구축 · 평생학습 예산 확보 · 전문인력 ·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예산	25억 8,495만 7천원	18억
지자체 조직내 평생교육사수	0	3
지자체에 활동하는 강사수	31	100
지자체의 평생교육사업 담당자수	2	7
주민자치센터 조직과 인력 현황	29/31	1/3
조례	유	유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구축	유	무
지자체 정보 인프라 기반구축	유	무
지자체 정보 인프라 관리예산	1,000만원	
지자체 정보 인프라 관리인원		

■ 목포시는 평생학습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평생교육에 투입된 지자체의 총 예산은 2004년의 경우 약 4억 3천만원임. 시 직원 중에 평생교육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 3명이고, 추진협의회가 1개 구성되어 있으며, 26개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천시는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평생교육사 1명과 평생교육 담당 공무원 5명을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14개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평생교육시설화하여 2005년에 15명의 평생교육사를 신규채용하여 추가배치 하였음. 전국 단위의 평생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평생학습문화조성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이천시의 평생교육예산은 약 16억원이며, 평생교육센터는 현재 신설 중에 있음. 평생교육추진 체제로서 평생학습도시 운영위원회와 평생학습도시 건설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전주시의 2004년 평생교육예산은 약 36억원이고, 평생교육사는 2명임. 시의 직원 중에 평생교육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과장 1명, 계장 1명, 직원 2명으로 총 4명임. 평생교육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33개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 인프라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 정보 인프라 관리 예산은 2004년 현재 약 2천만원이고, 관리 인원은 총 1명임.

■ 창원시는 2004년 9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나, 실제적인 평생교육사업은 1994년부터 민간단체 중심으로 시작된 기반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음. 지역사회내의 사회교육센터,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등 다양한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고 있음. 평생교육예산은 2004년 현재 약 20억원임. 15개의 주민자치센터와 25개 사회교육센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과의 협력하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청주시는 지역 내 9개 대학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04년 평생교육예산은 약 28억원이며, 평생교육에 사업 담당자는 2명이고, 1개의 평생교육 추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 주민자치센터 29개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와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칠곡군의 평생교육예산은 약 18억원이고 평생교육사 3명이 있으며, 평생교육 담당 인원은 7명이고, 1개의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 칠곡군은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인근지역의 대학과 네트워킹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3)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과정

■ 제4차 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도시들의 사업 추진 과정은 <표 4.2.13>과 같음. 관악구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자체와 서울대학교, 지역 교육청 간의 연계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음.

<표 4.2.13> 4차년도 평생학습도시 추진과정

구 분	관악구	금산군
추진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센터 설치(2005년1월) ■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2005년6월) ■ 평생학습센터 실무자 협의회 구성(2005년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평생학습센터(다락원)개관 ■ 문화 공보 관광과 평생학습 담당을 주축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개최 ■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 평생학습 관련 관내 유관 기관장 간담회 ■ 주부 생활 과학 교실 운영(2005년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개 민·관·산·학 협약 ■ 평생학습 실무자 간담회 2회 ■ 20개 분야 299개 프로그램 ■ 2004년 학국평생교육 총연합회 춘계연차 대회 ■ 38개 동아리 지원
협의회	1	2
네트워크 사업 회수	17	1
연수 회수	1	2
세미나 수	2	1
축제 수		
구 분	목포시	이천시
추진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실무 추진 협의회 ■ 평생학습 담당부서 설치 ■ 목포 시립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시 평생학습도시 운영위원회위원 위촉 ■ 평생학습과 신설 ■ 평생학습도시 실무 협의회 구성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및 홍보 ■ 인구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환경·생태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전문 인력 양성화 프로그램 운영 ■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여성 전문 교육 실시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학습동아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연구 ■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학습 프로그램 운영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건강·체육 프로그램 운영 -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총 210여개 프로그램
협의회	1	2
네트워크 사업 회수	2	12
연수 회수	2	2
세미나 횟수		0
축제 횟수		

(계속)

구 분	전주시	창원시
추진 체제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전주시 평생학습기관 협의회 전주시 행정관리과 교육지원팀/전주 교육청 평생교육 체육과	평생학습기획단 평생학습담당 전담부서 신설
주요 사업	평생학습 기반 조성 질 높은 시민 교육 실시 학교 교육과 연계한 평생학습 전통 문화 체험 교육 웰빙라이프 무료 생활 체육 교실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한 영재 교육 소외 계층 교육 지원	평생학습 추진 체제 마련 책 문화 축제 개최
협의회	1	1
네트워크 사업 회수	3	3
연수 회수	2	1
세미나 수	23	2
축제 수	1	1
구 분	청주시	칠곡군
추진 체제	평생 학습 운영위원회 구성	칠곡군 평생교육 추진위원회 칠곡군 평생교육센터
주요 사업	유관 기관 협조 체제 및 시설 확충 평생교육시설 확충: 시립도서관, 미 니도서관, 자연체험 학습장 운영 여성 사회 교육, 정보화 교육, 청소년 교육, 고용 촉진 훈련 주민자치센터, 대학평생교육원, 전국 평생 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등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 실 태 조사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 체결 제16회 일본 평생학습축제 참가(10 월) '미군 캠프 캐롤과 함께 하는 영어 캠프' 실시 평생 학습도시 홍보 리플렛 제작 평생 학습도시 선언식 및 제 1회 평생 학습축제
협의회	1	1
네트워크 사업 회수		7
연수 회수	1	3
세미나 횟수	1	1
축제 횟수		1

관악구는 2004년에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2004년에 문화정보센터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2005년, 평생교육센터로 개칭하여 운영하고 있음. 2005년에는 평생교육사 2명과 담당공무원 3명을 배치하여 사업 추진인력을 강화하였음.

■ 금산군은 사업 초기에 다락원이라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 동아리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민·관·산·학 연계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6개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였음. 평생학습도시 운영 체제로 실무협의회와 각종 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사업은 2003년에는 9개, 2004년에는 1개가 추진되었음.

■ 목포시는 평생학습도시 사업 운영 체제로 2개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네트워크 사업은 2004년에 2개의 네트워크 사업이 이루어졌음.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979개의 교양·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이천시에는 평생교육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를 위한 12개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교육, 문화, 여가 교육 프로그램, 성인 기초 교육, 문해 교육 프로그램,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전주시에는 평생교육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를 위한 3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관계자 연수가 2회 실시되었음. 또한, 2004년에는 평생교육 세미나가 1회 개최되었음. 학교교육과 연계한 평생학습, 전통문화 체험 교육, 소외 계층 지원 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창원시는 각 지역의 위탁 복지 시설을 사회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지역 소재 대학과 함께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사회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 복지 단체들은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평생교육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 평생교육 추진 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생교육센터 설치의 추진 중에 있음.

■ 청주시에는 평생학습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1회의 연수와 1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만들고, 평생교육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와 대학평생교육원과의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칠곡군은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시범마을 조성 및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지역 평생교육 전문가를 채용하여 평생교육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평생교육 총 예산은 2004년 현재 약 18억원임.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회가 1개 구성되어 있으며, 7회의 지자체 내 기관 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였음.

4)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결과

■ 4차 년도에 선정된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추진결과는 <표 4.2.14>와 같음.

관악구는 2004년도 현재 평생교육 시설 수 477개가 운영되고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2003년 88개에서 2004년 746개로 증가되었음. 2004년에 27건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자원봉사자 수는 2003년에 1,833명에서 2004년에 2,35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금산군은 2004년 현재 299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38개의 학습동아리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지역 인적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평생학습자원봉사자 수가 4,082명이며, 평생학습 자원봉사단체수가 32개로 다른 지역보다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기반한 평생교육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음.

■ 목포시는 평생교육시설이 2004년 현재 77개가 운영되고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2003년에 872개에서 2004년에 979개로 증가하였음. 목포, 무안, 신안은 컨소시엄 학습도시지만 목포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천시는 2004년 현재 평생교육시설이 224개가 있으며, 209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지역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3개 운영되고, 소외 계층 대상프로그램이 2개 운영되었으며, 시민성 고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24개 운영되었음. 지역학 프로그램도 10개가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제고와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음.

■ 전주시의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결과, 2004년 현재 평생교육시설이 34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663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37개의 학습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28회의 평생교육 이벤트가 개최되어 평생학습문화 조성이 활성화되었음. 학습 결과물을 상품화가 2건, 학습프로그램 상품화가 15건이며, 평생교육 자원봉사단체 수가 120개 활동하고 있음.

■ 창원시는 지역 사회 내의 사회교육센터,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등 다양한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 평생교육예산으로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과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표 4.2.14〉 4차년도 평생학습도시 추진결과

구 분	관악구	금산군	목포시
평생교육시설 수	477	46	77
프로그램 수	746	299	979
학습 동아리 수	50	38	25
이벤트 수	10		2
성과 발표회 수	10		12
학습결과물 상품화			
학습프로그램상품화			
지역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			
평생학습자원봉사자수	2,358	4,082	
평생학습자원봉사단체수	206	32	
창업프로그램 수	27		120
자격 취득자 수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 수	30		15
시민 사회단체 수			
시민성 고양 프로그램 수	6		20
지역사랑 프로그램 수	2		1
사업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 ■ 지역의 평생학습 추진 체제 구축 ■ 구청, 대학, 교육청간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시정의 평생학습을 통한 활성화 ■ 공무원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지역의 평생학습 참여 문화 진작 ■ 지역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구 분	이천시	전주시	창원시
평생교육시설 수	244	348	207
프로그램 수	209	663	810
학습 동아리 수		37	14
이벤트 수		110	5
성과 발표회 수		28	30
학습결과물 상품화		2	3
학습프로그램상품화		15	
지역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			
평생학습자원봉사자수		110,000	50
평생학습자원봉사단체수		120	14
창업프로그램 수		35	15
자격 취득자 수		54	331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 수	2	36	4
시민 사회단체 수			
시민성 고양 프로그램 수	24	28	10
지역사랑 프로그램 수	10	22	7
사업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단위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확대 ■ 지역 시민 사회 단체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 지역 평생학습 리더 양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평생학습 기회 증가 ■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 시민들의 평생학습 자원 봉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지역 단위의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 ■ 지자체의 평생학습 지원 강화

(계속)

구 분	청주시	칠곡군
평생교육시설 수	100	25
프로그램 수	775	205
학습 동아리 수	19	48
이벤트 수	2	10
성과 발표회 수		
학습결과물 상품화		9
학습프로그램상품화		7
지역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		2
평생학습자원봉사자수		1,500
평생학습자원봉사단체수		48
창업프로그램 수	7	6
자격 취득자 수		230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 수	3	27
시민 사회단체 수	4	
시민성 고양 프로그램 수	2	
지역사랑 프로그램 수		
사업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지역 주민 대상의 대상별 영역별 프로그램 제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 학점 은행제 운영을 통한 대안적 고등교육 기회 제공 ■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역 사회 내의 민간 조직의 활발한 참여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청주시에는 2004년 현재 평생교육시설이 약 100개가 있으며, 775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었음. 지역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과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이 3개 운영되고 있음.

■ 칠곡군은 2004년 25개 평생교육시설이 있으며, 205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학습 동아리 48개, 학습성과 발표회 등 다양한 학습관련 이벤트가 10회 개최되었음.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볼 때 2004년에 학습 결과물을 상품화한 것이 9건이며, 학습프로그램을 상품화한 사례는 7건으로, 학습결과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음. 학습결과물의 상품화 사례를 보면, 학습동아리 색모아에서 천연염색을 상품화하였고, 전통음식교육반에서 행사음식 주문 판매를 하였음. 학습프로그램을 상품화한 사례는 칠곡 평생학습 대학을 살펴볼 수 있음.

3. 외국의 학습도시 조성 사례

3.1 OECD의 학습도시 사례

가. 학습도시사업 추진 배경

■ OECD가 학습도시(Learning City, Learning Town, 또는 Learning Region)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킨 것은 1970년대 초부터이며, 여기에는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패러다임인 세계화와 지역화의 연대(Global-Local Linkage)가 큰 영향을 주었음(OECD, 1998).

■ 이는 종전에 지역 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동질화를 추구했던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반성으로서 제기된 것으로, 지역 개발을 토대로 해야 세계화 역시 지속성(Sustainability)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음. 최근 과학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점에서 지역 개발이 강조되는 이유는 지방 정부만이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 정책 등을 수립하여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임(이희수, 2003).

■ 이러한 지역개발 개념은 지역의 경제적, 역사적 다양성, 지역의 주도성, 지역의 장기적 발전 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양적 발전과 달리 질적 발전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음(OECD, 1999). 이러한 지역 개발 개념이 학습, 교육 영역에 적용된 것이 바로 학습도시사업임. 학습도시에 대한 OECD의 논의과정은 시대적으로 다음과 같이 4기로 나눌 수 있음(이희수, 2003).

첫째는 학습도시 태동기로, 1970년대 OECD가 Edmonton(캐나다), Gothenburg(스웨덴), Vienna(오스트리아), Edinburgh(스코트랜드), 가께가와시(일본), Adelaide(호주), Pittsburgh(미국) 등의 7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육도시(Educating City)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시기를 의미함. 이들 도시들은 시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지원을 부각시켰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었음. 교육도시 개념은 추후 평생학습의 확산과 더불어 학습 개념이 강조됨에 따라 학습도시(Learning City) 개념으로 대체되었음.

둘째는 학습도시 도화기로, OECD가 1992년 스웨덴의 Gothenburg시에서 개최한 학습도시에 관한 회의가 계기가 되어 영국, 스페인, 호주, 캐나다, 미국, 남미, 아프리카 등지로 학습도시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때임. 이 국가들이 학습도시에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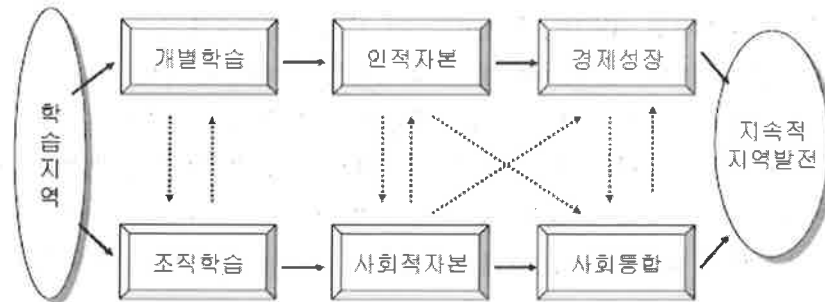
을 갖게 된 이유는, 지식 기반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지식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학습도시의 정체성 정립 및 도약기로, 1998년 6월 영국의 Southampton에서 개최된 유럽학습도시회의(The European Conference on Lifelong Learning Cities)가 계기가 되어 학습도시 개념이 유럽 전역으로 알려진 시기를 의미함. 동 회의에서는 학습도시 실천 계획이 성안되었으며 학습도시의 개념에 관한 전문가들의 합의도 도출되었음. 동 회의 참가자들에 의하면, 학습도시는 지역 공동체 전체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학습요구를 파악하며, 이들의 학습 성과와 수월성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주체라고 정의되고 있음.

넷째는 학습도시 확산기로, 2002년 10월 호주 Melbourne에서 학습도시와 학습지역을 주제로 OECD와 호주의 Victoria주정부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 시기를 말함. 동 컨퍼런스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방안,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방안, 학습도시 및 학습지역 조성을 위한 교육 훈련 전략, 학습도시에 적합한 지배 구조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동 회의 결과, 학습도시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일반 도시들에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OECD 학습도시 조성 10대 정책 원리가 제시되었음.

나. OECD의 학습도시 모델 및 성공 사례

1) 학습도시 모델



[그림 4.3.1] OECD 학습도시/지역 모델-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간 관계

■ OECD의 학습도시 모델은 2001년에 OECD에서 발간한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2001) 보고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 동 보고서는 2001년 당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습도시사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그 일부로서 학습도시의 이론적 전제를 담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동 모델에 따르면, 지역 단위에서 혁신(Innovation)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학습과 회사 등과 같은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학습의 결과로서 발생함([그림 4.3.1]). 이 중에서 개인 학습이 축적될 때 인적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며, 이는 다시 지식 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짐.

◆◆ OECD 학습도시/지역 조성 10대 정책원리 ◆◆

혁신 집약적 활동을 통하여 지식 기반 경제 내에서 경제성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도시와 지역들은 다음을 따를 것을 권고함.

학습의 과정에 대한 투입 요소로서:

- 양질의 교육 자원이 잘 갖추어진 교육 제공 시스템을 갖추어라. 그런 터전 위에서 전 생애에 걸친 효과적인 개인 학습이 가능함.
- 교육 훈련 기관들로부터 숙련된 지식 근로자들의 공급과 지역 경제 내부로부터의 개인들의 수요를 잘 조정하라. 그래야만 개인 학습이 조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개인 학습의 효과를 온전히 수확할 수 있게 됨.
- 회사 내에, 회사들 간에 그리고 기타 조직들과 상호 작용적 네트워크로 조직 학습을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하게 함.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회사에게 입증하게 함.
- 단순히 사전에 정의된 전통적인 '첨단 기술 산업' 부문만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 경제 내의 모든 산업과 서비스에 걸쳐서 효과적인 조직 학습을 촉진시키게 함.
- 현재 지역 내 가용 자원(현재의 산업 시설, 교육 시설, 연구 시설, 긍정적 사회적 자본 등)이 어느 정도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가, 또는 앞으로 혁신 전략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주의 깊게 확인하게 함.
- 현재 나타난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여기에는 특히 과거의 지역 제도와 관행으로부터 이월된 부적절한 관행과 지식(정책 입안자 자신의 지식 포함)을 학습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폐기하는 것(Unclean)을 포함함.

학습 과정의 메카니즘으로서:

- 일반적으로 영역별/부문별(산업 개발, 연구 개발, 과학 기술, 교육 훈련 등)로, 통치수준별(지역 수준, 국가 수준, 초국가 수준) 칸막이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함.
- 보다 더 효과적인 조직 학습과 혁신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 메카니즘으로서 적정 형태의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는 전략을 개발하게 함.
- 개인 학습에의 참여, 혁신, 노동 시장의 변화, 특히 지역 내 사회적 소외 집단들과 관

련하여 그 관계성을 계속적으로 평가함.

- 지역 학습 및 혁신 전략에 의해 변화를 받게 될 지역 주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함.

자료 : OECD(2001).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 p. 120, 이회수(2004) 재인용. p. 154.

■ 이러한 자본 축적 과정은 학습 결과가 경제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인정받는 학습 경제(Learning Economy)가 도래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리고 또 다른 학습 형태인 조직 학습은 조직 내에서 기존 지식을 전파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그 자체의 상호 작용성으로 인해서 사회적 자본 창출에 기여하게 됨.

■ 한편, 개인 학습과 조직 학습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인적 자본의 생성과 사회적 자본의 생성도 서로 영향을 미침. 즉, 개인 학습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조직 학습도 활발해지고, 그 결과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활발히 이루어짐. 그 반대로, 조직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개인 학습이 활성화되고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많이 이루어짐. 이와 같이 축적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지역의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따라서 개인 학습과 조직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풍성하게 제공해주는 학습도시사업은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동 모델의 핵심 전제임.

2) 학습도시 성공 사례

■ Towns, Cities, and Regions in the Learning Age(2000) 보고서와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2001) 보고서에 제시된 학습도시 성공 사례들을 크게 학습도시의 핵심 가치인 지역 경제 발전과 성숙한 시민 사회 형성을 준거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음.

(1) 경제 발전 중심형 학습도시

■ 학습도시의 가치 중에서도 지역의 경제 발전에 역점을 두는 학습도시로, OECD 도시 중에서 독일의 Jena와 프랑스의 Vienne를 들 수 있음. 이 중 Jena는 전 동독의 남부 Thuringia주의 Sadle Valley에 위치한 인구 10만명의 소규모 공업도시로, 첨단 산업과 교육 연구 시설이 밀집된 도시임. 다른 동독 도시들과 달리 인구가 줄지 않고 있으며 통일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재구조화 문제를 학습도시사업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Jena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통합되고, 산업

기반 경제가 지식 기반 경제로 재편되는 가운데, 산업 구조화와 교육 재구조화를 병행한 우수 사례로 평가됨. 또한, Jena는 교육, 대학연구소, R&D, 산업 자원 등과 같은 제 분야에서 광범위한 개혁과 학습이 수반될 때, 산업 구조 변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수 사례임(OECD, 2000).

■ 한편, 프랑스의 Vienne는 Poitou-Charentes 지역의 일부로 프랑스 서부 중앙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 일부 지역이 대서양 연안에 인접해 있음. 약 39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밀도는 프랑스 평균의 절반 수준인 km²당 56명임. Vienne는 1982년 프랑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하여 농업 기반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한 대표적인 지역임. 이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서 ICT를 활용하여 첨단 기술 학문과 지역 산업을 밀접히 연결시킨 Futuroscope 프로젝트를 들 수 있음. 동 프로젝트는 개인 학습, 조직 학습, 시민들의 정보 문해력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조직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OECD, 2000).

(2) 시민 사회 중심형 학습도시

■ 학습도시의 가치 중에 성숙한 시민 사회 형성에 중점을 둔 학습도시로, OECD 도시 중에서 네덜란드의 Rotterdam과 영국의 Newcastle을 들 수 있음.

■ Rotterdam은 유럽 최대 규모의 무역항을 보유한 인구 약 60만의 도시로, 1990년대 후반의 높은 실업률과 도심 지역의 슬럼화, 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도시사업을 추진하였음. 학습도시 추진을 위해서 개설된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개인학습구좌제, 알베다 대학(Albeda College) 프로그램, 이민자 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이 중 개인학습구좌제는 최저 임금 노동자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으로서, 1인당 약 1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학습구좌를 개설해 주는 프로그램임. 알베다 대학(Albeda College)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을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들에게 계속 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임. 마지막으로, 이민자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임.

■ Rotterdam은 이러한 프로그램과 함께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60여개 소의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하였음. 이들 평생학습센터는 장애인, 이민자, 저소득층, 노년층 등과 같이 제도권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들에게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OECD, 2000; 김수현 2003).

■ 한편, 영국의 Newcastle은 영국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인구 3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임. 1980년대 영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더불어 지역의 대표적 경제 활동이었던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발생한 높은 실업률, 저임금, 청장년 인구의 유출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도시 재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문화 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함과 함께, 교육의 질 향상,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 학습 기반 시설 강화, ICT 기반 구축 등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문화 및 학습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때 청년층의 이주가 억제되고, 지역민의 자생적 역량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OECD, 2000).

다. EU 동향

(1) 학습도시사업 추진 배경

■ OECD가 학습도시에 대한 논의를 지역 혁신 및 개발의 맥락에서 주로 전개해 온 반면에, EU는 평생학습에 대한 논의의 일부로서 전개하여 왔음. 따라서 EU의 학습도시 동향 및 평가 모델을 논의하기에 앞서 EU의 평생학습정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함.

EU에서 평생학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3월, Lisbon에서 개최된 리스본 유럽회의(Lisbon European Council)부터임.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식 기반 경제가 요구하는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이민자의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향후 10년 이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평생학습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음.

■ 리스본 유럽회의 이후, EU는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니셔티브(Initiatives)를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는 유럽 지역을 평생학습 실현의 장(Making European Area of Lifelong Learning a Reality)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생학습을 EU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으로서 채택한 것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2002년에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평생학습에 관한 결의문(Resolution on Lifelong Learning)을 채택한 바 있음.

■ 또한, 2002년에는 유럽에서 운영 중인 17개의 학습지역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프로

젝트인 R3L(Regional Networks for Life-Long Learning)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서 2백만 유로를 지원하였음.

■ R3L 프로젝트는 평생교육과 훈련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회생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로, 120개의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동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학습지역(Learning Region) 개념은 영국 등에서 사용되는 학습도시(Learning City)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이런 점에서 R3L 프로젝트는 사실상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학습도시의 확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동 프로젝트는 학습지역을 학습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 발전, 사회 안정, 개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주체로 전제함.

(2) 학습도시사업 현황

■ EU의 학습도시 추진 프로젝트인 R3L(Regional Networks for Lifelong Learning)은 2002년 7월 유럽위원회에 의해서 출범된 프로젝트로, 17개의 하위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음. 동 프로젝트는 유럽의 120개 지역에서 적용되며, 2001년에 추진된 EU의 평생학습 프로젝트인 유럽지역을 평생학습 실현의 장으로 만드는 사업(Making a European Area of Lifelong Learning a Reality)의 후속 사업 성격에 가짐.

■ R3L 프로젝트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는 학습지역(Learning Region)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우수 사례들을 회원국 간에 공유하고 교환하는 것임. 셋째는 유럽 내에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서 유럽 차원의 학습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R3L 프로젝트를 위한 총 재원은 약 2백만 유로이며, 2005년 현재 유럽의 22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17개의 하위 프로젝트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표 4.3.1>과 같음.

<표 4.3.1> R3L 프로젝트의 하위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명	주요 내용
A holistic and strategic approach to support and promote LLL, networking	학습도시들이 전략적, 총체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방법 개발
Kompetenzzentren und IKT als Werkzeuge lernerder Regionen	학습도시 발전 전략으로서 지역의 역량 증진과 ICT활용 방법 모색
LISA- Lernen im Seniorenalter Regionale Netze	고령자 학습 지원과 학습도시의 발전을 연계하는

	방안 모색
KoKoLeLe	성인 교육에 대한 혁신 사례를 다른 지역과 공유하는 방안 연구
European Network for Local Activation of Cultural Excellence	지역 차원의 문화 활동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촉진하는 방안 모색
Educ.A.Network(Sharing Lifelong learning experience)	학습도시 구축-운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Lifelong Learning Personal Development Planning(LLPDP)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역 간에 공유하는 방안 연구
CoLabs eu: European Network of eLearning	유럽 지역 내의 e-러닝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R3L Promotor	지역 차원에서 평생학습과 학습도시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주체, 공공기관 및 단체를 발굴하는 방안연구
Regionet Integra	이민자들이 해당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ReLL-Regional Network to Develop Lifelong Learning Strategies	평생교육 전략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전략 모색
INDICATORS-Developing and testing indicators for monitoring and measuring stakeholder operations in Learning Cities and Regions	학습도시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collectivities Territoriales Apprenantes	유럽에서 훈련을 담당하는 지역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Pactos Locales "ESCUELA-VIDA"en Eidades Educadoras	도시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12개 지역 간의 네트워크 구축
Rete European per l 'educazione del futuro (REPEF)	지식 사회에 적합한 유럽의 교육 체제 구축 방안 모색
ALLE-Acting Locally for Lifelong Learning	지역 주체로 평생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
SILLET-Strategies in Lifelong Learning Network	지역 차원의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평생교육 전략 개발

자료 : EC(2003).Compendium: European Networks To Promote the Local and Regional Dimension of Lifelong Learning. Brusseles: European Commission.

3.2 영국의 학습도시 사례

가. 학습도시의 추진배경

■ 영국의 학습도시는 도시, 타운 또는 공동체(Community) 형태로 되어 있으며, 다양한 교육, 훈련기관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학습요구를 충족시키는 도시를 의미함. 학습도시가 기존의 지역단위의 교육훈련, 도시재개발 등과 차이점은 지역주민, 공동체 조직, 노동조합, 교육·직업훈련기관, 고용주, 기타 지방 당국, 상공회의소, 기업 등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만들어 가는 도시임.

■ 영국에서 학습도시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스웨덴 Gothenburg에서 OECD 컨퍼런스가 개최된 이후라 할 수 있으며, 동 컨퍼런스 이후 영국의 국가 성인·계속 교육센터(The National Institute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 NIACE)의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학습도시 개념을 확산시키기 시작하면서 부터임.



〈표 4.3.2〉 영국의 학습도시 현황(2005)

학습도시명	추진 주체	학습도시명	추진 주체
Belfast Northern Island	Belfast City Council Belfast Learning City Forum	Liverpool	Merseyside Colleges Association Liverpool Community College
Birmingham	Birmingham City Council	Middlebrough	Middlesbrough LLP
Blackburn	Blackburn with Darwen Borough Council	Newcastle-under-Lyme	Newcastle-under-Lyme College Newcastle-under-Lyme Borough Council
Buckinghamshire	Bucks Lifelong Learning Partnership	Norwich	Norwich City Council Norwich City College Norwich Learning City Group
Carlisle	Carlisle City Council St Martin's College	Preston	Preston LEarning Together Partnership
Channel Islands	States of Jersey Education States of Guernsey Education	Sandwell	Sandwell Education & Lifelong Learning West Bromwich
County Durham	County Durham Learning Partnership	Sheffield	Sheffield First for Learning Partnership Sheffield City Council
Darlington	Darlington Borough Council	Slough	Slough Borough Council
Derby	Derby City of Learning Derby College	Southampton	Southampton City Council
Edinburgh	Edinburgh Learning City of Education Council	Stockton	Stockton's Learning Towns
Gloucestershire	Gloucestershire LSC	Tyne & Wear	Tyne & Wear Learning Partnership
Greater Gwent	The Learning Network(TLN) University of Wales	Walsall	Walsall Educaiton Walsall College of Continuing Education

	College, Newport		
Greenwich	Greenwich Community College Greenwich Education Service	West Sussex	West Sussex Learning Partnership
Harrow(London Borough)	Harrow Council	Woyerhampton	Wolverhampton LEA
Hertfordshire	Watford Learning Partnership	York	City of York Council Learning Partnership
Hull	Institute for Learning	총	32개 도시

1995년 8개 도시가 학습공동체네트워크(LCN)를 최초로 형성하였으며, 2005년 현재는 32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학습도시의 확산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영국에서 학습도시 조성이 활발히 전개된 것은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학습을 교육 전체의 패러다임으로 강조한 영국의 정부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 영국 정부는 1997년에 발표된 보고서 「학습국가를 향하여(Towards a Learning Nation)」에서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것과 1998년에는 「학습시대(The Learning Age)」 보고서에서 뉴밀레니엄은 학습시대임을 천명하면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부터임.

나. 학습도시 현황 및 특징

■ LCN(Learning Communities Network)의 회원 도시를 중심으로 영국의 학습도시를 추측해 보면 2005년 LCN에 가입된 영국의 도시는 총 32개로 <표 4.3.2>과 같음.

■ 영국의 학습도시 특징은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통합, 경제 발전 등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느 분야에 주력하느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전개하느냐는 도시의 경제적, 인구적, 문화적 특성 등에 영향을 받고 있음.

■ Yarnit는 「Towns, Cities and Regions in the Learning Age: A Survey of Learning Communities(2000)」에서 영국의 학습도시(8곳), 스웨덴의 Gothenburg와 네덜란드의 Rotterdam을 비교하면서, 학습도시들의 주요 활동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가족 단위의 학습 촉진 둘째, 시민들의 기초 문해력 증

진 셋째,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제고 넷째, 고용 증진 다섯째, 학습센터 간의 네트워크 구축 여섯째, 학교와 지역 사회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것임.

그러나 학습도시의 활동들이 모든 학습도시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차이가 있음. 사례도시로 선정한 학습도시의 주요 활동은 <표 4.3.3>과 같음.

다. 헐시(Hull City)

■ 영국의 헐(Hull)시는 학습도시 파트너십을 조성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학습도시로, 인구 27만명의 도시로 유럽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구도시로 학습도시 사업에 시위위원회, 주요기업체, 지역사회기금, 대학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음.

<표 4.3.3> 영국의 학습도시 주요 활동

구분	주요 학습도시 활동	도시 개요
Blackburn with Darw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교육훈련기관들과 함께 평생교육 포럼을 개최하여 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전략 개발 학습축제(Learning Festival)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140,023명 주요 산업: 제조업 경제 수준: 빈곤지역
Buckinghamshi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체장, 교육기관 대표, 공공 및 지역봉사기관 등의 대표들로 평생학습 파트너십 형성 학습대상 운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표어들을 개발하여 지역에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475,000명 지역특성: 도시들로 둘러싸인 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음 교육: 1999년이래 성인학습자의 증가율은 10%에 불과함
Hu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전략의 일환으로 평생학습 강화 지역 내의 교육, 훈련, 산업체,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City Learning 협력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270,000명 지역특징: 항구도시로 어업의 쇠락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음 교육: 학업성취도가 낮고, 중도 탈락률이 높음
Norwi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arning City Partnership 구성 운영 ICT를 활용한 학습센터인 Learning together hubs을 학교에 조성 Learning shop 운영 Learning Festival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24,000명 지역특징: 실업률이 인근지역보다 높으며, 빈곤지역임
Belfa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훈련기관, 자원봉사기관, 공공기관 관계들과 함께 Learning City 포럼 개최 Local Learning Ambassadors 선정 Learning for Life 등과 같은 홍보물 제작, 배포 Learning Festival, learning shop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 298,000명 지역특성 : 분쟁이 많았던 북아일랜드의 도시로, 학습의 사회 통합 역할 강조 교육: 지역 사회 교육의 전통이 강하나, 성인학습자의 교육비용이 영국 평균에 비해 저조함
Edinburg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long Learning Partnership 구축 학습과 도시재생을 연계 추진 교육훈련기관, 도서관 등 기타 학습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449,000명 지역 특성: 스코트랜드의 주도(主都)로서, 행정문화의 중심지임.

사업의 성과를 보면 다양한 파트너간 협력을 통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제공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학습성취도가 향상되었고, 학습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라. 블랙번과 다윈(Blackburn with Darwen)

■ 블랙번과 다윈은 인구 14만명 정도의 도시로 지역을 평생학습의 생활화 전략으로 접근하였으며, 지역의 노동인구 중 제조업 종사자가 다수 전국 2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제조업 종사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성인 3명중 1명이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소외된 지역으로 평생학습을 지역재생의 전략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시는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주민들의 직업기술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시민들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능력이 향상되었고, 학습축제 등을 통하여 학습문화가 확산되고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체제가 구성되는 등 지역이 활성화되었음.

마. 노위치(Norwich city)

■ 노위치의 학습도시사업은 행정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학습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로 1995년 지역의 경제적 위기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학습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된 도시임.

노위치의 학습도시정책은 시의회의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요소로 설정되었으며, 학습도시 파트너십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이 도시의 학습도시사업은 학습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주민 세력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 도시의 대표적인 학습정보 제공과 학습문화 조성전략은 학습상점(Learning Shop)으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습정보의 제공, 학습문화의 진흥 및 홍보, 학습인식의 제고, 학습 장벽 철폐, 학습과정에 대한 조정 등의 기능이 활성화 되고 있음.

바. 영국켄트주 지원체계 사례

■ 영국 남동부의 켄트주(州) 딜(Deal)에 위치한 토마토 재배·판매업체인 WS켄트 온실에서 50만 포기의 토마토가 재배되고 있음



사진은 직업지원센터(JCP)의 위탁을 받은 상담원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며, 이 회사는 120여명의 직원 가운데 40여명을 감원하기로 하고 해고예정자지원서비스(RSS)를 신청하였음.

이들 상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담을 하러 온 직원 제인 히치콕(31·여)은 “나도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력서를 잘 쓰는 법 등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배우러 왔다.”면서 “실제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음.

■ 네빌 애트우드(31)는 회사를 떠나게 됐는데, 그는 3년 동안 인근 대학에서 전기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땀고, 회사에서 학비 지원을 받아 농기계 분야 12개의 과목을 이수하였음.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원들이 늘 미래에 대비해 무엇이든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 켄트지역은 남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토지가격과 임금이 상승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동유럽이나 인도로 공장을 옮겨갔고 그로 인하여 대량해고가 수반되었음. 특히 켄트주는 90% 이상의 기업이 직원 200명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이어서 직원들은 해고 위기에 놓여도 별 지원을 받지 못하였음. 1999년 설립된 남동 잉글랜드 개발청(SEEDA)은 이 같은 지역적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 먼저 SEEDA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60만 파운드를 투자, JCP와 공동으로 RSS를 운영하고 있음. SEEDA와 JCP는 모두 정부에서 출자한 기관이며, RSS는 해직이 되기 전 전문가가 해고 대상자를 찾아가 1:1 상담을 통해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임.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면접 기법, 이력서 작성 요령 등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기도 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훈련·교육을 주선하기도 함.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66개 기업의 직원 3,571명이 RSS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여객선 운영회사인 스테나라인은 대표적 RSS 성공 사례인데,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170여명이 근무하는 켄트주 애쉬포드의 지역본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스테나라인은 5월 RSS를 신청했고 모두 9차례에 걸쳐 RSS 상담이 이뤄졌음. 특히 50세 이상 고령자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직원 등 구직이 어렵고 절실한 사람들을 집중 지원하였으며, 직원들을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이는 회사들을 초청하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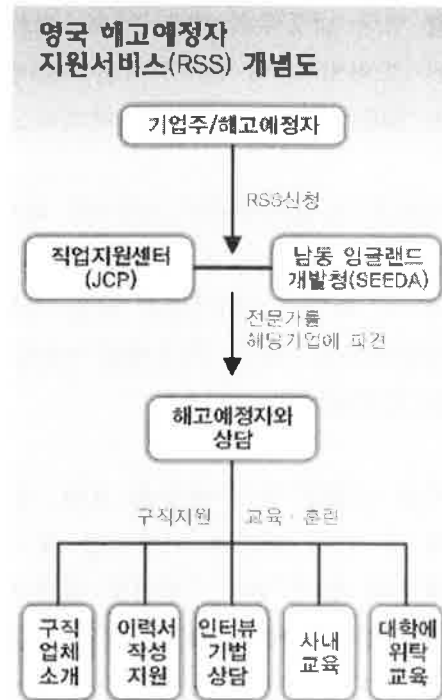
■ 그 결과 80%가 넘는 직원이 재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이 회사는 지역본부 폐쇄를 결정한 뒤에도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해 9개월 이상 운영을 계속하였음. 이 회사의 경우 “오래 근무한 직원일수록 재취업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었다.”면서 “스스로를 냉철하게 분석하도록 한 뒤 장점을 찾아나간 것으로” 파악되었음.

■ SEEDA는 해고 대상자를 상대로 한 RSS 외에도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취업에 필요한 기본기술 교육은 물론 메드웨이대학 등 지역 대학에 위탁해 전자·정보통신·생명공학 분야의 고급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 분야 집중교육(CC4G),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도 병행하고 있음. “주민들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닥쳐올 위기와 기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노동생산성과 취업률에서 이 지역을 세계 15위권 안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임.

사. 유럽의 학습도시 관련 사이트

- http://europa.eu.int/comm/education/policies/2010/III_en.html (유럽의 평생학습 전략사이트)
- <http://www.bgfl.org/services/lcn/amap.htm> (유럽학습도시별 네트워크)
- <http://www.edinburghlearning.com/> Edinburgh
- <http://www.carlisle.gov.uk/carlislecc/> Carlisle
- <http://www.darlington.gov.uk/default.htm> Darlington



<http://www.blackburn.gov.uk/balckburn>
<http://www.citylearning.org/hull>
<http://www.sheffieldfirst.net/sheffield>
<http://www.derbycityoflearning.co.uk/welcome.htm> derby
<http://www.bgfl.org/services/lcn/norfolk.htm> norwich
<http://www.bgfl.org/bgfl/> birmingham
<http://www.lea.sandwell.gov.uk/sandwell>
<http://www.learningbucks.org.uk/home.stm> buckinghamshire
<http://www.watfordlearningpartnership.org.uk/> hartfordshire
<http://www.greenwich.gov.uk/Greenwich/> greenwich
<http://www.harrow.gov.uk/ccm/portal/> harrow
http://www.newport.ac.uk/greater_gwent
<http://www.southampton.gov.uk/education/lifelonglearning/index.htm> southampton
<http://www.wslp.org.uk/> West Sussex

3.3 호주의 학습도시 사례

가. 학습도시사업 추진 배경

■ 호주에서 학습도시는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로 불리며, 도시별로 학습도시가 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상이하며, 이러한 학습공동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호주의 대표적인 성인교육협회인 호주성인학습연합회(Adult Learning Australia)에 의하면, 학습도시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변화할 줄 아는 공동체로, 그 구성원들이 평생학습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Adult Learning Australia Inc., 2000).

■ 호주에서 학습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데에는 영국 등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1992년에 스웨덴 Gothenburg에서 개최된 학습도시에 관한 OECD 컨퍼런스의 영향이 크며, 동 컨퍼런스 이후 학습도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호주 내의 지자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8년, Victoria주에 있는 Wodonga가 호주 최초로 학습도시가 되겠다고 선언한 이후 부터임(Adult Learning Australia Inc., 2000). Wodonga의 영향을 받아서, 2005년 현재 호주 전역에서 학습도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나. 학습도시 현황 및 주요 특징

1) 학습도시 현황

■ 2005년 현재, 호주 전역에 걸쳐 42개의 도시가 학습도시 또는 학습공동체 선언을 하고, 지역 사회의 학습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황을 보면 다음 <표 4.3.4>와 같음.

2) 학습도시들의 주요 특징

■ 학습도시들이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느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나, 학습공동체로서 대부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Adult Learning Australia Inc. 홈페이지).

첫째, 시민들의 능력 개발과 지역 사회의 발전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시민들의 능력 개발 차원에서는 문해력과 수리력과 같은 기초 능력뿐만 아니라 ICT 활용 능력과 같은 고차원의 기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역 개발 차원에서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4.3.4> 호주의 학습도시 현황(2005)

소속 주(州)	학습도시명
Capital Territory(수도)	Canberra(1개)
New South Wales	Bingara / Warilada and barraba Learning Region /Deniliquin/Lithgow/Newcastle/Parramatta/ Upper hunter(collaboration between shires of Muswellbrook, scone, Merriwa, Murrurundi) (총7개)
Queensland	Central Gighlands (cluster of four shires surrounding Emerald)/ Gold Coast/Ipswich/ The learning Place, Education Queen니봉, Nambour(총4개)
South Australia	Ceduna/Coorong District Council, Coonalpyn / Copper Coast/ Marion /Onkaparinga/ Northern Areas Council, jamestown(Adelaide)/Port Augusta/Port Pirie/Salisbury (총9개)
Tasmania	Launceston(총1개)
Victoria	Albury Wodonga/Ballarat/Bendigo/casey/Geelong/Horsham/Kyabram/Me lton/Mandurah/Mildura/Mt Evelyn/Rmit Learnlinks/South Gippsland/Leongatha/Southern Grampians/ Victoria University/Wangaratta/Benalla/Western Melbourne region/Wycheproof/buloke (총18개)
Western Australia	Joondalup/Peel(총2개)

둘째,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 학습도시 활동을 통하여 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학습도시와 관련된 교육, 기업, 정부, 시민 단체 등과 같은 이해 기관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임. 이러한 협

력이 이루어질 때, 학습도시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짐. 넷째는 학습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성(Sustainability)을 강화하는 것임. 지역의 학습력이 제고될 때, 지역의 보건, 환경, 경제 등과 같은 여타 부분의 발전 역시 유도될 수 있기 때문임. 도시 중에서 학습도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몇몇 도시들을 보면 <표 4.3.5>와 같음.

3) Albury-Wodonga

■ Wodonga는 Victoria주에 위치한 학습타운으로서 1998년 호주 최초로 학습도시가 되겠다고 선언한 후, Wodonga 인근에 위치한 Albury가 동참함으로써 Albury-Wodonga 연합 학습타운이 되었으며, 동 학습타운은 두 도시의 의회, 교육 훈련 기관, 대학, 기업 및 산업체, 학교 및 공동체 조직 간의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연합 학습타운은 크게 6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데, 이를 보면, 첫째, 학습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사회 및 경제 복지를 추구하고 둘째, 모든 사람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셋째,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넷째, 기업들이 학습조직의 원리를 채택하도록 학습문화를 조성하며 다섯째, 학습 기회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며 여섯째, 학습도시사업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이에 대한 성찰을 정례화하는 것임.

4) Ballarat

■ Ballarat는 Victoria주에 위치한 도시로, 2000년 9월 공식적으로 호주의 두번째 학습도시가 된 지역임. Ballarat가 학습도시가 되는 데에는 1998년 설립된 '학습도시추진팀(Learning City Task Force)'의 노력이 큰 기여를 하였음.

학습도시추진팀은 학습도시 추진 초기에 관계 기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꾸준히 설득시켜 학습도시 개념을 확산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학습도시운동의 일환으로서 Ballarat는 평생학습에 관한 지역 사회 포럼, 학습도시에 관한 강의, 언론을 통한 홍보 활동, 웹사이트 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2000년 5월 Ballarat는 Victoria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습도시 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았음.

5) Mawson Lakes

■ Mawson Lakes는 South Australia주에 위치한 도시로, 대학을 중심으로 도시형지역 사회로 건설된 21세기형 계획도시로, 이러한 특성은 학습도시 조성 과정에도 반영되었는데, 학습도시가 지역 사회 주민들의 노력과 열의보다는 주정부에 의한 경제 발전 전략으로서 추진되었음.

따라서 학습도시 목표 역시 경제적·환경적 지속성, 정보기술 및 통신기술의 활용, 도시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새로운 모델 구축, 학습공동체의 창조 등으로, 주민들의 학습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학습도시들의 목적과는 차별화 되고 있음.

6) Salisbury West

■ Salisbury West는 South Australia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인구가 115,000명인 소규모 도시지역이며, 실업률은 다소 높은 편이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사무직, 서비스업, 무역, 노무업 등에 종사하고 있음.

남호주 대학(University of South Australia)과 호주 항공대학(Australian Aviation College) 등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의 학습 참여율은 저조한 편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alisbury West 지방정부는 일터에서 시민들이 문해력과 수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뉴밀레니엄 시대의 학습과 고용 프로젝트(Learning and Working in the New Millennium)를 학습도시운동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음.

다. 학습도시 지원 체제

1) 연방 교육과학훈련부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에서 학습도시 또는 타운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학습도시들에게 재정 지원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습도시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호주내에서 학습도시 추진을 지원하는 중앙 정부 기관으로는 교육과학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를 들 수 있음.

■ 최근 교육과학훈련부에서 학습도시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e-러닝을 활용한 공동체 파트너십 형성(e-learning Creative Community Partnership)을 들 수

있음. 동 프로젝트는 e-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호주 성인학습 네트워크(Australian Learning Communities Network) 및 근린학습센터 전국연대(National Link of Neighborhood Houses and Community Learning Centres) 등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호주 교육과학훈련부는 향후 3년간 8개의 지역 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받는 프로젝트와 주요 내용은 <표 4.3.5>와 같음.

<표 4.3.5> e-learning Creative Community Partnership
프로젝트 지원 현황

지원 기관	주요 내용
Central Gippsland Institute of TAFE	*e-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Gippsland의 남쪽에 위치한 Leongatha Education Precinct에서 활동하는 9개의 교육훈련기관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임
IMPACT Make your Mark	*Queensland에 있는 Bundaberg 지역에 e-러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임
CHATTES Training Advisory Council. Inc.	e-러닝을 활용하여 Barkly Arts 공동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문화, 예술, 레크리에이션, 관광 산업 등을 지원하는 CHATTES(The northern territory Cultural Recreation and Tourism Advisory Council)가 주도함
Milang Old School House Community Centre	*호주 남부에 위치한 Milang 지역의 저학력 주민들에게 e-러닝을 활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동 프로젝트는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학교, 지역 개발, 시위원회,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단체와의 파트너십하에서 추진됨
Challenger TAFE Peel Campus	*호주 남부에 위치한 Peel 지역 주민의 문해력과 핵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e-러닝을 활용하는 프로젝트임 *동 프로젝트는 Challenger TAFE Peel Campus, Peel Development Commission, 지역 사회 학습센터, 산업체 대표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음
Wodonga Institute of TAFE	*e-러닝을 활용하여 Wodonga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의 실업자들의 고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p>목적으로 함</p> <p>*동프로젝트는 농촌 지역의 실업 문제, 소외 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산업체 등과 같은 관련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p>
<p>Tasmanian Communities Online, Department of Education</p>	<p>*Tasmanian 주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의 실업자와 편부모들의 e-러닝을 활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프로젝트임</p> <p>*동 프로젝트는 Tasmanian의 교육부가 주 내에 있는 64개의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함</p>
<p>Central West Community College</p>	<p>*Orange에 소재한 Central west Community College에 의해서 수행되는 프로젝트로, 기업과 산업체 활동에 e-러닝을 통합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p>

2) 온라인 학습공동체 촉진기구(Learning Community Catalyst)

■ 온라인 학습공동체 촉진기구(Learning Community Catalyst: LCC)는 학습도시에 관심을 갖는 지역 사회, 의회, 정부, 사업가, 정책 담당자들을 위한 웹사이트(<http://www.lcc.edu.au>)로, 학습도시 관계자들 간에 학습도시에 관한 정보, 연구, 우수 사례 및 기타 의견 등을 나누는 정보교환소(Clearing House)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LCC는 호주성인학습연합회(Adult Learning Australia), 호주지방정부협의회(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호주온라인교육네트워크(Education Network Australia Online)의 공동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웹사이트로서 학습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4 독일의 학습도시 사례

가. 예나시(Jena city)

■ 교육과학부(BMBF)의 학습지역(Lernende Region) 조성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음, 지역 내의 시의회, 대학, 기업, 연구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음.

여기서의 협력 내용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기업 내부 문제 뿐 아니라 산업서비스,

공적 R&D, 도시발전 등 Jena를 위한 전체 경제 정책을 설계와 실행의 모든 과정에 대한 협력을 추진함.

▣ Jena 시의회에서 추구하는 학습 정책의 중심은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는 효율성과 지역 산업과 지역의 노동인력이 보유한 지식의 시장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학습도시 사업의 성과로 첨단공학 산업을 유치하고 공교육체제를 개혁하는 등 산업과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짐. 예나시의 학습도시 사업의 특징은 모든 분야의 교육수준 향상을 추구하였으며, Friedrich-Schiller 대학을 비롯한 지역 대학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임.

예나는 도시 전체가 학습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학습도시(learning city)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0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한 “새로운 학습경제에서의 도시와 지역” 보고서에서도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음.

▣ 예나의 평생학습체제는 정부-기업-대학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데 정치, 문화, 건강, 언어, 직업, 학과교육 등 6개 코스가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건강과 언어 코스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과교육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고졸 자격증을 주기 위한 과정임. 예나시 평생학습센터에는 1000여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예나시가 속해 있는 튀링겐주 전체로 보면 과목수가 1만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난해 예나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자금은 91만유로 이 가운데 67%는 주정부와 시에서 지원했고 33%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 충당했음. 예나시민 11만명 중 한 해에 1만명 이상이 이곳에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2003년 독일 튀링겐주 평생학습센터 수강현황

○ 개설 과목수 단위(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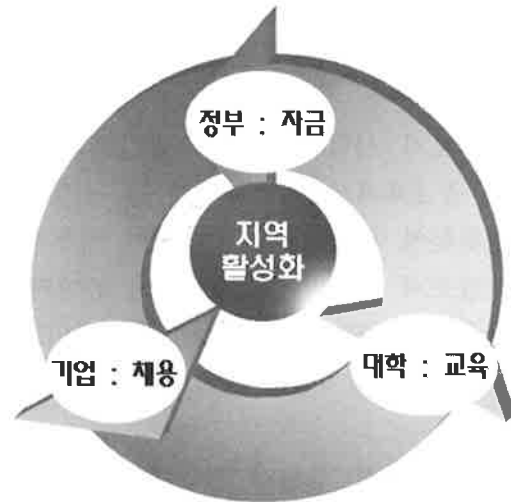


○ 수강인원 단위(명/차)



■ 예나의 대표적 기업인 광학업체 예넵틱(Jenoptik)과 칼자이스(Carl Zeiss Jena)는 자사 직원들은 물론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실무 위주의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실업자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동사무소나 예넵틱이 설립한 재단에서 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는데, 두 기업은 이 지역 대졸자들과 직업훈련을 받은 실업자들을 대부분 채용함으로써 학습동기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음.

■ 450년의 전통을 가진 프리드리히 실러 예나대학은 기업의 위탁을 받아 직원들에게 고급기술을 교육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인문학이 강한 대학이지만 최근에는 과학·기술분야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술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음.



예나의 평생학습체계는 긴 역사를 갖고 있고, 예나대학에서는 17세기부터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

나치 집권기와 동독 정권기간 동안 예나는 경제적인 침체기를 경험하였고 평생교육의 발전도 정체되었음. 1989년 독일 통일 당시 예나가 소속된 튀링겐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독일 평균의 39%에 불과하였으나 독일 통일 이후 칼 자이스에서 1만 6000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음.

하지만 90년대 이후 예나에는 200여개의 중소기업과 생명공학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서 경제가 회복되었음. 현재 예나의 실업률은 독일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며 평생학습이 생활화돼 있는 예나는 교육수준이 높고 기술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음.

3.5 일본의 학습도시 사례

가. 학습도시사업 추진 배경

■ 일본에서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평생학습 추진을 정책적으로 표방하면서 학습도시 혹은 학습마을을 조성하고 있음.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평생학습 이념을 지방 행정에 접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1979년 가계가와시에서 시작된 학습도시사업은 중앙 정부에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 현재 총 136개의 도시가 학습도시를 선언하고 추진하고 있음(김도수, 김득영, 1998). 학습도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각각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학습을 활성화하여 교육 구조와 산업 구조의 재구조화와 지역 재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학습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공적 사회교육의 전통 영향이 큼. 패전 직후부터 시민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모든 마을마다 설치된 공민관은 지역 주민의 학습과 문화, 자치와 토론, 레크리에이션과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침.

■ 이러한 전통 위에서 만들어진 학습도시사업은 마을 단위의 공민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 전체를 네트워킹하는 중핵 시설인 평생학습센터 개념을 도입하였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평생교육체제로 재편함으로써 주민들의 학습 요구와 지역 만들기라는 행정 과제를 연계하는 데에 기여하였음.

■ 이는 주민이 지역 만들기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주민들의 학습 과정이 지역 사회를 성장시킨다는 입장에 근거하며, 하나의 단위기관인 공민관을 중심으로 모여 학습하고 토론하던 전통이 지역 전체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학습도시라는 시스템으로 구동하고 있는 것임(양병찬, 2004).

나. 학습도시 현황 및 주요 특징

■ 일본의 많은 도시들이 평생학습 진흥을 주민들에게 선언함으로써 주민들과 평생학습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제적으로 평생학습을 진흥하려는 행정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최근 일본의 많은 지역에서 학습도시사업이 지역 만들기 내지 고장 만들기의 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학습도시 현황

■ 1979년 가께가와시가 세계 최초로 학습도시가 될 것을 선언한 이후, 이를 모델로 일본 중앙 정부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학습도시사업을 제안하였음.

■ 1988년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의 평생학습 추진 체제 정비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의 평생학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모델 시·정·촌 사업을 추진하였음. 국가 단위에서는 1987년 임시교육심의회 제3차 답신에서 처음으로 학습도시를 언급하였음.

동 답신에서 행정부의 각 부국이 연계되어 도시 전체에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학습도시 만들기를 추진할 것을 언급하고 있음.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단위인 시·정·촌을 중심으로 학습마을이 조성되고 있음.

■ 현재 학습마을을 선언한 시·정·촌은 136개에 이르는데, 이들 대부분은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은 인구 3만 이하의 소규모 시·정·촌들임. 학습마을을 선언한 시·정·촌 현황을 도·도·부·현별로 보면 <표 4.3.6>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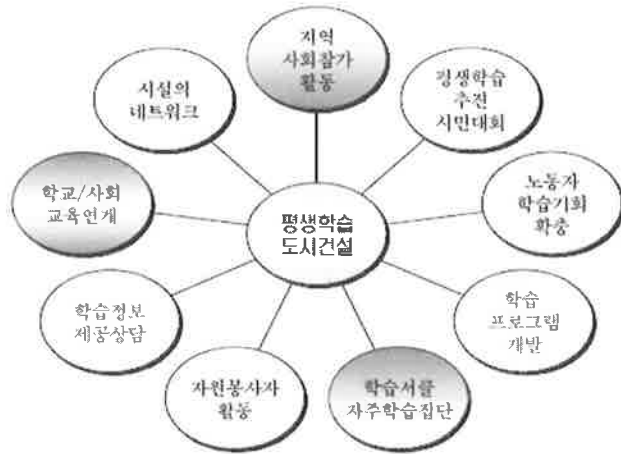
■ 이와 같은 학습마을은 평생학습정책 지역화의 핵심 전략으로서, 사람들이 주거지에서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가면서 어느 때든지 필요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와 학습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일상 활동을 하면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점포, 교통 체계, 주거 공간, 근로 시간 등과 같은 사회생활기반을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함.

■ 이들 학습마을에 대하여 일본 문부성은 학습마을만들기 추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 사업에서 [그림 4.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습마을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을 촉진하였음. 여기에서 말하는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추진사업에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간의 연계, 학습정보 제공, 상담, 자원봉사자 활동, 학습 씨클,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 노동자의 학습 기회 확충, 평생학습추진 시민대회 실시, 지역을 둘러싼 사회 참가 활동 실시, 시설의 네트워크화, 기타 시·정·촌 평생학습 추진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특색사업이 포함됨.

〈표 4.3.6〉 도·도·부·현별 학습도시/마을 선언 시·정·촌 현황

都道府縣	學習都市
北海道	眞狩村, 釧路市, 秩父別町, 浦河町, 月形町
岩手縣	金ヶ崎町, 輕米町, 田老町, 千기町, 種市町, 花卷市, 葛卷町, 前澤町, 衣川村
宮城縣	築館町, 丸森町, 七ヶ浜町, 木吉町, 唐桑町, 一迫町, 東和町, 米山町
秋田縣	若美町, 入內町
山形縣	朝日町
福島縣	高郷村, 熱塩加納村, 原町市, 田島町, 會津高田町, 이와키市
茨城縣	阿見町
櫛木縣	佐野市, 西方町
群馬縣	尾島町, 高崎市, 吉井町, 松井田町, 赤城村
埼玉縣	川島町, 春日部市, 宮代町
千葉縣	白井町, 木更津市, 館山市
神奈川縣	綾瀨市,
新潟縣	金井町, 羽茂町, 山北町, 豊榮市
富山縣	上市町, 富山市
石川縣	鹿島町, 内灘町, 加賀市
山梨縣	甲府市, ?崎市子
長野縣	茅野市, 東部町, 眞田眞, 嶺金村, 三水村
岐阜縣	羽島市, 川島眞, 岐阜市, 人和町, 人野町, 坂内村, 關市, 比宗町, 山岡町, 上矢作町
靜岡縣	掛川市
愛知縣	吉良町, 音羽町, 蟹江町
一重縣	河芸町
滋賀縣	栗東町, 今津町, 甲西町
京都縣	龜岡市
大阪府	茨木市
兵庫縣	青垣町, 一宮町, 西紀町
奈良縣	天理市
和哥山縣	貴志川町, 和歌山市, 印南町, 南部町
鳥取縣	日南町, 東郷町, 三朝町, 大榮町
鳥根縣	廣瀨町
岡山縣	新見市, 鴨方町
廣島縣	廿日市市, 戶河内町, 上下町, 大竹市
山口縣	周東町, 久賀町, 和木町, 徽山市
香川縣	飯山町
德島縣	川島町
愛媛縣	廣見町, 新居浜市
高知縣	大野見村
富岡縣	田川市, 筑後市
佐賀縣	大和町
長岐縣	外海町, 勝本町, 千千石町
大分縣	庄内町, 阮内町, 鶴見町, 野津町
宮岐縣	新富町, 南郷町, 都農町, 都城市, 北浦町
鹿兒島縣	坊津町, 郡山町, 吉松町, 牧園町, 入來町, 德之島町, 野田町, 大隅町, 中種子町
沖繩縣	仲里村

■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 노동, 주택, 환경, 육아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시키고 있음.



[그림 4.3.2] 일본의 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구성 예

2) 학습도시들의 주요 특징

(1) 최초의 학습도시 가계가와시

■ 세계 최초로 도시의 평생학습화를 선언하여 학습도시의 모델이 된 가계가와시는 신 무라 준이치(樺村純一)시장이 1979년 취임과 함께 학습도시를 제창하면서 평생학습 개념을 시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 도시 전체에 평생학습 개념을 실천하였음.

그는 평생학습을 제창하며 “掛川學事始”(가계가와시를 배우는 일로부터 평생학습이 시작된다는 의미)로서 지역학(수평적 통합)과 생애학(수직적 통합)의 확립을 목표로 평생학습운동을 추진하여 왔음. 이와 같은 운동이 추진된 배경은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린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개성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임(김도수, 김득영, 1998).

■ 가계가와시를 학습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시장은 시청조직 속에 평생학습부를 신설하여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음. 특히 시장은 가계가와시의 특수성과 문화와 산업 정책을 평생학습의 패러다임 속에서 통합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다른 많은 도시와 선진 외국에도 학습도시의 모델

이 되었음.

■ 가계가와시의 평생학습사업 추진체제를 보면 [그림 4.3.2]과 같음.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학습추진본부'를 구성하고 교육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평생학습을 추진하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은 시장부국(市長部局)이 담당. 또한 교육위원회 산하의 사회교육위원회가 지역평생학습센터 간의 연락과 협조 역할을 담당하며, 가계가와시는 교육행정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시 행정당국의 하위기구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즉, 평생교육 행정이 시 당국의 정책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평생교육 관련 시설과 기간관의 연계와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며, 평생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조달되고 있음.

■ 가계가와시 평생학습운동의 기본 과제는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는데 있음. 산촌 지역인 가계가와시에서 대도시로의 이농 현상은 지역 황폐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면서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 개발을 위해서 평생학습운동을 도입하였음.

■ 이러한 평생학습운동을 통해서 가계가와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각자가 좋은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살 가치가 있는 인생), 좋은 도시 만들기, 좋은 토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살기 좋은 도시), 좋은 인간관계, C좋은 인생극장을 만들기 위해서(의지할 가치가 있는 사회), 좋은 문화를 갖고, 좋은 후계자를 키워, 좋은 지구와 좋은 미래를 보내기 위해서(믿을 가치가 있는 자손)임.

가계가와시는 학습도시 선언 이후에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이 이루어졌고, 우선 신간센 역사 유치와 인터체인지 설립으로 공업 단지가 조성되고 재정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증가되었음. 또한 시민 의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고령자들이 노후 생활에 활력을 갖게 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하나인 여성회의를 통하여 가정 주부들을 사회인으로 끌어들이었음.

(2) 지역 만들기의 중심은 평생학습을 선언한 야시오시(八湖市)

■ 야시오시가 학습도시로 변모하게 된 것은 1986년 시의 사회교육위원회가 “평생학습에 대응하는 사회교육의 존재 방식”이란 보고서를 제출한 후 교육위원회(교육청)가 1989년과 1990년 2년 동안 중앙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 개방 사업을 중심으로 ‘학습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임.

야시오시 교육위원회의 사회교육과와 시청의 기획부 기획과가 협력하여 평생학습을 지역 만들기의 중심 과제로 설정하면서 환경 및 폐기물 관리, 도시 경관, 고령화 사회 등 많은 과제들을 시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 중에 있음. 1992년 7월 1일 학습도시선언을 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만들기를 범 시청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 개혁을 단행하여, 1993년 4월에 기획부 내에 학습도시추진실을 설치하였으며 야시오시학습도시만들기재단도 출범시켰음(松澤移行, 2001). 한편, 야시오시는 학습도시운동의 거점 시설로서 야시오시 평생학습센터(生涯樂習館)를 설립하여 평생학습 정보 수집, 확산과 시민의 일반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야시오의 학습도시사업 중 특색있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배달강좌를 개발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1994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이를 본받아 전국의 시·정·촌중에서 약 400개 정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방분권과 관련이 있음.

■ 2000년 4월부터 지방분권일괄법이 시행되어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종래의 상하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변화된 것임. 이러한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은 자신의 손으로라는 자치 의식을 갖게 한 것임. 이러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주민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필요함. 또한 주민들의 책임 있는 참여와 행동이 없으면 이 운동은 성공할 수 없고, 그 전제로서 학습이 필요하며, 이러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배달강좌임.

◆◆ 가께가와시의 학습도시 구체적 내용 ◆◆

일본은 1979년에 평생학습도시를 세계최초로 선언한 이래로 현재까지 학습도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 가께가와시의 학습도시 조성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정의 정 영역이 학습도시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이 지역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독특한 학습도시 조성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학습과 주민자치 활동, 시정참여 활동이 조화롭게 추진되고 있음. 이 도시의 학습도시 사업의 성과로 시민들의 학습기반이 강화되었으며, 시민학습의 활성화 인구유입, 도시의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도시의 학습도시 사업은 일본 학습도시 사업의 선구적 모범적 사례에 해당함.

일본 최초의 “평생학습도시”인 시즈오카현의 가께가와시는 도쿄에서 서남쪽으로 약 1시간 거리(신칸센 기준)인 시즈오카현은 온화한 기후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유명하나 기후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평임. 시즈오카현 서쪽 끝에 있는 가께가와시는 산으로 둘러싸인데다 규모도 작아 전국적으로 지역을 홍보할 기회가 없었음. 시골 소도시 치고는 이례적으로 신칸센이 지나가는 것과 NEC, 시세이도 등 대기업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형

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인구 8만 1,000여명의 소도시가 가케가와시의 현 주소임.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자신감으로 활력이 있는 도시임.

이 지역은 “1인 1자원봉사·1강좌”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서 자신이 배운 내용을 발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발표회 장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이웃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있음.

가케가와시는 1979년 세계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으며, 가케가와시의 선언 이후 평생학습을 선언한 지자체가 140개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곳은 지역 산림조합 전무로 일하다 42세 때인 1977년 가케가와 시장으로 취임한 신무라 준이치(樺村純一) 시장은 ‘掛川學事始(가케가와시를 배우는 일로부터 평생학습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제창하면서 평생학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



시청 조직에 평생학습부를 신설, 시장 비서실장이 직접 평생학습진흥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은 지난해까지 시민들과 무려 4,552회의 토론을 하면서 주민들과 신뢰를 쌓고 있음.

가케가와시의 평생학습 모토는 “내 고장을 제대로 알자”로 70년대 후반 가케가와시는 극심한 이농현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젊은층은 고향을 떠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젠 어쩔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져 있었음.

가케가와시는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계기로 일본 최고, 일본 제일, 일본 유일의 12가지 자랑거리를 만들면서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였음.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지 예능·스포츠, 자원봉사, 건강법, 한 가지 문제에 대한 연구를 평생동안 진행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었음. 20세 성인식 이후에도 30세, 40세 등 10년 단위로 성인식을 가짐으로써 지나간 1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음.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처음 배운 프로그램 ‘~란 무엇일까?’에서 ”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가 갖고 있는 36경(景)을 한달에 2~3군데씩 방문하면서 고장을 속속들이 알게 하였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그 결과 주민들의 애향심은 도시의 얼굴을 변화시켰고 신칸센을 유치하기 위해 가케가와시는 역사 건립 비용 135억엔 중 70억엔을 부담하였으며 이 중 30억엔은 시민의 모금액으로 충당하여 주민 1명당 35만원이 넘는 큰 돈을 부담하였음. 이는 신칸센의 유치가 지역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시의 설득과 평생학습을 통해 고양된 시민의식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생학습의 성과가 지역발전에 토대가 되었음을 보여준 사례임.

고속도로 가케가와 인터체인지가 건설되었고 가케가와 성 및 누각을 복원하는 데도 주민들이 동참을 하였음.

79년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자마자 가케가와시가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은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었음.

시는 1000여석의 대공연장은 물론 작은 회의실을 많이 만들어 평생학습을 통해 구성된 주민 커뮤니티들이 자유롭게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실은 “사회복지협의회”, “보이스카우트”, “동화낭독 동아리” 등 각종 단체 30여개가 1년간 돌아가며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평생학습 강좌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자원봉사자(Mentor)들도 회의실 한 칸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기가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 자체가 학습이며, 강사-피교육자의 관계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곧 교육을 기획함으로써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들이 만드는 교육프로그램은 예술, 역사, 한방치료, 꽃꽂이, 육아, 외국어, 국제정치, 해외정보 등 분야 매우 다양하며, 자원봉사자들은 보다 질 높은 강좌를 위해 평소 신문기사나 전시회 세미나 등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수집, 적절한 전문가를 물색하면 직접 찾아가 강의를 의뢰하고 있고 주민들의 학습욕구가 높아지자 도서관 이용도 활성화되었음. 2001년 6월 개관한 시립도서관은 지난 1월 16일 이용객 100만명을 돌파하였음.

가케가와 시민들이 자기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형성



하는 데만 약 20년이 소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마을에 대한 기초 교양을 통해 시민들을 시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흥미를 갖게 된 주민들이 적극적인 주체로 거듭난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음.

-가케가와시의 평생학습은 마인드 혁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로 성과를 설명하긴 어려우나 지역이 79년 당시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었으나 지금은 NEC, 시세이도 등 대기업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인구도 증가하여 시즈오카현 21개 도시 가운데 최하위였던 제조업 매출이 2003년 8,700억엔으로 6위로 급성장하한 것이 그 성과라 할 수 있음. 반드시 평생학습 때문에 공장이 입주했다고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신칸센을 유지하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세우는 등 인프라를 개선한데다 평생학습으로 주민들의 교육수준이 많이 개선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파악됨.

(3) 기타 학습도시들의 특징

■ 일본의 지역 만들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 만들기과 생활 향상에 필요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있음. 또한 지역 만들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살맛나고, 정이 넘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둬. 이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 자원봉사자 개발, 보급 등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학습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함.

■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현재 이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주요한 학습도시들을 보면(김득영, 2001). 단체, 서클 활동과 주민 활동을 통해 학습도시를 만들어 가는 대표적인 지역은 꿈·사랑·벗씨의 고향인 아모모리현(靑嶺縣) 나가와마찌(名川町), 아동화 교류를 포함한 국제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사이타마현(埼玉縣) 아사카시(朝設市), 지역 서클 활동의 도시 만들기를 전개하고 있는 시즈오카현(靜岡縣) 후지시(富士市), 세계 최초로 'Wellness 도성', 인간 건강, 도시 건강, 자연 건강 등을 함께 추구하는 미야자키현(宮崎縣) 미야코노쵸(都城町)가 있음.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도시로는 모험, 체험, 발견할 수 있는 마을을 추구하는 홋카이도(北海道) 비후카쵸(美深町)와 아동 조례의 실천을 통한 학습사회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는 야마구찌현(山口縣) 니시키쵸(錦町) 등이 있음.

가. 학습도시 지원 체제

1) 중앙 문부과학성

■ 일본의 평생교육정책은 198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변혁과 행정 개혁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모하고 있음. 기존 공민관 중심의 공적 사회교육 추

진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교육법과 함께, 1990년 6월에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평생학습진흥법”)9이 제정되었음. 이때부터 일본은 사회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음. 이 법률의 제정은 전 부처에서 평생학습을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시켰고,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체제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음.

■ “평생학습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평생학습 관련 조직은 문부성의 ‘사회교육국’이었다가 1988년 6월 문부성의 조직령 개정으로 이 국을 폐지하고 평생학습국(生涯學習館)을 문부성의 수석국으로 설치하였음. 같은 해 8월에는 평생학습심의회를 설치하여 평생학습 추진체제를 정비하였음. 종래의 사회교육국을 확충·개편하여 설치한 평생학습국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가정교육, 학교교육, 스포츠, 문화 활동, 남녀 공동 참여 교육, 사회 교육 진흥 등에 대하여 기획·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학습도시사업과 관련하여 문부성은 1988년부터 평생학습모델 시·정·촌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음. 이후부터 평생학습사업은 지역의 모든 공적 사업과 관련성을 가지고, 제사업의 근본 구상과 기획 단계에서 철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2) 지역 평생교육체제(학습도시추진본부, 평생학습센터)

■ 일본 정부는 평생학습 추진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평생학습 추진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라고 판단하여 각계각층의 주민 대표가 행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이를 위해서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일반행정 간의 협력과 연계 체제를 구축하였음.

현재 대부분의 도·도·부·현에는 평생학습 진흥을 관장하는 부국(部局)이 설치되어 있으며, 1999년 4월에 행정 및 관련 기관, 단체가 연계 협력을 추진하는 조직으로서 평생학습추진본부를 36개의 도·도·부·현에 설치하였음. 1,146개의 시·정·촌도 평생학습추진본부를 설치하고 평생학습진흥계획을 수립하여 학습마을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실제 선도적인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아키타현(秋田縣), 치바현(千葉縣), 시즈오카현(靜岡縣), 미야자키현(宮崎縣), 사이타마현(埼玉縣), 카나가와현(神川縣), 오오타현(大分縣) 등의 광역자치단체와 가께가와시 등의 기초자치단체를 들

수 있음. 정부는 이들 선도적 지자체의 평생학습사업을 모델화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지역 평생교육체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본에서 제일 먼저 평생학습 추진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던 아키타현(秋田縣)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키타현의 평생학습 추진체제는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1990년 법률 제71호) 제11조와 「평생학습심의회 조례」(1994년 아키타현 조례) 제35조에 의거하고 있음. 동 심의회의 주요 업무는 주민의 평생학습에 필요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것임.

평생학습추진본부는 평생학습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 및 추진, 평생학습관련 사업에 관련된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조정, 기타 평생학습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음. 1980년대 이후 학습도시 추진의 거점시설로서 각 지자체에 '평생학습센터'가 설치, 정비되었음. 전통적인 공민관은 지역 사회가 광역화되면서 광역 정주(定住) 지역에 걸 맞는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 시작하여 종합적인 학습도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었음. 이들 센터에서는 일상적인 학습기회 제공보다는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교육 프로그램 방법 등의 연구·개발, 광역 단위의 홍보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규모 평생교육시설로는 1966년 이시가와현에 현립사회교육센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지만, 평생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는 효고현(兵庫縣)의 효고현립평생교육센터가 최초의 기관임. 1990년 이후에는 국가에서 평생교육센터의 기준과 역할을 제시하고 「평생학습진흥법」에 행정·재정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면서, 도·도·부·현에까지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되고 있음. 그 예로써 홋카이도립교육연구소를 비롯하여 이와테현 종합교육센터, 아키타현 평생교육센터, 야마가타현 평생교육센터, 이바라키현 사회교육연수센터, 군마현 평생교육센터, 치바현 종합교육센터 등을 들 수 있음. 한편, 시·정·촌에서도 대형 공민관을 정비하여 평생학습센터로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음. 2005년 현재 평생학습센터는 도·도·부·현에 42개, 시·정·촌에 168개가 설치되어 있음.

V.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 기능시설의 실태 및 문제점

1. 사회 및 행정환경의 변화와 커뮤니티센터의 필요성 대두
2.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현황과 과제
3. 커뮤니티센터 기능시설의 운영 및 문제점 : 사례지역 중심
4. 농산어촌주민 교육 현실과 문제점 : 사례지역 중심
5. 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6. 해외 커뮤니티센터 사례

V.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 기능시설의 실태 및 문제점

1. 사회 및 행정환경의 변화와 커뮤니티센터의 필요성 대두

■ 주민자치센터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임.(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제1조와 제2조).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함.

첫째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둘째,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셋째,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넷째,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다섯째,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여섯째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 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등임.

이러한 기능을 주민자치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가능한 한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함.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시에는 위에서 분류한 것과 같이 분류하지 않고 크게 2가지 기능(둘째, 셋째, 다섯째의 기능을 통합한 주민의 삶의 보람과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기능과 첫째, 여섯째의 기능을 통합한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사회를 형성하는 주민자치기능)으로 분류하였음.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배경을 보면 기능 전환 이전 읍·면·동의 행정은 관할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착된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시·군·구 및 특별행정기관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국가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지방행정계층도 그 대사에서 제외될 수 없어 읍·면·동 기능 전환과 함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하게 된 것임.

구체적인 설치배경을 보면, 첫째,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인 조정임. 한국의 지방행정체

층구조는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등 2개의 자치계층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보조기관인 1~2개의 비자치행정계층(즉, 시 아래는 행정구-동 혹은 동·읍·면, 군 아래는 읍 또는 면이 자치구 아래에 동) 등 3~4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다층계를 채택하고 있어 의사결정의 시간이 지연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 의사결정의 시간이 지연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중간계층이 단순한 중계기능만을 수행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지방행정계층을 축소, 조정하면서 최 일선 행정계층인 읍·면·동의 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둘째, 지역주민 자치여건의 마련으로, 한국도 이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섰으나 아직 지방자치제도에 단체자치요소가 강하게 뿌리박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농촌공동체의 해체와 도시 공동체의 형성의 미비라는 '공동체의 이중적 부채'를 겪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자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의 주인인 주민을 위한 민주적인 행정이 실시되어야 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체제를 구축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커뮤니티형성이 필요함. 커뮤니티란 지역을 기본적인 단위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일종의 근린 집단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커뮤니티 형성을 통하여 진정한 주민 자치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것임.

셋째, 지방행정환경의 변화로 교통·통신의 발달과 주민생활권, 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시·군·청에 의한 광역적,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종전의 읍·면·동 단위에서 일반행정기능이 많이 약화되는 반면에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화, 복지, 여가 등 서비스 기능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또한 주민자치의식 고양 및 도시화로 점점 희박해지는 지역공동체의식의 향상이 요구됨. 또한 도시화에 따른 주거환경이 인구 밀집공동주택 형태로 변화하여 적은 인력으로 주민 행정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행정전산화 즉 각종 민원의 전산발급, 주민 등 초본 전국 온라인화 등으로 업무량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끝나게 되면 행정업무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됨. 따라서 이러한 행정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요구되었음.

2.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현황과 과제

2.1 주민자치센터의 조성목적

■ 주민자치센터란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지역실정에 따라 “동민의 집”, “문화센터”, “복지센터” 등 다양한 이름을 붙여 사용할 수 있음.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음.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물적(物的) 시설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것임. 예를 들면

- 문화여가 : 전시회, 문화교실, 동호회, 취미회, 컴퓨터교실 등
- 복지기능 : 놀이방, 탁아소, 노인교실 등
- 편익기능 : 회의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자원 재활용센터 등
- 사회진흥 : 교통질서, 자율방법, 청소년계도 등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지만 관할구역내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음.

■ 주민자치센터의 추진방향은 첫째, 현행 읍·면·동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능·인력을 정비하는 것임.

- 민원, 사회복지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는 계속 수행
- 지방세, 건설, 교통, 환경 등 일반행정사무는 시·군·구 이관
- 사무이관에 따라 관련 인력도 시·군·구 이관 재배치

둘째, 여유시설·공간은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편익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자치 센터를 활용하는 것임.

- 각계 주민대표(15~25명)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
-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 수행

셋째,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단계적 추진 및 시범실시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 보완하는 것임.

■ 주민자체센터의 그 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1998.2.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1998.8.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시안)이 마련되었고(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 등), 1999.2.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었음(읍·면·동사무소 폐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 1단계(1999~2000)-도시지역 동 기능전환, 2단계(2000~2001)-농촌지역 읍·면·동 기능전환

1999.4.7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시달되었으며, 그 내용은 현행 읍·면·동 제도를 유지하면서 쇠퇴기능과 과다인력을 정비하고, 여유시설·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었음.

주민자치센터의 추진상황을 보면, 일반시 및 자치구의 동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동 기능전환의 경우

① 278개동 시범실시('99. 7~12)

- 시범지역 : 94시구 278개동(전체 동 시범실시 : 11시구 133개동, 일부 동 시범실시 : 83시구 145개동)

- 시구 본청과 동간 사무·인력조정,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 전체 동 시범실시 시구에 대한 행·재정 지원

· 특별교부세 85억원(시구별 5~10억), 본청 한시지구 1~2과 보강지원

② 시범실시 운영 종합평가('99. 11~12)로 서면평가, 설문조사, 현지확인, 합동토론회 등 다면적 평가를 실시하였음.

③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존치사무·인력의 재조정, 지역특성을 반영한 운영허용, 통계·선거·생활민원 대책 등 평가결과 분석 및 보완대책 수립(2000. 1~2)

④ 보완대책을 반영, 도시지역 94시구 1,654개동 확대시행 등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 시달(2000. 3. 6)

⑤ 94시구 1,654개동 확대시행(2000. 7 ~)

-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

- 주민자치센터설치(시설 개·보수), 프로그램 운영 등
- ⑥ 서면점검, 현지점검, 설문조사,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한 동 기능전환 추진실태 종합 점검(2001. 8~9)

〈표 5.2.1〉 단계별 읍·면·동 기능전환 비교

구분	1단계 - 도시지역 등	2단계 - 농촌지역 읍·면·동
추진기간	1999 - 2000년 (시범실시: '99년, 확대시행:2000)	2000 - 2001년 (시범실시: 2000년, 확대시행: 2001년)
대상	94개 자치구(69) 및 일 반시(25)의 1.654개 동 (시범실시:94지구 278개동)	138개 도농복합시(49) 및 군(89)의 1.858 읍·면·동 (시범실시:14개군 31개 읍·면)
사무조정	-존치사무:655건중 평균 199건(30%) -이관사무:655건중 평균 456건(70%) *자율조정범위:29건(4%)	+도농복합시 등 - 1단계와 동일 *자율조정범위: 46건(7%) +도농복합시 및 군의 읍·면 - 존치사무:774건중 평균354건(46%) - 이관사무:774건중 평균420건(54%) *자율조정범위:116건(15%)
인력조정	-동 평균 15명중 존치 9명(60%) 이관 6명(40%) *자율조정범위: 지침상의 기본유형 적용이 매우 곤란한 특수한 지역에 특수유형 설정가능. 특수유형 설정 동의 경우 관할 동의 총정원(인력 배치기준의 최대치기준산정)범위내에서 적의 조정가능 (예) 영세민 밀집지역. 면적 관대지역.유동인구 과다지역.공장 밀집 지역. 관광특구 등	+도농복합시의 동 - 1 단계와 동일 + 도농복합시 및 군의 읍·면 -읍:평균 35명중 존치 25명(70%) 이관 10명(30%) -면:평균 18명중 존치 13명(70%) 이관 5명(30%) *자율조정범위: 관할 읍·면·동 총정원 (인력배치기준의 최대치 기준산정 범위내 적의조정 가능)
주민자치 센터설치	+ 설치대상: 전 동 + 국비지원: 소요액의 20% -개소당 6천만원 기준 14백만원 (특별교부세)	+ 설치대상 - 동: 전동 - 읍·면: 시·군별 1~2 개소 + 국비지원: 소요액의 30% - 개소당6천(동)~1억원(읍·면)기준. 2.6천(동)~4.5천만원(읍·면)

자료 : 행정자치부 자료에서 정리

둘째, 도농 복합시 및 군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의 경우

- ① 시범실시 준비(2000. 3~)
 - 시범읍·면 : 14시·군 31개 읍·면
 - 전체 읍·면 실시 : 3군 18개 읍·면
 - 일부 읍·면 실시 : 11시·군 13개 읍·면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사무·인력 조정, 자치법규 정비 등
 -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지원 : 특별교부세 28억원(읍·면당 80백만원)
- ② 읍·면기능전환 시범실시지침 시달(2000. 3. 6)
- ③ 시범읍·면 사무·인력조정지침 시달(2000. 8. 16)
- ④ 주민자치센터 설치(시설 개·보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 시범실시(2000.7 ~)
- ⑤ 시범실시 종합평가 및 문제점 분석 보완(2001.3~5)
- ⑥ 방침검토 확정(2001.6) 및 추진지침 시달(2001.6.29)
- ⑦ 138시·군 1,858개 읍·면·동으로 확대시행(2001.10~)
 - 사무·인력조정은 쏘읍·면·동 추진하되, 일정범위 자율조정 허용
 -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은 시·군별 1~2개 우선 설치 등 연차적·점진적 추진, 동은 쏘洞 설치
 -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지원 : 특별교부세 229.7억원(총 694읍·면·동, 동당 26백만원, 읍·면당 45백만원)

2.2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현황

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화를 유도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 지방행정체충구조를 축소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행을 목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제1단계로 1999년 7월부터 동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2000년 7월부터 읍·면(동)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되었으며, 제2단계로 2001년 10월부터 140개

시·군 1,86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음.

▣ 2006년 6월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2,532개로 이 중 1단계 1,685개소로 설치대상의 99.5%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설치된 자치센터는 847개로 대상의 44.7%에 불과함.

<표 5.2.2> 시·도별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읍·면·동수	주민자치센터 설치 대상			주민자치센터 설치 실적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588	3,588	1,694	1,894(896)	2,532(70.6)	1,685(99.5)	847(44.7)
서울	522	522	522		519(99.4)	519	
부산	226	226	221	5	226(100)	221	5(100)
대구	143	143	134	9	134(93.7)	132	2(22.2)
인천	141	141	121	20	141(100)	121	20(100)
광주	91	91	91		91(100)	91	
대전	80	80	80		80(100)	80	
울산	58	58	46	12	58(100)	46	12(100)
경기	532	532	318	214	456(85.7)	314	142(66.4)
강원	193	193	26	167	74(38.3)	26	48(28.7)
충북	153	153	30	123	129(84.3)	30	99(80.5)
충남	211	211		211	98(46.4)		98(46.4)
전북	244	244	33	211	147(60.2)	33	114(54.0)
전남	299	299	26	273	138(46.2)	26	112(41.0)
경북	338	338		338	54(16.0)		54(16.0)
경남	314	314	15	299	153(48.7)	15	138(46.2)
제주	43	43	31	12	34(79.1)	31	3(25.0)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를 재정리, 2006. 6. 30. 현재

▣ 따라서 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도시지역 주민들보다 각종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이것이 농산촌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는 하나

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5.2.3〉 1단계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대 상		자치법규 정 비	자치센터 설치조례	위원회 구 성	자치센터 설 치
	시구 수	동 수				
계	94	1,694	94 (100)	94 (100)	1,689 (99.7)	1,685 (99.5)
서울	25	522	25	25	519	519
부산	15	221	15	15	221	221
대구	7	134	7	7	134	132
인천	8	121	8	8	121	121
광주	5	91	5	5	91	91
대전	5	80	5	5	80	80
울산	4	46	4	4	46	46
경기	16	318	16	16	316	314
강원	3	26	3	3	26	26
충북	1	30	1	1	30	30
충남						
전북	1	33	1	1	33	33
전남	1	26	1	1	26	26
경북						
경남	1	15	1	1	15	15
제주	2	31	2	2	31	31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비중을 시·도별로 보면 농산어촌지역이 대상이 되는 2단계의 경우 부산, 인천 및 울산은 100%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대구가 22.2%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여주고 있음.

■ 도부지역의 경우 충북이 대상지역 123개에 99개가 설치되어 설치율이 8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경기(66.4%), 전북(54.0%), 충남(46.4%)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는 도는 경북으로 설치대상 338개 중 54개만 설치되어 16.0%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표 5.2.4〉 2단계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대 상		자치법규 정 비	자치센터 설치조례	위 원 회 구 성	자치센터 설 치
	시·군· 구 수	읍·면·동 수				
계	140	1,894	130 (92.9)	130 (92.9)	885 (528읍면/357동) (46.7)	847 (505읍면/342동) (44.7)
서울						
부산	1	5	1	1	5(5/0)	5(5/0)
대구	1	9	1	1	2(2/0)	2(2/0)
인천	2	20	2	2	20(20/0)	20(20/0)
광주						
대전						
울산	1	12	1	1	12(12/0)	12(12/0)
경기	15	214	15	15	147(90/57)	142(88/54)
강원	15	167	15	15	64(36/28)	48(27/21)
충북	11	123	11	11	99(78/21)	99(78/21)
충남	16	211	16	16	98(68/30)	98(68/30)
전북	13	211	13	13	128(78/50)	114(67/47)
전남	21	273	21	21	114(70/44)	112(68/44)
경북	23	338	13	13	54(26/28)	54(27/27)
경남	19	299	19	19	139(40/99)	138(40/98)
제주	2	12	2	2	3(3/0)	3(3/0)

자료 : 전제서

■ 1단계 설치 주민자치센터 중 자치법규와 자치센터 설치조례는 모든 센터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위원회 구성은 1,694개 중 1,689개소 구성되어 99.7%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단계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동 중 자치법규와 자치센터 조례가 제정된 센터는 140개 중 130개로 92.9%의 정비 및 제정률을 보이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나 위원회 구성은 46.7%로 상당히 낮은 구성율을 보이고 있어 센터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2.5〉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구 분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동
춘천시	교동, 조운동, 후평2동,약사명동, 신북읍, 석사동, 퇴계동,신사우동, 근화동, 효자1.2.3동(12)
원주시	단계동, 단구동, 봉산동, 무실동, 귀래면, 반곡관설동(6)
강릉시	성산면, 옥천동, 교1·2동, 내곡동, 성덕동(6)
동해시	천곡동, 송정동, 북삼동,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북평동,망상동, 삼화동(10)
태백시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장성동, 문곡소도동, 구문소동, 철암동(8)
속초시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8)
삼척시	
홍천군	동면(1)
횡성군	안흥면, 우천면, 둔내면(3)
영월군	하동면(1)
평창군	
정선군	임계면(1)
철원군	김화읍(1)
화천군	화천읍(1)
양구군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5)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기린면, 남면, 상남면(6)
고성군	간성읍, 토성면, 거진읍, 죽왕면(4)
양양군	현북면(1)
계	74개 읍·면·동

자료 : 강원도청, 내부자료에서 정리, 2006년 현재

■ 강원도의 경우 총 74개로 대상 수 193개의 38.3%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농산어촌의 비중이 적은 춘천시, 속초시, 동해시 그리고 태백시의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 비중이 큰 군 단위 지역의 센터 설치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삼척시, 평창군은 주민자치센터가 전무한 실정이며, 단 1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군이 6개로 전체 시·군의 33.3%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나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읍·면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지역의 중심활동구역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나. 주민자치위원 구성 및 분포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에 총 59,637명이 위촉되어 있어 센터 당 약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6,763명이 여자위원으로 총위원의 28.1%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국에서 위촉되어 있는 구성 중 직종별 구성 현황을 보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위원이 21,091명으로 전체의 3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직능단체 8,154명(13.7%), 주부 7,754명(13.0%), 농축산업 5,045명(8.5%), 통리반장 4,480명(7.5%)순으로 파악되었음.

■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르면 위원으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전문가 그룹의 참여비중이 낮고 특정 분야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전문가그룹이라 할 수 있는 기타부문에 종사하는 위원이 60.7%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의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센터에 위원들이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하여 센터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전문화되지 못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5.2.6〉 직종별 주민자치위원 구성

(단위 : 명, %)

구분	계	자영업	통리 반장	직능 단체	주부	회사원	전문직	지방 의원	비영리 민간단체	농축 산업	기타
계	59,637 (16,763)	21,091 (35.4)	4,480 (7.5)	8,154 (13.7)	7,754 (13)	2,833 (4.8)	2,651 (4.4)	1,870 (3.1)	2,263 (3.8)	5,045 (8.5)	3,496 (5.8)
서울	11,312 (3,675)	3,144	804	2,753	1,923	541	838	457	419	.	433
부산	5,533 (1,010)	3,086	124	343	505	314	354	177	68	100	462
대구	3,415 (577)	1,959	75	310	299	163	218	121	50	73	147
인천	3,276 (923)	1,328	248	444	411	165	84	114	75	214	193
광주	2,307 (625)	1,085	196	169	231	114	85	31	72	152	172
대전	1,748 (425)	858	50	182	158	117	98	58	23	60	144
울산	1,283 (409)	457	71	198	190	94	23	54	50	100	46
경기	10,807 (3,273)	4,146	802	1,213	1,557	584	390	341	369	854	551
강원	1,942 (493)	472	222	347	177	94	61	77	143	184	165
충북	3,566 (998)	837	379	526	396	130	79	128	185	718	188
충남	2,393 (627)	513	271	343	296	71	45	77	133	530	114
전북	3,496 (1,003)	860	384	310	468	102	123	89	153	687	320
전남	3,324 (962)	850	402	339	391	116	83	110	239	568	226
경북	1,115 (403)	284	143	121	173	25	11	24	29	244	61
경남	3,356 (1,137)	984	272	467	503	175	131	7	210	390	217
제주	764 (223)	228	37	89	76	28	28	5	45	171	57

주 : ()는 여성위원 숫자임.

자료 : 행정자치부, 전계서

〈표 5.2.7〉 분야별 주민자치위원 구성

(단위 : 명, %)

구분	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체육 예술계	사 회 복지계	종교계	관계	경제계	기타
계	59,637 (16,763)	1,842 (3.1)	286 (0.5)	1,615 (2.7)	2,185 (3.7)	495 (0.8)	2,060 (3.5)	14,898 (25)	36,256 (60.7)
서울	11,312 (3,675)	512	56	378	416	199	366	3,133	6,252
부산	5,533 (1,010)	160	7	76	78	25	144	2,316	2,727
대구	3,415 (577)	70	5	45	68	16	125	1,808	1,278
인천	3,276 (923)	78	14	50	54	22	104	849	2,105
광주	2,307 (625)	82	6	34	141	9	157	830	1,048
대전	1,748 (425)	45	8	33	25	6	57	699	875
울산	1,283 (409)	21	1	26	64	7	32	233	899
경기	10,807 (3,273)	365	105	264	378	56	408	2,284	6,947
강원	1,942 (493)	38	5	77	102	10	100	308	1,302
충북	3,566 (998)	111	10	151	184	29	127	356	2,598
충남	2,393 (627)	45	6	73	72	13	98	321	1,765
전북	3,496 (1,003)	78	17	93	104	36	100	476	2,592
전남	3,324 (962)	88	34	102	122	39	82	379	2,478
경북	1,115 (403)	18	1	23	7	9	20	78	959
경남	3,356 (1,137)	111	9	167	363	18	125	722	1,841
제주	764 (223)	20	2	23	7	1	15	106	590

주 : ()는 여성위원 숫자임.

자료 : 행정자치부, 전계서

2.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형

가. 전국 시·도별 유형

■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26,110개로 센터 1개 소당 약 10.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형별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13,570개로 전체의 52.0%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시민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전체의 17.1% 수준을 보이고 있고, 지역복지에 관한 프로그램도 8.4%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표 5.2.8〉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유형

(단위 : 건, %)

구분	총계	주민 자치	문화 여가	지역 복지	주민 편익	시민 교육	지역사회 진흥	기타
계	26,110	2,018 (7.7)	13,570 (52)	2,203 (8.4)	1,495 (5.7)	4,468 (17.1)	1,911 (7.3)	445 (1.8)
서울	9,424	968	4,147	1,002	547	1,854	820	86
부산	1,811	125	1,091	146	77	180	147	45
대구	660	55	421	5	77	52	35	15
인천	1,313	83	670	108	75	255	82	40
광주	458	17	233	61	30	83	19	15
대전	675	44	313	66	102	75	57	18
울산	635	22	406	26	43	36	96	6
경기	5,856	286	3,384	393	225	1,299	217	52
강원	529	42	264	52	36	74	27	34
충북	786	134	398	69	43	55	82	5
충남	503	33	327	35	11	56	14	27
전북	939	54	570	68	39	90	92	26
전남	754	69	348	58	80	112	51	36
경북	219	6	163	6	11	23	3	7
경남	1,201	70	659	89	78	169	107	29
제주	347	10	176	19	21	55	62	4

■ 시·도별로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서울시가 9,424개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 총인구 10,167천명(2006)으로 할 경우 프로그램 1개당 인구규모는 1,078명으로 현재의 센터로는 수혜범위를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도부지역의 경우 주민센터 설치 비중이 낮은 경북의 경우 프로그램 1개당 12,274명으로 인구규모가 서울시의 11.4배로 나타나고 있어 농산어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부지역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나. 강원도 프로그램 운영 유형

〈표 5.2.9〉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형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주 민 자 치	문 화 여 가	지 역 복 지	주 민 편 익	시 민 교 육	지 역사 회 진 흥	기 타
계	529(100)	42(7.9)	264(49.9)	52(9.8)	36(6.8)	74(14.0)	27(5.1)	34(6.5)
춘천	88	11	60	1	6	3	3	4
원주	40		22	2	1	12		3
강릉	61	5	35	6	3	3	3	6
동해	106	6	38	13	8	11	12	18
태백	38	6	18	2	7	1	4	
속초	44	7	12	8	5	10	2	
삼척								
홍천	6		2	1		2		1
횡성	27		9	9	1	8		
영월								
평창								
정선	3		3					
철원	2		1			1		
화천	14		10		4			
양구	53	5	21	3		19	3	2
인제	28	2	24		1	1		
고성	16		6	7		3		
양양	3		3					

■ 강원도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총 52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센

터 1개소당 7.1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어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1개당 인구수는 2,860명으로 타 시·도에 비하여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는 프로그램 운영보다도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작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5.2.10〉 방문프로그램 운영 자치센터
(단위 : 개소)

구 분	자치센터 설 치 읍·면· 동수	방문프로그램 운영여부	대 상 별 프 로 그 램 건 수					비고
			계	마을(복지) 회 관	아파트 관리소	경로당	기 타	
계	74	19	36	5	1	12	18	
춘천	12							
원주	6	1	1				1	
강릉	6							
동해	10	6	19		1	6	12	
태백	8	2	2			1	1	
속초	8	4	6	1		4	1	
삼척								
홍천	1	1	1			1		
횡성	3							
영월	1							
평창								
정선	1	1	1				1	
철원	1							
화천	1							
양구	5	4	6	4			2	
인제	6							
고성	4							
양양	1							

■ 강원도의 유형별 비중을 보면,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264개로 전체의 49.9%를 차지하고 있어 과반수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시민교육 14.0%, 지역복지 9.8%, 주민자치 7.9%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군별로 보면 센터가 대부분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농산어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적은 편임. 군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152개

로 28.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농산어촌 주민들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강원도의 경우 방문프로그램은 36개로 총 프로그램의 6.8% 수준에 불과하여 농산어촌의 영농유형이나 생활양식으로 볼 때 현재와 같이 주간위주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커뮤니티센터 기능시설의 운영 및 문제점 : 사례지역 중심

가. 조사기관 및 기간

■ 조사대상자 : 전국 주민자치센터,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지역 학생회관 등 72개 기관

■ 조사기간 : 2006년 8월~9월

나. 주민자치센터 조사 분석 결과

■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한 강좌 중 중점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중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한 강좌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체육건강관리 프로그램이 48.48%로 거의 과반수 센터가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2.11〉 센터의 중점 프로그램 1순위

(단위 : %)

구 분	문화예술 교육	시민교육	직무능력 개발	체육건강 관리	외국어문 화교육	IT관련교 육	산업기술 교육	기타	계
시·군소 재지	6.06	1.52	3.30	25.76	3.03		4.55	3.03	46.97
읍	7.58			6.06	1.52				8.15.15
면소재지	12.12		1.52	16.67	3.03	1.52	1.52	1.52	36.36
리지역							1.52		1.52
계	25.76	1.52	4.55	48.48	7.58	1.52	7.58	3.03	100.00

주 : 읍은 시·군소재지가 아닌 지역임.

다음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25%를 차지하고 있고 농산촌 전문교육과 관련이 있는 사업기술 프로그램은 8.3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중 순수 농산촌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2.12〉 교육대상 중요 프로그램 1순위

(단위 : %)

구 분	아동청소년 교육	청년교육	여성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	기타	계
시·군소재지	1.45		18.84	23.19	4.35	1.45	49.28
읍	1.45		5.80	5.80	1.45		14.49
면소재지	4.35	1.45	7.25	18.84	2.90		34.78
리지역				1.45			1.45
계	7.25	1.45	31.88	49.28	8.70	1.45	100.00

■ 교육대상을 기준으로 한 강좌 중 중점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할 때 1순위로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성인 프로그램으로 전체의 4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여성 프로그램으로 31.88%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 센터들이 여성과 성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2.13〉 교육대상 중요 프로그램 2순위

(단위 : %)

구 분	아동청소년 교육	청년교육	여성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	기타	계
시·군소재지	10.45	4.48	14.93	7.46	8.96	2.99	49.25
읍	4.48	1.49	1.49	5.97	1.49		14.93
면소재지	2.99	1.49	16.42	5.97	7.46		34.33
리지역			1.49				1.49
계	17.91	7.46	34.33	19.40	17.91	2.99	100.00

2순위 프로그램은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여성교육이 가장 선호도가 높고, 다음이 성인교육이며, 아동청소년 프로그램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2.14〉 향후 강화 프로그램

(단위 : %)

구 분	문화예술 교육	시민교육	직무능력 개발	체육건강 관리	외국어문 해교육	IT관련교 육	산업기술 교육	기타	계
시·군소 재지	16.90	5.63	4.23	14.08	2.82		2.82	1.41	47.89
읍	7.04	1.41	1.41	4.23					14.08
면소재지	14.08	4.23	2.82	8.45	4.23	1.41			35.21
리지역				1.41			1.41		2.82
계	38.03	11.27	8.45	28.17	7.03	1.41	4.23	1.41	100.00

■ 향후 강화할 프로그램 및 대상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각 센터가 강화하려는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예술과연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센터가 38.03%로 가장 높고 체육건강관리 교육도 28.17%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앞으로 강화하기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성인프로그램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센터의 45.07%가 성인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응답하여 우리의 인구구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2.15〉 향후 강화 수강대상

(단위 : %)

구 분	아동청소년 교육	청년교육	여성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	기타	계
시·군소재지	7.04	2.82	14.08	21.13	1.41	1.41	47.89
읍	1.41		2.82	2.82	7.04		14.08
면소재지	4.23		8.45	19.72	2.82		35.21
리지역			1.41	1.41			2.82
계	12.68	2.82	26.76	45.07	11.27	1.41	100.00

■ 계절별 프로그램 비중

센터에서 개설되는 프로그램 중 계절별 개설 비중을 보면, 겨울철이 33.24%로 가장 높

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겨울방학과 연계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패턴이 겨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다음으로는 영농철이 시작되는 봄이 27.4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방학이 있는 여름철이 23.98%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가을에는 15.3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는 가을에 지역마다 각종 축제가 개최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5.2.16〉 계절별 프로그램 비중

구 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비율(%)	27.46	23.98	15.32	33.24

■ 주야별 설치 비중

센터에서 개설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주야별 비중을 보면 주간에 개설되는 강좌가 79.69%로 거의 대부분 일과 중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야간에 개설되는 비중은 20.3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농산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농어민이 주간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문화혜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2.17〉 주야별 프로그램 개설 비중

구 분	주간	야간	계
비율(%)	79.69	20.31	100.0

■ 주말 프로그램 개설 여부

농산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간에 개설되면 수강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주중에 수강이 불가능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말에 프로그램 개설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주말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센터는 약 21.54%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개설되는 프로그램들이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2.18〉 주말 프로그램 개설 여부

(단위 : %)

구 분	있음	없음	계
시·군소재지	12.31	36.92	49.23
읍	7.69	6.15	13.85
면소재지	1.54	32.31	33.85
리지역		3.08	3.08
계	21.54	78.46	100.00

■ 농어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여부 및 향후 의향

농어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개설하고 있는 센터는 26.87% 수준인데, 대부분 문화 소양교육에 머물고 있고 전문교육은 거의 없는 실정임.

〈표 5.2.19〉 농어민 프로그램 개설 여부

(단위 : %)

구 분	있음	없음	계
시·군소재지	7.46	40.30	47.76
읍		14.93	14.93
면소재지	16.42	17.91	34.33
리지역	2.99		2.99
계	26.87	73.13	100.00

〈표 5.2.20〉 향후 농어민 프로그램 개설의향

(단위 : %)

구 분	있음	없음	계
시·군소재지	16.36	36.36	52.73
읍	14.55	3.64	18.18
면소재지	16.36	12.73	29.09
계	47.27	52.73	100.00

현재는 농어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으나 향후 개설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는 센터는 47.27%로 실제 이 정도의 센터가 농어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농산촌 주민

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교육생 모집 방법

센터에서 개설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생은 반상회보를 통하여 모집하는 센터가 28.57%이었고 일간지 및 벼룩시장, 교차로, 알림방 등 지역정보지를 활용하는 센터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2.21〉 교육생 모집방법

(단위 : %)

구 분	일간지 광고	지역정보지	반상회보	자체 홈페이지용	지자체 홈페이지용	전단지 현수막등	계
시·군소재 지	8.57	12.86	20.00	2.86	1.43	2.86	48.57
읍	2.86		4.29	5.71	1.43		14.29
면소재지	15.71	11.43	4.29		1.43	1.43	34.29
리지역		1.43			1.43		2.86
계	27.14	25.71	28.57	8.57	5.71	4.29	100.00

■ 수강료 부담문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강료가 징수되는데 조사 대상 센터 중 64.71%가 어떤 형태로든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액 무료로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경우는 33.82% 수준이었으며, 전액 정부지원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26.47%나 되어 실제적으로 수강생은 비용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22〉 수강료 부담

(단위 : %)

구 분	전액본인 부담	일부분인 일부정부 지원	전액정부 지원	일부분인 기관자체 예산	일부분인 일부자체 예산	무료	기타	계
시·군소재 지	1.47	13.24	10.29	8.82	1.47	14.71		50.00
읍			5.88	2.94		5.88		14.71
면소재지		7.35	10.29	1.47	1.47	10.29	1.47	32.35
리지역						2.94		2.94
계	1.47	20.59	26.47	13.24	2.94	33.82	1.47	100.00

■ 예산 외 기금 확보 여부

센터 중 13.04%가 예산외 별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6.96%는 기금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렇게 기금이 없는 센터는 프로그램의 종류나 운영에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금을 확보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임.

〈표 5.2.23〉 기금 운영 여부

(단위 : %)

구 분	있음	없음	계
시·군소재지	10.14	39.13	49.28
읍		14.49	14.49
면소재지	2.90	30.43	33.33
리지역		2.90	2.90
계	13.04	86.96	100.00

■ 행·재정 지원 여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부지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특히 행·재정지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79.41%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실제적으로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표 5.2.24〉 행·재정지원 여부

(단위 : %)

구 분	받고 있음	받고 있지 않음	계
시·군소재지	41.18	7.35	48.53
읍	7.35	7.35	14.71
면소재지	27.94	5.88	33.82
리지역	2.94		2.94
계	79.41	20.59	100.00

■ 시설 확보 현황

조사 대상 센터의 강의실 수는 평균 2.58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최소 1에서 최대 4개의 강의실을 보유하고 있는 센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센터의 면적은 평균

84.92평이고 최소 10평에서 최대 329평으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프로그램 담당 강사 구성

조사 대상 센터의 프로그램 담당 강사 구성을 보면 전담강사는 17.43%이며, 외부강사 비중이 약 5.25%로 나타나고 있고 자원봉사자는 5.25%로 나타나고 있어 자원봉사자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원봉사자는 센터당 평균 2.57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프로그램 개발 방식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방식을 보면 84.51%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14.08%나 되었으며, 타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25〉 프로그램 개발 방식

(단위 : %)

구 분	자체개발	외부전문가 위탁	강의담당자 개발	계
시·군소재지	39.44	7.04	1.41	47.89
읍	14.08			14.08
면소재지	29.58	5.63		35.21
리지역	1.41	1.41		2.82
계	84.51	14.08	1.41	100.00

〈표 5.2.26〉 개설 전 수요분석 여부

(단위 : %)

구 분	실시하고 있음	실시하지 않음	계
시·군소재지	27.27	18.18	45.45
읍	12.12	3.03	15.15
면소재지	13.64	22.73	36.36
리지역	3.03		3.03
계	56.06	43.94	100.00

■ 프로그램 개설전 수요 분석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전에 수요자를 중심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좋은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요분석을 실시하는 센터는 56.06%로 상당히 많은 센터들이 개설전 주민들로부터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강생 만족도 조사 여부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수강생들에게 수강한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하는 센터는 49.25%이고 나머지 50.75%는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5.2.27> 수강생 만족도 조사 여부

(단위 : %)

구 분	만족도 조사	만족도 미조사	계
시·군소재지	26.87	19.40	46.27
읍	10.45	4.48	14.93
면소재지	8.96	26.87	35.82
리지역	2.99		2.99
계	49.25	50.75	100.00

■ 네트워크 구축 여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외부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6.56%에 불과하며, 26.23% 정도가 미미하나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나머지 65.57%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 않아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강사를 섭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2.28> 네트워크 구축 여부

(단위 : %)

구 분	네트워크 미 구축	네트워크 구축미약	유기적인 네트워크구축	기타	계
시·군소재지	31.15	16.39	1.64		49.18
읍	4.92	4.92	4.92	1.64	16.39
면소재지	27.87	4.92			32.79
리지역	1.64				1.64
계	65.57	26.23	6.56	1.64	100.00

이상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과 내용 등을 알아보았음. 실제 센터가 운영되는 과정에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하에서는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읍·면·동 기능 전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적 활동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운영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현재는 읍·면·동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는 어려움이 있음.

둘째,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강사를 구하기가 힘들고 강의 내용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어 센터가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셋째, 전담인력의 부족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상당한 주민자치센터가 센터 업무를 전담할 별도 부서 및 담당공무원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곧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센터가 실질적인 주민의식 제고 및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강사들과 함께 차별화되고 특성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게 하여야 함.

넷째, 공무원의 소극성 자세도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은 행자부가 제시하는 기본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관료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프로그램 개발 운영상의 미비점

첫째, 주민자치의식 함양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주로 문화나 여가프로그램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천편일률적이어서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단순한 문화여가시설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센터의 역할을 약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됨.

둘째, 문화여가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행정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강사의 수당, 공공요금, 각종 문화자료, 교재 및 시설유지비 등의 기본경비를 국·도비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나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특색있는 과정을 개설하는데 한계가 있음.

일부 프로그램을 순수 자원봉사강사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프로그램 과정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정성을 확보할 대안이 없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인 경우 불가피하게 전문강사를 유료로 섭외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셋째, 일부이나 아직도 행정 주도의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어 자치센터의 기본 개념이 흔들리고 있음. 주민자치 센터가 주민자치의 중심이 되려면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주도의 주민자치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나 주민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위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이 많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따라가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주민자치센터의 활동과정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위한 기회가 많지 않은 것도 바람직하지 못함. 주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홍보가 부족하고 창의적 주민 자치활동보다는 기존의 몇 가지 사례를 답습하려는 획일적 추진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는 원대한 비전에 대한 의욕이 미진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이라는 기능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어 변화되는 새로운 사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취미교실의 우수강사진 및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별 동호회원을 모집하거나 전문지식이나 자격 또는 종사경력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를 갖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보상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동단위 단체 활성화를 통한 자원봉사자 확보 및 각종 자생단체(꽃꽂이회, 종이접기 모임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함.

도시내나 인근지역의 복지회관 및 문화센터 기능과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

고, 읍·면지역도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등과 일부기능이 중복되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여야 함.

■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

읍·면·자치센터의 경우, 강사나 자원봉사자들을 구하기 어려워 도시지역에 비해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되거나 운영비는 차별 없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관할구역이 넓고 농촌 읍·면·동지역이 많은 경우 프로그램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 강사의 수당, 공공요금, 각종 문화자료 교체 및 시설유지비 등의 기본경비를 지방재정의 재정형편상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나 운영비가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주민자치센터 개소이후 운영되는 취미·교양강좌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강사수첩을 만들고 강사후보자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나 강원도는 문화 복지부분이 수도권과 비교하여 열악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는 물론이고 유급 전문강사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일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경우, 기초프로그램 수료 후 상급단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나 상급단계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비용부담 때문에 수강신청자가 없어 일과성 프로그램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있음. 또 수강자들에게 필요한 고급강좌라고 할 수 있는 재료비가 들어가는 꽃꽂이나 제빵 제과 등 재료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운영은, 강사나 수상자들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비와 수강료 등이 부담되어 수강신청자가 극히 적은 실정임.

농업 비중이 큰 읍·면 지역에서는 농번기인 3월부터 11월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이 어려움. 따라서 농한기에 한시적 운영밖에 할 수 없음. 예를 들면,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정선군 임계면(244.12km²)의 경우, 속초시 전체면적(105.25km²)보다 2배이상 크고, 동해시 전체면적(180.07km²)보다도 80km²이상이 더 큰 방대한 면적을 가진 면단위 지역임(강원도, 2002). 이렇게 시·군 단위 면적보다도 넓은 관할면적을 가지고 있는 읍·면의 경우 원거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해도 멀어 일당을 지급해 준다고 해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주민자치센터관리운영상 문제

주민자치센터가, 궁극적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거나 주민참여가 저조하여 오히려 자치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자치위원은 시간여유가 있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여론 선도계층이라 할 수 있는 인사가 주로 참여하고 있으나 생업에 열중하는 사람은 무관심한 경우가 많음. 때문에 시범실시 중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나 센터방문자들에게 홍보 팜플렛을 주거나 반상회회보에 안내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적구성이 기존 관변단체에 너무 편향되어 있어 대표성이 부재함.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실질적 주체는 자치위원회이며 따라서 그 구성과 활동, 역할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 동 단위 단체 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 시민단체, 특히 여성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동정자문위원회'가 '동장자문위원회'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비교적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시·군 본청에 주민자치센터업무를 관장하는 과나 계를 두고 총괄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주민자치센터를 전담하는 과나 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모범적인 센터는 아니지만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군단체장의 의지를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임.

■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한계

많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을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널리고 위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참이 저조한 편이라 할 수 있음.

이는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의 구성에서도 확인될 수 있음. 물론 모든 센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센터들이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다양한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강구하여야 함.

또한 위원들 중 남성 위원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라 할 수 있음. 물론 남자 위원이 센터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센터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

2006년 현재 59,637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16,763명으로 28.1%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의 다수 이용자인 여성과 주부와는 동떨어진 남성이나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주민 대표성에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다양한 여성 전문가, 여성 교육제, 여성 언론인 등 여성위원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4. 농산어촌 주민 교육 현실과 문제점 : 사례지역 중심

가. 사례지역 조사 기간 및 내용

- 1) 조사대상자 : 전국의 농산어촌지역 주민(160명)
- 2) 조사기간 : 2006년 8월~9월
- 3) 조사내용
 - 농산어촌마을 유형 및 경쟁자원 여부(7개 항목)
 - 농림어업관련 교육 수강 여부(18개 항목)
 - 농산어촌지역 주민 질 향상을 위한 욕구(11개 항목)
 - 농산어촌교육기관 활용의 만족도(5개 항목)

나. 농산어촌지역 교육 현실과 문제점

1) 조사마을의 경쟁력 및 여건

■ 거주현황

조사대상자의 거주 현황을 보면 전체조사대상자 중 행정조직의 최하위단위인 마을(리) 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59.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시·군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13.14%, 면 및 읍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각 21.90%, 5.84%임.

■ 마을의 유형

조사에 응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유형을 보면, 전형적 농산촌마을이라고 응답한 주민이 33.33%로 가장 많아 농산촌지역 중 농촌지역의 비중이 아직도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음.

다음으로 농업과 축산, 농업과 관광이 연계된 마을이라고 한 주민이 각각 22.96%, 18.52%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농업과 산림이 연계된 마을이라고 응답한 주민도 16.30%나 되어 최근 임업이 농산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

〈표 5.2.29〉 조사대상자의 거주 지역 현황

(단위 : %)

구 분	시·군소재지	시·군소재지 외읍	면소재지	리지역	계
중졸이하	3.65	2.19	13.14	18.25	37.23
고졸	6.57	2.92	5.84	31.39	46.72
대졸	2.19		0.73	8.03	17.14
대학원	0.73		0.73		1.46
기타		0.73	1.46	1.46	3.65
계	13.14	5.84	21.90	59.12	100.00

〈표 5.2.30〉 조사대상자의 마을 유형

(단위 : %)

구 분	전형적농업 마을	농업과 관광 연계마을	관광중심마 을	농업과 축산 연계마을	농업과 산림 연계마을	기타	계
중졸이하	10.37	6.67		10.37	6.67		37.04
고졸	16.30	9.63	0.74	9.63	7.41	0.74	46.67
대졸	4.44	1.48	0.74	1.48	2.22	0.74	11.11
대학원	1.48						1.48
기타	0.74	0.74		1.48		0.74	3.70
계	33.33	18.52	1.48	22.96	16.30	1.48	100.00

■ 마을의 경쟁력 자원

조사“마을의 경쟁력이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46.62%가 일반농업이라고 응답하여 농산촌 주민들은 농업을 경쟁력있게 강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곡과 산, 축산이 마을의 경쟁력 있는 자원이라고 응답한 주민은 각각 14.50%, 9.92%로 나타나 마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고 있기를 희망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역사문화가 마을의 경쟁력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주민은 3.05%수준으로 조사되어 농산촌에는 상대적으로 역사문화를 통한 마을발전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사과, 복숭아 등 과수가 마을의 경쟁력 있는 자원이라 생각하는 주민도 3.82%나 되어 향후 과수를 통한 마을 경쟁력 제고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5.2.31〉 조사마을의 경쟁력 자원 유형

(단위: %)

구 분	일반농업	계곡	축산	초지	역사문화
중졸이하	23.66	3.82	2.29		
고졸	19.85	7.63	6.11	0.76	
대졸	3.05	2.29	1.53		2.29
대학원	0.76	0.76			
기타	2.29				0.76
계	46.62	14.50	9.92	0.76	3.05

구 분	바다	고원지대	단풍	사과등과수	기타	계
중졸이하	2.29	0.76		2.29		36.64
고졸	1.53	3.05	2.29	1.53	1.53	46.56
대졸		0.76			1.53	11.45
대학원						1.53
기타					0.76	3.82
계	3.82	4.58	2.29	3.82	3.82	100.0

■ 마을의 주소득원

조사대상 마을의 주소득원을 보면, 일반농업에 의한 소득이 주소득원인 마을이 42.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축산과 채소농업이 각각 16.79%, 12.4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화훼농업과 축산이 소득원인 주민의 비율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산촌의 소득원이 다양화되면서 향후 마을의 특화정도에 따라 다양한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표 5.2.32〉 조사마을의 주 소득원

(단위:%)

구 분	일반농업	축산업	채소농업	화훼농업	농촌관광	기타	계
중졸이하	19.71	6.57	2.19		2.92	5.84	37.23
고졸	17.52	8.03	9.49		2.19	9.49	46.72
대졸	2.92	2.19		0.73	2.19	2.92	10.95
대학원	1.46						1.46
기타	0.73		0.73			2.19	3.65
계	42.34	16.79	12.41	0.73	7.30	20.44	100.0

■ 마을의 생활편의시설 여건

마을의 교육환경을 조사한 결과 현재 마을의 교육환경에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12.70%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현재 농산촌의 어려움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음. 반면 불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81%로 만족한다는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은 현재의 교육여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5.2.33〉 마을의 교육환경 여건

(단위:%)

구 분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
중졸이하	6.35	3.17	3.17	6.35	6.35	25.40
고졸	3.17	4.763	15.87	23.81	4.76	52.38
대졸	1.59	4.76	3.17	4.76	1.59	15.87
대학원			3.17			3.17
기타			3.17			3.17
계	11.11	12.70	28.57	34.92	12.70	100.00

■ 마을의 문화여건

문화여건에서는 교육환경보다 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마을의 문

화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약 31.15%로 불만이라고 한 비율과 비슷한 비율을 만족과 불만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34〉 마을의 문화여건

(단위:%)

구 분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
중졸이하	8.20	1.64	4.92	6.56	4.92	26.23
고졸	3.28	8.20	24.59	11.48	3.28	50.82
대졸	3.28	4.92	3.28	3.28	1.64	16.39
대학원			3.28			3.28
기타			3.28			3.28
계	14.75	14.75	39.34	21.31	9.84	100.00

■ 마을의 교통환경

정부가 도시지역은 물론 농산어촌지역의 하부구조 특히 도로정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이들 지역의 교통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이런 성과가 본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표 5.2.35〉 마을의 교통환경

(단위:%)

구 분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
중졸이하	1.59		6.35	12.70	4.76	25.40
고졸	1.59	4.76	23.81	20.63	1.59	52.38
대졸	1.59	4.76	4.76	3.17		15.87
대학원	1.59		1.59			3.17
기타			3.17			3.17
계	6.35	9.52	39.68	36.51	7.94	100.0

교통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문화나 교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교통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2)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교육 수혜

■ 농림어업 혹은 농산어촌개발 관련 교육 경험

농림어업 혹은 농산어촌개발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교육경험이 있다는 주민이 95.71%로 없다는 비율 4.29%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5.2.36〉 농림어업 및 농산어촌개발 관련 교육 경험

(단위 : %)

구 분	있음	없음	계
중졸이하	22.86	1.43	24.29
고졸	50.00	2.86	52.86
대졸	17.14		17.14
대학원	2.86		2.86
기타	2.86		2.86
계	95.71	4.29	100.0

학력별로 교육 경험을 보면 고졸과 중졸이 각각 52.86%, 24.29%로 반드시 학력이 높다고 해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는 마을 리더그룹에 포함되는 주민들은 마을에서도 상당한 의식을 갖고 마을발전에 기여를 하게 됨으로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됨.

또한 최근 농산어촌지역으로 귀농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동안 침체되어 오던 마을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교육경험분야 및 수강관련 내용

농산어촌 주민 중 전문교육을 받은 경험분야를 보면 농업교육의 경우 교육회수가 평균 5.7회이며, 수강시간은 평균 24.73시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주민간에 교육회수나 수강시간에 있어 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가장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분야는 정보화교육으로 최근 영농활동에서 생산은 물론 농산물의 판매가 증시되고 정부가 정보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2.37〉 교육경험 회수 및 수강시간

분 야	수강회수(회)			수강시간(시가)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농업교육	5.70	1	50	24.73	4	200
축산교육	2.62	1	15	49.61	3	350
친환경교육	4.62	1	20	34.59	1	240
농촌개발교육	3.31	1	20	34.74	1	140
정보화교육	5.59	1	30	34.22	4	150
마을리더교육	3.23	1	17	38.35	4	120
기타교육	1.81	1	7	33.75	20	40

또한 최근 마을발전과 관련하여 농산촌개발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가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이 분야의 교육경험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향후 우리 농촌의 미래를 전망할 때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농산물관련 교육경험분야 및 수강 내용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과정에 관한 교육경험을 보면 생산에 관련된 교육회수가 평균 3.72회로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 판매에 관한 교육경험이 평균 2.03회로 가장 경험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따라서 주민이 보다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과정도 중요하지만 생산 후 가공이나 판매과정의 중요함을 인식할 때 이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설과 운영이 필요함.

〈표 5.2.38〉 교육경험 회수 및 수강시간

분 야	수강회수(회)			수강시간(시가)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농산물생산교육	3.72	1	48	18.81	2	100
농산물판매교육	2.03	1	16	13.60	2	150
홍보마케팅교육	2.45	1	20	18.15	2	150
홈페이지교육	2.86	1	24	17.24	2	120
체험교육	4.58	1	10	20.93	2	56

■ 수강료 부담 문제

농산어촌 주민들 중 교육경험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 수강료 부담에 대한 실태를 보면, 총수강료 중 일부는 자신이 부담하고 일부는 정부지원에 의해 교육을 받은 경우가 52.17%로 상당한 주민들이 정부지원에 의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특히 교육비 전체를 정부가 부담하고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도 27.54%나 되어 일부지원과 합하면 정부지원이 농산어촌 주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절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표 5.2.39〉 수강료 부담 여부

(단위 : %)

구 분	전액 본인부담	일부본인일 부정부지원	전액정부지 원	수강료없음	기타	계
중졸이하	1.45	11.59	5.80	5.80		24.64
고졸	1.45	30.43	11.59	7.25	1.45	52.17
대졸	1.45	8.70	5.80	1.45		17.39
대학원		1.45	1.45			2.90
기타			2.90			2.90
계	4.35	52.17	27.54	14.49	1.45	100.0

반면 교육비 모두를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비율도 4.35%나 되어 이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과감히 투자하려는 의지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미래의 희망적인 농산촌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음.

교육을 받은 주민들의 평균교육비 부담규모를 보면 1강좌당 평균 89.57천원을 지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최저액 5천에서 최고 800천원까지 다양하게 조사되었음.

■ 교육만족도

농림어업관련 교육을 수료한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비중은 40.58%, 조금 만족한다는 비중은 28.99%로 조사되어 70%가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교육 평가에서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비중 27.54를 합하면 97%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고등교육을 통하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평가됨.

〈표 5.2.40〉 농림어업관련 교육만족도

(단위 : %)

구 분	매우만족	조금만족	보통	조금불만	계
중졸이하	14.49	5.80	2.90		23.19
고졸	20.29	14.49	17.39	1.45	53.62
대졸	5.80	5.80	4.35	1.45	17.39
대학원		1.45	1.45		2.90
기타		1.45	1.45		2.90
계	40.58	28.99	27.54	2.90	100.0

따라서 대다수의 농산촌 주민들이 고졸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농산촌 주민을 위한 교육기회를 더욱더 확대하여야 할 것임.

■ 교육 부족 순위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교육에서 가장(1순위) 부족하였다고 생각한 것은 교육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비율로 34.69%가 이를 지적하였음.

〈표 5.2.41〉 교육의 부족 1순위

(단위 : %)

구 분	강사강의태도	교육종류	교육운영	교육교재	계
중졸이하		6.12	6.12	4.08	20.41
고졸	6.12	18.37	8.16	12.24	53.06
대졸		10.20		4.08	20.41
대학원			2.04		4.08
기타					2.04
계	6.12	34.69	16.23	20.41	100.0

구 분	수강생태도	교육기관준비	교수방법개발	계
중졸이하	2.04		2.04	20.41
고졸	6.12	2.04		53.06
대졸	4.08		2.04	20.41
대학원	2.04			4.08
기타	2.04			2.04
계	16.33	2.04	2.04	100.0

다음은 교육교재와 수강생의 수강태도가 좋지 못했다는 견해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강사의 강의태도, 강의준비 및 교수법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앞으로 농산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산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교육을 받는 교육 내용 중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2순위는 교육운영이 부실하였다는 견해가 31.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수강생 태도와 교육종류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5.2.42〉 교육의 부족 2순위

(단위 : %)

구 분	강사강의태도	교육종류	교육운영	교육교재	수강생태도	교육기관준비	교수방법개발	계
중졸이하		6.25		6.25	4.17	2.08		18.75
고졸	8.33	10.42	18.75	6.25	8.33		2.08	54.17
대졸	2.08		10.42		8.33			20.83
대학원		2.08	2.08					4.17
기타	2.08							2.08
계	12.50	18.75	31.25	12.50	20.83	2.08	2.08	100.0

■ 교육기회 평가

농산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본 조사에서도 증명되고 있음. 전체 응답자 중 57.35%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다고 응답하여 실제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5.2.43〉 교육받을 기회

(단위:%)

구 분	기회 많음	기회 없음	기타	계
중졸이하	14.71	5.88	2.94	23.53
고졸	29.41	17.65	5.88	52.94
대졸	8.82	7.35	1.47	17.65
대학원	1.47	1.47		2.94
기타	2.94			2.94
계	57.35	32.35	10.29	100.0

그러나 농산촌의 많은 주민들이 아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소득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농림어업관련 실제 교육시행기관

농림어업과 관련되어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기관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에서 농림부라는 견해가 56.9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8.46%가 농업기술센터라고 응답을 하였고 단위조합, 농촌공사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2.44〉 교육과정 개설 기관

(단위:%)

구 분	농림부	농업기술 센터	단위농업 협동조합	한국농촌 공사	지역학습 관	여성회관	계
중졸이하	10.77	4.62	4.62	3.08		1.54	24.62
고졸	35.35	4.62	7.69	3.08			50.77
대졸	9.23	7.69	1.54				18.46
대학원	1.54	1.54					3.08
기타			1.54		1.54		3.08
계	56.92	18.46	15.38	6.15	1.54	1.54	100.0

〈표 5.2.45〉 농림어업 기술관련 교육 기관

(단위:%)

구 분	농림부	농업기술센터	단위농업협동조합	한국농촌공사	주민자치센터	계
중졸이하	12.50	6.25	6.25			25.00
고졸	4.17	41.67		4.17	2.08	52.08
대졸	4.17	10.42	2.08			16.67
대학원		4.17				4.17
기타		2.08				2.08
계	20.83	64.58	8.33	4.17	2.08	100.0

부문별로 볼 때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농림어업 기술관련 교육기관은 농업기술센터가 64.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판매와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단위농협이 주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음(56.76%).

〈표 5.2.46〉 농림어업 판매관련 교육 기관

(단위:%)

구 분	농림부	농업기술센터	단위농업협동조합	한국농촌공사	주민자치센터	기타	계
중졸이하		2.70	10.81	5.41	2.70		21.62
고졸	8.11	5.41	29.73	2.70		2.70	48.65
대졸	2.70	5.41	10.81			2.70	21.62
대학원		2.70	2.70				5.41
기타			2.70				2.70
계	10.81	16.22	56.76	8.11	2.70	5.41	100.0

홍보 및 마케팅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농림부가 한다는 비중 3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산촌개발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주로 한다는 견해가 높았음.

〈표 5.2.47〉 농림어업 홍보 마케팅 교육 기관

(단위:%)

구 분	농림부	농업기술 센터	단위농업 협동조합	한국농촌 공사	주민자치 센터	기타	계
중졸이하	5.41	8.11		5.41			18.92
고졸	21.62	5.41	10.81	10.81	5.41		54.05
대졸	10.81	2.70			2.70	2.70	18.92
대학원		5.41					5.41
기타		2.70					2.70
계	37.84	24.32	10.81	16.22	8.11	2.70	100.0

특히 최근 농산촌발전과 관련하여 한국농촌공사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공사의 도농 교류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이 마을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2.48〉 농림어업 및 농산촌개발 관련 교육기관

(단위:%)

구 분	농림부	농업기술센터	단위농협	한국농촌공사	주민자치센터	계
중졸이하	13.16	2.63	5.26	5.26		26.32
고졸	21.05	10.53		10.53	2.63	44.74
대졸	18.42			2.63		21.05
대학원	2.63	2.63				5.26
기타				2.63		2.63
계	55.26	15.79	5.26	21.05	2.63	100.0

■ 교육받은 주민의 수

농산촌주민들 중 농림어업 혹은 농산어촌개발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주민들의 평균 수를 보면 1회 이상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평균 21.68명이고, 2회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는 12.96명이고, 3회 이상의 경우는 8.17명이고, 4회 이상 교육을 받은 주민들의 수는 6.04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강원도의 경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의식개혁을 통한 마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평가지표에 교육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타 시·도지역보다 이 부분에서 강원도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교육내용에 따른 필요 교육분야

농산어촌 주민 등을 위한 교육 중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1순위로 꼽은 교육이 산업기술교육으로 46.67%를 차지하고 있어 농산촌의 주민소득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냈으며, 다음이 시민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제시하고 있음.

<표 5.2.49> 교육내용 중점 1순위

(단위:%)

구 분	문화예술 교육	시민교육	직무능력 개발	체육건강 관리	IT관련교육	산업기술 교육	계
중졸이하	1.67	1.67	1.67		1.67	16.67	23.33
고졸		20.00	3.33	1.67	3.33	25.00	53.33
대졸	6.67	6.67	1.67			2.33	18.33
대학원					1.67	1.67	3.33
기타		1.67					1.67
계	8.33	30.00	6.67	1.67	6.67	46.67	100.0

<표 5.2.50> 교육내용 중점 2순위

(단위:%)

구 분	문화예술 교육	시민교육	직무능력 개발	체육건강 관리	외국어교육	IT관련교육	산업기술 교육	계
중졸이하		1.69				16.95	5.08	23.73
고졸	6.78	10.17	1.69	3.39		30.51	1.69	54.24
대졸		1.69	1.69	1.69	1.69	5.08	5.08	16.95
대학원		1.69				1.69		3.39
기타							1.69	1.69
계	6.78	15.25	3.39	5.08	1.69	54.24	13.56	100.0

2순위로 농산어촌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교육은 IT관련교육으로 주민들의

54.24%가 이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생산 후 판매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IT교육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됨.

■ 교육대상에 따른 필요 교육분야

농산어촌 주민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층이 어느 계층인가라는 질문에서 성인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비중이 3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24.19%)를 보여 농산어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교육으로 아동·청소년교육인 것으로 평가됨.

〈표 5.2.51〉 교육대상 1순위 분야

(단위:%)

구 분	아동청소년 교육	청년교육	여성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	계
중졸이하	1.61	6.45	1.61	14.52		24.19
고졸	14.51	4.84	8.06	17.74	6.45	51.61
대졸	4.84	4.84	6.45	1.61	1.61	19.35
대학원	1.61				1.61	3.23
기타	1.61					1.61
계	24.19	16.13	16.13	33.87	9.68	100.0

〈표 5.2.52〉 교육대상 2순위 분야

(단위:%)

구 분	아동청소년 교육	청년교육	여성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	기타	계
중졸이하	1.61	6.45	11.29	1.61	1.61		24.19
고졸	6.45	9.68	25.81	4.84	6.45		53.23
대졸		1.61	4.84	8.06	1.61	3.22	17.74
대학원			1.61		1.61		3.23
기타		1.61					1.61
계	8.06	19.35	43.55	14.52	11.29	3.22	100.0

또한 2순위로 필요한 교육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여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가장 높았으며(43.55%), 그 외 대상은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어 모든 대상

이 교육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음.

■ 생산 후 필요교육 분야

농특산물을 수확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실시되어야 할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운영·관리방법이 필요하다는 비중이 38.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홍보 및 마케팅 31.43%, 체험프로그램(17.14%)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운영관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최근 정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마을에 입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의 분배문제, 인력투입 문제 등에서 지식이 없기 때문으로 추정됨.

〈표 5.2.53〉 생산 후 필요교육 분야

(단위: %)

구 분	운영관리방법	홍보마케팅	갈등해소 방법	홈페이지 구축	체험프로 그램	기타	계
중졸이하	7.14	10.00		2.86	2.86		22.86
고졸	22.86	15.71	1.43	2.86	1.00	1.43	54.29
대졸	7.14	2.86	2.86		4.29		17.14
대학원		1.43	1.43				2.86
기타	1.43	1.43					2.86
계	38.57	31.43	5.71	5.71	17.14	1.43	100.0

■ 계절별 강좌 비중

계절별로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서 겨울이 가장 좋다는 견해가 42.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봄으로 25.00%, 여름 16.13%순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영농철이 아닌 농한기에 각종 교육이 실시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54〉 계절별 강좌 비중

(단위 : %)

구 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비율(%)	25.00	16.13	13.31	42.56

■ 일별 강좌시간

농번기나 농한기라 하더라도 주간에는 주로 생활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주간을 희망하는 주민은 50.67%, 야간을 선호하는 주민은 49.33%로 주간이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일반 주민들의 경우 주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면 거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교육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5.2.55〉 야간교육의 필요성

(단위:%)

구 분	낮에 일	밤 시간 내기	기타	계
중졸이하	15.69	1.96	1.96	19.61
고졸	19.61	25.49	7.84	52.94
대졸	3.92	15.69		19.61
대학원	1.96	1.96		3.92
기타	1.96	1.96		3.92
계	43.14	47.06	9.80	100.0

본 조사에서도 야간교육이 실시되기를 원하는 이유를 보면 주간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참여가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으며(43.14%), 밤에는 시간을 할애하기 쉽기 때문이란 견해를 볼 때 야간교육의 농산어촌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임.

〈표 5.2.56〉 교육 네트워크 구축

(단위:%)

구 분	바람직함	필요없음	모르겠음	계
중졸이하	19.70	4.55		24.24
고졸	48.48	1.52	4.55	54.35
대졸	12.12	1.52	1.52	15.15
대학원	3.03			3.03
기타	3.03			3.03
계	86.36	7.58	6.06	100.0

■ 농산어촌 주민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들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86.36%를 보이고 있어 향후 농산어촌관련 교육기관들간 실질적인 교육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5. 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도시는 물론이고 농산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는 지역발전,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주민참여의식의 강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아직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시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문화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밖에 없음. 이는 다양한 원인의 결과이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농산어촌 주민들의 산업 및 생활방식에 찾을 수 있음. 현실적으로 농산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에 비하여 주간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왜냐하면 영농행위가 주로 주간에 이루어지고 저녁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영농행위로 농산어촌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따라서 농산어촌 주민들이 지역의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강좌는 물론이고 체험활동에 참여하여 일반교양에서부터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 도시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주민자치센터를 인식하게 되는 프로그램은 '문화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음.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삶의 욕구를 해결함과 동시에 주민과 이웃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첫 번째,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주민자치위원들은 매월 정기적 모임을 통해 활동내용을 보고 받고 결정하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을 알고 있음. 그러나 다수

의 주민들은 알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문화프로그램은 현수막 홍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공원 가꾸기, 벽화그리기, 동네청소하기 등 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은 일부 사람들만이 알고 있을 뿐임. 마을신문, 소식지,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민들간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

두 번째, 지역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하여야 함.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고 있는 곳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음. 주민자치센터는 마을 일을 하기위해 사람을 찾아야 하며, 자발적으로 마을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받아들 수 있는 개방된 자세가 필요함.

따라서 센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마을 일을 할 수 있게 배려하고 육성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함. 연륜과 경험이 있는 마을 사람들은 마을 리더들이 기획하고 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행정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마을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그러므로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조직가가 되어야 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주민자치센터의 전담실무자를 발굴하는 것임. 주민자치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과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세 번째, 성공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의 공개모집(마인드 오픈), 주민자치센터업무의 독립을 위한 센터 전담실무자 육성, 분과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외에도 행정 제도를 밑받침해 줄 조례개정과 올바른 민관파트너십 역시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함.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과활성화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분과활성화는 매우 어려운 문제임.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분과활성화 문제이고, 민주적인 회의방식이나 의견수렴이 없이는 전담실무자나 행정적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한 예로, 인천시의 경우 서구 16개 센터 중 15개 센터가 모두 분과구성이 되어 있으나 내용적인 분과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 분과별 소모임이 활성화 된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있어서 아직 행정의 추동력에 의지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라 하더라도 몇몇 리더들에 의해서 수동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⁷⁾. 분과활성화가 이루어

7) 인천시의 사례

지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분과원들의 교육도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그리고 농산어촌지역에 맞는 사업을 중심으로 분과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여야 함. 분과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대부분 위원들이 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에 회의를 하기 어렵고 설사 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참석률이 저조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주간 활동이 가능한 여성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분과사업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분과활동이 활발히 움직일 때 사업을 통해 마을을 다시 보게 되고,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접촉하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주민속에서 새로운 '리더'를 발굴하게 될 것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①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함. 주민자치위원 선임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 여성과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하며, 선임권은 동장 권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이 선임하도록 이양하도록 하여야 함. ②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공무원의 업무보고를 단순히 듣는 조직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시행, 점검,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함.

네 번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민관학 파트너십의 구축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한 요인임. 주민자치센터는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시행된 하향식정책이었던 관계로 시행 초반에는 동장의 마인드에 따라 잘되기도 하고 명맥만 유지되는 사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의 태생 자체도 동정자문위원회였기 때문에 이전에 행정에서 하는 일에 수동적으로 센터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자치위원의 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점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는 위원회와 동행정과의 입장대립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갈등의 발생 근거는 조례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센터운영의 권한이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동장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동 행정과 입장대립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주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의 동 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두고 자치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행정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와 지역관련기관들이 서로 연계된 올바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함. 위원회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모든 기획력과 실천력을, 행정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공식적인 회의구조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지원을, 전문가들은 센터 운영의 효율화, 합리화를 위하여 자문을 하도록 함.

다섯 번째, 센터관련자의 교육을 일상화해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최근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의 의식이 많이 향상되면서 활성화되고 있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동행정, 기초의원이 트라이앵글 구조로 구심점으로 역할을 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다음 단계로 교육의 영역을 확대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지역의 사회단체와 더불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 등 일반 주민들에게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교육의 내용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 자치력 향상에 중점을 두며 농산어촌 주민을 포함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주민자치대학'을 설치하여 교육을 생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함.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균형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① 단순한 취미, 교양프로그램 개발에 그치지 말고 주민자치의식 함양과 자율능력 배양,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균형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②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지역의 문제나 주민개개인의 욕구를 기초로 한 목적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하며, ③ 각 자치단체 운영프로그램을 DB화하고 지역별, 계층별, 대상별, 시기별로 유용한 프로그램 목록을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각 주민자치센터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일곱 번째,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독립적 경영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재정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기의 기초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하되 수준 높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에게 실비를 부담하도록 하며,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내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 실비 보상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인정제를 도입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센터와의 긴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함.

여덟 번째,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및 행정 지원이 불가피 함.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에는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고, 주민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해본 경험보다는 행정에서 지시하는 일을 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초기에는 재정 및 행정의 지원이 필수적임.

아홉 번째,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센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됨. 현재 주

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인쇄물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설명회, 주민자치위원후보의 공개 청문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 설문조사,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행정은 이를 위한 정보, 자원 등을 지원하는 보조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홍보방식으로는 다량의 플랜카드나 포스터부착보다는 적재적소에 적은 양이라도 효율적으로 부착하고 생활정보지, 케이블 TV, 유선방송 등을 활용하며 마을 어귀에 주민 의견판, 주민 소리함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열 번째, 주민자치센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치덕목이 필요함. 주민들 스스로 하겠다는 자치성, 다소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성, 모든 일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투명성, 일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책임성 등을 중요한 가치덕목으로 삼아야 함. 모든 예산의 입출금은 반드시 통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는 기록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열한 번째, 효율적인 민·관·학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① 정책자문단을 설치하여 센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주민자치센터의 성패는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에 달려있음. 과거 행정주도의 사업방식으로는 외형적인 시설은 갖출 수는 있어도 유익한 프로그램진행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축적되어온 시민단체들의 활동경험을 공유하고 민·관·학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센터의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함.

② 축적된 시민단체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예를 들면 여성단체들의 여성프로그램(주부 한글반운영, 자녀교육강좌 등), 환경단체의 시민환경교육(주민환경교실, 생태체험교육 등) 등 각 단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함.

③ 주민자치센터네트워크의 구성임. 각 센터의 추진현황들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될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위한 각종의 준비사항들을 토론하고 구체적으로 서로 지원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함. 특히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어 획일적인 자치센터 운영과 중복된 프로그램진행으로 인한 낭비를 예방해야 함.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을 나열하다 보면 동별로 그만 그만한 프로그램들만 진행될 것이고 발전이 없을 것임. 인

근 센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켜나가야 함. A센터에서는 주부노래교실을, B센터에서는 농산물 판매 프로그램을, C센터에서는 친환경프로그램을, D센터에서는 전자상거래 프로그램을 특화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센터간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함.

④ 토론회 및 평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함.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임과정에서부터 활동내용이 큰 차이가 있음.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약해 위원, 주변의 권유에 밀려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도 있을 수 있고, 특정한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위원 등 다양한 위원들이 있을 것임. 따라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임.

이와 함께 정기적인 평가회를 갖는 것 역시 센터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함.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임. 이러한 착오를 단축하는 길은 추진과정에서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임. 따라서 토론회와 더불어 평가가 병행되어야 함.

■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대접받는 직책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좋은 동네 만들기에 앞장서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행정,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연계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대표, 행정, 시민단체 등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최근 주민자치센터는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과거 시설중심, 문화프로그램 중심의 사고에서 좋은 동네 만들기로 관심을 이동되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6. 해외 커뮤니티센터 사례

가. 미국의 경우

■ 미국의 커뮤니티 센터는 규모나 명칭 등에서 다양하고 소규모 지역단위로 배치되고 있으며 수(數)도 상당히 많음. 센터의 기본적인 서비스의 골격은 유사하나 세부내용과 진행방식은 지역마다 소득계층, 가족생활주기, 지역사회 규모, 주민의 수요 특성 등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

- 운영 주체는 정부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 조직인 민간기관이 정부와 서비스 구매 계약을 맺어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게 됨. 이는 정부와 민간 비영리조직간 파트너십 체제로 정부조직의 직접 운영에서 오는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빠르게 반응 할 수 있게 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함.

- 정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센터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수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커뮤니티 센터 자체 내에서 전체 수입의 50~60%는 다양한 사적인 기부금이나 이용료/회비,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미국의 커뮤니티 센터의 규모는 크고 높이는 낮은 편이나 대도시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시설은 그 규모가 작은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불편한 경우도 많음. 한국의 주민 자치 센터의 모델이 될만한 미국의 커뮤니티 센터를 보면 다음과 같음.

(1) Crooked Creek 종합센터 : 본 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과 주민 개개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기본 목표를 두고 있음.

● 시설개요

- 주소 : 2990 West 71street, Indianapolis, IN 46228
- 시설대표(Executive Director) : Helen Lands
- 개원년도 : 1987년
- 운영주체 : 비영리법인인 United Way of Central Indiana(8 board members)
- 이용자수 : 약 1300명/년
- 이용대상 : 전 연령층
- 이용시간 : 월-금 8:00 a.m - 5:00 p.m (월/수요일 야간개방 6:00-8:00 p.m)
- 운영자금 : United Way of Central Indiana(40%), 개인 및 단체기부금
- 직 원 수 : 9명(여름기간에는 어린이 여름캠프의 운영으로 10명 정도의 추가 임시

직원이 고용됨

- 이용회비 : 무료(여름캠프제외)

● 프로그램 현황 및 센터 특징

본 시설의 프로그램은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교육, 여가, 문화, 체육생활과 고용증진을 위한 직장알선 및 기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크게 8유형(경제서비스, 사회서비스, 경력/고용창출서비스, 교육서비스, 청소년 서비스, 노인서비스, 문화서비스, 체육서비스)이 있음.

본 시설은 미국의 중·저소득층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의 전형적인 사례시설로 Indianapolis 내의 커뮤니티 센터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음. 본 시설이 처음부터 커뮤니티 센터를 위해 계획되어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기존의 다른 용도의 건물을 구입하여 커뮤니티 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건물이 구입되고 커뮤니티 센터로 이용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음. 이 곳 시설의 명칭을 Community Center 대신에 Multiservice Center로 되어 있고 이러한 명칭은 흔히 다른 시설에서도 사용되고 있음. 2년마다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program assessment)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개선과 신규프로그램 개설에 반영하고 있음.

(2) 메어리 릭 근린 커뮤니티 센터 : 본 센터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건강, 여가, 교육,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에 대응하고,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중심지로서 지역발전에 중심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본 시설은 최근에 증·개축을 한 최신 건물로 3단계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2단계까지 건축이 마무리된 상태임. 1단계는 메어리 릭 근린 커뮤니티 센터, 2단계는 윌리엄 펜 공공노인주택, 3단계는 남서부 건강 서비스 센터 중에서 1단계가 커뮤니티 센터이고 2단계 개발로 이루어진 노인시설과는 한 부지에서 존재하고 두 건물 사이에 연결 통로가 갖추어져 있음.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가 노인주택이나 의료 서비스, 기타 다른 시설들 그리고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과 같은 시설과 연계되어 계획되는 것도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계획방식임.

● 시설개요

- 주소 : 1920 West Morris Street, Indianapolis, IN 46221
- 시설대표(Executive Director) : Robert J. Burgbacher
- 개원연도 : 1911년(1998년에 증·개축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

- 운영주체 : 비영리 법인인 United Way of Central Indiana (25 board members)
- 이용자수 : 7000명/년
- 이용대상 : 전 연령층
- 이용시간 : 월-금 6:30a.m-6:00p.m(6월-8월),
월-금6:30a.m-10: 00p.m(나머지 9개월),
토 9:00am-10:00p.m, 일 1:00p.m-7:00p.m
- 운영자금 : United Way of Central Indiana(약35%), 개인 및 단체기부금 등
- 년 예산 : \$2million/년
- 직원 수 : 51명(여름기간에는 어린이 여름캠프의 운영과 탁아프로그램 확대로 119명으로 68명의 임시 직원이 보충됨)
- 이용회비 : 무료(여름캠프 제외)

● 프로그램 현황 및 센터 특징

본 시설에서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 건물 내에 각종기관(Marion County Office of Family and Children, Immunization Clinic, GED Preparation Classes, Family Service Counseling, Central Indiana Council on Aging, United Senior Action)에서 사무실을 갖고 시설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보충적인 서비스(사회적 서비스, 학령기 아동 프로그램, 유치원아 프로그램, 취학전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여름캠프)를 제공하고 있음.

■ 본 시설은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로 지역 주민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 왜냐하면 오래된 낡은 건물이 많은 시내 중심 주변지역인 위치적 특성을 볼 때 대규모 신축건물은 지역의 대표적 건물이 되었고 이와 함께 존재하는 노인주택은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온 노인들이 입주하여 대표적인 노인주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임. 건물 계획상 중복도형인 노인주택의 한쪽 면이 커뮤니티 센터의 놀이 및 휴식공간이 갖추어진 옥외공간을 바라보고 있어 노인 입주자들의 입장에서 어린이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커뮤니티 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가 편리하게 되어있음. 이렇게 노인주택과 커뮤니티 센터가 인접해 있으므로 세대간의 교류를 자연스럽게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VI.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 개발

1.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개념과 기능
2. 농산어촌 교육사업과 농업인력 육성정책
3. 커뮤니티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 개발의 전제
4. 모델개발을 위한 대안 분석
5. 지역특성별 커뮤니티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 개발

VI.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 개발

1.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개념과 기능

1.1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개념과 체계

■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에서 농산어촌이란 농촌, 산촌 그리고 어촌이 혼합된 개념으로 농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사는 마을이나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는 농경, 또는 넓은 의미의 농업에 포함되는 축산업·양잠업·원예업·임업·과수업 등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면서 공동체의 성격을 갖는 촌락을 말하며, 토지생산력이 낮으며, 생활조건이 좋지 않아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감소율이 높거나 정체적이며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불량한 촌락을 산촌(山村)이라 하는데 이는 넓은 뜻의 농촌에 포함되나,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가공·제조 행위를 포함하는 수산업을 주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촌락인 어촌은 농촌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많은 어촌들이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과 농촌을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과 상반된 지역개념으로 농산어촌을 정의하고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총칭하여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라 정의하고자 함.

■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는 농산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농산어촌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도시와 농산어촌간 격차를 해소하여 농산어촌을 국가성장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지역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설치된 각종 기관(시설)과 이 기관(시설)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총칭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따라서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는 지역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정보화마을’, ‘도

농교류센터', '주민자치센터', '읍·면복지회관', '평생학습관', '문화원',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는 공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의 최하단위인 각 마을에 입지하고 있는 기초단위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 몇 개의 마을이 한 개의 경제권 및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권역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읍·면단위 포함), 그리고 시·군 단위의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 등 3개 체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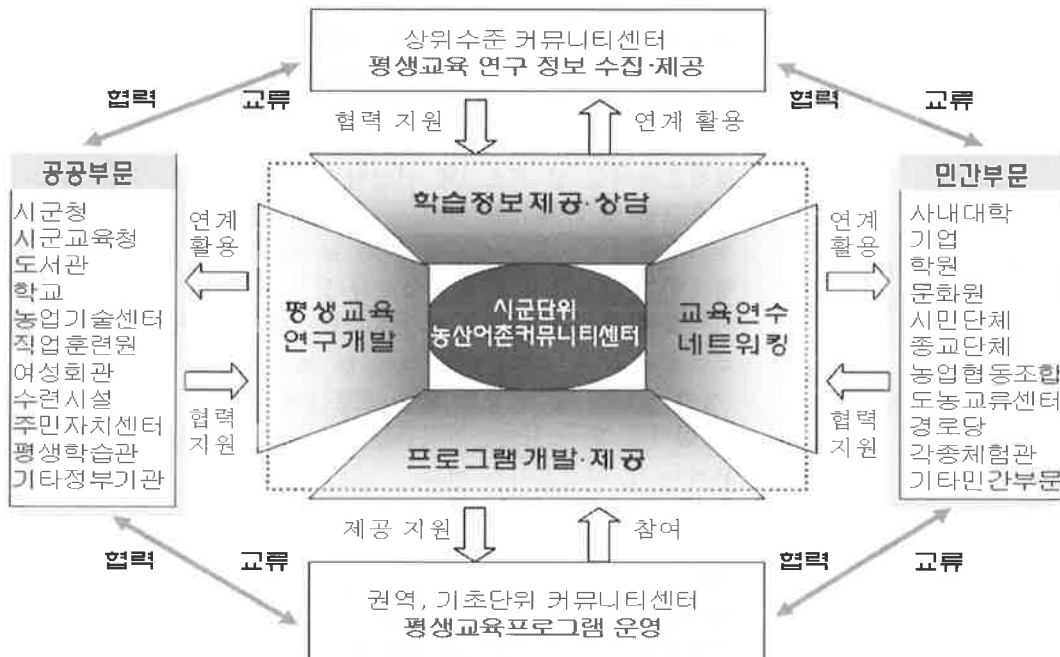


[그림 6.1.1]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 체계도

■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는 농산어촌지역내의 일정한 지역에서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주인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사회의 문화·복지의 향상 및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추진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을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center)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경제권 및 생활권을 고려하여 각 단계에 맞는 커뮤니티센터가 자연부락 혹은 지역사회(Community)를 근거로 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커뮤니티센터가 목적달성을 위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센터가 포괄하는 구역인 생활터전을 중심으로 자치의식과 참여를 통한 공동체 형성과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1.2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기능과 역할

■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설치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림 6.1.2]에서 볼 수 있듯이 대략 4개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6.1.2]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기능과 역할

■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는 농산어촌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및 지역발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농산어촌차원에서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며,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자의 양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각종 연수 및 타 기관(시설)간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체험관, 문화원, 농업 기술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각종 평생교육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정보의 지원, 전문적 지도 및 조언을 행하는 등 지역평생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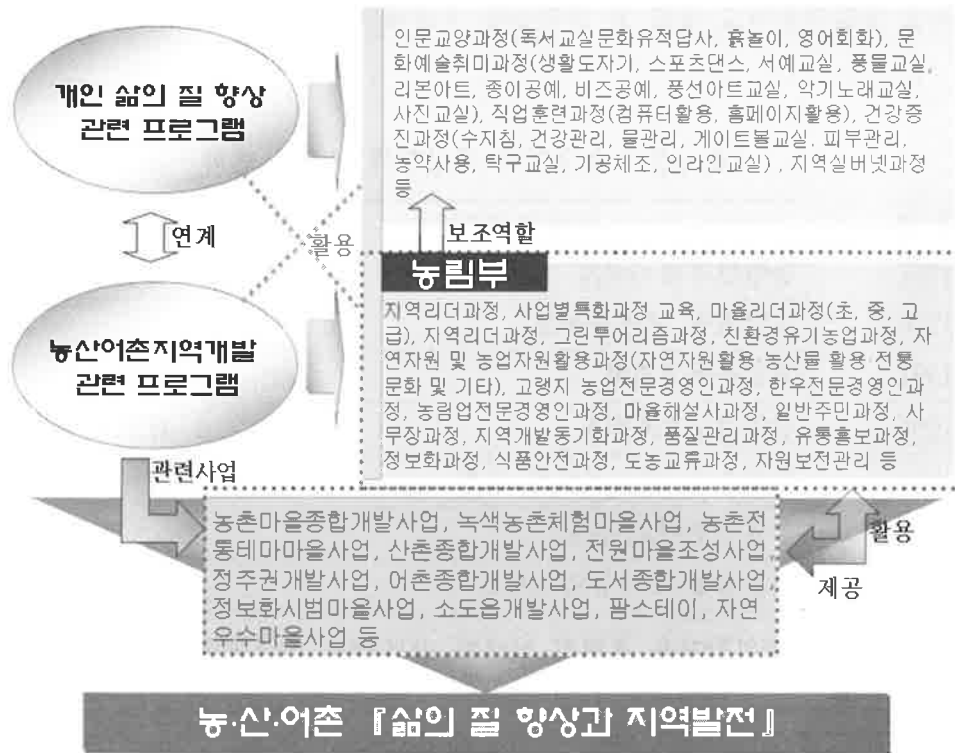
■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주체는 기초 및 광역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는 농림어업 및 농산어촌개발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여 농림부가 담당하고, 광역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 중 농업기술센터와 농업협동조합도 농림부가 그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개인의 지적 수준의 제고

및 자아개발 등 개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시군 교육청)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표 6.1.1>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기능과 세부내용

기능별	세부내용	비고
학습정보 제공·상담	-학습프로그램 정보, 강사 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차원 높은 프로그램의 운영 및 전문강사 확보를 위한 강사풀제 도입 -사이버평생학습체제 도입 및 운영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 실무 매뉴얼 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농산어촌평생교육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책 -평생학습 요구조사, 주민의식조사 등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운영 사례 평가 및 세미나	
프로그램 개발·제공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농림어업 및 농산어촌개발관련 프로그램	
교육연수 및 네트워킹 구축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연수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상하단위 커뮤니티센터 및 관련교육기관간 네트워킹 구축 -자원봉사자 조직 결성 및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결성 및 지원 등	

■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농산어촌지역에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농림부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테마마을사업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어촌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농림부가 담당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6.1.3] 농산어촌 교육프로그램과 지역발전

2. 농산어촌 교육사업과 농업인력 육성정책

2.1 농업인 인력육성정책 경과

1)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배경

■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던 1970년대 이후 이농 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농업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영농승계 인력이 급감하게 되었음. 이러한 농촌인력의 질적 양적 저하는 기존 농업 인력의 전문경영능력 제고와 함께 새로운 농업인력 육성의 필요성으로 연결되어 1981년 농업인 후계자 제도를 시작으로 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음<표 6.2.1>.

특히, 1990년대의 UR, 2002년의 WTO, DDA 농업협상 등 농업개방에 따른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인력 육성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면서 농업법인 경영체 및

전업농육성 농업전문학교 설립 등 농업인력 육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게 되었음.

〈표 6.2.1〉 농업인력 육성정책 제도의 변화

구 분	인력육성정책	비고
1981	농업인후계자제도	UR협상(1986)
1990	농업법인 경영체육성	WTO출범(1994)
1991	전업농육성정책	
1994	산업기능요원제도	
1994	자영농고, 특성화대학 지원	
1997	농업전문학교 설립	
2002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제도	DDA(2002)

자료 : 농업인 민간위탁교육 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문호

2)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경과

■ 1980년대 농업인력 육성정책은 특별한 개념이나 기능의 정립이 되지 않고 단순히 농업인후계자육성정책이 주요한 인력육성정책이었음. 1980년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이 제정되어 1978년부터 새마을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영농후계자 육성자금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는데, 국가의 정책자금 지원에 의한 최초의 농업인력 정책이라 볼 수 있음.

1990년대 들어와서는 농업인력 육성정책이 기존의 후계농업인 외에 전업농 및 영농조직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인력육성 정책의 범위가 전업농, 영농법인 등으로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와 함께 농업인력 육성정책에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대되었음. 특히, UR 협상의 대응조치로 탄생한 1990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이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통합되면서 재원이 크게 확충되었음.

농업인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1993년에 수립된 “신농정 5개년계획”에서

구체화되었는데, 최초의 농정차원에서 교육, 훈련대책이라고 할 수 있음. 농과계 고등학교를 후계인력 육성의 중심학교로 육성하는 한편, 국립농과대학을 기능별 특정화 대학으로 육성하고, 농과대학에 농업전문 경영자과정을 설치하는 등 전문적인 농업인 재교육시스템 구축되게 되었음. 그리고 1994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통해 기존의 농업인후계자를 체계화하여 예비후계자제도를 도입하고, 우수후계자에서 전업농으로, 전업농에서 선도농가로 발전하도록 하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수립하였음.

전업농 육성사업은 1992년 후계자 육성사업의 보완대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94년에 농업의 핵심인력으로서의 육성계획 수립하고, 이를 통해 1995년에 영농규모화사업 및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음.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인후계자를 후계농업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에 시행되던 예비후계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원예, 특작, 축산 전업농은 농업경영 종합자금으로 통합하고 개별 경영체는 후계자, 전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토록 하였음. 또한 법인경영체는 농기업의 중심체로 육성하여 규모화를 꾀하게 되고 농업계학교는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합리적인 후계인력의 육성을 도모하게 되었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농업인력 정책은 후계농업인 제도는 신규 후계농업인 뿐 아니라 취농 창업후계농업인 까지도 포괄하게 되며, 여기에 신지식농업인 육성을 통해 선도농을 적극 육성하기에 이르렀음.

2.2 농업인 교육훈련의 추진현황

1) 농업인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 21C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업에도 지식과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농업과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의 지식농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농업 선도를 담당하기 위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재정지원을 통해 양성된 예비 농업 인력들이 학교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농업현장에 적용시키고 향후 농업 및 농촌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성장을 지원 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고 있음. 정책의 추진 체계는 교육훈련과 자금 지원을 연계한 단계적 육성체계로서, 후계 농업인에서 선도 농업 경영체로의 유도, 성장단계를 거치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2) 농업인 교육훈련 추진현황

■ 농업인 교육실적과 예산을 보면,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과정은 총 49개 교육과정에 교육인원은 76,384명, 소요예산은 2,730백만 원이었음.

〈표 6.2.2〉 교육단계별 교육인원 및 예산

교육단계	교육과정	교육인원	예산
계	49개	76,384(100.0)	2,730(100.0)
예비농업인 등 저변확대 교육	어린이농업교실, 초등학교사농업연수반 등 11개과정	5,554(7.3)	241(8.8)
신규 진입단계 교육	신규후계농업인교육, 신규쌀전업농교육, 귀농희망자교육 등 7개 과정	12,122(15.9)	516(18.9)
정착 및 성숙단계 교육	농기계기술교육, 농업인해외연수 등 31개 과정	58,708(76.8)	1,973(72.3)

자료 : 농업인 민간위탁교육 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촌연구원, 박문호

이 중 농기계기술교육, 농업인 해외연수 등이 포함된 정착 및 성숙단계의 교육예산의 비중이 72.3%를 차지하고 있음〈표 6.2.2〉.

교육의 주안점은 농업경영교육, 전문기술교육 등을 통해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어린이, 농·생 등 농업예비인력에 대한 농업·농촌 비전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을 이끌 농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특히, 자영농고생들에게 신지식농업인 농장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현재 기존 농업인력 육성은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음. 학교교육은 농학계 대학 및 전문대학의 부설 교육원, 사회교육은 주로 민간위탁교육기관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등 공공기관에서도 예비 농업인력과 기존 농업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민간위탁 교육기관을 다시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크게 교육전문기관, 일반교육단체 및 환경단체로 구분되며, 환경단체는 다시 생산자 교육단체와 소비자 교육단체로 재

분류 할 수 있음<표 6.2.3>

<표 6.2.3> 농업인 민간위탁교육기관의 유형별 현황,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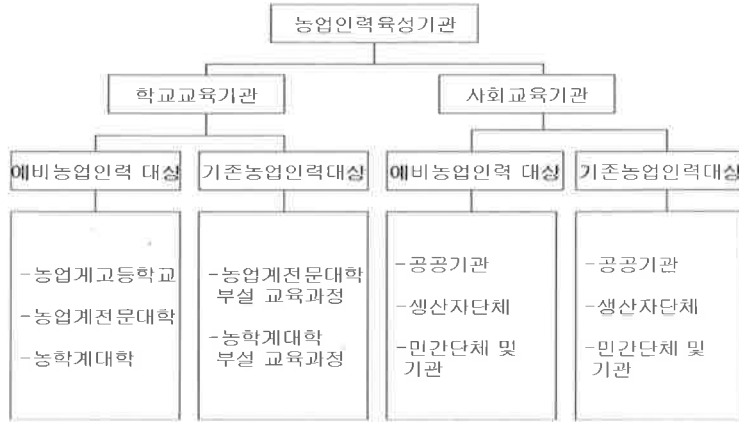
구 분		교육기관
교육전문기관		가나안농군학교, 농협대학
일반교육단체		농업기반공사, 한국4-H본부, 도드람양돈연수원, 한국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더불어살기생명운동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여성농업인회, 전국여성농업인회, 신지식농업인회, 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 농산물품질관리협회
환경 교육 단체	생산자 교육기관	자연농업협회, 유기농업협회, 정농회, 가톨릭농민회, 흙살림, 팔당생명살림연대, 한 살림 고삼농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보전자연농협회 상주환경노업협회, 풀무생협, 원주생협
	소비자 교육기관	생협연대, 한국여성민우회, 야마기시즈경향실현지, 주민생협, 생협전국연합회

자료 : 농업인 민간위탁교육 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촌연구원, 박문호

3) 교육훈련 내용

■ 교육훈련 내용을 보면, 기존교육의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지식농업 실현을 위한 지식·기술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 지도자과정 등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세부추진내역을 보면 첫째, 지식기반사회의 우리 농업을 주도할 지식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식농업인력육성교육과정」 확대 및 신규 교육과정 개설하여 자영농고생 선진농장실습교육과 농업인신지식기술 현장체험교육 및 세미나과정개설을 하였음.



자료 : 농업인 민간위탁교육 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촌연구원, 박문호

[그림 6.2.1] 농업인력 육성기관의 분류(교육대상별)

둘째, 창업 예비농 및 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농정시책 및 전문분야별 기술교육과정을 개설하였음. 셋째,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 및 성숙단계의 교육 강화 차원으로 정보화,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실시, 영농학생진진대회 수상자 해외 연수과정 등을 신설하였음. 넷째, 농외소득 증대·도농교류확대 및 농업·농촌 이해 증진을 위한 그린투어리즘 사업의 지도자 양정과정을 개설하였음.

2.3 농산어촌 교육사업 현황분석

가. 농림부⁸⁾

1)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적자원 유형별 역량을 배양하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06계획 : 2,000명)하며, 농촌지역개발리더쉽육성과정, 사업주체별 특화과정, 동기화 과정(순회교육), 특별과정 등 운영(4개 과정)함.

농촌지역개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농촌마을의 요청시 분야별 전문가를 연결, 맞춤형 컨설팅 형식의 교육을 시행하고 공모 및 마을, 지자체 추천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선발함.

8) 농림부의 2006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 등 인력육성이 시급한 지역의 주민, 공무원 등에게 교육 참여 우선권 부여
 - 여성인력 육성 차원에서 교육과정별 인원의 25% 범위 내에서 여성 참여 희망자를 우선 선발
- 교육 참가자는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비용은 국고부담방식으로 운영함.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 집행을 전담 지원하는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에서 연간 교육을 총괄하며, 세부교육프로그램 수립 및 교육시행을 민간기관 중심으로 추진하여 농촌지역개발 교육시장 활성화를 유도함.

- 농촌지역개발 리더쉽육성,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일부 외부위탁계획

정책적으로 교육내용·방법의 표준화가 필요한 동기화과정, 마을사무장과정, 국내외 견학과정, 특별과정 등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주관 시행함.

2) 지원시스템 마련

(1)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추진

■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을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함.

‘06년도 추진계획 : 사업량 : 100명, ‘06 국고예산 : 600백만원

- 100개마을 × 1명/마을 × 100만원/개월 × 12개월 × 50%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40%, 마을자부담 10%

- 단, 지역별 형편에 따라 지방비 및 마을자부담 지급비율은 조정 시행 가능

- 지자체 또는 마을에서 월1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지원 가능(국고보조금 한도는 월50만원임)

· 주요내용

- 마을, 사무장, 시장·군수 3자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채용된 사무장은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사무관리 등 농산어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추진
- 시장·군수가 월별로 마을사무장의 협약이행 여부 등을 점검, 최종 확인한 후 지원 대상 마을을 통해 사무장에게 채용비용 지급
- 시장·군수가 협약이행 점검·평가 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

에는 사업시행기간(최대 3년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 단, 1년 단위로 협약체결의 예에 따라 협약을 체결·승인

(2) 농촌지역개발 학적관리시스템 개발

■ 농촌지역개발 교육수료자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개발

주요내용

- 농촌지역개발 교육수료자별 교육내용, 학점이수상황, 단계 등 교육관련 전반적인 내용의 DB화 및 검색 기능 제공
- 교육생 편의를 위한 교육과정별 세부정보 등 제공
- 교육 참여율 제고 및 확산을 위해 온라인 강의 기능 제공
- 교육수료자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기능 제공

(3) 농촌지역개발 표준교재 개발

■ 농촌지역개발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지속적인 학습유도를 위한 표준교재 개발

주요내용

- 교재개발 필요분야, 수록내용 등에 대한 수요 파악을 거쳐 표준교재 개발(예시 : 농촌체험관광, 갈등관리, 정관보전·조성 등)
- 관련 전문가의 집필, 자문 등을 거쳐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재 발간·보급

(4) 농촌지역개발 인재뱅크시스템 개발

■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를 검색·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

주요내용

- 농촌지역개발 관련 분야별 또는 지역별 전문가, 기관 등록 및 검색 기능 제공
- 농촌지역개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농촌마을의 자문 요청시 분야별 전문가를 연결, 자문·컨설팅 등 지원
 -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 활동 수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지원비용은 기타 관련 제도 등을 참고하여 결정)
- 농촌마을과 전문가간, 전문가간 온라인상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기능 제공

(5) 농촌지역개발 현장전문가(농촌마을CEO) 인증제도 운영

■ 농촌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리더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농촌지역개발 현장전문가(농촌마을CEO) 인증제도 운영

주요내용

- 농촌지역개발 교육을 수료한 핵심리더를 대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농촌마을 CEO 선정 및 시상
- 선정된 농촌마을 CEO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홍보 등 추진

(6) 내고향 잠재자원 개발 컨테스트 개최

■ 출향도시민의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다양한 전문지식 활용을 위한 컨테스트 개최

- 아울러, 고향발전에 참여하고, 은퇴 후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 제공 도모

주요내용

- 출향도시민을 대상으로 고향의 잠재자원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사례 등을 공모(일간지, 인터넷, 향우회, 행정기관 등을 통해 홍보 및 공모 추진)
-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시상하고, 우수작에 대해 지자체 및 마을 등을 대상으로 홍보

3) '06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1) 지역리더로서의 종합적인 역량 배양을 위한 농촌지역개발리더쉽 육성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3~4/6~9월, 360명)

■ 6단계 세부과정으로 나누어 6개월에 걸쳐 진행(2개반 운영)

- 1인이 6단계 세부과정을 월1회씩 6개월 동안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지역에서 리더역할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농촌이주 희망 도시민 포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표 6.2.4〉 농촌지역개발리더십 육성과정(안)

세부과정	주요학습내용	학습 방법	학습 시간	인원 (계획)
1단계 자기혁신 및 리더십 개발	○ 자기혁신 ○ 리더십 개발 ○ 농촌리더의 자세	워크숍, 토론중심	2박3일 (합숙)	60명 (30명 ×2회)
2단계. 농촌발전의 이해	○ 사회정세 읽기 ○ 농촌개발정책의 올바른 이해 ○ 농촌개발성공사례 견학 및 토론	특강, 토론중심	2박3일 (합숙)	60명 (30명 ×2회)
3단계 우리지역의 가치발견과 미래비전 구상	○ 지역자원조사방법 ○ 어메니티의 중요성 및 자원화 방안 ○ 우리지역의 문제이해 및 가치 찾기 ○ 우리지역의 미래비전 구상하기	워크숍, 토론중심	2박3일 (합숙)	60명 (30명 ×2회)
4단계 기획력개발	○ 변화하는 사회의 기획력 ○ 지역마스터 플랜 ○ 창의적인 기획서 작성	워크숍, 특강중심	2박3일 (합숙)	60명 (30명 ×2회)
5단계 조직력개발 및 파트너십	○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갈등관리 ○ 지역조직화 ○ 지역 파트너십 만들기	분임토론, 강의중심	2박3일 (합숙)	60명 (30명 ×2회)
6단계 지역경영의 이해, 지역 가꾸기	○ 지역경영의 이해 ○ 지역 마케팅의 이해 ○ 지역 가꾸기 비전제시	사례, 과제 발표중심	3박4일 (합숙)	60명 (30명 ×2회)

(2) 지역주민 등이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체험관광 등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주제별 특화과정 운영(3~4/6~9월, 925명)

■ 선택전문 교육과정(10개 세부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선진지 견학 과정별도 시행

- 교육생 편의 및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개조로 나누어 교육을 시행
 - 예시 : 1조(경기, 충남, 전북, 전남), 2조(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
- 국내 선진지 견학은 9개도별로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 검토
- 마을사무장의 역량 배양을 위한 과정 등 운영계획

〈표 6.2.5〉 사업주제별 특화과정(안)

세부과정	주요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시간	인원 (계획)
1. 친환경 농촌지역 개발	○지역 자연환경의 관리와 보전 ○친환경 유기농업 ○생태건축의 이론과 실제 ○아름다운 주거 공간 조성	특강, 사례발표 중 심	2박3일 (합숙)	50명 (25명×2 회)
2. 농촌민박 경영	○농촌민박의 이해 ○농촌민박 기획·운영기법 ○고객관리 및 서비스	특강, 현장실습 중 심	2박3일 (합숙)	50명 (25명×2 회)
3. 지역자원 발굴	○지역자원의 이해 ○지역자원 조사방법론 ○지역자원 활용방안	워크숍, 사례발표 중 심	2박3일 (합숙)	50명 (25명×2 회)
4. 홍보· 마케팅	○홍보·마케팅 전략 및 기법 ○이벤트 기획·운영방안 ○브랜드 개발 및 트렌트 분석 등	특강, 사례발표 중 심	2박3일 (합숙)	50명 (25명×2 회)
5. 마을경영 관리기법	○마을경영의 이해 ○분야별 경영관리·운영기법 ○회계관리 실무	특강, 사례발표 중 심	2박3일 (합숙)	50명 (25명×2 회)
6. 갈등관리 기법	○갈등의 개념 및 유형 ○갈등조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기법 ○갈등해소기법 및 방안	특강, 사례발표 중 심	2박3일 (합숙)	50명 (25명×2 회)
7.향토자원의 개발 및 차별화	○농산물 가공 및 유통 ○향토특산물의 브랜드화 ○지역 향토음식의 개발 및 사업화	특강, 사례발표 중 심	2박3일 (합숙)	50명 (25명×2 회)
8. 마을해설 가이드과정	○농촌체험관광 및 농촌의 다원적가치 의 이해 ○마을해설가이드의 의미와 역할 ○마을해설 및 의사소통(스피치)기법 ○서비스 관리(서비스 마인드) ○마을의 문화와 역사 ○마을자원에 대한 이해 및 발굴 ○마을생활과 농촌체험관광 등	특강, 사례발표, 현장실습 중심	3박 4일 (합숙)	50명 (25명×2 회)
9. 체험활동 가이드과정	○농촌체험관광 및 농촌의 다원적 가치 의 이해 ○체험활동가이드의 의미와 역할 ○지도력 개발 및 의사소통(스피치)기 법 ○응급처치 등 상황대처요령 ○서비스 관리(서비스 마인드) ○체험활동과 이벤트 기획기법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기법 등	특강, 사 례 발 표 , 현 장 실 습 중 심	3박 4일 (합숙)	50명 (25명×2 회)

(계속)

세부과정	주요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시간	인원 (계획)
10. 마을 사무장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체험관광 및 농촌의 다원적 가치의 이해 ○ 마을사무자의 의미와 역할 ○ 지역자원과 체험관광프로그램 ○ 홍보·마케팅 전략 및 기법 ○ 지도력 개발 및 의사소통기법 ○ 회계·고객관리 등 사무관리 요령 ○ 지역마스터 플랜 작성 등 	특강, 사례 발표, 워크샵 중심	4박5일 (합숙)	100명 (50명×2회)
11. 국내견학	○ 농촌지역개발 관련 분야별 국내 선진 지역 견학	사례조사	별도수립	360명 (9개도×40명)
12. 국외견학	○ 농촌지역개발 관련 국외 선진지역 견학	사례조사	별도수립	15명

(3) 농업인, 여성, 귀농자 등 지역주민의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유도를 위한 동기화과정 운영(2~4/6~8월, 405명)

■ 지역별 순회교육방식으로 추진하고, 의식전환 및 마을공동사업추진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세부과정	주요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시간	인원 (계획)
동기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기본자질 ○ 상호 이해와 협력하기 ○ 마을공동의 사업목표 설정 및 수행 	특강, 사례 발표, 토론중심	1박2일 (합숙)	405명 (9개도×45명)

(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특별과정 운영(6~7월, 310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본계획수립권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과정 운영

석할 수 있도록 선발하고, 계획인원 이외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선발전에 미리 협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인원 감안 필요)

- 교육실시 1개월 전에 월 단위로 과정별·기관별 교육인원 및 교육훈련비 납부 안내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 예정

■ 농업연수원의 연간 및 월별 교육프로그램은 농업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있으니, 개별적으로 수강을 희망하는 민간인의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전화로도 교육 신청이 가능함

(2) 교육대상자 선발 통보(수요기관 → 농업연수원)

■ 교육대상자 선발기관에서는 대상자 명단을 다음 양식에 의하여 교육과정 개시일 10일전까지 도착되도록 통보

제 기		과정 교육대상자 명단		
소속	직급(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3) 교육훈련비(교육비, 합숙비) 납부

■ 교육훈련비 납부 여부 및 납부 금액은 매월 공문으로 알리며, 납부하여야 할 교육훈련비의 자세한 내역은 농업연수원 홈페이지 『농업연수원/새소식』란에 매월 게시함

■ 교육비 : 금액 : 1일 25,000원, 납부방법 : 기관별로 지정된 계좌번호에 입교당일까지 입금(계좌번호 「안내문」에 기재됨), 입금자 명의 : 기관명(시·군) 또는 교육생 이름

■ 합숙비(식비, 숙박비) : 식비 : 1식당 3,000원, 숙박비 : 1박당 4,000원, 납부방법 : 입교 후 교육생이 현금으로 납부, 합숙비는 입교일 중식부터 수료일 중식까지의 식비 및 숙박비임, 현장교육기간은 합숙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예비산정시 예비규정에 의거 따로 계상하여야 함

- 1일 현장교육은 중식 1식
- 1박2일 현장교육은 출발일 중식부터 도착일까지의 중식과 숙박비

- 현장교육 전 과정에 대하여 농업연수원에서 차량을 제공함

(4) 교육시설 안내

■ 대지 12,595평, 건물 4,137평(본관, 교육관, 생활관, 연찬관, 후생관)

■ 교육시설

- 강의실 5개(빔프로젝트 등 최신 시청각 교육기자재 완비)

- 대강당, 소강당, 전산실, 어학실 각 1개

- 분임토의실 7개, 세미나실, 도서실 등

■ 생활관 : 152명 수용(2~6인실 43실)

- 각 실별 화장실, 샤워시설, 슬리퍼 구비

■ 후생관 : 식당 및 매점운영(학습도구 및 생활용품 비치)

■ 기타 편의시설

- 체련시설 : 잔디구장, 테니스코트 3면, 헬스장, 탁구장, 배구장, 족구장 등

- 공중전화, 현금지급기, 핸드폰충전기, 주차시설(250대)

(5) 관련과정 현황

① 농촌관광육성과정

■ 교육목표

- 농촌관광 추진시책, 추진방법 등에 대한 교육으로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

-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도농녹색교류 프로그램 개발, 그린투어리즘의 성공사례 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활성화 유도

■ 주 교육대상

- 농림부 및 시·도, 시·군(읍·면 및 농업기술센터 포함)의 농촌관광업무 담당 공무원

- 농촌관광사업 또는 동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

■ 교육인원 및 일정

- 교육인원 : 33명 (1회)

- 교육일정 : 5일, 합숙 (현장교육 1일 포함) - 1기 : 7.31~8. 4

(6) 과정일람표

구분	과정명	교육시기(월)	구분	과정명	교육시기(월)	
전	혁신·역량강화분야	1. 맞춤형 혁신리더십과정	1,2,9	농산물 품질 관리 분야	46. 인삼검사과정	10
		2. 정부혁신내재화과정	4,5,6		47. 품질관리리더역량강화과정	5
		3. 혁신전략기획과정	2,10		48. 친환경농산물인증심사관과정	7
		4. 목표관리(MBO)과정	11		49. 품질관리신규공직자과정	4
		5. 홍보기법향상과정	3		축산·수의 분야	50. 축산·수의행정과정
		6. 사회갈등관리과정	9	51. 축산경영과정(낙농·한우)		6
		7. 회의진행기법향상과정	9	52. 축산경영과정(양돈·양계)		7
		8. 기획력개발과정	9,10	53. 축산환경과정		11
		9. 조직(팀)활성화과정	5	54. 축산물유통과정		9
		10. 발표능력향상과정	6	55. 축산물위생및HACCP과정		5,9
		11. 시간갈등관리과정	6	56. 축산물잔류물질검사과정		6
		12. 합리적문제해결과정	7	57. 가축질병진단및질병감정과정		6,10
		13. 현장농정역량강화과정	5	58. 사료품질관리과정		6
	행정 분야	14. 농업행정실무과정	4,6,10	59. 동물약품GMP실무과정		5,9
		15. 신규임용예정자과정	1,12	60. 동물약품마케팅과정	4	
		16. 행정서비스향상과정	9	61. 가축질병진단급조치및방역과정	4,11	
		17. 보안관리실무과정	3	62. 축산물가공품(육류병원성미생물)검사과정	11	
농업 정책 분야	18. 농업정책과정	5,10	63. 가축질병역학조사과정	7		
	19. 여성농업인정책과정	11	64. 축산물브랜드과정	10		
	20. 농업통상수출과정	5	65. 도축검사관식육검사과정	3,4		
	21. 직접지불제과정	5	농촌 사회 분야	66. 농업기반조성과정	6	
	농산 유통 분야	22. 농산과정		4	67. 농지관리과정	7,9
23. 친환경농업과정		5,9		68. 농촌관광육성과정	7	
24. 부산물비료생산과정		6,7		69. 농촌지역개발과정	3	
25. 양곡관리과정		7	70. 농촌복지정책과정	6		
26. 원예작물전적방제과정		년중	정보화 분야	71. 정보처리기초과정	5	
27. 천적방제지도자양성과정		11		72. 홈페이지작성과정	7	
28. 농업재해대책과정		2		73. 엑셀기초과정	4,10	
29. 농업기계과정		11		74. 엑셀고급과정	5,9,10	
30. 농산물유통과정		11		75. 인터넷정보검색사자격증준비과정	6	
31. 시설원예과정		9		76.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준비과정	6,9	
32. 과수과정	10	77. 프리젠테이션과정		3,5,11		
33. 특용작물과정	10	78. 멀티미디어문서작성과정		3		
34. 농식품산업육성및안전관리과정	11	79. PC고장진단과장애처리과정	7			
검사 검역 분야	35. 검사검역과정	2,7	80. 포토샵과정	4,6,10		
	36. 식물검역과정	9	사이버 분야	81. 사이버농산물유통이해과정	4	
	37. 식물검역관리과정	3		82. 사이버친환경농업이해과정	5	
38. 종자관리전문가양성과정	6,7	83. 사이버농업·농촌가치이해과정		6		
전문가 양성 분야	39. 식물보호전문가양성과정	5,6,7	민간인 교육	84. 농업경영CEO과정	8	
	40. 농산물품질관리전문가양성과정	4,7		85. 농업경영컨설팅전문가과정	5	
	농산물 품질 관리 분야	41. 농산물검사과정		5	86. 벤처농업과정	11
42. 우수농산물관리과정		4		87. 벤처농업심화과정	12	
43. 농산물안전성조사분석과정		5		88. 여성농업인교과과정	3,6,9	
44. 원산지·GMO표시관리과정		4		89. 여성농촌관광지도자과정	9	
45. 농업통계전문과정		4		90. 농업경영정보화리더과정	7,9,11	
				91. 농업경영정보화리더심화과정	7	
				92.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과정	2,3,8	

자료 : 2006년도 교육훈련계획, 농림부 농업연수원.

■ 주요 교과내용

- 농촌관광 추진시책
-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사례
- 도농녹색교류 프로그램 개발
- 관광농촌 만들기

· 현장교육 및 토론 등

■ 교육훈련비

(단위: 원)

구 분	교육비	숙박비	식비	계
농림부·양청		16,000	36,000	52,000
지방자치단체	125,000	16,000	36,000	177,000
민간·기타	125,000	16,000	36,000	177,000

■ 기관별, 일정별 교육인원 (농촌관광육성과정)

기관별	계	1기	비고
○ 국가기관	5	5	
농림부	1	1	
농관원			
농업연수원			
검역원	1	1	
식검	1	1	
종자관리소	1	1	
농진청			
산림청	1	1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	28	28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3	3	
강원도	6	6	
충청북도	5	5	
충청남도	3	3	
전라북도	4	4	
전라남도	3	3	
경상북도	3	3	
경상남도	1	1	

(계속)

기 관 별	계	1기	비 고
제 주 도			
○법인·단체 등	0	0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② 농촌지역개발과정

■ 교육목표 :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민족의 삶의 터전인 농촌을 지키고 활기찬 농촌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활기찬 농촌으로 탈바꿈하는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 주 교육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한국농촌공사 직원, 농촌지역리더로 자기가 살고 있는 농촌개발에 의욕적인 자세로 희생봉사정신을 소유한 의식개혁의 선도 주자

■ 교육인원 및 일정 : 교육인원 : 40명 (1회), 교육일정 : 5일, 합숙 (현장교육 1일 포함) - 1기 : 3.13~17

■ 주요 교과내용

-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
-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
-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시책, 제도, 정책의 이해
- 도시민의 농촌교류를 위한 활성화 방안
- 농촌복지의 관리방안과 소득창출
- 농업의 지적재산권의 이해와 권리행사

■ 교육훈련비

(단위:원)

구 분	교육비	숙박비	식비	계
농림부·양청		16,000	36,000	52,000
지방자치단체		16,000	36,000	52,000
민간·기타	125,000	16,000	36,000	177,000

③ 농업경영 CEO과정

■ 교육목표 : 농업법인경영자에게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영능력과 리더십 함양

■ 주 교육대상 : 농업법인 대표 또는 임원

■ 교육인원 및 일정 : 교육인원 : 100명 (1회), 교육일정 : 2일, 합숙 - 1기 : 8. 2~3

■ 주요 교과내용 : 농업법인 육성방향, 법인 운영 효율화 방안, 리더십 개발, 정책토론

■ 교육훈련비 : 국고지원 및 일부 자부담

④ 농업경영컨설팅전문가과정

■ 교육목표

· 농업컨설턴트에게 현장밀착형 컨설팅 교육을 통해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농업경영체에 대한 양질의 컨설팅 공급

■ 주 교육대상 : 농업경영컨설팅 공급업체 임직원

■ 교육인원 및 일정 : 교육인원 : 100명 (2회, 각 50명), 교육일정 : 3일, 합숙 1기 : 5. 2~4, 2기 : 5.17~19

■ 주요 교과내용 : 농업회계, 농산물마케팅, 농업경영컨설팅 정책, 자유토론 등

■ 교육훈련비 : 자부담

⑤ 여성농촌관광 지도자과정

■ 교육목표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의 환경과 자연을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체험기반이 조성된 지역에서 농촌체험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핵심인력 양성

■ 주 교육대상 : 농촌관광 및 체험기반이 조성된 지역의 선도 여성농업인

■ 교육인원 및 일정 : 교육인원 : 40명 (1회), 교육일정 : 2일, 합숙 1기 : 9.11~12

■ 주요 교과내용 : 친환경관광자원 개발정책, 그린투어리즘 성공사례, 문화·예술작품 탐구, 안내방법 지도, 토론 등

■ 교육훈련비 : 국고지원 및 일부 자부담

다. 농협중앙회 마을 지도자 교육 내용

과정명	연수대상	기간(일)	인원	주요연수내용
마을개발 지도자	농촌마을 대표	3	3,220	· 농촌사랑운동의 필요성, 지도자 리더십, 의식혁신 · 마을 swot분석 및 중장기 로드맵 구축, 우수사례 학습
농촌사랑 메신저	농협 임직원	2	1,200	· 농촌사랑운동의 필요성 · 스피치 기법, 홍보전략 및 실천방안
농촌사랑 청소년	초,중,고, 대학생	1	3,300	· 농업농촌의 중요성, 영농 및 전통문화 체험 · 올바른 식습관, 팜스테이
농촌사랑 매니아	도시주부, 소비자	1	1,500	· 농촌사랑운동의 필요성, 우리농산물의 우수성 · 여성지도자의 역할과 도농교류 실천방안 수립
농촌사랑 실천자	기업단체 임직원	2	400	· 도농교류 활성화방안 및 선진지 견학 · 농촌사랑 실천 프로그램
농촌사랑 봉사자	자원봉사자	2	400	·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농촌사랑운동의 필요성 · 자원봉사마인드 확립과 선진봉사프로그램 소개

라.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2006년 지역사회 뉴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2006년 8개의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이 센터를 농업인 평생학습의 메카로 양성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평생학습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점 인제증 도입 및 표준교육과정 확립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이를 위해 농촌지도기관 중 8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당 1억원씩 5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15년까지 전 농촌지도기관에서 이를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마. 농촌관광대학

1) 개관

■ 농촌관광분야 리더 및 경영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2004년 10월 출범)

- 운영 : 강신겸박사(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주관 : 지역활성화포럼
- 후원 : 농림부 농업연수원

2) 입학안내

■ 입학기준 : 농촌관광에 관심 있는 농업인 및 공무원, 일반인 누구나 가능하나 컴퓨터 활용능력을 적정수준 갖추고 있어야 함.

■ 입학절차 : 수강 희망자는 필요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며, 심사를 거쳐 선발

수강생 모집 기간 : 매해 08월 01일 ~ 09월 15일 (45일)

■ 수강료 : 9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분납은 없음

3) 졸업기준

■ 출석률 80% 이상, 논문발표 및 심사 (기타 수업참여도, 홈페이지 접속횟수 등 참고)

■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졸업사정에 통과한 수강생에게 졸업장 수여

■ 교육 성적이 우수한 수강생에게 각종 상패 및 상장 수여

■ 졸업 후 농림부 농촌개발전문가 DB에 교육이력 등록 (예정)

4) 교육과정

■ 1년 과정으로 매월 1회 (셋째주 토요일)

■ 매월 1회, 4개 분야 총 48강좌

- 농촌관광, 마을계획 및 개발, 경영 및 마케팅, 문화기획 등
- 기타 농촌관광관련 지식과 정보, 노하우 습득

■ 현장 중심 교육

- 분기 1회 (1박 2일) 농촌관광마을 현장학습
- 연 1회 해외 선진지 견학
- 논문 또는 사업계획서 발표
- 졸업 요건으로써 논문 또는 사업계획서 발표
- 농촌관광, 건축, 문화, 마케팅 등 다양한 타분야 연계교육

〈표 6.2.6〉 연간 교육 프로그램

2005	10.15 벤처정신, 변화와 혁신, 오리엔테이션
	11.16 <현장학습> 관광의 이해, 친환경농업, 창조경영, 이벤트 기획
	12.17 관광개발전략, 마을계획 및 개발, 리더쉽
2006	01.21 명소마케팅, 부동산개발, 문화상품마케팅
	02.18 해외농촌관광, 생태마을조성, 경영전략
	03.18 <현장학습> 민박경영, 서비스 리더쉽, 마케팅, 홍보전략
	04.15 고객서비스, 주택모델링, 이 마케팅 (e-Marketing), 전통음식
	05.20 체험프로그램, 인테리어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06.17 <현장학습> 식품서비스, 사업계획서 작성법, 체육대회
	07.06 제3회 농촌관광, 미래가 보인다 심포지움
	07.15 농촌경관정비, 농촌관광회계, 디자인경영
	08.19 졸업논문 발표
09.16 <현장학습> 해외 선진지 견학	

〈표 6.2.7〉 일일 교육 프로그램

시 간	교육주제	교육내용
11:00~12:20	농촌관광 (Green Tourism)	관광마케팅, 서비스 경영, 체험프로그램, 식음(F&B) 농업, 농촌 정책, 지역관광 개발
13:30~14:50	마을 계획 및 개발 (Planning & Development)	마을자원분석, 마을계획, 건축, 조경, 환경디자인 부동산개발, 법규(인허가)해설
15:00~16:20	경영 및 마케팅 (Management & Marketing)	경영전략, 마케팅, 이마케팅 (e-Marketing) 리더쉽, 회계, 특허, 소비자트렌드
16:30~17:50	문화기획 (Culture Management)	문화예술 경영, 문화마케팅, 축제이벤트 기획, 문화 체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바. 지자체 사례

1) 강화도

(1) 개요

■ 연혁

1998. 7. 5 1998. 10. 8 1999. 3. 5~ 9. 17	강화군농업대학 시책 및 창안사업으로 채택 강화군농업대학설립계획 승인 제 1 회 학사운영 ○ 과정 : 포도반, 오이반 ○ 인원 : 입학 77 명, 졸업 50 명
1999. 11. 20 2000. 3. 2~12. 9	강화군조례 제1613호로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 제정 제 2 회 학사운영 ○ 과정 : 벼농사반, 채소반, 과수반 ○ 인원 : 입학 100 명, 졸업 72 명
2001. 3. 8~12. 1	제 3 회 학사운영 ○ 과정 : 벼농사반, 시설채소반 ○ 인원 : 입학 80 명, 졸업 66 명
2002. 2. 7~12. 21	제 4 회 학사운영 ○ 과정 : 식량작물학과, 원예학과 (과수 전공) ○ 인원 : 입학 70 명, 졸업 54 명
2003. 3. 6~12. 2	제 5 회 학사운영 ○ 과정 : 식량작물학과, 원예학과 (채소 전공) ○ 인원 : 입학 80 명, 졸업 66 명
2004. 3. 4~12. 11	제 6 회 학사운영 ○ 과정 : 식량작물학과, 원예학과, 완초공예반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 인원 : 입학 102 명, 졸업 94 명 (졸업생누계 402 명)
2005. 3. 3	2005 학년도 입학식 ○ 과정 : 식량작물과, 원예과, 완초공예과 ○ 인원 : 입학 102명

■ 설립목적

강화농업을 선도하는 정예농촌인력 육성

■ 교훈 : 진취하는 농민, 활기있는 농촌, 경쟁하는 농업

■ 교육 방향

- 품목별 이론 강의 및 살기, 선진지 현장견학 등 전문 교육 실시
- 농업기술의 기초이론 및 전문기술교육으로 분야별 전문농업인 양성
- 타 성공한 농업인의 접촉기회 제공으로 경영의 합리화 도모

■ 근거법령

- 강화군조례 제 1613 호 (강화군농업대학설치 및 운영)

■ 추진체계 : 주관 : 강화군, 실시 : 농업기술센터

■ 운영체계

- 대학장 : 강화군수

- 부학장 : 강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 교수부 : 농촌지 도공무원 12 명 외래 강사 12 명
- 교학처장 : 사회지도과장
- 교수부장 : 기술보급과

■ 대학로고



■ 학사운영 세부추진계획

- 기간 : 2005. 3. 3 ~ 12. 16 (40 주174 시간)
- 개설학과 : 식량작물학과 원예학과 완초공예반
- 교육방법 : 매주 목요일 13:00~17:00
(농번기 봄방학 2 주 , 가을방학 2 주)
- 교육생 인원 : 식량작물과 40명 , 원예과 41명, 완초공예과 21명 (총 102 명)
 - 교육교재
 - 공통교재 : 농업과학기초 (한국농업전문학교)
 - 전문교재 :
 - 식량작물 : 식용작물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원예작물 : 채소원예각론 (향문사)
- 졸업자격 : 총 수업일수의 75% 이상 이수 시 졸업 가능구분
- 교과목 편성 및 담당교수

· 식량작물 원예과

구분	교과목		시간			교수	
			계	자체	외래	자체교수	외래교수
기초 과목	재배학		12	12		이은용	
	작물 보호학	해충학	6	6		임경선	
		병리학	6	6		최연숙	
	토양비료학		10	10		김봉수	
전문 과목	식량작물		26	16	10	이상환	외래강사
	원예	원예학총론	6	6		권기선	
		원예학각론	20	10	10	김경애	외래강사
	관광농업		12	4	8	현재원	외래강사
	지적재산권		4		4		외래강사
	농산물가공유통		4		4		외래강사
	환경농업		12	10	2	조보환	외래강사
	농업기계		6	6		서일환	
	농업정보화		8	8		최강자	
	특화작목(벤처·약썩)		6	4	2	정해곤	외래강사
교양 과목	특강		8	2	6	대학장	외래강사
	농촌경제		2		2		외래강사
	국제농업		2		2		외래강사
	향토문화		4		4		외래강사
특별 활동	해외연수		20	20		인력육성담당	
	선진영농현장견학		16	16		인력육성담당	
	동문체육행사		8	8		인력육성담당	
	분임토의		2	2		인력육성담당	
계			174	130	44		

· 교육과목 집계

계		기초과목		전문과목		교양과목		특별활동
과목수	시간	과목수	시간	과목수	시간	과목수	시간	
15	174	3	34	8	78	4	16	46시간

· 강사구성 집계

계			자체 교수			외래강사		
인원	교육과목	시간	인원	교육과목	시간	인원	교육과목	시간
23	15	174	12	14	120	11	11	54

· 완초공예과

구분	교과목	시간			교수	
		계	자체	외래	자체 교수	전임교수
기초 과목	완초공예 실습	92		92		외래강사
	완초재배	4	4		조보환	
교양 과목	관광농업	12	4	8	서일환	외래강사
	농업정보화	8	8		최강자	
	특강	4		4		외래강사
	농촌경제	2		2		외래강사
	국제농업	2		2		외래강사
	향토문화	4		4		외래강사
특별 활동	해외연수	20	20		인력육성담당	
	선진영농현장견학	16	16		인력육성담당	
	동문체육행사	8	8		인력육성담당	
	분임토의	2	2		인력육성담당	
	계	174	62	112		

· 교육과목 집계

계		전문과목		교양과목		특별활동
과목수	시간	과목수	시간	과목수	시간	
8	174	2	96	6	32	46시간

· 강사구성 집계

계			자체교수			외래강사		
인원	교육과목	시간	인원	교육과목	시간	인원	교육과목	시간
12	8	174	3	3	62	6	6	112

■ 선진영농현장 견학

- 시기 : 상반기 (7월 28일) 하반기 (11월 17일) 2 회 실시
- 장소 : 국내 농업선진지 및 첨단연구시설

■ 해외연수

- 일자 : 2005. 8. 29~9. 2
- 내용 : 해외 농업선진국 및 첨단가공시설 견학

(3) 졸업생 특전

- 본 교육의 수강료와 기본교재 및 실습기자재 제공 등은 무료.
- 학사일정 중 국내첨단연구시설 및 우수농장견학 등을 실시.
- 교육이수자에게는 강화군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단 , 일부사업)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
-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 포상.
- 졸업식에 필요한 학사복 및 학사모는 무료로 제공.
- 본 농업대학은 강화군조례 제 1613 호로 제정된 제도화된 교육과정이며 평생교육과정의 취지에서 지속 운영.

3. 커뮤니티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 개발의 전제

3.1 커뮤니티 센터 관련시설들의 종류와 구조

■ 커뮤니티센터란 모든 소생활권 내의 주거단지 혹은 주거지역 단위별로 다양한 기능의 공간들이 모여 커뮤니티 센터라는 이름으로 제공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함. 이러한 커뮤니티 센터의 공간 확보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의 확보로서 해결될 수 있음.

■ 즉, 지역사회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문화생활의 중심이 되는 시설로 지역간의 격차가 없는 충분한 시설이 확보되어야만 함.

■ 커뮤니티 센터가 일찍 발달한 미국과 일본, 영국의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을 보면 전 연령층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주민수요에 맞게 추진되고 있음.

■ 커뮤니티 센터 관련시설들의 종류와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문화시설

■ 건축법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동·식물원 등으로 구분하고, 문화공간에 해당하는 공연, 집회, 관람장 및 전시장 등을 포함함.

2) 사회복지시설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노인, 부녀자 등을 위한 복지관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이용시설과 수용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사회복지이용시설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부녀청소년회관 등의 복지관과 노인/장애인 보호소, 보호시설 등이 포함됨.

〈표 6.3.1〉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과 그 개념

기능	분류	개념
관리/행정	공공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을 위한 공공행정서비스 제공 창구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를 담당하고 있는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민원 신고 업무를 수행 각종 관련서류를 배치하여 읍·면·동사무소 방문시 신속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움 생활편의를 위한 우편업무, 은행업무 등도 자동화기기들을 이용하여 처리
	관리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가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에 포함되어 운영가능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커뮤니티 센터내에 위치하게 되면 주민들의 관리 사무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여 관리업무 개선에 기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센터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제공되는 생리/위생공간/조리공간/수납공간 등을 의미
정보/상담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의 정보화를 돕는 기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인터넷서비스, 컴퓨터 사용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주민의 생활이나 사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기기를 설치하여 편리성을 높임. 또한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주민으로서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연결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서비스나 생활 상담이나 개인문제 상담을 위한 기관이나 인물과의 연계를 제공하여 가정 생활과 지역사회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높임.
	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의 단체활동이나 개인활동, 각종 모임들을 개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고 가족, 개인의 활동을 지원
건강/운동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나 건강 검진 등의 기능을 보건소의 파견 업무 형식을 순회진료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커뮤니티 센터 내에 통합함으로써 근거리안에서 기초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및 증진에 기여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체력관리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옥내/외 체육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체력 증진에 기여

(계속)

기능	분류	개념
여가/문화	여가	▪ 지역 주민들의 공동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한 각 연령층별, 성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제공
	문화	▪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전시회나 공연을 개최하고 영화를 상영하거나 현장의 답사/방문과 독서 및 도서대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자아성취에 기여함과 동시에 동년배 간 또는 지역주민간의 교류도 촉진하는데 기여
보육/교육	보육	▪ 커뮤니티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이나 보호자의 외출이나 기타 긴급 상황시 다시간 동안에 영/유아를 위탁할 수 있는 탁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에게도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보호자 제부재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교육	▪ 평생교육 차원에서 각 연령층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 아동 등이 방과후에 안정되게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

주 : 권오정 외 3인, 대한가정학회지, 새천년의 주민복지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의 활동프로그램 제안, 2001.

3) 근린시설

■ 건축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1종:일용품 소매점, 일밤 목욕탕, 소매점, 세탁소, 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등. 2종:일반음식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공연장, 볼링장, 종교집회장 등), 근린공공시설(동사무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마을공동회관, 구판장,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공동집회장 등), 노유자 시설로는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임. 교육연구시설로는 학교, 학원, 연구소 등이 있음.

■ 이와 같은 커뮤니티 관련 시설 중에서 커뮤니티 센터가 갖추어야 할 기능과 밀접한 관련된 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문고, 사회복지관 등이며, 최근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어 설치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도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음.

3.2 계층별 활동프로그램

1) 유아

■ 어린이 보육, 교육, 유희, 낮잠, 옥외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탁아서비스.

2) 아동

■ 어린이 캠프를 운영하거나, 독서, 여가, 공예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3) 청소년

■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개최하거나 체육, 수공, 현장학습과 농구, 배드민턴 등 실내운동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또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나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신세대 취향에 맞춘 춤이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4) 성인

■ 기존 커뮤니티 관련시설은 결혼여부, 성별 등에 관계없이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성인들에게 교육강좌, 체력단련, 문화, 여가활동, 각종 워크샵 등의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

5) 노인

■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복지회관 등의 시설들이 있으며, 주로 건강증진, 오락, 취미활동, 작업등을 위한 시설이 준비되고 있음. 노인의 여가활동은 범위가 다양하지 못하여 취미교실, 강당, 기타 교육실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일반적이고 체력단련실, 기능회복실 등도 운영되고 있음.

3.3 기존 기능별 활동프로그램 현황

■ 대부분의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들이 여가/문화/취미, 체육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각 읍·면·동별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각 지역별로 지역에 맞고 수요를 반영한 특색있는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몇 개의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수적 편차와 활용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열의 부족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미비 그리고 시설간 협력/연계가 부족하다는데 주요원인이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주민의 변화하는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시대적 변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였음.

▣ 그리고 인근 대학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도 들 수 있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인력확보와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지 못하고 있음.

4. 모델개발을 위한 대안 분석

▣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개발을 위한 대안 분석으로 현재 충청북도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대학과 연계한 평생학습, 농산어촌지역 마을 활성화 사례를 대상을 통해 대안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4.1 주민자치 프로그램

1) 주민자치 사업추진 현황

구 분	계	주민자치	문화활동	지역복지	사회진흥	주민편익
계	2,212	782	352	535	340	203
청주시	516	152	99	41	170	54
충주시	98	7	77	3	11	
제천시	103	23	36	13	22	9
청원군	977	500	34	356	37	50
보은군	29	4	13	10	1	1
옥천군	33		16	10	1	6
영동군	7	4		1	2	
증평군	18	10	1	3	4	
진천군	338	66	46	85	75	66
괴산군	47	3	10	10	10	14
음성군	21	3	15		1	2
단양군	25	10	5	3	6	1

자료 :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 충청북도, 2006. 4

■ 현재 충북의 13개 시·군의 116곳의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유형 및 프로그램 분류를 하였음.

■ 충북 116곳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총 2,2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주민자치에 782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복지에 535개 사업, 문화활동에 352개 사업, 사회진흥에 340개 사업, 주민편익에 20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자치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

■ 충북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총 59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시 지역에 334개 프로그램으로 많은 수가 집중되어 있으며, 읍·면 지역은 프로그램 숫자가 적은 실정임.

구 분	프로그램 운영현황(개)	비고
계	598	152곳(116곳)
청주시	192	29곳(설치 29곳)
충주시	77	25곳(설치 14곳)
제천시	65	17곳(설치 17곳)
청원군	67	14곳(설치 12곳)
보은군	25	11곳(설치 5곳)
옥천군	33	9곳(설치 8곳)
영동군	23	11곳(설치 4곳)
증평군	18	2곳(설치 1곳)
진천군	18	7곳(설치 4곳)
괴산군	21	11곳(설치 10곳)
음성군	21	8곳(설치 4곳)
단양군	55	8곳(설치 8곳)

자료 :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 충청북도, 2006. 4

■ 충북 주민자치센터의 시설현황을 보면 300㎡이상의 전체 114개소 중에 49개 소이며, 100-200㎡가 45개소, 200-300㎡가 20개소로 나타나고 있음. 소요예산은 1억 이상이 68개소, 5천만원이하가 28개소, 5천-1억 이하가 19개소를 나타내고 있음. 운영위원은 5인 이하가 61개소, 5-10인 이하가 30개소, 10인 이상이 23개소를 나타내고 있음.

구 분	총면적			소요예산			운영위원		
	100-200㎡	200-300㎡	300㎡이상	5천만원이하	5천-1억이하	1억이상	5인이하	5-10인이하	10인이상
계	45	20	49	26	19	68	61	30	23
청주시 (29동)	11	8	10	11	15	3	6	13	10
충주시 (14동)	7	3	4	6	1	7	12		1
제천시 (17동)	3	6	8	1	1	15	7	5	5
청원군 (12동)	11		1	2	1	9	6	4	1
보은군 (5동)	5					5	3		2
옥천군 (8동)	7	1		5		3	6	2	
영동군 (4동)			4			4	1		3
증평군 (1동)	1					1		1	
진천군 (4동)			4			4	3	1	
괴산군 (10)			10			10	8	2	
음성군 (4)		1	2			3		2	1
단양군 (8)		1	6	1	1	4	9		

■ 충북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자영업 및 직능단체, 농축산

업 종사자의 구성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리반이장, 주부의 구성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하지만 주민자치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역할을 해줄 전문가들의 참여가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자문역할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문가들의 구성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 인근 대학이나 전문단체와의 연계가 필요한 실정임.

구 분	계	통리반 이장	자영업	직능 단체	주부	회사원	지방 의원	농축 산업	전문가	기타
계	3,546	397	753	695	412	105	128	698	78	267
청주시	700	35	235	147	92	33	28	28	36	66
충주시	676	94	110	211	53	15	24	98	8	63
제천시	539	40	203	81	62	17	21	92	5	10
청원군	314	50	40	41	30	15	3	92	16	27
보은군	199	21	27	30	37	2	8	55	1	18
옥천군	214	33	21	18	32	5	9	89		2
영동군	258	47	22	25	40	3	10	103		8
증평군	25	7	4		6	2		2		4
진천군	102	16	26	17	10	3	4	9	4	13
괴산군	229	21	11	53	21	2	10	89		22
음성군	96	12	17	8	9	3	4	26	6	11
단양군	194	21	37	64	20	5	7	15	2	23

자료 :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 충청북도, 2006. 4

■ 충북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총 916명으로 이 중 여자가 607명으로 66.2%를 차지하고 있고, 남자가 250명으로 33.8%를 차지하고 있음.

■ 활동분야는 기타와 프로그램 운영(보조)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설관리, 강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3)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

■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78개 프로그램 중 문화/교양/복지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198개의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다음으로 스포츠/댄스에 178개 프로그램, 건강부문에 84개 프로그램, 풍물교실에 53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임.

구 분	계	성별		활동분야			
		남	여	강사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보조)	기타
계	916	250	607	96	228	272	277
청주시	336	59	277	21	62	146	107
충주시	54	19	35	1	19	3	31
제천시	253	84	169	17	76	39	119
청원군	100	15	26	20	20	9	10
보은군	4	1	3	1	2	1	
옥천군	17	5	12	12	1	1	3
영동군	21	17	4	2	2	17	
증평군	7	1	6	7			
진천군	2		2		1	1	
괴산군	49	16	33		40	9	
음성군	41	24	17	12	4	20	5
단양군	32	9	23	3	1	26	2

자료 :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 충청북도, 2006. 4

■ 각 시군별로 보더라도 별반 차이점 없이 대동소이하게 문화/교양/복지부문이나 스포츠/댄스부문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는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여

가문화와 건강부문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미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농산어촌 특성별 프로그램 개발(영농상담, 노인복지, 교육정보, 지역사회진흥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문화/교양/복지, 스포츠/댄스 부문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는 시지역보다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낙후된 읍·면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층에 따른 결과라 기인되고 있음.

■ 또한 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에도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령층의 다양화가 필요한 실정임.

프로그램	합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인터넷, 정보관련	34	4	1	10	3	1	6	3		4	1		1
문화, 교양 복지	198	77	27	17	20	4	9	5	2	5	3	11	19
스포츠, 댄스	178	73	20	17	21	10	6	5	1	3	10	4	8
건강	84	31	12	9	4	6	6	5		4	1	1	5
영농상담	1			1									
풍물교실	53	14	4	2	9	3	5	2		1	2	3	8
노인건강 및 노인시설	8	1		1					1				1
청소년	18	1		1	6	1	1	3	1	2	1		1
기타	4	1		1	1				1				

주 : 기타는 렉스코리아, 야학, 자율방법, 초청강연 등

4) 문제점 및 시사점

■ 읍·면·동으로 기능이 이전한 주민자치센터는 시군별, 읍·면·동별로 각 지역

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일반적이고 각 지역마다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이 아닌 여가/문화 활동만을 중시하는 역할에 한정되고 있음.

- 이런 문제들은 각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홍보 부족과 스스로 배우고 변화하려는 의지 부족으로 인한 문제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특색에 맞는 전문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문할만한 전문가 및 봉사자들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인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시단위 지역과는 다른 노인들이 대다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어촌의 지역적인 특성상 주민자치센터의 읍·면·동 기능이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어야 하는 주민들의 이동이 어려울 수 있으며, 농번기 기간 동안의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런 문제점들은 지역적 특성상 이용가능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또한, 커뮤니티 센터를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농산어촌 지역주민들의 인구특성이 노인층이 대부분이며, 저학력자 중심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커뮤니티 센터를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우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그동안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립적인 생각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농간 교류 및 자신의 가치 창출과 나아가 개인 및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함.

4.2 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

■ 현재 대학에서는 지적 능력과 정서적 소양을 갖춘 인간화, 전문화, 정보화, 국제화를 평생교육의 목표로 삼고 그 성취에 힘쓰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시설, 설비, 정보,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내 뿐만 아니라 문호를 개방하고 널리 지역 사회에 펼침으로써 전문 교육기관인 대학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를 지역 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요 교육목표로는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애 발달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평생교육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균형 잡힌 평생교육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음. 또한, 학점인증제, 민간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원격학습, 디지털 교재개발 등을 통하여 사람 누구나 편리하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하는데 있음.

1) 충북 주요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 충북지역의 주요 대학인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주성대학, 충청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살펴 보았음.

■ 대부분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학교별로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 즉, 교양,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비슷한 교육과정을 통해 세부 과정으로 나뉘지고 있음. 이런 비슷한 교육과정들은 주민자치센터내의 프로그램과 상당부분 겹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또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농산어촌지역 주민들보다는 시 단위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가 관련 프로그램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충청대학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 충청대학에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충청북도를 대신하여 위탁경영하고 있음.
-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충청북도 구석구석에 이동복지를 실현하고자 실시하게 될 [해피투어]를 비롯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선도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박람회]와 노인문화 발전을 위한 [은빛문화 축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나아가 초고령 사회의 복지를 실현할 케어복지 전달체계를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음.

■ 청주시 지역

학교	교과과정	주요 내용
충북대학교	교양교육과정	외국어 강좌, 풍수지리, 동양사상
	문학교육과정	수필, 시
	예술교육과정	공예, 도예, 사진, 만화, 그림, 서예
	건강교육과정	기공체조, 마사지, 요가, 한방건강
	스포츠교육과정	골프, 댄스스포츠, 재즈댄스, 인라인
	전문교육과정	논술지도사, 놀이치료, 미술치료, 아동지도사, 리더십, 심리상담 등
	부동산대학과정	부동산 컨설팅 등
	특별교육과정	박물관, 대학
	위탁교육과정	명예환경지도원
청주대학교	특성화개발과정	병원코디네이터, 간병사, 아동지도사, 논술지도사 등
	우수과정	부동산공경매사, 부동산컨설턴트, 심리상담사, 디지털 카메라, 독서교육지도사, 댄스스포츠, 풍수지리 등
	선호과정	영어회화, 골프, 감성과워스피치, 스포츠마사지, 명리학, 취미사진반, 서양화, 한문, 서예 등
	정착과정	민화, 시, 영어회화, 서양화, 방송댄스, 명상, 크로키, 관광 가이드, 유아치료 등
	육성과정	수지침, 발관리사, 성악, 피아노, 비즈공예
	신규과정	학습기억속독사, 명리학, 골프, 플라워디자인, 우리춤, 요가, 가야금, 취미사진반, 스쿼시 등
서원대학교	전문지도자 과정	음악치료, 우리춤, 스포츠마사지, 미술치료, 화훼장식기능사, 종이접기, 노인교육지도사, 독서지도사, 토지및재개발투자과정 등
	생활교양 과정	문예창작, 한자, 컴퓨터활용, 생활지혜 프로그램 등
	예술전공 과정	음악실기, 미술실기, 전통무용, 사진실기, 서예 등
	성인전문 과정	풍수지리, 음양오행, 댄스, 생활건강, 심신수련 등
	특별교육 과정	여성대학(청주시 위탁교육)
무료교양 과정	주역, 수화, 생활한자, 어르신컴퓨터 등	

■ 청원군 지역

학교명	교과과정	주요 내용
주성 대학	취미/교양	인테리어, 시진반, 부동산, 명리학, 동화구연 등
	댄스	라틴 댄스
	건강/스포츠	침, 경락마사지, 웰빙발관리 등
	미술	만화, 한지공예, 음악치료, 성교육상담전문가, 네일아트, 피부관리사 등
	음악	성악, 플룻, 피아노 등
	기타	자격증, 전문가 프로그램 등
충청 대학	상담및심리치 료전문과정	카운슬러, 심리상담치료, 아동놀이치료, 노인과 가족상담 등
	전문교육과정	레크리에이션지도자, 노인교육지도, 스포츠지도자, 아동음악지도 등
	민간자격증과 정	논술지도사, 어린이영어지도사 등
	최고전문가재 교육과정	미용아트최고지도자, 유아교육최고경영자, 학원교육최고지도자
	건강관리교육 과정	수지침, 스포츠마사지, 요가, 댄스, 발맞사지, 골프, 보디빌딩 등
	직업준비교육 과정	어린이 영어교육, 병원코디네이터 등
	생활외국어교 육과정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교양교육과정	생활한방, 컴퓨터 교육, 전통예절, 화훼장식, 사진, 서예, 수필, 노래 등
음악과정	바이올린, 성악, 피아노 등	

■ 충주시 지역

학교명	사업안내	주요 내용
충주 대학교	특별교육과정	케어복지사 2급
	전문자격과정	부동산경매, 심리상담, 논술지도사, 독서지도사 등
	외국어과정	중국어, 일본어, 영어교실 등
	생활건강과정	골프, 댄스스포츠, 건강요가 등
	일반교양과정	그래픽, 천연염색, 사진, 도예 등
	음악실기과정	피아노, 성악, 첼로, 바이올린 등

■ 제천시 지역

학교명	사업안내	주요 내용
세명대학교	외국어 교육	영어, 일본어, 중국어 회화
	컴퓨터 교육	생활컴퓨터, 웹디자인, 오토캐드
	생활과 건강	발 건강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댄스스포츠, 요가 등
	일반교양	논술지도사, 문예창작, 역학, 가정요리 등
	특별 프로그램	골프, 부동산경매 컨설턴트

2) 문제점 및 시사점

■ 충북 주요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시단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센터와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며, 시단위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가/교양 및 전문가 육성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시단위 지역이 아닌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활동여건에 제약을 받는 지역 특성상 방문교육 프로그램 등 직접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교양, 문학, 예술,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들은 주민자치센터와 상당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상호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상 연계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4.3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 체험프로그램 사례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우수사례 : 이천 부래미마을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진 마을을 소권역(3-5마을)으로 하여 그 지역이 가진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지역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임. 농림부는 향후 10년간 농촌지역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1,000여개의 권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체험, 교육 등 혁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이와 연계하여 각 지역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할 수 있을 것임.

■ 이천 부래미 마을은 마을이름을 브랜드화하여 지역혁신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마을임.

① 배경

- 부래미 마을은 이천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마을이었으며, 특별한 특산물도 전무한 실정이었음.
- 이 마을을 '부래미'라는 지역공동 브랜드로 육성하여 차별화된 농특산물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농촌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 2004년 소득은 민박 865만원, 식사 4,961만원, 농특산물 판매 5,036만원, 체험프로그램이용 10,535만원임.

② 주요 프로그램

㉠ 사이버 팜 : 독특한 회원제 시스템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쌀농장, 배농장, 포도농장, 주말농장을 마련하여 마우스 하나로 농장 주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배나무, 포도나무 한그루의 주인이 됨.
- 인터넷을 통해 농작물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각 농장에는 책임 농민이 있어 회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음.
- 농민들이 농작물을 직접 길러주며 성장과정을 인터넷에 보여주어 분양자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얻게 하며, 주말이나 여가시간에 농장에 들러 관리할 수도 있음.
- 분양받은 농작물은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 선물하거나, 선물권을 구입해 타인에게 주는 방법도 있음.

㉡ 체험 프로그램 : 농사체험, 먹거리 체험, 전통문화체험, 놀이체험, 자연학습 체험 등

- 흙 커밍 데이 : 정월 보름경 마을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타향에서 살고 있는 지역 출신들이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기반이 되고 있음. 고향둘러보기, 민속놀이 체험, 고향발전을 위한 토론으로 진행됨.
- 배꽃축제 : 부래미 마을 회원과 도시민들을 초청해 회원의 경우는 분양받은 배나무를 돌보며 일일 농민이 되고 민속놀이 체험도 마련됨.

- 포도체험 캠프 : 부래미 마을은 포도가 나지 않으나 인근 주변 농가와의 연계를 통해 부래미는 체험객을 더 유치하고 농가는 포도를 더 팔게 됨. 포도시식, 포도다기, 포도염색 등이 펼쳐짐.
- 부래미 미술대회 :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촌풍경그림, 도자기 만들기 시연 등 농촌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이밖에 고구마 캐기, 모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됨.

② 성공비결

① ‘부래미’의 브랜드화

- 부래미 마을의 농산물은 질은 보장되어 있었지만, 브랜드화가 문제였기 때문에 마을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데 주력했음.
- 농촌 고유의 넉넉하고 푸근한 인심, 쾌적하고 깨끗한 전형적인 농촌마을, 품질 보장의 우수 농산물 등을 이미지화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티셔츠나 모자를 비롯해 편지봉투, 심지어 마을에서 쓰는 비닐봉투에까지 부래미 로고를 찍어 사용하였음.

② 주민이 모두 대표 운영

- 모든 체험활동은 농가 단위별로 진행됨. 여기서 체험 및 민박수입은 해당 농가에 귀속됨. 단 식당수입은 마을에 귀속돼 공동 경영에 쓰임.

③ 끊임없이 공부

- 부래미 마을에서는 공부 모임이 있어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고 않고 더욱 발전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음. 매회 성황을 이루고 있는 이 모임은 지역개발 연구, 친절교육, 디자인, 건축 등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며 전문가의 강의로 매월 1회 개최됨.

④ 마을조직의 구성 및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

- 마을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마을 자체평가 및 워크샵 등을 개최하였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컨설팅을 스스로 받기도 하였음.

2)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 체험프로그램 우수사례⁹⁾

9) 농림부·농업기반공사, 제4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우수사례집, 요약 정리

(1) 벗가리마을

○ 농촌관광 프로그램

- ① 마을 고유축제, 자체 특색프로그램 등 관광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현황
- 벗가리마을의 테마와 체험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주테마	· 벗가릿대 놀이
보조테마	· 갯벌, 굴양식, 마늘(육쪽마늘), 구멍바위, 박, 염전, 송림(소원의 숲 산책로)
주요 프로그램	· 소원·희망 벗가리대 세우기, 솟대 만들기 · 소원의 숲 산책하며 소원염원 오징어 매달기 · 염전체험 : 천일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 · 박꽃이 피는 전원마을 : 박꽃, 박음식(박속칼국수), 박공예
계절별 프로그램	· 봄 : 봄나물 캐기(쑥, 고사리, 냉이) 봄나물 밥상 체험 · 여름 : 해수욕장, 마늘 수확체험, 갯벌체험(바지락 잡기) · 가을 : 농작물수확체험(벼, 고추, 고구마, 생강 등), 메뚜기 잡기, 망둥이 낚시 · 겨울 : 전통 민속놀이 체험, 굴체험 · 계절별 공통 프로그램 오리농법과 계절별 각종 농산물 수확체험, 동물농장 먹이주기, 바다낚시, 소원의 숲 산책, 농산물 직거래, 계절에 따른 별미음식 체험, 민박, 사랑방, 좌담회, 향토음식 만들기 체험(두부, 엿, 한과, 메주 쭈기) 등

(2) 산채마을

○ 농촌관광 프로그램

- ① 마을 고유축제, 자체 특색프로그램 등 관광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현황
- 3월 : 고로쇠 수액채취, 새집 달아주기
 - 4월 : 내 감자 밭 만들기, 내 버섯나무 만들기
 - 5, 6월 : 산채채취, 체험
 - 7, 8월 : 감자캐기, 곤드레 밥짓기
 - 9, 10, 11월 : 더덕캐기, 약초캐기, 산열매 채취
 - 12, 1, 2월 : 겨울방학 산골체험

② 관광객 만족도 및 고객 사후관리

- 친절 고객맞이 교육 : 4회(강사초빙 2회, 자체 2회)
- 고객 사후관리 : 고객카드 작성비치, 마을행사 안내문 발송(년 2회), 월2회 프로그램 개인 안내메일 발송

(3) 계량마을

○ 농촌 관광 프로그램

① 가족음식 만들기 체험

- 가족들은 즐거움에 들떠 경운기를 타고 밭으로 향함. 밭에는 채소들이 푸르름을 한껏 뽐내고 있음. 가족들이 모여 밭에서 조심스레 채소 수확을 함. 한 가족이 한 끼 먹을 만큼의 채소를 수확하여 김치를 만들기 시작함. 자녀들이 만든 김치와 함께 가족들은 즐거운 식사를 함.

- 농산물 수확 체험

- 나무에 매달린 파랗고 빨갛고 기다란 고추를 따봄. 음식에 있어 빠지지 않는 고추를 직접 따보며 아이들은 즐거워 함. 고추 따기는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따야 하므로 아이들은 조심스러움.

② 주말농장

- 회원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수시로 찾아와 직접 농사체험을 함.
- 방갈로에서 가족들과 휴식을 갖고 여가를 즐김.

(4) 통일마을

○ 농촌관광 프로그램

① 마을 고유축제, 자체 체험프로그램 등 관광 프로그램 보유

- 봄 : 농사체험, 안보체험
- 여름 : 농사체험, 두부체험, 안보체험
- 가을 : 콩타작체험, 순두부체험, 안보체험
- 겨울 : 뗏돌체험, 순두부체험, 안보체험

② 고객관리

- 현재 4천여 명의 고객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선물 및 안내장을 송부하고 있음.

(5) 너와마을

○ 농촌관광 프로그램

① 마을 고유축제, 자체 체험프로그램 등 관광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 계절테마별 체험프로그램 : 나물뜯고 밭도갈고(봄) 물장구치며 고기잡고(여름) 성숙의 계절 가을나기(가을) 두메산골겨울나기(겨울)
- 산촌체험유형

- 두메산골 새생명체험

- 두메산골 추억만들기
- 송이따기 체험
- 산촌겨울나기 체험

구분	가격	기준	포함내역
개인	42,000	5세이상	숙박(1실4인) 및 3식
단체	42,000	20명이상	숙박(1실8인) 및 3식

일 정	시 간	행 사 내 역	비 고	
1일차	마을소개	13:00~13:30	마을소개 및 체험일정 소개	
	마을관광	13:30~15:30	너와집, 통방아 등을 경운기를 타고 마을 전통 문화재를 체험	
	촌두부 만들기(1)	15:30~16:00	마을에서 재배한 콩을 직접 맷돌로 친구와 알아보는 시간	
	압화만들기	16:00~16:30	손수건에 여러 가지 야생화, 꽃잎 등을 물들여보자	
	모형곤충 만들기	16:30~17:20	엄마, 아빠랑 예쁜 잠자리와 곤충을 만들어 보는 시간	
	촌두부만들기(2)	17:20~18:00	두유도 만들어 먹고 순두부도 만들고 모두부도 만들어 먹자	
	세면 및 자유시간	18:00~18:30	손발에 묻은 병균을 씻어내어 우리몸을 지키자	
	두부만찬	18:30~20:00	내가 만든 두부로 맛있게 얹얹	
	모깃불추억	20:00~21:30	펜션 관장에 모여 모닥불에 감자, 고구마를 구워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자	
2일차	조식	08:00~09:00	산촌 아침밥상	
	농사체험	09:00~10:00	마을에 있는 감자와 강원도 찰옥수수를 직접 캐보고 따보자	
	맨손송어 잡기	10:00~11:30	물놀이 및 맨손 송어잡기	
	마무리	11:30~12:00	행사 마무리	
	중식	12:00~13:00	양푼이 산채비빔밥	

② 주민친절도

- 두메산골의 수수함과 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을
- 사방이 둘러 쌓인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하루쯤 옛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너와마을에서 부모님들께는 아련한 고향의 옛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 놀이와 농촌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하는 노력과 1가구1촌 운동으로

오신 손님께서는 최대의 서비스와 만족도를 느끼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③ 고객관리현황

- 체험객 방문시 고객관리 카드 작성
- 테마별 체험프로그램과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실시 전 메일을 통한 DM발송
체험 프로그램 참여 후 재방문시 할인 쿠폰제공
- 마을 홈페이지 여행후기 코너 활성화
- 여행후기공모 후 우수작 선정, 마을 특산물을 상품으로 제공

(6) 수림대마을

○ 농촌관광 프로그램

① 마을 고유축제, 자체 체험 프로그램 등 관광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현황

- 고유축제

고유 행사	행사날짜	주요내용	비고
(마을전통)놀이-웃놀이	매년 설날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시상경기(행사)	
(마을전통)놀이-널뛰기	매년 설날	마을주민 중 여성이 참여하는 시상경기	
(마을전통)합동세배	매년 설날	마을 어르신께 합동으로 세배	
전통장담그기	매년 3월	된장, 고추장 담그기	
전통막국수만들기	년 중	막국수 만들기 체험	
전통곤드레밥	년 중	곤드레 밥먹기 체험	
전통공예	년 중	도시민참여(짚신, 돛자리 만들기, 짚풀공예)	
전통꿀생산	매년10~11월	전통방식의 꿀 생산	

- 관광체험 프로그램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체험> 씨앗, 모종심기	<농사체험>김매기	<농산물수확체험> 감자, 고추 등	김장 담그기
마을돌러보기 체험	가족캠프	<마을돌러보기> 단풍, 가을산행	메주 및 장담그기

산나물뜯기 체험	송어잡기체험	〈야생열매채취〉 머루, 다래, 도토리	〈겨우살이체험〉 감자 구워먹기 등
진달래꽃따기	〈민물고기잡기체험〉 토종어구탐구 등	토종밥 줍기	〈전통음식체험〉 손두부, 메밀묵
수액채취체험	〈전통음식체험〉 메밀막국수	올챙이 국수	
〈전통음식체험〉 곤드레밥			

(7) 한드미마을

○ 농촌관광 프로그램

① 마을 고유축제, 자체 체험프로그램 등 관광프로그램

- 테마관광

- 백두대간 상에 위치하는 소백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단양군과 연계한 테마관광의 개발 및 시행하고 있음.
- 한드미 마을은 지리적으로 소백산의 주봉인 비로봉으로 등반하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백산관광과 연계한 테마관광 프로그램의 실현에 최적의 위치임.
- 소백산 등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드미 마을의 고유한 농촌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특산품 소개 및 판매를 병행하고 있음.

구분	행사명	행사기간	장소
봄	소백산 철쭉제	5월	소백산 일원
여름	소백산 가족등반축제	7월~8월	소백산 일원
가을	송이축제	10월	소백산 일원
겨울	소백산 해맞이 등반대회	12월31일~익년 1월1일	소백산 비로봉

- 산촌문화체험

- 소백산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한드미 마을만의 독특한 특징을 부각시켜 산촌고유의 특산품 및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음.
-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소백산 깊은 산골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모여 냇가를 이루는 어의곡 계곡은 여름철 최고의 휴양지이며 여름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 소백산의 자연환경 활용하여 사시사철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음.

구 분	프 로 그 램
봄	고로쇠 수액 채취 및 시음, 산나물 채취, 소백산 절쪽제 참관
여름	계곡 물놀이, 고기잡기, 한드미 동굴체험
가을	송이버섯 채취, 단풍축제
겨울	눈꽃축제, 설피 만들어 눈길걷기, 땀감해서 아궁이 밥하기, 콩 도리깨질하기, 콩대쌓기, 눈썰매 타기

(8) 외암마을

○ 농촌관광 프로그램

① 마을고유축제, 자체 체험프로그램 등 관광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현황

- 마을행사 : 장승제 및 쥐불놀이(음력1월14일)
- 단오행사 : 창포물 머리감기, 단오음식먹기
- 칠월칠석, 전통혼례, 전통상여 재현
- 추석맞이 내 외국인 초청 음식 나누기 및 민속놀이
- 10월 짚풀 문화제

② 주민친절도

- 외암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친절교육을 위해 매월 1회씩 월례회의를 통해 친절과 청결에 대한 주입식 교육을 실시함. 또한 민박을 운영하는 농가들은 매주 1회씩 주간 회의를 하며, 음식의 질과 침구류의 청결도 친절에 대한 점검 교육을 실시함. 민박 농가에서 3회 이상 고객에게 불편사항이나 불친절 청결미숙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에는 회원 박탈이라는 엄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함.

(9) 가파마을

○ 농촌관광 프로그램

① 마을 고유축제, 자체 특색프로그램 등 관광 프로그램

구 분	체 험 프 로 그 램 내 용	
계절별	봄	봄나물 채취, 가족사진 찍기, 솟대만들기, 소달구지타기, 오이따기, 민물참게 방류, 고추심기, 꽃다식만들기, 두부만들기
	여름	오리방사, 쑥개떡만들기, 경운기타기, 쪽풀천연염색, 미꾸라지잡기, 고추따기, 모닥불피우기, 대나무물총만들기, 소나무숲체험

	가을	청양고추김치담그기, 수세미짜기, 메뚜기잡기, 고구마캐기, 햅쌀짚기, 기름짜기, 허수아비만들기, 자전거타기
	겨울	쌀매만들기, 떡설기, 고춧대뽑기, 대나무만들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민속놀이. 연만들어 띄우기
	연중	소형장승목걸이만들기, 천연염색, 고추먹고멤멤(고추요리만들기), 아름다운 언덕오르기, 호랑이가 잡아준 산소 이야기
기간별	당일	천연염색, 소형장승목걸이만들기, 민속놀이, 경운기타기
	1박2일	소달구지타고 마을여행, 장승목걸이만들기, 고추먹고멤멤, 새벽농사체험, 오리쌀만들기, 기름짜기
	2박3일	소달구지타고 마을여행, 장승목걸이만들기, 고추먹고멤멤, 새벽농사체험, 오리쌀만들기, 달빛숲속체험, 고추장떡만들기, 천연염색
계층별	청소년	구기자 고추짜기, 두부만들기, 민속놀이, 물놀이, 소형장승짜기, 경운기
	대학생	천연염색, 농사체험, 고추먹고멤멤, 자전거타고 마을여행, 허수아비만들기, 고추조형물 만들기
	주부	천연염색스카프만들기, 소형장승짜기, 햅쌀짚기, 기름짜기, 고추식혜만들기
	중장년	짚공예품만들기, 장승짜기, 고추먹고멤멤, 민속놀이, 고추짜기
	노인	고추장떡만들기, 솟대만들기, 짚공예품만들기, 실고추썰기

② 주민친절도 및 고객 사후관리 현황

- 전문교육 : 9회 150명 이수
- 선진지 견학 : 7회 196명 참석

(10) 대월마을

- 농촌관광 프로그램
- ① 마을 고유축제, 자체 체험프로그램 등 관광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및 효 과	시기
동백꽃 목걸이	봄이 되면 떨어진 동백꽃이 많이 있음 이것을 이용하여 실로 연결하여 목걸이를 만들어 봄	봄
다듬이송	현대의 다림이 역할을 한 다듬이와 방망이로 직접 다듬이질을 해봄 전통체험과 보존의 역할	연중
한우농장체험	아이들에게 소축사와 소의 단계별 성장과정을 볼 수 있게 함	연중
황토천연염색	황토로 염색을 해 봄으로써 황토의 역할과 흙을 만져봄으로써 자연을 느끼게 함	연중
봄나물캐기	봄에 쑥을 캐서 직접 집에 가져 감 어릴적 향수를 느낄 수 있음	봄
재래식콩나물	벼를 태워 재를 만듦. 시루대신 플라스틱을 구멍을 뚫은 후 불린콩 한	연중

	켜, 재 한켜 씹 쌓은 후 물을 충분히 준 후 집에 가져 감 재래식 콩나물을 만들어 봄으로써 선조들의 지혜를 체험할 수 있음 집에가서 3~4일후 직접 기른 무공해 콩나물을 먹어볼 수 있음	
도롱테돌리기	대나무에 새끼를 감아 둥글게 만든 후 고무줄로 가는 대나무와 연결하 여 걸어가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가면서 돌림 옛날 선조들의 놀이방법의 하나임 잊혀져가는 전통보존	연중
새송이 버섯수확	새송이 농장을 견학한 후, 병에 들어있는 새송이를 수확하여 포장까지 해본 후 집에 가져 감 농사체험으로써 새송이 버섯이 크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현장학습 에 도움이 됨	연중
맷돌로 만들기	콩두부 불린콩을 맷돌에 직접 갈아보고 마셔봄 현대의 믹서기가 조상들은 어떤 지혜로 맷돌을 사용하였는가와 두부 만드는 과정까지 체험해 볼 수 있음	연중
인절미체험	절구통에 찢 찹쌀을 넣어 절구로 찜음 잊혀져가는 전통 떡 만드는 법을 알고 직접 먹을 수 있음	연중
새알죽만들기	참쌀로 반죽을 하고 팔물을 끓여서 새알죽을 만들어 먹어봄	겨울
야외볼링	실내에서만 하는 볼링을 변형하여 야외 놀이체험으로 운영 핀은 청자모양으로 만들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음	연중

② 주민친절도

- 민박 및 추진위원 교육실시
- 선진지 견학 8회, 강사초빙주민교육1회, 자체교육10회
- 버스가 마을에 들어올 때, 체험 끝난 후 돌아갈 때 전 추진위원 인사

③ 고객관리현황

- 고객관리카드 작성비치, 사후관리 주요내용, 성과 등 작성

(11) 산천렵마을

- 농촌관광 프로그램
- ① 자체 체험프로그램 등 관광 프로그램
- 계절별 프로그램

연중	봄	여름	가을	겨울
짚풀공예(복조리, 계란꾸러미 등) 연만들기 생활도자기 마당놀이 전통음식만들기 마을여행	봄나물채취 밀서리체험 자연생태관찰 대낚시	감자캐기 옥수수따기 곤충채집 반딧불관찰 대낚시 미꾸라지잡이 넷가 물놀이	고구마캐기 대낚시 미꾸라지잡이	얼음썰매 토끼몰이 뿔치기참새사냥

- 대상별 프로그램

유치, 초등학교	중고생	어른
농사체험 짚풀공예 팔 인절미, 손두부만들기 마당놀이 나무공예 흙공예 자연생태관찰 산천렵 마을여행	농사체험 짚풀공예 팔 인절미, 손두부만들기 마당놀이 나무공예 흙공예 산천렵 마을여행	농사체험 마당놀이 짚풀공예 흙공예 망개떡, 손두부 만들기 산천렵체험 마을여행

- 연간 체험 프로그램 실시 현황

구분	계		·03		·04		·05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계	101	4969	4	195	38	2664	59	2110
숙박체험	33	369			2	127	31	242
당일체험	68	4600	4	195	36	2537	28	1868

② 주민친절도

- 민박농가 관리대장 비치 : 14호
- 주민대상 친절교육 및 민박농가 교육 실시 : 5회, 14호
- 체험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1회, 30명
- 체험후기 및 감사메세지의 홈페이지 방문 등록 : 62회

③ 고객관리현황

- 고객관리 : 고객관리카드 비치, 폰메세지 등록 활용, 홈페이지 이용
- 사후관리 : 마을방문단 대표자가족 초청 무료체험 실시 : 1회, 40명

(12) 달오름마을

○ 농촌관광 프로그램

① 마을고유축제, 자체 체험 프로그램 등 관광프로그램

구 분		체 험 프 로 그 램 내 용
상시운영 프로그램		판소리, 기체조, 다도, 달떡만들기, 순두부, 달오름 소원빌기
계절별운영	봄.가을	지리산 트래킹 기 체험 화전부치기 전통장류체험 산나물캐기 농사체험 홍부박타기 체험
	여름	청정계곡체험 지리산 트래킹, 자연휴양림 삼림욕 달오름 체험, 별자리 관찰
	겨울	약선/보양 음식체험, 달떡 만들기 전통규방공예 비닐하우스 농사체험 눈썰매

② 주민 친절도

- 교육과 자체평가로 친절의식 고취
- 시골의 정과 인심, 그리고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박집에서는 조그마한 농산물을 마련하여 전해줌
- 참석자 설문평가를 통한 미비점 보완

③ 고객관리 현황

- 민박집별 고객관리카드 비치, 작성
- 성과로 소식을 전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식구나 친척같이 가까워 질 수 있었으며, 달오름마을의 매니아로 자칭

(13) 교촌마을

① 농촌관광 프로그램

- 마을고유축제

구 분	내 용	비고
동신제	매년 정월보름날 새벽에 동네주민 중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가족 중에 흠결이 없는 주민들이 참가하여 농사의 풍년과 마을의 번영, 그리고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하는 제사로 의성군에서는 2곳	
정월 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동네주민들이 정월대보름날 오후에 마을 뒷산 봉우리에서 마을의 번영과 풍년, 가정의 건강을 비는 제사임.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각 가정과 마을의 액을 누르고 평안을 기원하며 달집을 태우며 가족의 건강과 소원을 비는 행사임.	
비안향교 향사	매년 3월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에서 지내는 제사	

- 농촌체험 프로그램

구 분	프 로 그 램	모 집 캠프
봄	밭 만들기, 씨앗뿌리기, 모심기, 들꽃관찰, 나물채취, 새순먹기	어린이농촌체험 주말캠프
여름	농작물관리, 고추따기, 옥수수따기, 곤충관찰, 민물고기잡기, 과일서리, 물놀이	쌀소비촉진, 가족건강캠프, 농촌체험캠프
가을	벼베기, 고구마캐기, 과일따기, 메뚜기 잡기, 허수아비 장가보내기 등	어린이농촌체험 주말캠프
겨울	겨름내기, 비닐하우스 관리, 민속놀이 등	전래놀이캠프
연중	자연체험, 만들기체험, 먹거리체험, 기획체험	누룽지캠프

구분	주제별	프 로 그 램
건강체 험	건강활동	산책, 들길명상, 건강특강, 건강놀이, 등산
전통체 험	서당체험	한문배우기, 붓글씨, 시조창, 예절교육, 과거시험 등
	전통놀이	널뛰기, 투호, 썰매, 비석치기, 굴렁쇠, 술래놀이, 연날리기
	만들기	새끼꼬기, 짚풀공예, 새총, 대나무물총, 나무이름표, 재활용공작
	전통생활	나무하기, 장작패기, 군불매기, 절구짚기, 디딜방아, 맷돌, 키 사용해보기
자연학 습	먹거리	가마솥밥, 떡메치기, 송편, 손두부, 시루떡, 김치 등
	논농사	모심기, 논메기, 벼베기
	밭농사	밭 만들기, 농작물심기, 가꾸기, 고추 따기, 고구마 캐기, 옥수수 따기 등
	과수	적과, 사과 배, 감따기
	농기구	지게, 리어카, 낫, 호미, 삽, 괭이, 쇠스랑 사용 해 보기
자연관찰	숲, 강, 별자리, 민물고기, 나무, 식물, 곤충, 동물, 새 등	

	잡기	민물고기, 미꾸라지, 메뚜기, 낚시, 파리 등
기획	기획	교촌리 추적놀이, 이장님 숙제, 허수아비 장가보내기, 리어카 면허증, 농촌 올림픽 등

② 주민 친절도

- 전업이 아닌 겸업으로서의 한계가 있음
- 개인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이라 단점이 있음

③ 고객관리현황

- 인터넷카페를 통한 고객관리
- 참가 단체 및 참가자와의 지속적인 인간관계 유지

3) 문제점 및 시사점

■ 체험프로그램 운영 취지는 관주도가 아닌 민주도로서 지역주민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인 지정대상으로 보고 있음. 결국, 농산어촌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를 통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고 의지를 가지게 하기 위한 방안이 수반되어야만 모델 개발 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임.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산촌/어촌 종합개발 등 특색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정보 및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연관성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함.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비단 여가/문화/건강/교육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구 대상지역여건상 이런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적인 차원에서 소득증대 및 일자리, 개인 가치 증대, 도농간 교류, 적극적 의지 창출, 대인관계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타 지역과 비교해 특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위 내용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5. 지역 특성별 커뮤니티 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 개발

5.1 기본방향

1) 주민들에 의한 community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주민들의 자치력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제시하며,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지역사회 진흥 프로그램 등과 자치적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안함.

2) 해당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주체적 역량 강화

■ 커뮤니티센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선정 및 개발하도록 하고, 다양한 역할 제공과 권한을 부여해주어야 함.

3) 지역별 특색에 맞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이용시간의 융통성 부여

■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색을 보면 농번기와 농한기가 뚜렷하여 이에 따른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 이용시간의 변화가 필요함.

■ 기존의 공공문화시설이나 지역복지시설, 행정서비스시설 등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공무원들의 시간대에 맞춰있어 주중에는 새벽이나 야간시간대의 이용이 어렵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개방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

■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센터 자체가 특정 주민들만을 위한 센터가 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이용율을 떨어뜨리고 있음. 따라서 이용시간대의 확장과 계절별 융통성 있는 변화로 많은 시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함.

4) 대상계층의 다양화 추구

■ 농산어촌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들이 노년층이고 아동 및 청소년들의 경우는 인근 대도시로의 이동으로 인해 극히 드문 실정임.

■ 따라서 지역의 공공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 대상자가 주부이고, 그 밖의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노인이나 아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노년층의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수가 적은 직장에 다니는 성인 남녀나 청소년, 유아에 대한 배려는 전반적으로 미흡함. 커뮤니티 센터의 본 취지는 특정 연령층에 편중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전 계층이 참여하여 세대를 넘어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이용대상의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5) 주민의 생활패턴 파악을 통한 모델 정립

■ 농산어촌 커뮤니티 설계는 우선 주민의 생활패턴의 실체를 모식화 할 수 있는 정주모형을 마련했을 때,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도출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도시에서 주로 발전했던 커뮤니티가 농산어촌 공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델 정립이 필요함.

5.2 농산어촌지역 프로그램 개발방향

1) 농산어촌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 커뮤니티 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도시지역과는 다른 농산어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맞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 계획이 필요함

■ 도시지역이나 타 농산어촌 지역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해당

지역 특성상 실패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거주연령층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각 지역마다 독특한 특성에 맞는 창조적인 프로그램들이 보다 많이 개발되어질 때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음.

(1) 농산어촌을 고려한 프로그램

■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접근성 부족, 지역간 시설 차이, 프로그램 및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도시와는 다른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로 센터가 운영되어야 함.

■ 또한, 여가시간과 작업시간이 구별되지 않는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상 지역마다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야 함.

■ 예를 들면, 한 지역의 특성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많을 경우 센터내에 모임방을 마련하여 그동안 고립된 농사를 지워왔던 농민들이 타 작물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실제 농사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나아가 공동생산, 공동출하 등의 공동체 활동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임.

(2)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 농산어촌 지역은 연령층 또한 중장년층 또는 노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 대부분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농번기를 제외한 기간 동안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 주의할 점은 프로그램 개발시 농산어촌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실제적 욕구를 기반으로 하며, 일정한 수입과 함께 이를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시켜 개발되어야 할 것임.

(3)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 농산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들은 도시지역 교육과정과는 달라 다양한 욕구와 필요가 존재하고 이런 욕구를 가정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농산어촌지역 자녀들의 교육은 경제적 빈곤함으로 인한 사교육 기회의 박탈, 열악한 주거환경, 도농교류의 단절로 인한 문제, 공부방 등 면학분위기 부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아래와 같은 운영이 필요함.

- 건전한 교육을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 개발
- 학생 지도를 위한 자원봉사자 확보
- 도농간 학생교류를 통한 문화연계

■ 창의력 교실, 만화교실, 역사교실 등의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고학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자아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4)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 노인문제는 농산어촌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이며, 경제활동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인해 농산어촌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간다는 점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소홀해서는 안 됨.

■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건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이 있음.

2) 농산어촌 개발 프로그램

■ 커뮤니티 센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직접 만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며 농산어촌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는데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1) 소속감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 커뮤니티 센터의 교육프로그램들은 그 지역주민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공동체적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필요함.

■ 이러한 행사를 일회성이 아닌 분기별 등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참여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지역주민 자발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 이는 자발적인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주민들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이 그동안 배운 결과를 주민들에게 선보이고 결과를 발표하는 기회가 필요하며, 그런 결과물들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3) 복지 프로그램

■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주민들은 같은 지역내에서도 주민간 갈등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포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4) 마을가꾸기 프로그램

■ 마을 가꾸기 프로그램은 주민들과 행정의 파트너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행정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가꿈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적은 예산으로 달성할 수 있음.

■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주인으로 나서 마을에 필요한 부분을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가꿀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프로그램임.

(5) 사회교육을 위한 강좌 프로그램

■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있어 여가 및 건강 프로그램보다도 사회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자기 역할에서부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교육,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교육, 지역의 정치 및 행정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한 각종 교육 등이 해당됨.

■ 사회교육은 주민들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게 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지역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

5.3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형성¹⁰⁾

■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파악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서 프로그램 운영시 보다 효율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음.

■ 협력

-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을 통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것임. 즉,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고 좋은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는 관계임.

■ 조정

- 공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부드럽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부분의 결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활동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합작

- 분리된 각 조직이 단일한 활동에 대해 각자의 자원을 내어놓아 공동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임. 결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조직이나 단체들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활동내용을 보다 전문적이고 풍부한 자원을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1) 인근지역 커뮤니티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 인근 커뮤니티 센터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경우에는 서로 독립된 활동을 함으로서 같은 지역내에서도 도움을 주고받지 못하기도 함. 따라서 인근 커뮤니티 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함.

■ 네트워크 형성 형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음.

- 인근 커뮤니티 센터 담당자들간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정보교환의 장 마련
-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각 센터 담당자간 또는 위원회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마련
- 기초자치단체나 인근 센터간 자원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

10) 열린사회시민연합한국도시연구소, 주민자치센터 운영길라잡이, 2002, 재판집

2)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강사진 확보

■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전문적인 강사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아무런 쓸모가 없음. 특히 자기 지역주민이 아닌 이상 자원봉사자로 확보하기는 힘 듬. 따라서 전문기관을 통한 강사진의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시·군 커뮤니티센터 혹은 도 단위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연계된 강사풀제의 동입이 필요함.

■ 한편으로, 외부 전문가들에 대한 의지는 지역 자체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기도 함. 따라서 유명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지역에서 자원을 찾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3) 지역 시민단체(NGO)와의 네트워크 형성

■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교육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해 왔고 지역적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여러 점에서 유리할 수 있음.

■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음.

-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법
- 프로그램에 관련된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법
- 센터 담당자, 자원봉사자,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법
- 자치단체 차원에서 각 지역의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모임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방법

4) 지역민들의 공동참여를 위한 행사

■ 커뮤니티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주민들이 공동체적 의식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마을 축제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임. 이는 각 지역의 전통문화를 살릴 수 있도록 축제를 계획하면 지역주민들의 애향심과 소속감,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마을의 여러 단체나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의 다양한 단체나 사람들이 모여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 역할분담을 하면 성공적인 행사를 치룰 수 있음.

5.4 지역 특성별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 개발

1) 농산어촌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 농산어촌지역의 주민들이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첫째,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 만족감을 성취하는 것이며, 둘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양질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적 측면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신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지역발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개인적 측면과 지역적 측면이 농산어촌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음.



[그림 6.5.1] 평생교육 영역 구분

2) 농산어촌지역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은 각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신장하고 지역 발전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평생교육의 특징 때문에 교육의 대상과 내용, 방법 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영역을 구분할 수 있음.

■ 대체로 평생교육은 학습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에 따라 그리고 평생교육 시설에 따라 몇 가지로 평생교육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 농산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비슷한 과정을 통하여 개발하게 됨. 대상고객과 시행기관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정보와 자원을 획득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Planing 기획	Analysis 분석	Design 설계	Development 개발	Marketing 마케팅	Implement 운영	Evaluation 평가
---------------	----------------	--------------	-------------------	------------------	-----------------	------------------

[그림 6.5.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델

먼저 기획단계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요구를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팀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한 다음, 개발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개발 기획안을 만드는 단계이며,

둘째, 분석단계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한 기관이나 조직의 상황과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내어 주제를 설정한 다음 직접적인 프로그램 요구를 분석한 후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단계임.

셋째, 설계단계는 분석단계에서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하고 세부 목표를 설정한 다음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학습 방법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교육매체를 결정하여 운용 방법을 구상하고, 프로그램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단계임.

넷째, 개발단계는 앞의 과정을 거쳐 설계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문서화하거나 영상 매체화하거나 컴퓨터 매체화하거나 혹은 웹자료화하는 등의 과정임.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게 되는데, 세부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음.

◆ 1단계 : 먼저 프로그램을 개발할 팀을 구성함. 이 경우 과정전문가, 현장전문가 혹은 내용전문가, 교수학습설계전문가, 의사결정전문가, 협상전문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여야 함.

◆ 2단계 : 프로그램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해야 함. 프로그램 개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설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해야 함.

◆ 3단계 : 프로그램은 농산어촌 지역사회 각종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되어야 함. 농산어촌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연적 요소 등 모든 관련 요소들을 조사 분석하여야 함.

◆ 4단계 : 농산어촌 지역사회의 요구를 분석하여야 함. 농산어촌지역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프로그램의 운영이 쉽지 않은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나 이를 모두 고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5단계 : 개발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함. 우선순위설정(priority setting)은 프로그램개발 과정에서 평생교육 기관의 한정된 자원과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요소임.

◆ 6단계 : 선정이 확정된 프로그램은 그 의도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교육내용과 활동내용을 명시해에 하므로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를 표시하여야 함.

◆ 7단계 : 프로그램의 프로파일을 설계하는 단계임. 프로그램 프로파일 설계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핵심 구성요소에 맞게 프로그램의 형식을 구상하는 것을 말함.

프로그램 프로파일의 구성요소에는 프로그램 명칭, 교육 주 대상, 교육 기간,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목적,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프로그램 운영 전략 및 운영상의 특기사항, 기타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

◆ 8단계 :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함. 내용 선정은 확인된 교육요구와 필요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반영시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화시키는 과정으로 교육내용을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 난이도, 복잡성, 현실성, 계절성 등에 의해 조직하고 구성하여야 함.

4)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개발 사례

■ 현재 각 커뮤니티센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 혹은 각종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표 6.5.1>과 같음.

■ 구체적인 분야를 보면, 행정, 관리, 정보, 상담, 행사, 건강, 체력, 여가, 문화,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임.

5)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모델

■ 지역 특성별 프로그램 개발은 먼저 읍·면·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특성별로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접목시킨 모델을 제시하며, 이와 함께 인근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로 관련 대학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커뮤니티 센터내에서 주민대상별로 운영가능한 일반적인 활동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여가/문화/운동/건강/교육/정보 등의 분야로 분류되어 프로그램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다시 공통,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으로 세분하여 구분지어져 있음.

■ 따라서, 이런 일반적인 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농산어촌 지역특성별 또는 마을 특성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제시되어야 하며, 교육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 의식전환 등의 프로그램 등도 동반되어 운영되어야 함.

■ <표 6.5.2>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읍·면단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몇 개 마을을 묶는 권역단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며, 시·군 커뮤니티센터 차원에서 활용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총괄하여 개발 가능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단위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인가는 지역의 여건이나 인적 구성 등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각 계층의 커뮤니티센터는 각자의 기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제시된 프로그램 중 몇 가지에 대해 운영방법을 제시하였음. 그러므로 다른 프로그램도 이를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6) 계층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1)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a) 목표

- 청소년들이 자신은 소중한 인격체라는 자신감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제공
-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익히는 기회의 장
-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훈련을 통하여 가족과 지역 사회속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보전하며 지속시켜 나가야 할 책임감 연마
- 민주주의 집단 활동 경험을 통해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소속감과 책임감 고양
- 자연계, 생태계 그리고 자연보호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식,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추는 기회 제공을 통해 훌륭한 인격체 양성

(b) 추진방향

- 다양한 체험을 통한 교육적 가치 부가
- 놀이를 활동 속에 자연스럽게 도입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
-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전개
-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프로그램 운영
- 학교교육과 연계되는 상호 보완적 수련 프로그램 운영

(c) 기대효과

-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 양성과 건강한 지도자 양성
- 자발적 참여를 통한 협동심 배양 및 자신감과 성취감 함양
- 대자연에 적응하는 초자연인 양성
- 농촌과 함께 미래 비전 제시
- 건강한 청소년 육성
- 활발한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d) 기본구상

- 환경을 보전하고 앞으로의 미래 농촌을 위한 환경보존 및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실현으로 환경오염 없는 농사의 실현 및 유기농의 체계화 사업을 보완하며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비전 제시

○ 농촌 체험마을과의 네트워크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자 즉 현장 체험 지도자 육성

(e) 내용과 특성

구 분	내용과 특성
문화체험	농촌 및 산간지역의 역사 속에서 전승되어지고 발전되어진 농촌의 다양한 문화를 익히고 실험하면서 버려야 할 문화와 계승 발전해 나가야할 문화를 판별하고 점점 쇠퇴되어가고 있는 공동체 문화의 실험을 통하여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며 지켜 나가야할 방향 모색
역사기행	역사 유적을 대상으로 현장 기행 실시함. 문화유산을 숙지하고 문화 해설가의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와 인물의 농촌문화와의 연계성 및 다양성 추구함
현장체험	예전부터 농촌에서 살아 오면서 계승 발전되어진 문화능력을 몸소 체험하며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고 농촌 현장에서 그들이 살아온 생활의 지혜 및 삶의 역사를 몸소 체험 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농촌체험지도자를 통한 생업활동을 현대사회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구성
환경교육	점점 황폐해지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시민에게는 농촌의 중요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민 및 산악지역의 사람들에게는 환경의 중요성과 농촌 문화의 계승 및 발전 방향 모색
레포트	농촌 레포트의 개발과 운영을 목표로 하며 선조들의 놀이 등을 레포트와 연계하여 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모태로 삼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 보급

(2) 노인 교육

○ 농산어촌 지역은 대부분 노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으로서 인구의 많은 부분이 노인층으로 이루어져 있음.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시 노인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시 됨

○ 농산어촌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노인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학습욕구에 대한 전영역이 포함되어야 함.

○ 노인 프로그램 개발은 흥미와 욕구를 바탕으로 한 자발성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단순히 가르치기 보다는 실습하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함.또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우선시 되어야 함.

(a) 건강, 안전 학습

■ 올바른 식생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건강의 유지와 증진, 살기좋은 환경조성,

질병에 대한 이해와 예방, 정신적인 충실한 생활의 유지 등임.

구분	학습내용
올바른 식생활	즐거운 식사, 규칙적인 식생활, 균형있는 식사, 고령자용 요리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연령과 운동량과의 관계, 노화방지 스포츠, 건강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건강의 유지/증진	마음의 건강법, 질병예방
안전한 생활	고령자와 교통사고, 가정생활과 안전, 재해시의 대피
살기좋은 환경	살기좋은 지역환경

(b) 지식, 교양 학습

■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대응, 정보의 선택과 활용, 자기의 생활향상, 상상력 제고, 사는 즐거움 등임.

구분	학습내용
여가와 교양	정지/경제, 예술/문화, 오락/교양
정보	올바른 정보 습득
새로운 생활방식 발견	문화센터 활용
현대사회 이해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기능
고령자와 연금	연금 활용방법

(c) 가정, 사회 학습

■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고 밝은 가정 만들기, 차별과 편견없는 사회만들기,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기, 향토문화의 이해와 보존에 힘쓰는 향토애 기르기, 국제사회의 이해와 세계동향 자각하기, 국제적 감각을 기르기 위한 친선도모 등임.

구분	학습내용
일상생활과 자원	유한한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가족의 역할	가족관계
인권존중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원만한 인간관계	이웃과 교류
봉사활동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자연보호	자연보호, 자연이 주는 혜택 재인식
향토문화	토지문화 이해 및 활용
문화재 보호와 활용	문화재의 중요성과 그 활용방법
국제 이해	국제 경제문제 이해

(d) 취미와 오락 학습

■ 자신의 취미를 발견하고 보람있는 삶을 파악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설계하는 것임.

구분	학습내용
취미	자신에게 맞는 취미 인식
취미와 생활	취미생활
취미 신장	실제 취미생활
작품발표	취미활동을 통한 작품 만들기

7) 농산어촌지역개발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앞에서 언급한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기준으로 농산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함. 여기서는 농산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함.

(1) 농산어촌지역개발관련 프로그램 개설의 배경

■ 정부가 농업·어업 등 1차 산업과 이들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농산어촌을 발전시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삶을 추구하고 적정수준의 소득을 획득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전통테마마을사업, 오지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의 핵심 주체인 주민들의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의 육성 또는 일반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매우 시급한 실정임.

문화체험

창의적, 지적체험 : 제작실습체험(공예, 민예품, 김치 담그기)
 전통문화교육(다도교육, 예능교육, 건강교육)
 종교문화체험(무속신앙, 불교사찰체험 등)

생활체험

대인교류감 : 전통생활체험(청학동생활, 원시생활 등)
 농산어촌생활체험(농장체험, 각종 채집, 낚시체험,
 갯벌체험, 조개공예품, 굴따기 체험)

생태체험

자연친화감 : 관찰체험(갯벌체험, 조류체험, 민물고기체험,
 야생화체험, 환경체험 등)

모험체험

모험감 : 특이탐방체험(동굴체험, 오지체험 등)
 레포츠체험(트래킹, 래프팅, 번지점프,
 악자전거, 수상스키, 눈썰매, 등산 등)

특이체험

건강미용체험(전통한방의료체험, 미용체험,
 기공훈련체험, 썰매개체험)
 안보체험(병영생활체험, 안보유적지체험
 등)

[그림 6.5.3] 지역발전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예

■ 현재 농산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나 주민들의 능력부족으로 활성화도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이 시급함[그림 6.5.3].

(2) 농산어촌지역개발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법

(가) 농촌지역개발관련 리더쉽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시간
자기혁신 및 리더쉽 개발	○ 자기혁신 ○ 리더쉽 개발 ○ 농촌리더의 자세	워크숍, 토론 중심	2박 3일
농촌발전의 이해	○ 사회정세 읽기 ○ 농촌개발정책의 올바른 이해 ○ 농촌개발성공사례 견학 및 토론	특강, 토론 중심	2박 3일
우리지역의 가치발견과 미래비전 구상	○ 지역자원조사방법 ○ 어메니티의 중요성 및 자원화 방안 ○ 우리지역의 문제이해 및 가치 찾기	워크숍, 토론 중심	2박 3일

	○우리지역의 미래비전 구상하기		
기획력 개발	○변화하는 사회의 기획력 ○지역마스터 플랜 ○창의적인 기획서 작성	워크숍, 특강 중심	2박 3일
조직력 개발 및 파트너쉽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갈등관리 ○지역조직화 ○지역 파트너쉽 만들기	분임토론, 강의 중심	2박 3일
지역경영의 이해 및 지역가꾸기	○지역경영의 이해 ○지역 마케팅의 이해 ○지역가꾸기 비전제시	사례·과제 발표 중심	3박 4일

(나)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농산어촌 교육 프로그램

세부과정	주요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시간
1. 친환경 농촌지역 개발	○지역 자연환경의 관리와 보전 ○친환경 유기농업 ○생태건축의 이론과 실제 ○아름다운 주거공간 조성	특강, 사례 발표 중심	2박 3일
2. 농촌민박 경영	○농촌민박의 이해 ○농촌민박 기획·운영기법 ○고객관리 및 서비스	특강, 현장 실습 중심	2박 3일
3. 지역자원 발굴	○지역자원의 이해 ○지역자원 조사방법론 ○지역자원 활용방안	워크숍, 사례발표 중심	2박 3일
4.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 전략 및 기법 ○이벤트 기획·운영방안 ○브랜드 개발 및 트렌트 분석 등	특강, 사례 발표 중심	2박 3일
5. 마을경영 관리기법	○마을경영의 이해 ○분야별 경영관리·운영기법 ○회계관리실무	특강, 사례 발표 중심	2박 3일
6. 갈등관리기법	○갈등의 개념 및 유형 ○갈등조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기법 ○갈등해소기법 및 방안	특강, 사례 발표 중심	2박 3일 (합숙)
7. 향토자원의 개발 및 차별화	○농산물 가공 및 유통 ○향토특산물의 브랜드화 ○지역 향토음식의 개발 및 사업화	특강, 사례 발표 중심	2박 3일 (합숙)
8. 마을해설 가이드 과정	○농촌체험관광 및 농촌의 다원적 가치의 이해 ○마을해설 가이드의 의미와 역할 ○마을해설 및 의사소통(스피치)기법 ○서비스 관리(서비스 마인드) ○마을의 문화와 역사	특강, 사례 발표, 현장 실습 중심	3박 4일 (합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자원에 대한 이해 및 발굴 ○ 마을생활과 농촌체험관광 등 		
9. 체험활동 가이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체험관광 및 농촌의 다원적 가치의 이해 ○ 체험활동 가이드의 의미와 역할 ○ 지도력 개발 및 의사소통(스피치)기법 ○ 응급처치 등 상황대처요령 ○ 서비스 관리(서비스 마인드) ○ 체험활동과 이벤트 기획기법 ○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기법 등 	특강, 사례 발표, 현장 실습 중심	3박 4일 (합숙)
10. 마을사무장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체험관광 및 농촌의 다원적 가치의 이해 ○ 마을사무자의 의미와 역할 ○ 지역자원과 체험관광프로그램 ○ 홍보·마케팅 전략 및 기법 ○ 지도력 개발 및 의사소통기법 ○ 회계·고객관리 등 사무관리요령 ○ 지역마스터 플랜 작성 등 	특강, 사례 발표, 워크샵 중심	4박 5일 (합숙)

(다) 마을리더과정 교육 프로그램(초급)

교육과정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시간
21C 농촌의 생존전략	-농촌생존전략 및 마을리더로서의 서비스 리더쉽 이해	특강	1
리더로서의 이미지Check	- 자신의 이미지 분석	토론 중심	2
팀 빌딩	- 새로운 사고와 의식혁신을 위한 팀 빌딩	특강, 토론 중심	2
Business Manner	-마을 리더로서의 상황별 인사 및 생활예절	토론중심	2
리더로서의 나의 각오	-참가자들의 교육후기 발표 및 종합 정리	사례·과제 발표 중심	1

(라) 마을리더과정 교육 프로그램(상급)

교육과정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시간
농촌마을 변혁의 의미	-진정한 변화의 의미 -농촌조직 변화 사례	강의	2
인식의 시간 I	-새로운 농촌문화 창출	분임토의	2
사례연구	1.일본 선진사례 2. 국내 실패 사례	사례발표	2

인식의 시간 II	-환경돌러보기 -미래의 전망과 우리마을의 비전	분임토의	2
통합의 시간	-이해하기 -새로만들어 가기	분임토의	2
창조의 시간	-지속적인 성장하기	분임토의	2
혁신방안 도출	-진단결과 공유 -연구테마 원인분석 및 대안모색	분임토의	2
	지역마케팅과 과제	사례발표	2

(마) 그린투어리즘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시간
그린투어리즘	그린투어리즘의 개념과 지도자 역할	강의	2
자원활용	지역농업은 네트워크 시대 지역 자연환경의 관리와 보전	강의, 토론	3
친환경과 관광	친환경오리쌀과 농촌관광 농촌계획과 지속가능한 발전	강의, 토론	3
홍보 및 마케팅	향토 특산물 브랜드화 홍보, 마케팅 전략 기법 인터넷 마케팅 전략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강의, 토론	4
프로그램 개발	그린투어리즘과 사업계획 수립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의, 토론	3
법과 회계	전자상거래법 및 농업회계 농업관련 세무 마을보험과 위기관리	강의	3
우수마을 방문	전자상거래 우수사례 마을 방문	전학	4

(바) 친환경 유기농업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시간
친환경농업 현황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친환경농촌개발의 올바른 이해	강의	3
친환경기술	퇴비제도 및 사용방법 친환경적 잡초방제 친환경 유기농업 생물제제의 종류 및 사용방법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 실습교육 작물양분 종합관리	강의, 실습, 토의	8
정보화 활용	정보화와 전자상거래 이용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강의, 실습	3
친환경 홍보 및 효과	친환경농산물 홍보의 주요기능 및 방법	강의	3

	친환경농업의 효과		
전학	친환경유기농업 선도농가 전학(채소 등) 친환경 유기포도 재배농가 실습 및 전학	전학	10

(사) 자연자원 및 농업자원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 농산어촌에 많이 분포하거나 존재하고 있는 자연자원, 농업자원, 임업자원 그리고 수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따라서 농산어촌지역에 있는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이와 같은 배경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산어촌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프로그램과 운영방법을 제시함.

과정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시간
자연자원 활용형	풀피리 및 버들피리 만들기 풀모자 및 풀가면 만들기 천연염식 만들기 계곡얼음썰매타기 잔디썰매타기	강의, 실습	각 30-60분
농산물 활용	영농체험하기 전통음식만들기 짚풀문화체험하기	강의, 실습	각 30분
전통문화 및 기타	장치기놀이 제기차기, 새총놀이 종이배띄우기 땅따먹기 체험	강의, 실습	각 30분

a) 체험목적별 교육 프로그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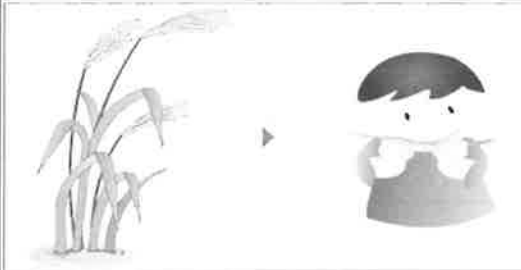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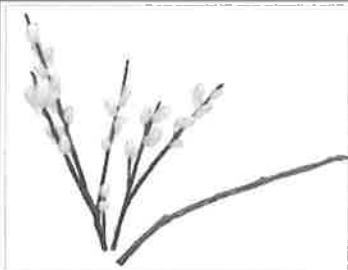
■ 체험목적별로 보면 농산어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에는 영농을 중심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 생태, 농산물 가공, 레포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

구 분	프로그램 내용
영농체험	오리입식, 모내기, 옥수수 심기, 고추심기, 고추 따기, 옥수수 따기, 가을걷이, 허수아비 만들기 및 허수아비 세우기, 감자 캐기, 고구마 캐기, 씨앗파종, 나무심기, 콩 심기, 들깨심기, 가을걷이, 흑염소 농장체험, 과일수확(한방 배, 거봉포도), 버섯채취, 축산농가 체험 등
생태체험	다슬기 잡기, 민물고기 잡기, 산채나물 채취, 메뚜기 잡기, 인진 숙 채취, 약초 채취, 밤 줍기, 반딧불이 관찰, 야생화 관찰, 갯벌, 조개소품, 굴따기, 낚시 등
농산물 가공체험	천연염색, 한지염색, 도자기 체험, 탁본뜨기, 흙벽돌 찍기, 여치 집 만들기, 새끼 꼬기, 달걀 꾸러미 만들기, 허수아비 만들기, 장작패기, 톱질하기 등
농공체험	메주, 된장, 두부 만들기, 산야초 효소 만들기, 떡 만들기 등
레포트	전래놀이, 놀이 장터, 민속놀이, 미션임파서블, 잃어버린 별들을 찾아서, 놀이 아카데미, 래프팅, 서바이벌, 농촌들녘탐사, 들꽃기행, 래프팅, 놀이장터, 헌팅 게임, 산악자전거, 윈드서핑, 수상스키 등

b) 계절별 농산어촌체험 프로그램 내용


구 분	프로그램 내용
봄	산나물 채취(고사리, 취 등), 표고버섯 재배, 나무심기, 배꽃, 야생화 축제, 씨앗 파종, 못자리 설치, 고구마 심기, 고추 심기, 마늘 수확, 감잎차, 뽕잎차, 냉이, 단감·포도적과, 매실 파종 및 이식체험, 소 논갈이(쟁기질) 체험, 다랭이논 만들기, 시골 운동회, 낚시 등
여름	오리농법, 모내기, 메기 잡기, 감자 캐기, 옥수수 따기, 참치, 산나무 열매 채취, 밤낚시, 표고버섯 채취, 배추 수확, 감자 수확, 연꽃 축제, 영두 축제, 고추 따기, 래프팅, 반딧불이 관찰, 돌탑 쌓기, 인진 숙 채취, 토마토 따기, 봉숭아물들이기, 수박 따기, 수박 축제, 조개 잡이, 갯벌, 굴따기,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가을	고구마 수확, 벼 베기, 단풍놀이, 메뚜기 잡기, 허수아비 축제, 밤 줍기, 도토리 줍기, 머루, 다래, 느타리 버섯 채취, 우렁이 잡기, 배 수확, 거봉 수확, 빨간 고추 따기, 코스머스 축제, 흙데질, 도리깨질, 논 미꾸라지 잡기, 으름 따기, 여치 집 만들기, 조개공예 만들기 등
겨울	야생동물관찰(토끼몰이 등), 약차 만들기, 박 공예, 목공예, 빙어 낚시, 논두렁 썰매타기, 김장담그기, 벚꽃공예(가마니 짜기, 짚신 만들기, 새끼 꼬기), 눈사람 만들기, 연날리기, 팽이치기, 정월 대보름 놀이, 윷놀이, 횃불놀이, 복소리 만들기, 김장김치 담가 땅속에 묻기, 쥐불놀이, 논두렁 불 지르기, 재래식 된장, 고추장 담기, 깃고사, 지계나무 하기 체험, 전통한과 만들기, 염소몰이, 달집 찾기, 조개공예 만들기 등
상설	달구지 체험, 농촌 레포트, 장승 깎기, 인진 숙 제조 가공, 축산 농가 체험, 문화 유적기 탐방, 산야초 만들기, 대나무 공예, 대통술 담기, 별자리 여행, 별 관측, 압화 액자 만들기, 손 자수, 시골 운동회 등

(a) 풀피리 및 버들피리 만들기 체험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 농산촌형

구분	체험내용	비고
체험개요	산이나 하천에 자라고 있는 풀을 이용하여 피리를 만들어 자연의 가치를 느끼게 되면서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놀이 문화를 제공함.	
체험시기	봄	
체험대상	어린이, 청소년 포함 가족단위	
체험장소		
준비물	풀, 버들나무 가지	
참가비용	무료	
운영방법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 1;">  </div> <div style="flex: 1; padding-left: 10px;"> <p>풀피리 : 풀잎을 하나 떼어 입술 사이에 대고 부는 것도 재미있음. 입술 사이에서 나오는 공기의 떨림으로 풀잎이 흔들리면서 내는 소리가 아이들에게 신기하게 느껴지며, 재미있게 놀면서 풀잎과 즐거움을 만져보면서 식물의 특성을 배우게 됨.</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 1;">  </div> <div style="flex: 1; padding-left: 10px;"> <p>- 버들피리 : 5월~6월경, 버드나무 껍질이 잘 벗겨질 때, 잎이 붙은 자국이 없는 줄기 한마디를 5~6cm길기로 자름. 두들겨서 목질부와 껍질부분이 분리함. - 껍질만 벗겨냄(불고자 하는 길껍질부분의 벗겨낸 길이가 어떤지에 따라 다양한 소리의 높낮이를 갖는 피리가 만들어짐).</p> </div> </div>	
체험담당자	체험담당 전문위원	

(b) 풀모자 및 풀가면 만들기 체험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 농산촌형

구분	체험내용	비고
체험개요	산에 있는 나뭇잎을 연결하여 모자와 가면을 만들어 각종 놀이를 할 수 있게 함	
체험시기	여름, 가을	
체험대상	어린이, 청소년 포함 가족단위	


체험장소		
준비물	나뭇잎, 꽃챙이	
참가비용	무료	
운영방법		<p>- 풀가면의 경우 산속에 있는 나뭇잎을 이용해 즉석 가면놀이를 하는 것으로 먼저 자기 얼굴과 비슷한 나뭇잎을 찾아봄. 엄마는 길쭉한 나뭇잎, 아빠의 커다란 나뭇잎, 아이들은 동그랗고 작은 나뭇잎을 골라 각자의 얼굴에 대고 눈, 코, 입을 뚫어봄. 그리고 각자의 가면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를 소개함. 즉석에서 가면을 바꿔서 역할놀이를 하는 것도 재미있음.</p> <p>- 풀모자 만들기는 큰 잎을 이용하여 모자를 만들고 이를 쓰면 햇빛을 차단하거나 비가 올 때 쓰면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음.</p>
체험담당자	체험담당 전문위원	

(c) 천연염색 만들기 체험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 농산촌형


구분	체험내용	비고
체험개요	<p>권역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염료를 사용하여 천연염색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 자연염료는 계열별 분류방식 외에 매염제와 염액 추출방법에 따라 적-황, 황-녹계열이 교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자연염료의 성분과 매염제의 결합이 빚어내는 다양한 화학적 반응의 차이에 있음. 따라서 자연염색의 색감구현 가능성은 작업자의 노력에 따라 무한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색상 표준화, 염색과정 표준화 작업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p>	
체험시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체험대상	어린이, 청소년 포함 가족단위	
체험장소		
준비물	<p>색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색계: 쪽 - 적색계: 쪽두서니, 홍화, 소목, 코치닐, 자초 - 황색계: 치자, 허브, 오배자, 소나무, 밤나무, 정향, 괴화, 홍화, 빈랑, 황벽, 황토, 감 - 녹색계: 쪽, 허브, 갈대 - 흑색계: 먹물, 정향, 숯, 오리나무 	

참가비용	10,000원/인	
운영방법	<p>- 홍화씨를 따뜻한 물에 넣어 색소를 우려냄. 이 우려낸 물에 염색하고자 하는 면조각을 한시간정도 넣어두었다가 꺼내서 탈수시킴(실로 부분적으로 묶어서 넣어두어도 됨) 건조시킨 후 비누칠을 하지 말고 물에서 빨아 다시 건조시킴.</p> 	
체험담당자	체험담당 전문위원	


(d) 눈썰매타기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 농산촌형

구분	체험내용	비고
체험개요	· 겨울철 농한기때 권역을 방문하는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겨울철 프로그램	
체험시기	겨울철	
체험대상	유아, 학생(초.중.고), 가족단위	
체험장소		
준비물	외발스케이트/얼음썰매	
체험비용	2,000원/인	
운영방법	<p>-외발스케이트의 유래, - 외발 스케이트 타는법 시연, - 얼음 썰매장으로 이동, - 썰매 축구 및 썰매타기 경주</p> 	
체험담당자		


(e) 잔디썰매 및 물썰매 타기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 농산촌형

구분	체험내용	비고
체험개요	·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풍산개 테마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잔디를 활용한 잔디썰매와 잔디에 물을 흘려내려 이용하는 물썰매 체험을 할 수 있게 함	
체험시기	여름철	
체험대상	유아, 학생(초.중.고), 가족단위	
체험장소		
준비물	썰매	
체험비용	1,000원/인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눈썰매와 같은 형태로 운영 - 잔디썰매 및 물썰매 타는 법 시연 - 잔디위에 물을 흐르게 함(물이용 썰매인 경우) - 잔디썰매 및 물썰매 타기 체험 및 잔디썰매타기 	
체험담당자		

(f) 전통음식 만들기(청국장, 두부)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 농산촌형

구분	체험내용	비고
체험개요	· 권역에서 수확한 콩을 이용해 두부와 청국장을 만드는 체험	
체험시기	청국장 : 가을, 겨울 두부 : 연중	
체험대상	학생(초. 중. 고), 여성	
체험장소		
준비물	콩, 된장 등	
체험비용	5,000원/인(식사포함)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부 및 청국장 만드는 방법 알기 - 청국장과 순두부 만들어 먹기 	
체험담당자		


(g) 짚풀 문화체험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 농촌형

구 분	체 험 내 용	비 고
체험개요	· 벼의 부산물인 짚풀을 이용하여 생활공예품을 제작하는 체험 · 밀, 보리, 수수깁을 이용한 공예품 제작	
체험시기	연중	
체험대상	유아, 학생(초. 중. 고), 가족	
체험장소		
준비물	짚풀, 밀짚 보리짚, 수수깁, 노끈, 글루건 등	
체험비용	2,000원/인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동과 수냉이, 그리고 인형의 눈을 준비함 - 짚풀꼬기 등 기본 교육을 함 - 1시간동안 자신의 작품을 만들 - 작품 완성후 전시 혹은 가져감 	
체험담당자		

(h) 장치기놀이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 농산어촌형

구 분	체 험 내 용	비 고
체험개요	·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중의 하나인 민속놀이로 장치기는 편을 나누어 진행하고 각각 공채로 장치기공을 쳐서 멀리 보내는 놀이임.	
체험시기	연중	
체험대상	학생(초.중.고), 일반, 가족단위	
체험장소		
준비물	공, 공채	
체험비용	무료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나누기(1팀 2~3명) - 중앙선 가운데에서 심판이 공을 똑바로 던져 떨어지는 공을 차서 멀리 보내기 	
체험담당자		

(i) 땅따먹기 체험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농산어촌형

구분	체험내용	비고
체험개요	과거 우리 선인들이 즐거운 놀이로 땅에 대한 친숙함,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배어있는 놀이	
체험시기	연중	
체험대상	유아, 학생(초. 중), 가족단위	
체험장소		
준비물	·적당한 크기의 돌 준비 ·내모 모양의 평평한 크기 평면 땅 	
체험비용	무료	
운영방법	- 2-3 사람이 순번을 정하여 승부방식으로 진행 - 잘하는 참여자에게 특산물 제공	
체험담당자		

(j) 갯벌탐사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 어촌형

구분	체험내용	비고
체험개요	‘숨 쉬는 땅, 갯벌’ 드넓은 갯벌에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체험시기	연중	
체험대상	유아, 학생(초. 중), 가족단위	
체험장소	바다 갯벌	
준비물	장화(운동화), 수건, 모자, 삽, 양동이, 여벌의 옷, 장갑, 간편한 옷차림, 필기도구, 카메라	
체험비용		
운영방법	- 갯벌 체험학습의 방법설명, 체험학습 시작(갯고둥의 살림살이와 갯지렁이, 바지락 등 갯벌 생물들과 철새 관찰 -신발과 양말을 벗고 갯벌을 맨발로 걸음) - 갯벌의 가치 및 저서생물, 염생생물 그리고 철새들의 이름과 생활상 등 교육,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 -갯벌 부근의 물웅덩이, 갯바위에 붙은 생물을 관찰하도록 하고 잡은 생물은 바다로 돌려보냄	
체험담당자	어촌계 리더	

(k) 해맞이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 어촌형

구 분	체 험 내 용	비고
체험개요	일출을 보며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심신을 단련시키도록 함	
체험시기	신년 초(연중)	
체험대상	유아, 학생(초. 중), 가족단위	
체험장소	해맞이 가능한 곳	
준비물	· 카메라, 수건	
체험비용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신청자로 제한 - 일출 20분 전까지 차량을 대기시켰다가 집결한 관광객을 태우고 해변으로 이동 - 해변에서 자유롭게 일출을 맞도록 함 - 진행자는 정치망 고깃배 이동을 고려하여 행사 진행 	
체험담당자	어촌계 리더	

(l) 조개공예품(소품)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 어촌형

구 분	체 험 내 용	비고
체험개요	파도에 밀려와 모래위에 있는 조개를 주워 목걸이, 장식품 등 예쁜 공예품(소품)을 만들도록 함	
체험시기	연중	
체험대상	유아, 학생(초. 중), 가족단위	
체험장소	해수욕장, 해변	
준비물	카메라, 각종 조개 껍데기, 바닷풀, 공예 도구	
체험비용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소품의 대상을 결정(예, 사람 표현) - 하얀 조개로 얼굴을 만들고 말린 바다풀로 머리카락을 만듦. - 조개의 색깔과 모양을 고려하여 치마와 모자를 만듦 - 모래알이나 작은 고동을 활용하여 신발을 만든 후 이를 가마에 넣어 구어냄 	
체험담당자	어촌계 리더	

(아) 이미지 개선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 : 사진촬영 프로그램(공통형)

a) 배경 및 필요성

- 농산어촌개발에 따른 각종 계획서 작성의 시각적 효과의 중요성 대두
- 농산어촌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고유의 차별적 체험프로그램 홍보의 필요성이 부각
- 가족사진 촬영으로 가족간의 화합 및 친척간의 친목 도모
- 직업 경쟁력, 취미, 교양 배양 및 지역 문화 발전 향상
- 지역 사회에 봉사 기회 확대

b) 목 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대한 기본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가족간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사진을 통하여 이미지를 강화하게 하며,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관광객들에게 보다 한 차원 높은 차별적 방법을 모색하게 하기 위함.

c) 프로그램 운영 추진 세부 계획

① 교육목표

- 지역의 리더들은 물론이고 낮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부들과 정년퇴직자, 노인들에게 사진의 전반적인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취미와 전문지식 배양.
- 전문적인 심화 교육을 통하여 지역리더로 육성할 수 있게 함.
-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함.

② 학습대상자 확보계획

- 반사회, 시군 및 읍·면 홈페이지, 관내 시설 및 복지회관,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사진 촬영 강좌에 대하여 홍보
- 학교의 학부모회, 사설 학원의 학부모회를 통하여 홍보
- 지역신문과 생활 정보지를 통하여 홍보

③ 강의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㉑ 강의계획

- 기간 : 17주 과정으로 실시
- 시간 : 매주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 내용 : 사전에 대한 기초이론에서 전문지식까지 전 과정

㉒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강의방법	강사	비고
1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강사	
2		카메라개론 : 사진의 의미	이론	강사	
3		카메라 앵글	이론	강사	
4		노출의 개념 및 측정법	이론	강사	
5		적정노출	야외 학습	강사	
6		플래쉬의 구조 및 동조	이론	강사	
7		인공광원의 종류 및 효과	이론	강사	
8		촬영렌즈와 배경간의 관계	이론	강사	
9		자연과 풍경사진	야외학습	강사	
10		실습 : 흑백필름 촬영	이론 및 실습	강사	
11		이론 및 토론	이론 및 토론	강사	
12		슬라이드 및 칼라필름 촬영	이론 및 실습	강사	
13		실습(작품 촬영)	실습	강사	
14		실습(작품 촬영)	실습	강사	
15		사진의 활용방법	이론 및 실습	강사	
16		전시회 준비	실습	강사	
17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	-	강사	

④ 강사 확보 수준 및 확보 계획

- 지역의 전문 사진관 사진사 및 지역대학 사진반 학생 투입

⑤ 강의방법

- 기초적인 사진 이론 강좌와 실습 병행, 야외 촬영 병행

⑥ 학사관리 계획

- 별도의 출석부를 만들어 관리
- 기관의 사진 촬영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
- 지속적인 연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⑦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

- 기초과정 후 심화 과정의 재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로서 소질을 계발 할 수 있도록 함.
- 관내 시설(고아원, 양로원, 노인복지회관) 등에 정기적인 자원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는 기쁨과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기함.
- 수강생간의 친목 도모 통하여 낙오자가 없도록 힘씀.
- 평생학습관이 생활 속의 교육기관이란 인식을 심어 줌.

d) 예상 소요 경비

순위	사업명	시기	비용(원)
1	- 강사료	수시	40,000원×16회 = 640,000
	- 지역정보수집	2회	25,000원×2회 = 50,000
2	- 전시회 및 수료식	1회	500,000
	- 문구류 구입	수시	250,000
	- 소모품 구입	수시	200,000
3	- 예비비		200,000
계		-	1,840,000

e) 기대 효과

- 한 차원 높은 지역개발계획 수립, 가족간 화합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 관내 각종 시설의 행사 시 사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음.
- 낮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부들과 정년 퇴직자의 교육을 통하여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음.
- 작품 발표회 등을 통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하며 자아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음.

f) 신청양식

*로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입력 하십시오.

신청자*

연락처* - -

우편번호* -

주소*

상세주소*

e-mail

체험행사 종류*

신청일* (예) 2004-12-12

참가인원 명

남기실말

(자) 봉사체험 아카데미 과정 : 공통형

a)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변화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안겨준 반면에 물질만능주의사상의 팽배, 만연된 과소비, 퇴폐적인 사회환경 등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의 변화와 함께 공동체의식과 상부상조의 전통이 사라지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음
- 대인관계의 소원, 이타주의의 무의미함 등의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정체감 확립과 사회성 개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개인적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봉사활동을 통해 교육의 장을 넓힐 수 있음.

b) 목 적

- 본 프로그램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성 함양과 열린 마인드 계발에 중점을 둬.
-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자원봉사동아리를 만듦.
- 봉사활동을 생활화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 삶의 보람을 체득할 수 있게 함.
- 자신의 존재 의미와 자기존중, 환경에 대한 고마움과 공동체의식을 깨닫게 하여 환

정보전의 참의미를 깨닫게 함.

c) 프로그램 운영 추진 세부 계획

① 교육목표

- 봉사체험 활동은 철저한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형식 운영.
- 개별 활동, 가족동반, 동아리 활동,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함.
-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올바른 사회참여의 방법과 삶의 보람을 찾도록 함.
- 토론을 하여 전문을 넓히고 의사결정능력을 제고토록 함.

② 학습대상자 확보계획

- 정보에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함.
- 학교의 가정통신문을 적극 활용.
- 지역 유선방송 및 생활정보지를 이용하여 홍보.
- 플랜카드를 붙여 미리 홍보.
- 실제 봉사활동 장소에 가서 흠어져 있는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홍보.

③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강의방법	강사	비고
		-봉사체험 학습(사회복지시설)	강의, 실습		
		-봉사체험 학습(자연보호)	강의, 실습		
		-봉사체험 학습(지역사회)	강의, 실습		
		-분임 토의 및 평가	-		

④ 강사 확보 수준 및 확보 계획

-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책임자를 교체 투입하는데 필요한 부서의 인원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유선 통화하여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함.
- 지방대학의 교수 중 강사 위촉

⑤ 강의방법

- 주된 수업 방법은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움직이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

며, 봉사체험 활동반 교육의 방법은 몇 가지 원리를 적용하여 실시함.

- 봉사활동은 시간과 노력 기술의 금전 기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내포된 가치개념임.
- 이웃에 대한 이해와 감사, 일에 대한 책임감,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어우러져 내면화 될 수 있는 봉사활동.
- 봉사활동은 자발성, 이타성과 공익성, 무급성, 지속성이 원칙임.

⑥ 학사관리 계획

- 프로그램 실시 매시간 출석 점검.
- 봉사활동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자택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물어 다음 시간에는 참석토록 함.
-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파악하여 지역의 주요 행사가 있을 경우 가이드 및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⑦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

-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도록 동아리를 형성하여 다양한 심화과정 프로그램으로 재교육을 실시.
- 자연보호 봉사체험 학습은 기관에서 하는 자연보호 운동과 연계시키고 계획성을 갖고 꾸준히 지속되도록 활동.
- 다양한 학습 경험의 제공과 참여 의식 고취 및 학습공동체 의식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영역의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여 정규 프로그램 외에 수시로 모여 관심 분야 자원봉사 동호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d) 예상 소요 경비

순위	사업명	시기	비용(원)
1	- 강사초빙	수시	50,000원×5회 = 250,000
	- 지역정보수집	2회	25,000원×2회 = 50,000
2	- 도서구입	수시	150,000
	- 신문잡지구입	수시	200,000
	- 문구류 구입	수시	250,000
	- 소모품 구입	수시	150,000
3	- 수료식	프로그램 종료	200,000
4	- 예비비		100,000
계			1,350,000

e) 기대 효과

-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이해시킴.
-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소속감 제공.
- 성취감 고취로 자신감 높임.

(차) 전통집짓기체험 아카데미 과정 : 산촌형

a)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전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통가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과거 우리 조상들의 주거문화를 이해시키고 그들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함.
- 가족단위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가족커뮤니티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b) 목 적

-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집을 짓는 과정을 이해시켜 주거공간이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함.
- 대가족 중심의 가구가 핵가족화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집짓기를 통하여 가족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함.



c) 프로그램 운영 추진 세부 계획

① 교육목표

- 체험 대상 건물의 모형을 제시하고 체험을 통하여 제작하도록 함.
- 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집짓는 과정을 이해시키.
- 현대와 과거 우리 조상의 주거문화를 이해시킴.
- 농촌체험마을과 연계시켜 체험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② 학습대상자 확보계획

-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를 통하여 홍보를 함.
- 주민자치센터 및 각종 평생교육기관을 통하여 홍보.
- 지역 유선방송 및 생활정보지를 이용하여 홍보.

③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강의방법	강사	비고
		- 집짓기 소개	이론 강의		
		- 모형 견학	견학		
		- 모형만들기(전통한옥, 움막집, 초가집 등)	이론, 실습		
		- 사진 촬영	-		

④ 강사 확보 수준 및 확보 계획

- 전통집짓기 전문기술 보유자, - 지방대학의 교수 중 강사 위촉

⑤ 강의방법

- 초기에는 집짓기에 대한 일반적 내용 소개
- 모형으로 제작된 집 견학 : 강사가 집에 대한 전체 체험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 집짓기가 완성되면 사지 촬영을 하고 기념으로 가져가게 함.

⑥ 학사관리 계획

- 프로그램 실시 매시간 출석 점검, - 집짓기 체험 수료증 수여.

d) 예상 소요 경비

순위	사업명	시기	비용(원)	비고
1	- 강사초빙 - 지역정보수집	수시 2회		
2	- 도서구입 - 신문잡지구입 - 문구류 구입 - 소모품 구입 - 재료구입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3	- 수료식	프로그램 종료		
계		-		

e) 기대 효과

- 전통가구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전통가옥과 현대 건축에 대한 차이점 이해
- 체험활동을 통하여 산촌문화의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 커뮤니티 강화의 계기 마련.

(하) 숲 안내자 양성과정 : 산촌형

a)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각종 쓰레기 문제 등의 공해교육 위주로 발달하였음
- 자연을 대상으로 특히 나무와 숲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체험 환경교육이 필요한 때임.
- 현장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은 특정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생태계의 총체적인 유기적 관계를 이해시키는 데에서 출발해야 함.
-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가족 중심의 여가 활용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로 가족과 함께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

b) 목 적

- 숲의 기능과 숲의 중요성을 알도록 함.
- 인간의 생활과 숲의 관계 이해.
- 숲의 보전에 대한 원인.



c) 프로그램 운영 추진 세부 계획

① 교육목표

- 살아있는 환경교육 체험의 장 제공.

- 직접 참여하는 체험교육을 통해 감수성 증진.
-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존중의 마음을 교육.
- 단체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가족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숲의 역할
- 숲 가꾸기의 효과와 숲의 미래상 이해.

② 학습대상자 확보계획

- 각 지역별 부녀회에 홍보물을 돌림.
- 아파트 단지 내에 플랜카드를 붙여 홍보.
-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거나 가정통신문을 활용.
- 지역 유선방송 및 생활정보지를 이용하여 홍보.

③ 강의계획서

- 기간 : 3개월 과정 주 1회씩 실시
- 시간 :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 내용

회차	일시	프로그램 내용	강의방법	강사	비고
		숲의 의미	이론 강의		
		숲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강의		
		숲 현장체험	실습		
		숲가꾸기 방법	실습		
		산행과 숲	실습		

프로그램 내용은 숲이란 무엇인가, 숲이 주는 혜택, 카메라로 숲의 모습 담기(광고산 등반), 팔달산 및 수원 화성 순례, 숲 가꾸기 1일 현장 체험(태화산 시범림 방문), 광릉수목원 탐방, 학교숲 가꾸기 우수학교 방문, 월출산 야간 산행, 밤하늘 별자리 찾아 보기, 지역

④ 강사 확보 수준 및 확보 계획

-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
- 강사는 필요에 따라 섭외.

- 임학분야 전문가

⑤ 강의방법

- 자발성의 원리를 적용함. 숲을 제대로 알고 환경에 관심을 가지도록 함.
- 통합화의 원리를 적용. 학습 내용을 일상 생활로 연결되게 함.

d) 예상 소요 경비

순위	사업명	시기	비용(원)	비고
1	- 강사초빙	수시		
	- 숲 정보수집	2회		
2	- 자료구입	수시		
	- 소모품 구입	수시		
	- 재료구입	수시		

e) 기대 효과

- 숲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이해할 수 있음.
-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변화.
-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찾고 건전한 인격 형성에 도움.
-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음.

8) 교육프로그램 프로파일 양식

프로그램명					
--------------	--	--	--	--	--

교육대상		기간	주(시간)	시기	주간, 야간 주중, 주말
------	--	----	----------	----	------------------

☎ 프로그램 필요성과 목적

--

☎ 프로그램 유형

교육분야	교육대상

☎ 프로그램 내용

1차		7차	
2차		8차	
3차		9차	
4차		10차	
5차		11차	
6차		12차	

☎ 프로그램 수준

기초단계	중간단계	전문단계	비 고

☎ 프로그램 운영상 특이사항

교육강사		
교육시설		
기자재 활용		
홍보마케팅		

☎ 프로그램 기대효과

--

☎ 기타관련 정보

--

[그림 6.5.4] 프로그램 프로파일 양식

9) 운영 시 고려사항

(1) 관련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 필요

■ 커뮤니티센터 관련 담당자들이 센터의 위상 및 역할을 잘 알고 있더라도 그에 걸맞는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기울여야 함. 일반적인 교육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 교육과 실천, 실천에 따른 평가와 재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순환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함.

- 첫째, 센터관련 위원 및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적절한 역할이 부여되고, 그 역할에 대해서는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 함.
- 둘째, 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발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역할이 보장되어야 함.

(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역할부담이 필요함.

■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할을 만들고 그에 적합한 주민들에게 그 역할을 하도록 하며, 그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최대한 권한책임을 부여해 주어야 함.

■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단순히 지시에 따른 업무보다는 다양한 활동들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배분해 주는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함.

■ 또한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할 경우 지역의 다양한 단체나 자원등과 연계함으로써 다른 단체나 자원들이 지역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함.

10)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제약조건 및 개선방안

■ 지금까지 농산어촌지역에 설치되어 있거나 향후 설치될 커뮤니티센터의 지역별 프로

그램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실제 제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존재하고 있음.

■ 먼저, 제시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농산어촌지역개발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 및 운영능력 측면에서 각자의 지역개발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교육을 시키는 데는 상당한 기간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둘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불리한 점이 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지금 농산어촌은 고령화 심화되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교육대상이 되는 주민 대부분이 도시지역과는 달리 자가용을 활용한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부분 도보나 버스를 이용하고 있음. 도보의 경우 거리가 멀 경우 고령층의 경우 힘든 이동수단이 될 수밖에 없고, 버스의 경우도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배차간격이 넓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의 활동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특히 지역단위로 커뮤니티 관련시설들이 존재할 경우 다른 곳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용주민들의 입장에서 위치나 이용방법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없어 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셋째, 안정적인 센터 운영조직이 시스템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음.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주민의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나 하는데 이는 농산어촌지역의 대표자(이장) 선출과 맞물려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 왜냐하면 지역의 대표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센터가 운영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센터는 지역 대표자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이 일반적으로 센터의 운영주체와 지역 대표자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넷째, 지역간 커뮤니티시설의 비형평성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의 경우 지방 재정 능력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상주인구와 비교하여 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읍·면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의 이용률 및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의 시행 및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 다섯째,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함은 물론 운영을 위한 전문가가 부족한 것도 센터의 발전에 결정적인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농산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문화/취미/복지 및 스포츠/댄스, 건강 부문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음.

핵가족화, 노령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대 등 최근의 사회경제 추세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선호하고 새로운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커뮤니티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편임.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 일반 도시적 커뮤니티의 특성과는 달라야 하지만 프로그램의 운영이 지역 특성에 맞고 수요에 맞춰가는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 여섯째, 프로그램의 유형이 개인 중심으로 이는 농산어촌의 커뮤니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현재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별적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근 주5일 근무제 및 수업제 등의 도입으로 가족단위의 여가활동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변화를 프로그램 운영에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가 없고 정부지원이 없기 때문임.

■ 일곱째, 농산어촌지역에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의 상이, 프로그램의 연계성 및 통합성 부족 등이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현재 농산어촌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읍·면이상 단위를 최소단위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여기서 일반소양교육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은 지역평생학습관이나 여성회관, 복지회관, 시민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농림어업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어 평생교육프로그램이 각각 시행주체가 달라서 프로그램간 연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합성이 부족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조직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고 있음.

■ 이상의 몇 가지 요인들이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를 지연시키거나 제약하고 있어 이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농산어촌지역은 앞으로 더욱더 어려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따라서 커뮤니티센터의 제약요인이 제거되고 커뮤니티센터의 프로그램이 정상화되고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되어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 첫째, 장기적이면서 정기적인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임. 농산어촌 주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1회성 교육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농산어촌 주민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함.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주민들이 자신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투자를 증대하는 경향이 있어 개인적 지적 수준은 제고되고 있으나 농산어촌개발에 필요한 주민의 참여, 운영 등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산어촌주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하나의 대안으로 하나의 시·군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동일 경제권 및 생활권으로 구분된 시·군(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커뮤니티센터에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 시행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함.



[그림 6.5.5] 단계별 교육 추진과 성과

■ 둘째, 마을에서 커뮤니티센터간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농산어촌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지역간 접근이 어렵고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여도 주민들의 나이가 고령이어서 커뮤니티센터까지 이동하는 것이 상

당히 어렵기 때문에 불편한 접근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읍·면단위 이상의 커뮤니티센터로 교육을 받으려 가는 경우는 평생학습전용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기존의 통합초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학교버스를 이동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다른 하나의 수단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 기초마을단위에서 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가능한 마을까지 이용하여 교육하는 방문프로그램이나 원격화상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하면 농산어촌 주민 중 이동이 불가능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셋째, 커뮤니티센터가 마을의 대표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현재 많은 지역에서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들이 마을 대표자가 바뀌면 센터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표자의 의지에 따라 센터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읍·면 이상의 커뮤니티센터는 대체로 운영위원회가 있어 그나마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기초단위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향후 시설의 비효율적 운영이 예상되므로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대표자가 교체되어도 센터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게 하여야 함.

■ 넷째,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측면에서 형평성이 달성되거나 격차가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표 6.5.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상 커뮤니티센터 관련 내용

구 분	사업내용	목표(2009년)	비 고
복지기반 확충	-여성농업인센터 -在家노인복지센터	163개소 202개소	
지역개발 촉진	-농산어촌마을종합개발 -정보화마을 확대 -인적자원개발(리더육성)	651개 권역 781개소 2,500명	농촌:276개, 어촌:187개, 산촌: 188개 (1,000개 권역)
복합산업 활성화	-농산어촌 체험관광마을 -도농교류 활성화	687개소 6,000건	시군당 5개

자료 : 농림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에서 재정리

〈표 6.5.4〉 1단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6개 권역의 투자비 규모
(단위 : 백만원)

부문별	주 시설	계	1단계			2단계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소계	4차년도	5차년도
총사업비	계	855,339	630,817	309,579	230,294	90,943	224,522	103,528	120,994
공사비	계	758,085	553,143	272,454	204,579	76,110	204,942	94,613	110,329
기초생활	소계	60,310 (7.1)	47,369 (7.5)	21,704 (7.0)	16,673 (7.2)	8,991 (9.9)	12,942 (5.8)	7,062 (6.8)	5,879 (4.9)
	도로	31,436	24,828	11,770	8,868	4,190	6,608	3,095	3,513
	상하수도	8,659	7,033	2,714	2,519	1,799	1,626	857	769
	주택	5,514	4,004	1,527	1,463	1,014	1,510	1,510	0
	기타	14,701	11,504	5,693	3,823	1,988	3,197	1,600	1,597
문화·복지	소계	126,443 (14.8)	97,182 (15.4)	45,675 (14.8)	38,926 (16.9)	12,581 (13.8)	29,261 (13.0)	15,054 (14.5)	14,207 (11.7)
	문화	41,738	32,463	14,634	12,746	5,083	9,276	5,564	3,712
	복지	84,705	64,720	31,042	26,180	7,498	19,985	9,490	10,495
소득기반	소득기반	165,730 (19.4)	118,268 (18.7)	61,957 (20.0)	44,567 (19.4)	11,743 (12.9)	47,462 (21.1)	20,824 (20.1)	26,638 (22.0)
농촌관광	관광	142,368 (16.6)	102,748 (16.3)	48,002 (15.5)	40,100 (17.4)	14,647 (16.1)	39,620 (17.6)	18,740 (18.1)	20,880 (17.3)
경관시설	경관	94,362	67,585	35,439	22,914	9,232	26,777	11,589	15,188
환경시설	환경	35,653	24,348	11,354	8,644	4,350	11,305	5,003	6,302
운동·휴양	소계	44,250 (5.2)	29,102 (4.6)	15,859 (5.1)	8,648 (3.8)	4,595 (5.1)	15,148 (6.7)	6,490 (6.3)	8,658 (7.2)
	운동	15,322	9,107	5,194	2,238	1,675	6,215	2,915	3,300
	휴양	28,928	19,995	10,665	6,410	2,920	8,933	3,575	5,358
재해시설	소계	8,505	6,141	3,182	2,840	119	2,364	1,419	945
	생산기반	3,742	2,597	1,532	1,065	0	1,145	897	248
	재해	4,763	3,544	1,650	1,775	119	1,219	522	697
S/W사업	소계	80,464 (3.0)	60,400 (3.0)	29,281 (2.9)	21,267 (2.8)	9,852 (3.4)	20,064 (3.1)	8,432 (2.8)	11,632 (3.4)
	교육·훈련	25,599 (30.5)	18,643 (30.8)	9,132 (29.9)	6,449 (32.1)	3,062 (30.6)	6,957 (29.7)	2,859 (28.8)	4,098 (30.3)
	홍보	24,555 (37.7)	18,605 (38.3)	8,766 (38.9)	6,821 (37.6)	3,018 (38.3)	5,950 (35.7)	2,429 (37.3)	3,521 (34.5)
	마을 운영	30,310 (31.8)	23,153 (30.9)	11,383 (31.2)	7,997 (30.3)	3,772 (31.1)	7,157 (34.7)	3,144 (33.9)	4,013 (35.2)
제 경비	소계	97,254	77,674	37,125	25,715	14,833	19,580	8,915	10,665

자료 : 76개 권역 투자비를 재정리한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로 볼 때 시·군간 또는 읍·면당 재정지원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센터가 정상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으면 일정기간 동안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농림부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과 관련된 계획<표 6.5.3>에 따르면 2009년까지 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내용만으로 농산어촌지역의 커뮤니티센터를 활성화데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05년까지 추진된 76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계획규모는 855,339백만원이며, 이 중 농산어촌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된 부문인 문화복지 투자비 규모는 126,443백만원으로 권역당 1,1664백만원 수준이며, 농촌관광 투자비 규모는 142,368백만원으로 총투자비의 16.6% 수준으로 권역당 평균 1,873백만원 수준이며, 운동·휴양시설에는 44,250백만원이 계획되어 있어 5.2%수준으로 커뮤니티센터 기능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하드웨어적 투자비는 총 313,061백만원으로 권역당 4,119백만원 수준으로 권역 총투자비 평균 11,254백만원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시설물을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투입될 투자규모는 80,464백만원으로 총투자비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권역당 평균 1,058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투자수준은 절대금액측면에서 부족할지 모르나 과거와 없었던 투자방식이 도입되고 있어 실제 사업의 효과측면에서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단위는 물론이고 권역단위에서도 농산어촌의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도입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섯째, 녹색체험마을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정보화시범마을사업 등 농산어촌의 마을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어촌관련 개발사업에 의해 입지되고 있는 시설 즉, 기초단위인 마을중심의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에서는 농촌관광에 필요한 소양교육, 지역자원 활용교육 등 소규모 마을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마을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고, 경제권이나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은 권역개편을 도입하여 한 차원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최소화되게 하여야 함.

<표 6.5.5> 마을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부사업

사업명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자연생태우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정보화시범마을사업											
팜스테이											
소도읍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 하드웨어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 →				

- 권역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센터 기능(안성의 경우 도농교류센터)을 수행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안성시 풍산개 테마공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이에 대한 교육은 마을 현지에서 풍산개를 활용하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단위인 마을에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체험종목은 open race, sprint 그리고 weight full 등 3종류로 하고 이벤트로 자견 달리기를 실시하여 인간과 개가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권역특화상품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권역 및 지역 활성화를 유도함.

- open race는 개의 마리 수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는 트랙에서 진행되는 개썰매의 운동임.

- sprint는 1 dog 혹은 2 dog을 이용한 단거리 개썰매 종목으로, 1 마리의 dog이 하는 종목과 2 마리 dog이 하는 종목으로 구분하고 1 dog은 300cm, 2 dog은 600m를

달리게 함.

- skijoring은 원래 말이 스키였으나, 현재는 개가 끄는 스킨 스키조링이라 함. 즉 개가 스키를 탄 사람을 끌고 가는 운동을 말하는데, 1 마리 혹은 2 마리 dog이 썰매를 끄는 것으로 300m 거리를 달리게 함.

- weight pull은 처음에는 암수 견종 불문의 테스트였으나 현재는 체급별로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경기에 이용하는 개는 견종불문, 암수 불문 또는 견종 구분, 암수 구분 등 다양한 형태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체중을 기준으로 45kg 이상인 무제한급(heavy), 35kg 이상 45kg 미만인 중량급(middle) 그리고 35kg 미만인 경량급(light) 등 3 종류로 구분하여 실시함.

- 자견달리기는 풍산개 중 강아지를 안고 달리는 종목으로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함.



[그림 6.5.6] 풍산개테마공원의 체험 프로그램

- 풍산개 체험 프로그램은 당일체험, 1박 2일 체험 그리고 2박 3일 체험 등 3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함.

◎ 1박 2일 프로그램

-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상품, 영농체험 등 농업과 관련된 상품, 풍속놀이 및 기타 체험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1박 2일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첫째 날은 “만남의 날”로 풍산개 마을에 도착을 하여 정심식사를 하고 여는 마당에서는 1박 2일간 체험 상품과 시설물 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오후 4시부터 6시 까지 첫 번째 체험활동을 하는데 이는 계절별 특성에 맞게 체험상품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6시부터 7시 30분까지 2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저녁식사는 풍산개 마을에서 생산된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음식을 먹고 저녁 9시 30분부터 10분 40분까지는 풍산개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농촌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화합의 마당을 운영함.

시간	만남의 날	석별의 날
~ 06:30	안성맞춤 풍산개마을 도착	기상 및 침구정리
~ 07:10		세면 및 생활점검
~ 07:50		맑은 공기와 산책
~ 09:00		아침
~ 10:00		체험활동 III
~ 11:00		숙소정리 및 퇴소
~ 12:00		
~ 13:30	맛있는 점심시간	석별의 식사
~ 15:00	여는 마당 및 생활안내	집으로 출발...
~ 16:00	체험활동 I	
~ 18:00	체험활동 II	
~ 19:30	마을특화 음식먹기	
~ 21:30	화합의 마당	
~ 22:40	생활점검 준비	
~ 23:00	꿈나라로	

- 둘째 날은 “석별의 날”로 아침에 일어나 정리를 하고 공원 또는 계곡풀장내에 있는 산책로를 산책하면서 농촌의 맛을 느끼게 하고 아침식사를 한 다음 마지막 체험활동을 한 후 숙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품을 운영하도록 함.

◎ 2박 3일 프로그램

- 2박 3일간 체험프로그램은 1박 2일 상품에 비하여 체험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기술이 요하는 상품으로 구성하고 체험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함.

- 첫째 날은 “만남의 날”로, 둘째 날은 “다짐의 날”로 명명하여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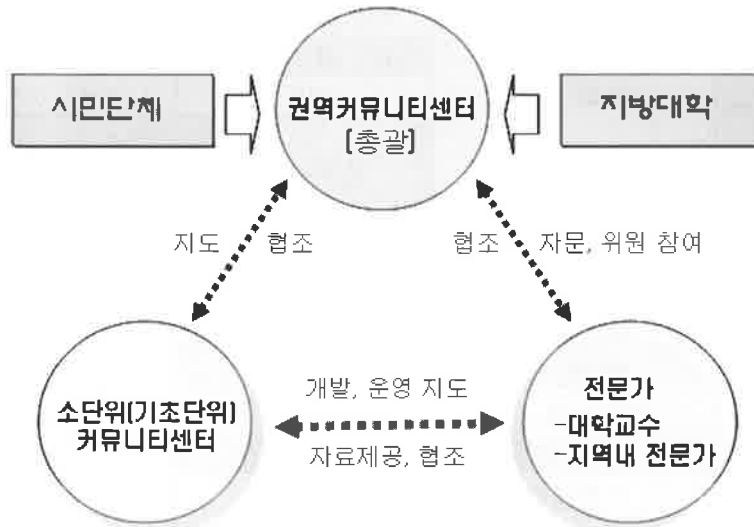
이 자신들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다짐의 날”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은 “석별의 날”로 하여 다시 이곳을 방문할 수 있는 여운을 남기도록 함.

시간	만남의 날	다짐의 날	석별의 날
~ 06:30	안성맞춤 풍산개 마을 도착	기상 및 침구정리	기상 및 침구정리
~ 07:10		세면 및 생활점검	세면 및 생활점검
~ 07:50		맑은 공기와 산책	맑은 공기와 산책
~ 09:00		아침	아침
~ 10:00		체험활동 III	체험활동 V
~ 11:00			
~ 12:00			숙소정리 및 퇴소
~ 13:30	맛있는 점심시간	맛있는 점심시간	석별의 식사
~ 15:00	여는 마당 및 생활안내	체험활동 IV	집으로 출발...
~ 16:00	체험활동 I		
~ 18:00	체험활동 II		
~ 19:30	마을특화 음식먹기	마을특화 음식먹기	
~ 21:30	화합의 마당	추억의 시간	
~ 22:40	생활점검	생활점검	
~ 23:00	꿈나라로	꿈나라로	

■ 여섯째, 현재 농산어촌 주민은 물론 평생교육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개인위로 시행되고 있어 커뮤니티 형성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은 물론 커뮤니티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야 하며, 가족단위 혹은 동호회단위의 여가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함. 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족 및 동호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처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운영할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 일곱째,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가 자체적으로 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 현실임. 일반소양과제의 강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문분야를 개설할 때는 더욱 어려움이 따르게 됨. 따라서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에 와서 지방대학과 지역내 기업(기관)과 산학협동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학문적 측면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대학이 많지 않고 설사 시행되고 있어도 개별 교육과정에 국한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적임.



[그림 6.5.7] 1센터-1전문가 연계 시스템

- 그러므로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가 중심이 되면서 지방대학의 전문분야 교수들을 참여 시키고 아울러 시민단체의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도 대학 교수나 지역내 전문가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전문가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즉, 1커뮤니티센터와 1전문가를 연계한 “1센터 1전문가 연계 시스템” 구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1단계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또는 농촌진흥청이 시행하고 있는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지구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중기적으로 1,000개 기초권역으로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전국을 동일 생활권으로 설정된 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VII. 요약 및 결론

VII. 요약 및 결론

■ 앞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평생교육 및 학습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의 현황, 평생 학습도시의 추진과정과 결과, 그리고 평생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유형별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음.

■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평생교육의 실시는 공공교육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교육기관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서로 연계를 갖고 추진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강사를 구하는 문제나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중 학습도시의 현황과 추진결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현황과 활용 유형, 농산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농산어촌에 부합하는 교육모델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앞에서 2001년 이후 연차별로 조성된 평생학습도시의 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각 도시가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서로 상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여건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음.

■ 평생학습도시 추진 현황과 추진 결과를 보면, 먼저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현황은 평생교육예산의 경우 지자체별로 다양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예산 투입에 작용하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지자체장의 사업에 대한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각 도시의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평생교육 예산 총액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규모면으로 볼 때 대도시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평생교육 예산이 대체로 컸으며,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예산 규모가 작은 곳은 평생교육예산 투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인구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데도 평생교육 예산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기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둘째, 평생교육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지자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음. 특히 평생교육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지자체 자체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는 인력과 평생교육센터에 배치된 인력으로 볼 수 있음. 전체 도시의 평생교육센터에 배치된 인력을 보면 많은 인원이 배치된 곳은 광명시평생학습원과 금산군 다락원이며, 이천시는 평생교육사를 신규채용하여 지자체 평생교육센터와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였음. 그러나 담당자 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되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곳도 많았음.

셋째, 사업추진 의사결정 및 평생교육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음. 협의회의 구성원은 해당지자체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지자체 관계자,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장 및 단체 대표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가,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넷째, 평생교육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하였음. 대부분의 도시들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전반적 추진과 관련된 내용과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섯째, 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항목을 보면, 대부분의 도시에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으나 시·군 홈페이지에 포함되어 있고 금산군만 별도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음. 정보 인프라 관리예산은 일부 도시에서 책정·운영하고 있으나, 종합정보망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부천시를 제외하고는 평생학습기관과 프로그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학습 기회를 실질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추진 결과 측면에서 보면, 삶의 질 향상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는 각 도시의 평생교육시설 수 증가, 학습 동아리 수 증가를 보면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시설 증가를 보인 도시는 안동시와 이천시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의 증가를 보면, 창원시, 제주시, 관악구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평생학습 동아리 수에서는 비교적 많은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 도시는 광명시, 순천시, 부천시, 전주시, 철곡군, 관악구임.

둘째,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효과를 창업교육 프로그램, 학습결과물의 상품화, 학습프로그램의 상품화를 통하여 보면,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운영된 도시는 목포시이며, 전주시, 관악구에서도 많이 운영되었음. 학습결과물의 상품

화 실적이 있는 도시는 안동시, 전주시, 창원시, 칠곡군이고, 학습프로그램을 상품화한 도시는 전주시와 칠곡군임. 학습으로 인한 결과물을 상품화하고, 학습프로그램 자체도 상품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례가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음. 따라서 실제 학습도시 사업이 지역성장에 어느 정도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셋째, 인적 자원 개발 측면에서 보면, 지역 지도자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는 광명시, 순천시, 해운대구, 연수구, 거창군, 칠곡군이며, 평생학습 자원봉사자 수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많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도시는 안동시, 금산군, 전주시, 관악구임. 또한 평생학습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도시는 부천시, 전주시, 순천시, 관악구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각 도시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 인적자원 개발 관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넷째, 사회통합 측면에서는 시민성 고양 프로그램,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지역 사랑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시민성 고양 프로그램은 안동시, 광명시, 거창군, 이천시, 목포시, 전주시에서 실시되고 있고,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광명시, 순천시, 연수구, 전주시, 칠곡군, 관악구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었음. 또한, 지역 사랑 프로그램은 광명시, 해운대구, 서귀포시, 순천시, 안동시, 전주시 등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이상에서 학습도시의 추진현황과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나 도시지역의 학습도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크고 운영이 활발한데 반해 농산촌을 배경으로 하는 학습도시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1999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현황과 프로그램 유형을 보면, 2006년 현재 전국에 2,53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대상의 70.6%가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1단계 대상인 동지역의 경우는 1,685개소로 설치대상의 99.5%가 완료되어 대부분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2단계 읍·면(동)지역의 경우 847개소가 설치되어 평균 44.7%의 설치률을 보이고 있음. 특히 2단계의 경우 농산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는 설치대상이 전혀 없는 시·군이 있어 향후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격차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설치대상이 없는 시·군의 경우도 농산촌 주민의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2006년 현재 전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는 총 26,110건으로 센터 1개소당 약 10.3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의 센터에서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으나 농산촌지역의 센터는 수강생 모집문제, 실제 운영상 문제, 강사모집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26,110건의 유형별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5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시민교육(17.1%), 지역복지(8.4%), 주민자치(7.7%)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산촌 주민들을 위한 전문교육은 거의 없는 실정임. 강원도의 경우 총 529건의 프로그램 중 농산촌 현지를 찾아가는 방문프로그램이 36건으로 6.8%에 불과한 수준임. 따라서 농산촌 주민들의 평생교육 강화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의 토대인 커뮤니티 형성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동안 지역의 많은 일을 해 온 시민단체와 더불어 지역공동체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과의 올바른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성과 더불어 주민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기회를 확장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주민자치의 실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으로 각 센터는 자신의 역할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임 .

■ 어떤 사업을 하던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음. 사람을 발굴하고 사람을 연계시키며 교육할 수 있는 단위로써의 주민자치센터는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여 주민자치의 기반인 커뮤니티 형성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함. 또한 2007년 7월부터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므로 주민들의 복지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동사무소가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개편되면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이 담당해야 할 복지영역도 넓어질 것임.

■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된 곳은 이미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복지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적인 성격은 정치권력의 통치를 위한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를 위해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기구를 지향하는 제3의 성격을 갖고 있음. 그러므로 주민자치센터는 제3섹터 조직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특성인 민간적이고, 비영리적이고, 자원적이며, 자치적인 성격들을 강화시켜 나가야 함.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능력있고 봉사정신이 강한 활동적인 주민을 발굴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함.

■ 이상에서 평생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도시, 주민자치센터, 농림부 및 각종 교육관련기관의 평생교육을 살펴보았음. 평생교육의 시행주체에 관계없이 농산촌 주민들이 도시민 못지않게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아 보다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하에서는 농산촌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 지역대학의 교수들은 지역 평생교육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농산어촌관련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둘째,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우수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풀제를 운영하도록 함. 이것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이나 학교, 주민자치센터, 복지기관 등에서 요청을 할 경우, 프로그램과 강사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되도록 함.

셋째, 농산어촌지역에 있는 각종 문화유산이나 향토자료 및 경쟁력 있는 자연자원을 주민들에게 학습 자원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예로,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문화원, 대학의 관련학과 등에서 공동으로 향토바로 알기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지역에서는 시설·기관이 어떠한 명칭으로 운영되든 간에 많은 시설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될 경우, 추진하는 기관에 상관없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현실성 있게 강구되어야 함.

■ 결국 농산촌 주민들이 양질의 교육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행정기관, 지역대학, 지역의 시민단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지역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농산촌을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농산촌의 평생교육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결국 지역주민의 의식수준 향상, 지적 수준의 제고를 통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국가발전의 지름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또한 농산촌 평생교육이 가능할 수 있게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하여 외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100개 평생학습도시의 조성, 농림부가 전국의 마을 중 1,000개 권역을 설정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농산어촌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이나 농촌진흥청이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까지 전 농촌 지도기관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 기타 교육기관이나 주민자치센터, 지역학습관 등 농산어촌 주민들과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대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주체들간 네트워크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지금까지의 논의되고 제시된 대안을 토대로 하여 농산어촌지역의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첫째, 농산어촌지역의 커뮤니티센터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시적이거나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만약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문화, 예술, 건강관련 일반 교육 프로그램과 농촌지역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개설하여야 함.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교육 내용으로는 농어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현재의 읍·면·동 커뮤니티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은 주로 비농어민들로 실질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읍·면 커뮤니티센터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님. 따라서 정부는 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적 지원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둘째, 읍·면에 위치한 커뮤니티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현재 커뮤니티센터의 교육은 극히 일부에서 전문강사가 맡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농산어촌지역의 커뮤니티센터는 도시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 강사들이 이들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하는 강사대우로는 강사나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지역과는 다른 강사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이는 결국 재정지원 제도로 귀착될 수 있을 것임. 또 다른 방법의 하나는 인근지역의 지방대학의 분야별 교수를 전문강사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재 1촌 1전문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의 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따라서 정부는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이것이 결국 농산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될 것으로 판단됨.

셋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시간의 문제임. 이는 현재와 같은 제도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함. 프로그램의 개설은 도시지역이나 비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리가 없으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농번기인 경우 거의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번기인 경우 야간에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 경우 강사들의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넷째, 앞의 교육시간과 더불어 중요한 다른 하나는 농번기인 경우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농어민들이 영농을 마치고 저녁식사 시간을 고려하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방문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소는 복지회관, 노인정 및 기타 시설을 이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지역은 시설을 보완하거나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지막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농촌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마을은 농어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농산어촌지역의 주민들의 자아개발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어 결국 주민 삶의 질이 향되는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농산어촌지역의 커뮤니티센터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①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강사풀제 등을 통한

전문강사에 대한 지원방안, ② 농산어촌지역의 커뮤니티센터는 그 특성상 도시지역과는 차별적 운영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지원, ③ 야간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보험지원, ④ 방문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⑤ 농산어촌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 추진과정에 이들 지역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대한 옵션 및 지원 등이 당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고지희·김정태(2005),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연구, 장안총서 25(1), 197-241. 장안대학
- 고혜원(2004),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의 운영형태별 성과분석, 행정농촌 42(2), 115-145.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 평생교육백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내부자료(2005), 대학평생교육원 현황자료.
- 권대봉(1998), 산업교육론, 서울: 문음사
- 권두승(1999),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분석을 통한 성인교육 참여율 제고방안, 서울: 교육부
- 권성호·유재택(2001), 사이버 교육체제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권순복(2001).읍. 면. 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
- 권오정 외 3인, 새천년 주거복지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의 활동프로그램 제안, 대한가정학회지:제39권 8호, 2001.
- 김기홍(2001), 평생교육기관 운영 실태 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만희(2003), 노인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이론적 접근, 지역사회개발학회지, 제13권 No.1.
- 김만희 외 1인(2000), 한국 평생교육센터 역할정립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과 일본의 평생학습제도와 체제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학회지 제10권.
- 김수일·유혜경(1982). 사회교육기관 실태조사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종섭(2004),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삼척대, 농림부
 _____(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권역활성화계획수립.
 _____(2006), 의야지마을중장기발전계획, 평창군
 _____(2006), 내설악 남교선녀마을 중장기발전계획, 인제군
- 김진화(2002),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태준(2002),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분석-제주지역 대학 평생교

- 육원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상영(1999), 동의 기능전환의 과제, '시정연구(대구광역시)'. 19:5-28
- 김필두(2002),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하계 학술대회논문집.
- 강은숙(2002), 주민자치센터의 현황분석과 향후 과제-군포시 사렐르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12(4): 243-261.
- 남정걸·최운실 외(1998), 지역사회교육 활성화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교육부.
- 문화관광부(2004), 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 서울: 문화관광부.
- 박용란(200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동기 및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태준(2001).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 강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홍순(2000),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네트워크 토론회 논문집'.
- 배성의, 농촌지역의 지역정보센터운영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개발학회, 제22권 1호, 1997.
- 백은숙(2002), 성인 학습자를 위한 초·중학교 학력인정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변종임(2003), 서울지역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변조임 외(2005),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운영실태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보건복지부(2003), 사회복지관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5), 노인복지시설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 심익섭(2002),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2):33-53.
- 이강우 외 2인(2004), 주민자치센터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가 커뮤니티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제43권 제5호.
- 이창수 외 1인(2003), 지역사회공동체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 지역사회개발학회지, 제13권 No.1.
- 이해주의(2003), 평생교육사 양성교육 현장실습지침서, 서울: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이현청(1993), “한국 성인교육의 실상과 미래지향적 발전 과제”에 대한 토론, 교육학연구31(4). 한국교육학회.
- 이수경(2001),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웹기반 교육훈련 발전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의규고혜원(2004). NGO의 교육훈련사업실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희수(2000),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유지 및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2), 생애단계별 평생교육실태조사 분석 및 평생교육 기초통계 자료 확보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유네스코 아·태지역사무처편(1987).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 세미나.
- 유병립 외 3인(1996), 정주공간 구성을 위한 커뮤니티설계 모형 연구 -조건불리지역 산촌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Vol.2, No.2.
- 유영만(2001), 평생학습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혁진(2002), 시민단체부설평생교육의 현황과 과제(비발표논문).
- 열린사회시민연합(2000),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이영주민, 자치위원,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
- 울산광역시(2002),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개발 연구.
- 자치센터 풀뿌리네트워크(2001) ‘2001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자료집’ (<http://www.grassroot.net/>).
- 전원보(2001),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방안,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0집호.
- 전인식외(2003). 평생교육전용공간 설비의 정보화 및 인텔리전트화 모델 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순관·조선일(2001),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평가와 과제: 전라남도 읍. 면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2):335-356
- 정일섭(2001),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4): 47-73 주민정종식, 평생학습사회에서의 노인교육, 한국노년학회지 제6권, 1997.
- 정철모(2003), 농촌교육여건 활성화를 위한 도농간 교육교류 프로그램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학회, 제28권2호.
- 조석주·박기관(2002),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도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6(1): 201-220

- 조석호·최운실(1986), 평생교육 진흥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재순 외 3인(2001), 커뮤니티센터 모델 개발을 위한 동사무소 시설 및 프로그램 분석, 대한가정학회지:제39권 4호.
- 조진일(2002), 초등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을 고려한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대학원.
- 조희욱(2001), 평생학습계획 체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연구 제7권 2호.
- 차성수(2000), 시민사회의 변화와 주민자치센터-community governance 의 매개체로서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네트워크 토론회 논문집
- 최근열외(2001),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 최근열(2002),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대구광역시 복구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0(2): 135-165
- 최근열·장영두(2002), 주민자치를 위한 지역공동체로서 아파트 공동체의 형성가능성과 강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2): 159-180
- 최근열(200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분석과 발전방안-울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4(1): 141-168
- 최운실(1997),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정무 제2장관실.
- 최운실 외(2005), 평생교육 기관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충청북도(2002),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연구.
- 행정자치부(2002),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집, 서울: 행정자치부.
- 회돈민(1999), 평생교육요구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3), 서울시 평생학습관 운영실태 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3), 평생교육 지표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7). '읍·면·동의 기능전환 방안(1)
- _____ (1999),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행정자치부
- (1999). 읍·면·동사무소기능전환 기본계획
- _____ (2000.10), '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추진 지방자치단체 수법사례집'
- _____ (2001.9) '1단계 동기능 전환 추진실태 종합점검 관련 시·도별 연구과제 및 사례 발표'
- _____ (2001.12),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추진 지방자치단체 수법사례집'(제2집)
- _____ (2002.3.7),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
- _____ (2002.3.7),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준칙 (개정)
- _____ (2002.9), 전국 주민자치센터운영 현황집.

- Boone, Edgar J. 권두승, 김미숙 공역(1997), 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론, 교육과학사.
- Boyle, Patrick (1981), Planning Better Program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Daltrop, Anne(1987). Politics and European Community, London: longman .
- Haeberle, William D (1987). Neighborhood Ldentity and citizen . A dministation & Society, 19(2).
- Hallman, Howard W.(1987). Neighborhoods, London: Sage .
- Hillery, G. A(1995). Defintion of Community, Rural Sociology. Vol.20
- Illich, I.(1970). Deschooling society. New York: Harper and Row.
- Long, H. B. (1983), Adult learning: Research and Practice, Cambridge: The Adult Education Company.
- Mee & Wiltshire(1978). Structure and performance in adult education. London: Longman.
- NCES(1992), 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nterpreting the Adult Literacy Scale and literacy Levels, Washington: NCET.
- Paulston, R.G. & Altenbaugh(1988), Adult Education in Radical US Social and Ethnic Movements: From Case Studies to Typology to Explanation' in Lovett, T(ed), Radical Approaches to Adult Education: A Reader, London: Routledge.
- Schroeder, W.L.(1980), 'Typology of Adult Learning Systems', In J.M. Peters and Associates, Building an Effective Adult Education Enterprise, San Francisco: Jossey-Bass.
- http://www.oecd.org/news_and_events/reference/nw96-7a.htm